언론사: 경향신문-1-2.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자에 뷰티 노하우 전수해 ‘희망 메시지’  
날짜: 2017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8201507003  
ID: 01100101.20171228201507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08년부터 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일상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br/><br/>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총 128명의 유방암 환자 중 69.5%는 심각한 정도의 탈모를, 55.5%는 가슴 변화를, 50.8%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이 캠페인에는 2017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1만2342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802명의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또한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지역을 확대해 2017년까지 10년간 총 6개국 1만4028명의 여성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다. 이 캠페인은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 및 아모레퍼시픽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주요 36개 지역 병원에서 총 769명의 카운슬러가 1264명의 여성 암 환자를 만나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br/><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 중인 여성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자들이 캠페인에서 배운 것을 일상으로 돌아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환자를 위해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브로셔가 담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되었다.

언론사: 경향신문-1-3.txt

제목: [부산시]부산 베이비부머 30% “은퇴 후 귀농·귀촌하겠다”  
날짜: 20171228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8095513001  
ID: 01100101.20171228095513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부산에 사는 1955~1963년 출생 베이비부머 가운데 70%는 은퇴 후 부산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귀농·귀촌을 희망했다.<br/><br/>부산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맞춰 세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시 베이비부머 통계’를 개발해 28일 발표했다.<br/><br/>부산의 베이비부머는 56만 2270명으로 부산시 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 수는 23만 4476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41.7%에 그쳤다.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베이비부머가 소유한 주택 수는 29만 775가구로 부산시 전체 주택의 26.6%에 달했다. 주택소유자의 91.1%가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베이비부머 인구 중 고혈압·당뇨병 등 11대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모두 38만 2564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68.0%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암 진단을 받은 베이비부머 가운데 남성은 위암이 2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유방암이 3624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br/><br/>베이비부머의 85.7%는 노후에 자녀와 떨어져 단독생활하기를 희망했고 76.7%가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는 식료품 구매가 42.4%로 가장 높았다. 귀농·귀촌은 30.1%가 희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은퇴 후에도 부산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부산시는 베이비부머 통계자료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건강증진사업, 50+생애 재설계대학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txt

제목: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7224909001  
ID: 01100101.20171227224909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ㆍ2018 황금개띠 해, 뭐가 달라지나<br/><br/><br/>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다.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57만원대다. 병사 월급과 예비군 훈련비 등이 오르는 등 장병 복지도 개선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로 인상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br/><br/>새해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4월부터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시행돼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에게 간식으로 제철과일이 지원된다. 7월부터는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br/><br/> <br/><br/> <br/><br/>▶법인세 최고세율 25%<br/>세금·금융<br/><br/><br/>■소득세 최고세율 인상<br/><br/>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상향된다.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아진다. <br/><br/>■법인세 최고세율 인상<br/><br/>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된다. 2009년 3%포인트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9년 만에 환원되는 것이다.<br/><br/>■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br/><br/>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농어민의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br/><br/>■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br/><br/>내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줄어든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br/><br/>■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br/><br/>현재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모두 연 24%로 내려간다.<br/><br/><br/>▶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br/>노동·복지<br/><br/><br/>■최저시급 7530원<br/><br/>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br/><br/>■일자리 안정자금 지원<br/><br/>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br/><br/>■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br/><br/>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br/><br/>■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br/><br/>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br/><br/>■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br/><br/>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br/><br/>■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br/><br/>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br/>▶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유<br/>법<br/><br/><br/>■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br/><br/>1월7일부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br/><br/>■이혼 후 낳은 자녀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br/><br/>지금은 이혼 후 낳은 자녀의 아버지가 전 남편이 아니어도 전 남편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2월1일부터 이혼 후 300일 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간이 허가 절차를 거쳐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br/><br/>■도로 외 ‘물피 뺑소니’도 처벌<br/><br/>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남의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마친 뒤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상권 내몰림 방지 <br/><br/>상권주체 간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현행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에 관한 특례적용, 대규모 점포·대형프랜차이즈 등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br/><br/><br/>▶보육료 지원액 2.6% 인상<br/>교육·보육<br/><br/><br/>■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br/><br/>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비용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br/><br/>■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br/><br/>1월부터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 된다.<br/><br/>■보육료 지원액 인상<br/><br/>보육료 단가가 올해보다 9.6% 인상된다.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는 2.6% 인상된다.<br/><b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br/><br/>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다.<br/><br/>■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br/><br/>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16만2000원으로 오른다.<br/><br/>■중·고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br/><br/>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br/><br/><br/>▶신혼부부 대출 금리 1.70%<br/>부동산·주택<br/><br/><br/>■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br/><br/>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 붙는다.<br/><br/>■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출시<br/><br/>1월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되는데, 대출금리가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낮아져 1.70~2.75%대가 된다.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임차보증금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우대금리도 1.2~2.1%대로 낮췄다.<br/><br/>■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br/><br/>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다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br/><br/><br/>▶도서·공연비도 30% 소득공제<br/>문화<br/><br/><br/>■문화생활 소득공제 확대<br/><br/>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br/><br/>■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br/><br/>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현행 연 6만원에서 연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br/><br/>■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시행<br/><br/>중장년층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국가가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br/><br/>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명이 우선적용 대상이다.<br/><br/><br/>▶병장 월급 40만원으로 껑충<br/>국방<br/><br/><br/>■병사 급여·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br/><br/>1월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의 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뛴다. <br/><br/>■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br/><br/>1월부터 여군의 보직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군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br/><br/>■직업군인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br/><br/>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2월부터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br/><br/>■군 경력증명서 발급<br/><br/>2월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증명서에는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기간 등이 담겨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br/><br/><br/>▶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본 표기<br/>공공행정<br/><br/><br/>■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br/><br/>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된다.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이 비치된다.<br/><br/>■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br/><br/>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해당된다.<br/><br/>■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본상 표기<br/><br/>다문화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도 다른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br/><br/>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br/><br/><br/>▶친환경 선박에 10% 보조금<br/>농수산<br/><br/><br/>■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 과일 <br/><br/>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br/><br/>■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br/><br/>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으로 추가된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br/><br/>■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br/><br/>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 보조금을 지원한다.

언론사: 경향신문-1-5.txt

제목: [여적]돌리, 스너피, 룽룽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7211906004  
ID: 01100101.201712272119060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96년 7월 영국의 이언 윌멋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복제한 새끼양에게 ‘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의 팝스타 돌리 파튼의 이름에서 땄다. 돌리 이전에도 동물복제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수정란을 이용한 ‘생식세포 복제’였다. 수정란이 분할하면 그 세포를 분리해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주입한 뒤 같은 개체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저 인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를 만드는 격이었다. 쌍둥이일지언정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br/><br/>윌멋 연구팀은 양(羊)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탈핵난자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다른 양의 유선(젖샘) 세포에서 꺼낸 핵을 탈핵난자에 옮겨 심었다.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핵과 난자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얻은 수정란을 277번째 만에 대리모 역할의 암양 자궁에 착상시켰다. 마침내 맨 처음 핵을 얻은 양과 똑같은 새끼양이 태어났다. 복제에 쓰인 ‘양의 유선 세포’에서 글래머인 돌리 파튼의 이름을 연상했다니 여성의 신체를 성의 도구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성장이 끝난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의 피부, 머리카락 등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 소와 쥐, 돼지의 체세포 복제가 이어졌다.<br/><br/>2005년 황우석·이병천 서울대 교수팀이 세계 최초의 복제개인 ‘스너피’를 탄생시켰다. 서울대(Seoul National University)와 강아지(puppy)에서 딴 이름이다. 개는 난자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란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동물복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로 여겨지고 있었다. 사람과 같은 질병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의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당뇨병이나 파킨슨병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사이 마약탐지견이나 인명구조견, 경비견, 반려견까지 복제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최근 서울대팀은 10년을 살고 암으로 죽은 스너피를 다시 복제한 재복제견을 만들었다.<br/><br/>그런데 중국에서는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쉽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개를 한번 더 복제한 개(룽룽·龍龍)를 탄생시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거야말로 너무 나갔다. 아무리 사람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복제했다고 하지만 ‘동맥경화 복제견’이라니 기분이 영 언짢다.<br/><br/><이기환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1-6.txt

제목: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로 28억 가로챈 유명 치과의사 구속 기소  
날짜: 20171227  
기자: 유희곤·정대연 기자 hul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7170325001  
ID: 01100101.2017122717032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를 만들어 유통하거나 직접 시술하고 투자금 28억여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br/><br/>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치과원장 겸 임플란트업체 ㄱ사 대표 황모씨(52)를 의료기기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괄이사 등 ㄱ사 임원 3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br/><br/>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2월~2017년 10월 제조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시용’ 또는 ‘수출용’ 허가만 받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일반용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850명을 상대로 무허가 임플란트 4500개를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br/><br/>또한 황씨는 전국에서 강연회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치과개원의 10명에게 2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공정상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 175건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br/><br/>검찰은 지난해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하다가 황씨의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황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원바디(일체형)-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분리형)-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는 황씨가 근거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황씨의 면허자격정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br/><br/>황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까지도 일부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방송광고를 제작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해외업체 포함 80개사가 경쟁하고 있다.<br/><br/>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황씨 및 ㄱ사의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병원 및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유통 중인 무허가 임플란트의 수거와 사용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br/><유희곤·정대연 기자 hul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txt

제목: 소 한 마리, 이불, 희망 엽서로…“힘내세요”  
날짜: 20171226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6220741001  
ID: 01100101.20171226220741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ㆍ부산, 연말 이색 이웃돕기 <br/>ㆍ대학 후배들 위해 소 기부 <br/>ㆍ독거노인에 이불 한 채씩 <br/>ㆍ입원 환자에 엽서 보내기<br/><br/>부산·경남에서 다양한 연말 이웃돕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br/><br/>지난 22일 경남 김해 인제대에서는 특별한 기부행사가 열렸다. 이 대학 법학과 졸업생 차지현씨(33·여)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후배들을 위해 내놓은 발전기금의 전달식(왼쪽 사진)이었다. 발전기금은 현금이 아닌 소 한 마리. 소를 교정까지 몰고 올 수 없어 전달식은 사진으로 대체했다. <br/><br/><br/><br/>차씨는 “소의 근면함을 배우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후배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소를 기부했다”고 말했다.<br/><br/>지난 19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1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찾아 이불을 전달하고 있었다.<br/><br/>이불을 받은 한 어르신은 “이불이 오래되어서 숨도 죽고 낡았는데 바꿀 형편이 아니라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극세사 이불세트를 받으니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br/><br/><br/><br/>지난 1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층 로비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작은 크기의 빨간 우체통(오른쪽)이 설치됐다. ‘힘내요! 우체통’. 가족이나 방문객이 엽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의학원이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매일 아침 입원 환자에게 배달된다. 무뚝뚝한 성격의 한 시아버지는 암으로 입원한 며느리에게 “항상 웃고 씩씩한 모습이 너에게 어울린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이길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br/><br/>지난 2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는 고리원자력본부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직원들은 “<span class='quot0'>시장, 구청장 등 유명 인사들이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보습을 보면서 ‘나도 시장님’이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인근에는 전기만으로는 겨울나기가 어려운 계층이 의외로 많아 놀랐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txt

제목: 연말이라서… 1인 가구 많아서… 쇼핑업계 명과 암  
날짜: 20171226  
기자: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6214619001  
ID: 01100101.20171226214619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12월이라 질렀지 새해엔 달라지려<br/>살빼기·운동·어학용품 쑥쑥<br/><br/>새해를 앞두고 다이어트, 운동, 공부 등 목표 달성을 도와줄 ‘신년 결심 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CJ몰이 최근 일주일간(12월18~24일) 매출을 분석해보니 다이어트와 어학공부, 운동 관련 주문량이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br/><br/>품목별로 보면 스케줄 관리를 위한 필수품인 다이어리 주문량이 45% 늘었다. 요가매트, 실내용 트램펄린 등의 주문량 역시 각각 20%, 114% 신장했다. 취미와 관련한 악기 주문도 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새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TV홈쇼핑에서도 나타났다. 12월 한 달간 성인 영어 학습기 ‘뇌새김’의 상담 예약을 신청한 고객 수가 11월보다 140%가량 늘었다. <br/><br/>‘풋사과 시크릿 다이어트’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주문도 전달 대비 30% 많아졌다.<br/><br/>CJ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새해 첫날부터 운동이나 공부, 취미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12월 중순 이후 ‘결심 상품’ 관련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이 늘어나 요가 등 운동 용품 매출이 급증했다</span>”고 말했다.<br/><br/>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br/><br/>간장공장 공장장 요즘 슬플 거예요<br/>간편식 선호에 장류 판매 감소<br/><br/>전통적으로 집밥 재료로 주로 쓰이는 간장·고추장·된장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고 있다.<br/><br/>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주요 상품 매출 누계 순위를 냈더니 고추장은 2015년 73위에서 올해 99위로 하락했고 간장은 2015년 67위에서 올해는 80위로 떨어졌다. 요리용 가공유도 같은 기간 순위가 59위에서 71위로 낮아졌다.<br/><br/>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직접 요리를 해먹기보다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뜨거운 물만 붓거나, 파우치를 데우면 완성되는 간편조리제품 등이 앞다퉈 출시되면서 주방에서 양념 쓸 일이 줄었다. 식탁 메뉴가 다양화하고 저염식을 선호하는 건강 트렌드 역시 장류 소비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br/><br/>국내 간편식 시장은 2011년 1조1368억원 규모에서 2016년 2조2682억원 규모로 6년간 2배 성장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양념장·소스·드레싱(9.1%), 설탕·소금(8.4%) 같은 품목을 덜 구매하게 됐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집계했다. 간장 소매시장은 2014년 2246억원에서 2016년 2218억원으로 1.3% 감소했고, 고추장은 같은 기간 2123억원에서 1935억원으로 8.9% 줄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br/><br/><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txt

제목: “암 앓는 시리아 어린이들을 살려주세요”  
날짜: 20171224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4213956002  
ID: 01100101.20171224213956002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시리아 동부 구타 지역에 살고 있는 4살 소녀 라마 헬웨는 악성림프종을 앓고 있다. 목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라마는 지난 8개월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렸다. 동부 구타는 4년째 정부군이 포위·봉쇄 중이다. 구타 40만 인구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식량과 의약품도 들이기 어렵다. 굶주림과 질병이 이곳 사람들을 위협한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특히 더 크다.<br/><br/>정부가 당장 봉쇄를 풀 수 없다면 암에 걸린 어린이들만이라도 구타 밖으로 내보내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 구호단체 의료구호기구연합(UOSSM)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노트와 하미시 데브레튼 고든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구타의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글을 실었다. <br/><br/>이들은 “어린아이 7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른 아이 175명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구타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다”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적었다. <br/><br/>이들은 “암 환자 7명이라도 바깥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br/><br/>라마의 어머니도 영상 메시지로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라마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간다. 의사는 상태가 계속 나빠진다고 말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마의 어머니는 “내 딸은 아프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바깥으로 보내고 싶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 품에 안긴 라마는 힘없이 고개를 까닥거렸다.<br/><br/>노트와 고든은 어린이들의 생명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아사드와 푸틴을 향해 “조금이라도 연민을 발휘해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구타로 가서 크리스마스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요청했다. <br/><br/>이들의 호소가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다. BBC는 아사드가 구타의 일곱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br/><br/>동부 구타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반군이 장악한 마지막 지역이다. 아사드 정권은 반군 세력이 구타 바깥으로 넘어와 다마스쿠스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래서 봉쇄와 공습이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 러시아 주도로 구타 등 4곳이 ‘단계적 긴장 완화 지대’로 지정됐지만 실효는 없었다. 정부군은 봉쇄를 풀지 않았고 공습도 계속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정부군 공습으로 최근 3주간 동부 구타에서 어린이 44명 등 민간인 193명 이상이 숨졌다”고 지난 4일 보고했다. <br/><br/>구타의 아동 영양실조 비율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인 12%까지 치솟았다. 전기와 연료, 식수, 식량, 의약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현지 매체 시리아다이렉트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하 터널을 통해 의약품이 들어왔지만 정부군 공격으로 이마저도 막혔다고 19일 전했다. 젖먹이 아이가 공습으로 한쪽 눈을 잃은 비극도 이곳에서 벌어졌다. 생후 2개월 된 아기 카림은 얼마 전 공습으로 왼쪽 눈과 어머니를 한번에 잃었다. 지난 20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아기 카림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txt

제목: 암으로 죽어가는 시리아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날짜: 20171224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4170737001  
ID: 01100101.20171224170737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시리아 4살 소녀 라마 헬웨는 악성림프종을 앓고 있다. 목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라마는 지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렸다. 라마가 살고 있는 동부 구타 지역은 4년 째 정부군이 포위·봉쇄 중이다. 구타 40만 인구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식량과 의약품도 들이기 어렵다. 굶주림과 질병이 이곳 사람들을 위협한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특히 더 크다.<br/><br/>라마 같은 암환자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봉쇄를 풀 수 없다면 아이들만이라도 바깥으로 보내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 구호단체 의료구호기구연합(UOSSM)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노트와 하미시 데브레튼 고든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시리아 구타의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글을 실었다. 이들은 “어린 아이 7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른 아이 175명도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구타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다”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적었다. 이들은 “암으로 죽어가는 일곱 아이들만이라도 바깥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br/><br/>라마의 어머니도 영상 메시지로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라마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간다. 의사는 상태가 계속 나빠진다고 말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마의 어머니는 “내 딸은 아프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바깥으로 보내고 싶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 품에 안긴 라마는 힘없이 고개를 까닥거렸다.<br/><br/> 라마의 어머니가 딸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구호기구연합(UOSSM) 홈페이지노트와 고든은 가디언 기고에서 아이들의 생명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고 적었다. 이들은 아사드와 푸틴을 향해 “조금이라도 연민을 발휘해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구타로 가서 크리스마스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요청했다. 이들의 호소가 현실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BBC는 아사드가 구타의 일곱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br/><br/>동부 구타는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에서 반군이 장악한 마지막 지역이다. 아사드 정권은 반군 세력이 구타 바깥으로 넘어와 다마스커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래서 봉쇄와 공습이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 러시아 주도로 구타 등 4곳이 ‘단계적 긴장 완화 지대’로 지정됐지만 실효는 없었다. 정부군은 봉쇄를 풀지 않았고 공습도 계속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span class='quot0'>정부군 공습으로 최근 3주간 동부 구타에서 어린이 44명 등 민간인 193명 이상이 숨졌다</span>”고 지난 4일 보고했다. 구타의 아동 영양실조 비율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인 12%까지 치솟았다. 전기와 연료, 식수, 식량, 의약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현지 매체 시리아다이렉트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하 터널을 통해 의약품이 들어왔지만 정부군 공격으로 이마저도 막혔다고 19일 전했다. 젖먹이 아이가 공습으로 한쪽 눈을 잃은 비극도 이곳에서 벌어졌다. 생후 2개월된 아기 카림은 얼마 전 공습으로 왼쪽 눈과 어머니를 한번에 잃었다. 지난 20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아기 카림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txt

제목: 복순씨는 장애인 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운다  
날짜: 20171224  
기자: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4094448001  
ID: 01100101.20171224094448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시리즈 목차<br/><br/>1 시각중복장애인 효정이 엄마 복순씨 <br/><br/>2 장애학교 주변을 떠도는 엄마들<br/><br/>3 내가 외로운 법정 싸움을 하는 이유<br/><br/><br/><br/>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 현실은 그러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계획만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갈라질 정도로 큰 갈등을 빚는다. 장애인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집값 하락이라는 논리 속에 번번이 무시된다. 장애아의 부모들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을 획득하기 위해 투사가 돼야만 한다. <주간경향>은 세 차례에 걸쳐 장애아를 돌보는 엄마들과 주변의 사연을 통해 오늘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짚어 보려 한다. 1회는 시각중복장애인 효정이를 돌보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엄마 강복순씨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다.<br/><br/><br/><br/>어느 날 남편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복순아, 이제 그만하자.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br/><br/>나는 내 딸 효정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1998년 7월에 태어난 내 첫째딸 효정이는 눈에 초점이 없었다. 백일이 다 될 때까지 효정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쩌면 효정이의 세상은 어둠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다. 조카를 보러 온 친정언니들이 나에게 말했다. “복순아, 언니들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효정이 눈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효정이가 사시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병원을 한 번 가보자.” 나는 무서웠다. 겁이 나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이가 눈이 안 보이네요”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친정엄마는 두 언니들을 잡았다. 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혼냈다. 나는 그냥 버텼다. <br/><br/>남편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100일이 채 안된 효정이를 끌어안고 있는 내게 남편이 먼저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둘이 김안과를 갔다. 의사는 곧바로 “<span class='quot0'>여기가 아니라 큰 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span>”라고 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다. 곧바로 엠알아이(MRI) 촬영과 약물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친정엄마랑 아이를 업고 신(神)발이 제일 좋다는 오대산으로 갔다. 오대산 자락에 있는 보살에게 500만원을 주고 세 번의 굿을 했다. 새벽 첫 이슬이 내리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야 아이가 낫는다고 해서 효정이를 들쳐업고 새벽 2시에 산을 올랐다. 친정엄마는 아이 배냇저고리와 아이 아빠 속옷을 들고 오대산 자락을 따라왔다. <br/><br/>효정이는 결국 그날 이후 폐렴에 걸려 한 달을 입원했다. 그쯤 되면 나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신이 있으면 거기에라도 매달려 우리 효정이가 앞을 볼 수 있기를 빌었다. 서울대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담당교수는 나와 아이 아빠에게 “<span class='quot1'>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얘 눈 못뜨니까 그냥 애 잘 키울 생각이나 하라</span>”고 했다. 효정이는 선천적 시신경위축이었다. 눈이 돌아갔다. 없는 돈 끌어다 500만원이나 주고 굿까지 했는데. 교수를 붙들고 싸웠다. 전공의들이 나와 아이 아빠를 끌어냈다. 병원 밖을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장애아이의 부모가 됐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 내 새끼가 아픈데 부모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도 한때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애를 낳고 복직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직장은 이제 나에게는 사치였다. 효정이와 내 앞에는 끝나지 않을 병원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 동기, 언니들이 회사 민영화로 연봉이 오르고 직책도 오를 동안 나는 내 아이의 눈과 손, 발이 돼야 했다. 효정이가 서울맹아학교 유치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아이와 꼬박 5년을 붙어 있었다. 3살 터울로 태어난 둘째는 우리의 멘토였다. 아들이 뒤집으면 아들의 모습을 보며 효정이 뒤집기를 가르쳤다. 아들이 네 발 기기를 하고, 걸음마를 하는 것을 관찰해 효정이를 가르쳤다. 시각장애아이들은 시각적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몸으로 가르쳐야 했다. 비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모든 것이 처음일텐데, 시각장애아는 나도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다. 시각장애인을 본 경험은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맹인의 모습을 본 게 전부였다. <br/><br/>우울증이 심해졌다. 집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살았다. 커튼을 쳤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span class='quot2'>애새끼가 눈도 안 보이는데 불은 켜서 뭐 해</span>”라고 날선 말을 뱉었다. 효정이가 4살 될 때쯤이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를 보다 안산에 사는 동진이 사연을 접했다. 7살 시각장애아 동진이가 동네 심부름을 다니고, 일반 아이들과 노는 게 나왔다. ‘저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담당 PD를 수소문해 울고불고 사정해서 동진이 엄마를 찾았다. 동진이 엄마는 내 동앗줄이었다. 이후 서울맹아학교 유치부에 다니며 동진이 엄마를 다시 만났다. 내게 “효정이 엄마야, 너 그냥 종로로 이사 와라. 여기서 우리 의지하며 살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 되던 2003년에 종로구에 정착했다. <br/><br/>어느 날 맹아학교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효정아 얼른 와라. 여기 좀 도와야 한다.” 당시 용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용산초 절반을 잘라 서울맹아학교 용산분교를 만들 예정이었다. 용산구 주민들의 항의는 너무 거셌다. 맹아학교 공사 첫 삽 뜨는 것을 막아섰다. 내게 “저 ×× 같은 ×가 저 모양이니 병신 ××를 낳았지”라고 말했다. 집안 대대로 목사인 한 주민이었다. 포클레인이 들어서지 못하게 마을 주민들이 학교부지에 눕기도 했다. 그때 장애아 엄마 2명이 포클레인 삽 위에 올라탔다. 기사님께 “모든 일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발 학교 안으로 들어가주세요”라고 빌었다. 포클레인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주민들이 전부 일어섰다. 그렇게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달았다. 장애인 엄마가 투사가 되는 것은 그냥 내 아이를 지키려는 것이다. 약한 내 새끼 공부는 가르쳐야 하고, 사람은 만들어야 하는데 부모 아니면 아무도 내 새끼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br/><br/>2007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이 막바지였다. 장특법 제정은 반대가 심했다. 특수교육 현장을 바꾸는 건 다 돈이 들어가니까 다들 예산낭비라며 반대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 평범한 엄마들이 머리를 깎고 삼보일배를 했다. 그때 현장에서 만난 한 아이의 엄마가 이 말을 했었다. “<span class='quot3'>효정아, 이 법이 통과돼야 우리 애들 교육시킬 수 있다.</span>” <br/><br/>나는 우리 딸의 생애주기마다 싸워 왔다. 장특법이 무서운 것은 학교장이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내 딸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내 딸은 20살이 됐다. 이 다음은 평생교육법 개정이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span class='quot3'>효정이 엄마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살아</span>”라고 말이다. 나도 ‘나보다 몇 년 위 극성맞은 엄마가 있으면 편하게 따라갔을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br/><br/>나는 암환자다. 2015년 특수교사 정원을 두고 반대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병원 화장실에서 피주머니를 빼고 친한 엄마에게 부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의사 허락 없이 의원들을 만나러 갔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엄마들에게는 큰 문제였다. 특수학급은 늘 과밀이었다. 효정이처럼 시각장애에 인지손상까지 있는 중복장애아들을 한 반에 6~7명씩 몰아넣고 선생님 한 분이 보라고 하면 그 사람보고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았다. 내가 암환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아이 교육이 달린 문제였다. 그때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다니면서 특수교사 정원이 700명으로 확 늘어났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비롯한 장애아 엄마들이 아이들의 길을 닦아가고 있다. 공무원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전화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 과장해서 백 번 전화하면 한 번 누구인가 싶어 확인전화하는 식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9대 의원일 때 정 의원실 비서관과 함께 있는데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때마침 콜백을 했었다. 그 직원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진짜 엄마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신들 그냥 영리단체 아니냐”고 했다. 듣다 못한 비서관이 “<span class='quot4'>종로구에 사시는 엄마가 맞다</span>”고 확인해줬다. 그제야 기재부 직원은 우리를 만나줬다. 늘 그런 식이었다. <br/><br/>나는 지금 효정이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공기 좋은 외진 곳으로 가서 살고, 효정이는 교통도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나와 떨어져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한 달여 기간 동안 남편은 둘째·셋째아이를 보살피고, 효정이는 지역사회에 주간·단기보호를 맡겼다. <br/><br/>내가 퇴원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가 울면서 내 팔을 꼭 잡았다. 암이니 수술이니 입원이니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저 엄마가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딸과 떨어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정이가 장애인들끼리 특정 시설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평범한 삶 속에 스며들어 살 수 있는 장애인 주거모델을 만드는 게 내 마지막 목표다. 내 딸 효정이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br/><br/><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txt

제목: 청소년 자살예방 범부처 대책, 제대로 가고 있나?  
날짜: 2017122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225314001  
ID: 01100101.2017122122531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개발과 방안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오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br/><br/>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서울대병원, 연강의료재단 등 의료기관 2곳의 공동주최로 청소년·자살예방 사업 관련기관 담장자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의견 수렴의 장이다.<br/><br/>이날 다부처 공동연구기획연구 과제인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진행사항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자살문제와 개선방향,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자살문제 개입 현황과 개선방향, 청소년 자살예방 다부처사업을 위한 규제개선방 등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br/><br/>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내용은 차치하고 참석자들이 너무 저조해 문제였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겨우 20명 정도만이 참석해 대강당이 썰렁했다. 범부처 공청회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이다.<br/><br/>현재 청소년 자살로 인한 가족과 사회경제적 문제는 심각하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이며, 사회적 손실액이 암에 이어 2위로 꼽힌다. 중고생의 12%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요즘 연예인 자살을 따라하는 모방자살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하다.<br/><br/>이날 ‘20명 공청회’를 보면서 체계적인 자살원인 규명이나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예측·진단·개입기술 개발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래가지고서야 지역사회 예방사업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통합적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txt

제목: “노사정 대타협, 1년만 믿어달라”  
날짜: 20171221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222957001  
ID: 01100101.20171221222957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ㆍ문 대통령, 청와대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br/>ㆍ“경제·노동정책, 노사 모두에 유익함 증명해 보이겠다” <br/>ㆍ집권 2년차 ‘노동’ 집중 예고…민주노총과도 첫 만남<br/><br/><br/>문재인 대통령은 21일 “<span class='quot0'>노사 양측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span>”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한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설립을 격려하는 자리를 빌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것이다.<br/><br/>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span class='quot1'>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span>”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에 노동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br/><br/>문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br/><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br/>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산별교섭에서 1만1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개의 새 일자리 창출에 합의한 보건의료 노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한 금융산업 노사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br/><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서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span>”며 노사정 대화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출범 7개월이 되도록 답보 상태인 사회적 대화 체제 가동을 위해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br/><br/>이날 행사엔 암 투병 중인 민주노총 산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청와대에서 산별노조 대표자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인사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24일 ‘노동계 초청 대화’에도 불참했다.<br/><br/>노사정 대화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큼 이날 행사가 노사정 대화 복원의 단초가 되기를 청와대는 기대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가 연내에 나오고, 문 대통령이 내년 초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사면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다면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br/><br/>이날 초청된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계가 먼저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만든 공익재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1600억원이 기금 종잣돈이 된다. 기득권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던 공공기관 노조가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가 ‘사회적 연대’의 모델로 주목하고 초청한 것이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txt

제목: [김선영의 드라마토피아]1996년 김인희, 2017년 김인희  
날짜: 20171221  
기자: 김선영 TV평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205105001  
ID: 01100101.2017122120510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얼마 전 tvN에서 노희경 작가의 전설적인 초기작을 21년 만에 리메이크했다. 1996년 겨울, MBC 창사 35주년 특집극으로 방영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중년의 기혼 여성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4부작의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석권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당시 신인이던 노희경은 이 드라마를 통해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았고, 주연을 맡은 나문희도 명배우로서 진가를 입증했다. <br/><br/>보통 원작이 뛰어날수록 리메이크에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2017년판 드라마는 원작자 노희경이 다시 한 번 극본을 맡음으로써 오히려 기대감을 드높였다. 방영 중에도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완성도에 호평이 잇따랐다. 성공의 핵심 원인으로 먼저 손꼽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의 힘이다. 애초에 드라마 원작자가 직접 리메이크하는 일도 드문데, 더 나아가 두 작품 모두 성공을 거둔 희소한 사례에 노희경의 뛰어난 필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br/><br/>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라는 말에는 또 다른 그늘도 존재한다. 이 작품은 2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어머니들의 현실에 바탕하고 있다. 실제로 리메이크작에서 엄마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삶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원작의 설정에서 조금씩 수정되었다. 아버지 정철은 과거에 비해 ‘의사가 넘치는’ 현실로 인해 한층 악화된 고용 불안을 경험하고, 막내아들 정수는 의대를 원하는 아버지의 압력에 삼수를 하는 설정으로 학벌주의 심화를 드러냈다. 결혼보다 직업적 성취에 더 열정적인 유학파 출신 커리어우먼이자, 권위적 가부장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뚜렷한 큰딸 연수 역시 요즘의 달라진 여성상을 보여준다. 오직 주인공만 원작과 별 차이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만한 사회적 삶에서 격리된 전업주부 겸 기혼 여성이기 때문이다.<br/><br/>원작 극본에는 ‘엄마’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죽음을 맞는 마지막 장면에서야 이름이 밝혀지는 주인공 김인희는 1996년에도 “우리 시대 대표 어머니”로, 2017년판에서도 “이 시대의 평범한 엄마”로 설명된다. 1942년생 김인희든, 1962년생 김인희든,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보통명사로서의 삶에 불과하다. <br/><br/>사실 이러한 비극적 삶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원작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할머니’다. 극중에서 중증 치매를 앓는 그녀는 며느리인 인희에게 고통과 연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젊은 시절 홀로 아들을 의사로 키우느라 모든 것을 헌신한 채 자신을 잃어버린 할머니는 만약 인희가 끝까지 살았다면 맞이했을 미래의 모습이나 다름없다. <br/><br/>공교롭게도 원작과 리메이크작의 ‘할머니’ 모두 같은 배우 김영옥이 연기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다.<br/><br/>극 이면에 깔린 잔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따스하고 감동적인 가족극으로 소비되는 것은 엄마의 병을 알게 된 뒤부터 이기적인 가족들이 보이는 참회의 서사 때문이다. 가령 젊은 시절 인희가 아이를 낳을 때조차 옆을 지키지 않았던 무심한 워커홀릭 남편은 아내의 병을 알고 나서야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 되어 아내가 최후를 맞이할 새집을 단장한다. 엄마 손으로 토사물까지 치우게 했던 사고뭉치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를 기쁘게 해줄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고, 누나를 착취하기에 바빴던 남동생은 진실을 알게 되자 후회하고 성실한 인물로 거듭난다. 여성 암환자의 이혼율이 남성 암환자의 그것에 비해 3배나 높고, 가사일로 이중고를 겪는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모두와 ‘아름답게’ 이별하는 이 드라마의 결말은 더 없이 판타지적으로 보인다.<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이야기는 올해 뜻밖의 화제작으로 불린 KBS <고백부부>와도 겹쳐지는 지점이 있다. 결혼을 후회하는 30대 후반 부부가 18년 전으로 되돌아가 인생의 소중한 시절을 다시 경험하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당초 ‘응답하라’ 시리즈의 아류작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절절한 가족애로 호평을 얻어냈다. 특히 주인공 마진주의 애절한 사모곡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10년 전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가던 2017년의 마진주가 1999년의 과거로 돌아가 가장 먼저 마주친 건 살아있는 젊은 엄마였다. 스무 살 시절에는 철없는 막내딸이었던 진주는 결혼 뒤 독박육아에 시달리는 전업주부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고 뒤늦은 사랑을 표현한다. 모녀의 18년 시차를 극복한 공감의 힘은 결국 ‘엄마’의 삶이라는 보편적 현실이었던 것이다.<br/><br/>노희경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방영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메이크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1년 전 이 작품이 방송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자체가 어머니인, 어머니만을 위한 드라마가 별로 없지 않은가. 언젠가부터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외면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21년 만에 돌아온 엄마의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현실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몹시도 씁쓸한 일이다.<br/><br/><김선영 TV평론가>

언론사: 경향신문-1-15.txt

제목: 문 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위해 딱 1년만 정부 믿어달라”  
날짜: 20171221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151705001  
ID: 01100101.2017122115170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span class='quot0'>‘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이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노사 양측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span>”고 당부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한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설립 취지를 살려 내년엔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것이다.<br/><br/>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사가 출연금을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근 세운 공익재단이다.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명목으로 119개 공공기관에 지급한 1600억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득권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던 공공기관 노조가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가 이에 주목해 초청을 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한 보건의료·금융 산업 노사엔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br/><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br/><br/>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체제 가동을 위해 “<span class='quot1'>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span>”고 약속했다.<br/><br/>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span class='quot1'>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span>”며 노사정 대화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br/><br/>이날 행사엔 암 투병 중인 민주노총 산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인사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24일 ‘노동계 초청 대화’에 불참했다.<br/><br/>현재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결선투표에 진출한 기호1번 김명환 후보조는 대통령과 노사 대표 4인, 정부 대표 2인, 국회 대표로 구성된 ‘신(新) 8자 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기호2번 이호동 후보조는 노사정 대화보다 노정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내 마무리될 선거 결과가 노사정 대화 복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txt

제목: [경향포토]쾌유 기원 박수받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날짜: 20171221  
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150027001  
ID: 01100101.20171221150027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로부터 쾌유를 기원하는 박수를 받고 인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암 투병 중이다.<br/><br/><청와대사진기자단>

언론사: 경향신문-1-17.txt

제목: 19.5% 준 갑상샘암 빼면 암 환자 늘었다  
날짜: 20171221  
기자: 홍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21110504001  
ID: 01100101.201712211105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2015년 암 통계…위·대장 줄고, 유방·췌장 늘어 <br/>ㆍ‘5년 생존율’ 70.7%로 10년 전보다 16.7%P 증가<br/><br/><br/>2015년 한국에서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1만4701명으로 그 전 해보다 4253명(1.9%) 줄어들었다. 하지만 갑상샘암을 뺀 암 발생자 수는 18만9672명으로 1797명 늘었다. 몇 해 사이에 진단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과잉진단’ 논란까지 부른 갑상샘암이 암 통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br/>　<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21일 발표한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5.8명이었다. 2011년 325.4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내리 감소했다. 통계로만 봤을 때 2012년 이후 암 발생률은 매년 6.1%씩 줄고 있다.<br/>　<br/>특히 2015년에 암 발생자 수를 줄인 가장 큰 요인은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초음파 등을 통한 검진이 늘면서 갑상샘암 발생률이 빠르게 올라갔지만 과잉진단 논란 이후 다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　<br/><br/>위암과 대장암도 각각 2.7%, 1.6% 줄었다.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은 4.3%, 3.5%, 5.7% 늘었다. 위암은 소폭 줄긴 했지만 2만9207명의 환자가 나와 남녀를 통틀어 한국인 암 발생 1순위였다. 이어 대장암, 갑상샘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br/>　<br/>성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남성 301.2명, 여성 266.1명에게 암이 생겼다. 남성들을 위협하는 것은 위암과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44세까지는 갑상샘암이, 45∼69세에는 위암이,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갑상샘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발병이 많았다. 39세까지는 갑상샘암, 40~64세까지는 유방암, 6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생겼다.<br/>　<br/>암 진단을 받은 이들의 생존율은 올라가고 있다. 2011∼2015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였다. 2001∼2005년 진단받은 이들의 생존율이 54.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6.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br/>　 <br/>5년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 예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성별과 나이가 같은 일반인 대비 암 환자의 5년 뒤 생존비율을 뜻한다. 100%이면 일반인과 같다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암 환자의 생존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의미다.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갑상샘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이었고 낮은 암종은 췌장암(10.8%), 폐암(26.7%), 간암(33.6%) 순이었다.<br/><br/><홍진수 기자>

언론사: 경향신문-1-18.txt

제목: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다]농성의 현장에서 함께 키운 아이들  
날짜: 20171219  
기자: 김해원 | 동화작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9211849002  
ID: 01100101.20171219211849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용산참사가 벌어진 그 참혹한 겨울을 보낸 뒤에야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들이 보였다.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스스로 지은 망루에, 철탑에, 타워크레인에, 굴뚝에, 옥외광고판에, 세상은 위태롭게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다. 단단히 딛고 서 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긴 이들은 허공에 올라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난간에 제 몸을 묶고 소리쳤다. 여기 사람이 있다! 서울시청 앞 18m 철탑에 올라 9시간이나 고공농성을 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도 똑같았다.<br/><br/>“<span class='quot0'>쫓겨난 지 1000일,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span>”<br/><br/>그들이 농성을 하는 공장 빈터에는 빛바랜 천막이 늘어서 있었다. 세상과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막사는 허술했지만, 제 몸으로 부딪쳐 싸워온 이들의 몸놀림은 가벼웠다. 오랫동안 단식 농성을 한 이는 천막 뒤에 있는 컨테이너 위에 걸터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리 오래 버티고 싸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는 틈틈이 아이들을 돌봤다. 컨테이너 하나는 아이들 공부방이었다. 엄마들은 싸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자라고 있었다.<br/><br/>그 아이들도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십 년의 세월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에서 만난 청년은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의 아들이라고 했다.<br/><br/>“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마석 모란공원에 계시지요.”<br/><br/>청년을 소개한 이가 슬그머니 일러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에 걸린 것을 한동안 감춘 채 싸움에 나섰던 조합원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글을 본 기억이 났다. 청년의 해맑은 얼굴이 고마워서 자꾸 힐끔거렸다. <br/><br/>“<span class='quot0'>내가 너 어릴 적부터 봐 왔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span>”<br/><br/>아이는 혼자 자란 게 아니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 봐준 사람들…, 한겨울 낮 볕이 따사로웠다.<br/><br/><김해원 | 동화작가>

언론사: 경향신문-1-19.txt

제목: [경향마당]신약 건보 적용, 간암까지 확대되길  
날짜: 20171219  
기자: 윤구현 | 간사랑동우회 대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9211539001  
ID: 01100101.201712192115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간암 말기 환자인 저에게 하루는 너무나도 간절한 시간입니다.</span>” <br/><br/>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꺼낸 첫마디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충격으로 인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과 부인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치료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전이되고 말았다. <br/><br/>다시 희망의 끈을 놓으려던 중에 신약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치료비로 많은 돈을 써버린 간암 말기 환자에게는 희망고문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며 기뻐하던 그가 현실의 벽에 막혀 절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말기 간암 환자는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오랜 기간 환우회에 몸담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br/><br/>문제는 약값이다. 보험 급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말기 간암 환자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대체 약제가 없는 신약에 대한 보험 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br/><br/>해당 신약은 이미 위장관 기질종양(GIST)에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간암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적인 치료 대안이 없어서 절망하는 간암 환자들에게 신약의 신속한 급여권 도입으로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 <br/><br/>최근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환우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항암제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간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되길 바란다.<br/><br/><윤구현 | 간사랑동우회 대표>

언론사: 경향신문-1-20.txt

제목: [최명애의 반려종 이야기](9)나, 인간이 만든 형광 물고기 또는 ‘프랑켄 피시’  
날짜: 20171218  
기자: 최명애 | 문화생태지리학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8213003001  
ID: 01100101.2017121821300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세계 첫 유전자변형 애완동물 ‘글로피시’<br/><br/><br/><br/>인기 미국 시트콤 <빅뱅 이론>의 한 에피소드. 괴짜 천재 물리학자인 셸든 쿠퍼는 직장에서 잘린 뒤 “<span class='quot0'>한밤중에도 빛나는 물고기를 만들겠다</span>”고 친구들에게 선언한다. 이 에피소드는 셸든 쿠퍼가 침실의 불을 끄자 침대 옆 어항에서 그가 개발한 형광 물고기가 유유히 유영하는 것으로 끝난다. 농담 같은 이 물고기가 실제로 있다. 개발된 곳은 싱가포르 국립대 유전공학 연구실. 어린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으며 미국의 주요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글로피시(GloFish)라는 이름의 형광 물고기. 과학 저널리스트 에밀리 앤더스가 <프랑켄슈타인의 고양이>에서 쓴 것처럼, 글로피시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변형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이다. <br/><br/><br/><br/>■ 환경 감시 물고기의 우연한 상업화<br/><br/>1999년 싱가포르 국립대의 즈위앤 공 박사팀이 형광 물고기를 개발할 때만 해도 애완동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목적은 환경 감시였다. 오염 정도에 따라 몸 색깔이 달라지는 물고기가 있다면 손쉽게 하천 오염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려면 일단 특정 조건을 스위치 삼아 몸 색깔이 변하는 물고기부터 개발해야 했다. <br/><br/>공 박사팀은 수정 해파리에 주목했다. 평소에는 투명에 가까운 백색이다가 심해에서는 형광펜 같은 녹색으로 몸 색깔이 변하는 종이었다. 특정 유전자가 녹색형광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해파리의 녹색형광단백질 유전자를 추출해 제브라 다니오의 배아에 주입했다. 제브라 다니오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민물에 서식하는 몸 길이 4㎝ 정도의 작은 물고기다. 금색과 푸른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어 관상어로도 종종 쓰인다. <br/><br/>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녹색형광단백질 유전자가 주입된 제브라 다니오는 심해의 해파리처럼 밝은 녹색으로 태어났다. <br/><br/>공 박사팀은 이어 산호의 형광단백질 유전자도 제브라 다니오에 주입해 봤다. 바닷속에서 붉게 빛나는 산호처럼, 산호 유전자가 주입된 제브라 다니오도 밝은 적색으로 빛났다. 유전자가 변형된 이 물고기들은 태양광에서는 파스텔톤의 녹색과 붉은색이다가, 청색 조명을 비추면 몸속에 등불이라도 단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해파리와 산호의 유전자가 빛을 흡수해 형광 녹색과 형광 적색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br/><br/>싱가포르 실험실의 형광 물고기가 갖는 미학적, 혹은 상업적 가치에 주목한 것은 태평양 건너 미국 텍사스의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었다. 20대 초반의 리처드 크로켓과 앨런 블레이크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대학 졸업 후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로 이들의 신생 교육 벤처는 문을 닫아야 했다.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하던 크로켓은 우연히 싱가포르의 형광 물고기 이야기를 듣게 됐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켠 것처럼 형광색으로 빛나는 거짓말같은 물고기. 어쩌면 그들의 새로운 출구가 될지도 몰랐다. <br/><br/>두 사람은 요크타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생명공학 벤처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연구팀을 설득해 형광 물고기의 전 세계 특허권과 독점 판매권을 따낸다. 수익의 일부를 환경 오염 감시 물고기 개발 연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조건과 함께였다. <br/><br/>두 사람은 색깔 형광 물고기 몇 마리를 텍사스로 소중히 가져와 인근 양식장에 맡겨 번식시키기 시작했다. 형광단백질 유전자가 각인된 형광 제브라 다니오는 똑같은 형광빛의 새끼들을 낳았다. 요크타운 테크놀로지와 싱가포르 연구팀은 색깔을 다양화하고, 물고기 종류도 늘렸다. 제브라 다니오에 형광 블랙테트라, 형광 타이거바브가 곧 추가됐다. 제브라 다니오처럼 블랙테트라와 타이거바브도 인기 관상 열대어다. 밝은 녹색과 붉은색뿐 아니라 형광 파랑·노랑·보라·분홍색도 개발했다. 요크타운 테크놀로지는 이들에게 ‘스타파이어(starfire) 레드’ ‘코스믹(cosmic) 블루’ ‘일렉트릭(electric) 그린’ ‘갈락틱(galactic) 퍼플’ 같은 환상적인 이름을 붙여 주고, 형광물고기 전체를 ‘글로피시’, 즉 빛나는 물고기로 브랜드화했다. <br/><br/><br/><br/>■ 생태계를 위협하는 ‘프랑켄 피시’ <br/><br/>2003년 말, 글로피시 출시를 앞두고 숨가쁘게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준비하던 요크타운 테크놀로지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글로피시가 유전자변형(GM) 동물, 그것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판매될 GM 동물이라는 사실이었다. 기능성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오메가-3 지방산을 생성해내는 돼지, 암에 잘 걸리는 생쥐…. 유전자변형 동물이 글로피시가 처음은 아니었다. 게다가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한국에서도 잇달아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변형 형광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험실 밖으로 나온 GM 동물은 글로피시가 처음이었다. <br/><br/>게다가 수년째 논란 중이던 또 다른 유전자변형 물고기, 유전자조작 연어가 글로피시의 발목을 잡았다. 유전자조작 연어는 대서양연어에 태평양등가시치류의 유전자를 주입한 것으로, 연중 성장호르몬이 분비돼 여름에만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일반 양식 연어보다 성장이 2배 이상 빠르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연어가 야생에 유입될 경우 토종 연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야생 입장에서 유전자조작 연어는 ‘외래종’이다. 유전자조작 연어가 야생 연어와 교배될 경우 대서양연어의 유전적 순수성이 훼손되고, 성장이 빠른 유전자조작 연어가 야생 연어와의 먹이 경쟁에서 승리해 궁극적으로 대서양연어가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어는 식탁에 곧바로 오르는 물고기다. 유전자변형 식품 섭취에 따르는 건강 위해 논란도 뜨거웠다. 유전자조작 연어를 개발한 아쿠아바운티사는 일찌감치 1990년대 중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요청을 냈다. 그러나 10여년째 논란만 계속되던 차였다. 이때 또 다른 유전자변형 물고기가 판매 허가 요청을 낸 것이다. <br/><br/>글로피시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괴물 물고기 ‘프랑켄 피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에는 ‘형광 물고기, 다음은 형광 십대 소년 소녀’라는 제목의 신랄한 기고가 실릴 정도였다. 유전자변형 동물이 가져올 새로운, 그러나 기괴한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압도하는 가운데, FDA는 예상을 뒤엎고 글로피시의 판매를 승인했다. 연어와 달리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글로피시가 야생으로 탈출한다 하더라도 동남아 원산 열대어에게 미국의 강과 하천은 너무 차가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크타운 테크놀로지 측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미국 하천의 회색 물고기 사이에서 형광물고기는 ‘날 잡아 잡슈’라는 네온사인을 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금세 잡혀 먹히고 만다는 것이었다. <br/><br/>캘리포니아주만이 끝까지 글로피시 판매를 불허했다. 글로피시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유전자변형이라는 기술을 ‘애완동물’ 개발에까지 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였다. 캘리포니아 임업 및 수렵 관리위원회의 샘 슈챗은 캘리포니아 크로니클에 보낸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내포한 보건적·환경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아를 해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고작 신기한 애완동물을 만들자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경박하다. 글로피시의 리스크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br/><br/><br/><br/>■ 과학, 윤리 그리고 시장<br/><br/>그러나 글로피시의 운명은 결국 시장이 갈랐다. 2004년 1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글로피시가 출시됐다. 빛나는 물고기는 단박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단 시장에서 히트를 치자 생명공학 기술을 둘러싼 추상적인 논쟁이 아닌 대중들의 요구가 글로피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 고객들은 그저 물고기를 좋아했다.”(에밀리 앤더스, <프랑켄슈타인의 고양이> 46쪽). 특히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주 고객이었다. 글로피시는 미국 애완동물 전문매장 펫코는 물론,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에서도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12월 현재 글로피시 공식 사이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글로피시 디럭스 컬렉션’이 98.85달러에 팔리고 있다. 형광 제브라 다니오 색깔별로 5마리, 형광 블랙테트라 색깔별로 6마리에 형광색 인공 수초까지 함께다. 업체 측은 일반 제브라 다니오, 블랙테트라와 마찬가지로 형광 물고기도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물고기 종별로 최소 5마리씩은 구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글로피시 한 마리는 6~10달러. 비GM 개체보다 5배 이상 비싸다. <br/><br/>글로피시 마니아들은 직접 꾸민 어항에 색깔 조명을 비춰 가며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유전자변형 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유전자변형 물고기는 염색 물고기에 비하면 동물복지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이다. 유전자변형 기술 도입 이전에는 물고기의 표피층을 벗겨내고 형광색을 입힌 뒤 다시 표피층을 입히는 방식으로 형광색 물고기를 제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형광 물고기 대부분은 이렇게 염색한 것들이다. 색깔은 형광빛이지만 빛은 나지 않는다. 염색 과정에서 폐사하는 물고기가 많아, 업체 측이 선전하는 것처럼 유전자변형 기술이 ‘고통 없는’ 대안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글로피시 마니아들은 색색깔 물고기와 형광 수초, 형광 자갈로 꾸민 글로피시 어항을 자랑스럽게 온라인에 공유한다. 글로피시가 알이라도 낳으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이 글로피시를 번식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가 구입한 글로피시 개별 개체는 소비자의 소유지만, 글로피시 유전자와 물고기는 요크타운 테크놀로지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번식시키면 특허권 침해가 된다. <br/><br/>2015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결정을 뒤엎고 “<span class='quot1'>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이 미미하다</span>”며 글로피시 판매를 허용했다. 유전자변형 연어도 20여년의 논란 끝에 2015년 FDA의 승인을 받았다. 결국 시장의 승리일까. 한편 유럽연합과 캐나다, 글로피시의 ‘종주국’인 싱가포르는 글로피시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도입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글로피시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 빛나는 물고기는 생명과학, 생명기술 윤리, 이색 애완동물 시장의 접점을 여전히 유영하고 있다. <br/><br/> ▶필자 최명애<br/><br/><br/><br/>인간과 동물·자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는 문화생태지리학자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환경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앞서 경향신문에서 9년간 기자로 일했다. <br/><br/><최명애 | 문화생태지리학자>

언론사: 경향신문-1-21.txt

제목: 생사기로에서도 희망 잃지 않는 세원씨네  
날짜: 20171218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8213001003  
ID: 01100101.20171218213001003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EBS1 ‘메디컬 다큐-7요일’<br/><br/>EBS 1TV <메디컬 다큐-7요일>에서는 암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br/><br/>박세원씨는 27살 꽃다운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그는 12차례의 항암치료를 거치며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갔다. 그러나 최근 암이 복막까지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 불행은 겹쳐왔다. 세원씨 아버지 역시 작년 가을부터 전립선암이 이미 뼈까지 전이된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br/><br/>가족들의 연이은 암 진단 소식에 세원씨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기로에 선 아들을 병간호하며 수술이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와 자신이 말기 암인 것을 알고도 오직 아들의 완치만을 바라는 아버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세원씨네 이야기를 들어본다.<br/><br/>뇌병변을 가지고 태어나 잘 걷지 못하는 주혁이네 가족도 만나본다. 주혁이가 스스로 걷게 되는 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다는 엄마 윤정씨의 모성애는 어떤 모습일까. 방송은 19일 오후 11시35분.<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2.txt

제목: ​ING생명, 만성질환 당뇨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출시  
날짜: 2017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8180137001  
ID: 01100101.201712181801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은 만성질환인 당뇨의 진단과 치료, 사망까지 보장하고 CI에 대한 보장을 늘리고 질병 예방·관리 서비스까지 더한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br/><br/>이 상품은 만성질환인 당뇨의 진단부터 관리, 당뇨 관련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br/><br/>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이 있으면 당뇨진단금 100만원을 받게 되고, 꾸준히 해야 하는 혈당관리를 위해 당뇨관리지원금으로 매년 100만원 씩 10년간 총 1000만원 지급받는다.<br/><br/>당뇨병에 걸렸을 때 발병비율이 높아지는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뇨 진단 이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4대 질병을 진단 받으면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0%(1회)를 받는다. 당뇨병 진단 전이라면 100%만 받게 된다. 사망의 경우도 당뇨병 진단 후라면 진단 전에 비해 특약보험가입금액의 두 배를 받게 된다.<br/><br/>당뇨병 뿐만 아니라 CI보험의 기본적인 기능도 강화했다. 3형(혼합형)을 선택할 경우 경제활동기(60세 혹은 70세) 이전에 CI 진단 시, 지급하는 CI진단금을 기존 보험가입금액의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매월 지급받는 가족생활자금도 36회(3년)에서 60회(5년)로 지급 횟수를 늘렸다(경제활동기 이전에 CI진단금 지급사유 해당 시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 즉, CI 발생 시 총 86% 지급되던 CI보험금이 140%로 늘어난 것이다.<br/><br/>또한 의무부가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도 넓혔다. 비파열 뇌동맥류 수술, 세균성수막염, 경피적 혈관내 대동맥류 중재술 등 뇌·심장 관련 중대한 질병 전 단계까지 꼼꼼히 보장받는다.<br/><br/>더불어 ‘ING생명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질병의 발생 후 뿐만 아니라 발생 전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질환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통해 혈당, 혈압,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HDL/LDL)에 대한 총 5가지 항목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통해 대사 질환에 대한 선척적 유전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검진 상담과 우대예약 서비스, 주기적인 운동량 및 건강정보 가이드(전용앱 설치 시), 실내 공기질 진단 등도 해준다(주계약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이상 가입 시).<br/><br/>한편, ING생명은 (무)라이프케어 변액 CI종신보험에도 동일한 혜택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ING생명 콜센터와 ING생명 FC(재정컨설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1-23.txt

제목: [화천군]화천군 “산천어축제 안전한 산천어만 사용”  
날짜: 20171218  
기자: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8151320002  
ID: 01100101.20171218151320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2018화천산천어축제’에 투입되는 산천어의 안정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br/><br/>강원 화천군은 최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산천어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br/><br/>이번 검사에는 화천과 타지 양식장 16곳에서 생산한 축제용 산천어가 시료로 사용됐다. 말라카이트그린·대사물질, 멜라민, 기생충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br/><br/>이에 따라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행사장 내 회센터와 구이터, 산천어 식당 등에서 싱싱하고 깨끗한 산천어를 안심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br/><br/>말라카이트그린과 멜라민은 섭취량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br/><br/>화천군은 내년 축제에 약 180t 이상의 산천어를 사용할 예정이다.<br/><br/>최문순 화천군수는 “<span class='quot0'>축제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최고의 산천어만을 선별해 관광객들이 축제장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산천어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4.txt

제목: [김준의 이 차 어때?] 레이싱카 유전자 가득한 4도어 세단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날짜: 20171212  
기자: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2142704001  
ID: 01100101.20171212142704001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이태리 스포츠카 마세라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출중한 ‘달리기 성능’과 좋은 ‘배기음’이다. 마세라티 집안의 여섯 형제 중 넷째인 알피에리 마세라티(Alfieri Maserati)가 1914년 설립한 공방으로부터 100년이 넘게 레이싱카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br/><br/>페라리보다 먼저 레이싱계에서 활약한 마세라티는 1957년 모터스포츠계를 떠날 때까지 500여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콰트로포르테(Quattroporte), 럭셔리 스포츠 쿠페 그란투리스모(GranTurismo), 럭셔리 카브리올레 그란카브리오(GranCabrio), 이그제큐티브 스포츠 세단 기블리(Ghibli),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르반떼(Levante) 등 세단과 쿠페, SUV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br/><br/>이 가운데 마세라티 플래그십 세단 모델인 콰트로포르테는 전 세계 69개국 3만1400명에게 판매됐다. 2018년형 신형은 전면과 후면 범퍼 디자인을 바꿔 더욱 선명하고 인상적인 외관을 갖고 됐다. 상어의 머리 형상을 따 공기저항계수(Cd))는 0.28에 불과하다. 국내에는 그란 루소와 그란 스포트 트림 2가지가 판매된다. <br/><br/>그란 루소 트림의 내부는 에르메네질도 제냐 실크 에디션에, 대시보드는 라디카(Radica) 우드 트림,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마감했다. 전동식 리어 선블라인드, 4방향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및 열선식 뒷자석 시트가 마련된다.<br/><br/><br/><br/> <br/><br/> <br/><br/>파워트레인은 가솔린 엔진의 경우 3.8ℓ V8엔진과 3.0ℓ V6 엔진 두 가지가 있다. 시승 차량은 V6 엔진을 갖춘 S Q4였다. 두 엔진 모두 페라리와 공동 개발했으며, 마라넬로 소재의 페라리 공장에서 마세라티만을 위해 생산된다고 한다. 콰트로포르테 S Q4는 430마력, 59.2㎏·m의 최대토크가 나온다. 제로백은 4.8초, 최고속도는 시속 288㎞다. 연비는 ℓ당 7.4㎞다. <br/><br/>콰트로포르테 S Q4는 마세라티 사륜구동 시스템 ‘Q4 시스템’이 탑재됐다. 150 밀리초만에, 전륜과 후륜을 0대100에서 50대50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3m가 넘는 긴 휠베이스 덕분에 콰트로포르테는 쾌적한 주행을 하면서도 날카로운 핸들링이 가능하다. 차량 전후 무게는 50:50으로 배분됐다.<br/><br/>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은 마세라티의 경주차 혈통을 계승한 특징 중 하나다. 전륜 서스펜션은 알루미늄 더블 위시본을 사용해 가볍고 정밀한 핸들링을 제공하고, 후륜에는 4개의 알루미늄 서스펜션 암이 있는 5멀티 링크 시스템을 적용했다.<br/><br/>2018년형 콰트로포르테는 유압식이 아닌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갖췄다. 덕분에 운전대를 좀더 돌리기 쉬워졌고, 하이웨이 어시스트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탑재가 가능해져 고속에서도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가격은 1억7770만~1억9160만원이다.<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5.txt

제목: [여적]하산의 경우  
날짜: 20171212  
기자: 서의동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2060405001  
ID: 01100101.2017121206040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한국의 근현대사는 유민(流民)과 난민(難民)의 역사였다. 구한말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찾아 간도로 넘어갔고, 일제강점기가 되자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상하이로 망명했다. 해방 후에는 제주 4·3사건 때 많은 이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탈출해 일본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때도 많은 이들이 미국, 유럽 등지로 건너가 새 삶을 찾았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명준은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뒤 중립국 인도행을 택하지만 선상에서 바다에 투신한다.<br/><br/>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넘겼지만 최근에도 한국을 탈출하려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병역을 피해 프랑스로 간 이예다씨(27)가 2013년 6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2016년 11월에도 동성애자이자 병역거부자인 한국 청년(31)이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br/><br/>난민배출 역사는 길지만 난민수용 역사는 짧다. 한국이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1992년)한 지 9년이 지난 2001년이다. 2013년 7월1일 난민법이 시행됐지만 난민수용률이 저조한 나라로 일본과 최상위를 다툰다.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누적 신청자 수는 3만82명인 반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767명으로 3%가 채 안된다. 전 세계 난민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친다.<br/><br/>2015년 7월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청년 카테레가 하산이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채 11일 한국땅을 떠났다. 빚을 졌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는 점만으로는 난민신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당국이 판단한 듯하다. 체류 기간 그가 겪은 한국사회도 우간다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일하던 공장에서 ‘여기 왜 왔느냐’는 혐오 발언과 차별에 시달렸고, 암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방 월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퇴원하던 날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췌장암으로 여명 2개월 진단을 받은 채 비행기 트랩에 오른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현대사에 걸쳐 국제사회에 진 신세를 우리는 갚지 않고 있다.<br/><br/><서의동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1-26.txt

제목: [경향이 찍은 오늘] ‘돌아온 해직자들’  
날짜: 20171211  
기자: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1180158001  
ID: 01100101.20171211180158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12월11일입니다.<br/><br/><br/><br/>■ 레드카펫 밟으며 돌아온 MBC 해직자들 <br/><br/> <br/><br/><br/><br/>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MBC에서 해직당한 강지웅·박성제·박성호·이용마·정영하씨가 1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성원들이 준비해둔 레드카펫을 밟고 사옥으로 들어섰습니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2012년 3월 해고되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면서 “오늘 이렇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 꿈 같다.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br/><br/>한편 MBC는 지난 8일 최승호 사장 취임과 함께 노사 공동으로 해직자 6명의 복직을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사장 체제에서 새출발을 하는 간판 보도프로그램 ‘뉴스데스크’의 앵커로는 복직한 박성호 기자와 손정은 아나운서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br/><br/><br/><br/>■ 김승환 교육감, ‘국정원 뒷조사’ 참고인으로 출석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교육감은 취재진에 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권력기관 관계자들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br/><br/><br/><br/>■ KBS파업 99일째… “이제는 시간 싸움”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는 파업 중인 KBS 새노조 24시간 릴레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12일이면 KBS 새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지 ‘100일’입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span class='quot0'>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어 이런 싸움이 가능했다고 본다</span>”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진 해임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br/><br/><br/><br/>■ 내일도 추워요! 강추위에 꽁꽁 언 고드름 <br/><br/>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에 고드름이 얼었습니다. 기상청은 12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br/><br/><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7.txt

제목: 레드카펫 밟으며 돌아온 MBC 해직자들…휠체어 출근한 이용마 기자 “꿈 같다”  
날짜: 20171211  
기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1110005001  
ID: 01100101.20171211110005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MBC에서 해직당한 강지웅·박성제·박성호·이용마·정영하씨가 다시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해직 PD였던 최승호 신임 사장도 이들의 첫 출근길에 함께했다.<br/><br/>강지웅 PD, 박성제·박성호·이용마 기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11일 오전 복직 후 처음으로 서울 상암동 사옥에 출근했다. 이들은 구성원들이 마련해놓은 레드카펫을 밟고 사옥 안으로 들어섰다. 사방에 걸린 노란 손수건이 이들을 반겼다. 건물 외벽 전광판에서는 구성원들이 만든 영상편지가 나왔다. 모두가 ‘다시 좋은 방송 만들자’고 이야기했다.<br/><br/>“<span class='quot0'>박성제 기자가 드디어 양복을 입었습니다!</span>” 허일후 아나운서가 재치 있게 분위기를 띄웠다. 강지웅·박성제·박성호·정영하씨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 현수막 앞에 나란히 섰다. 마지막으로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구성원들은 복직자들에게 직접 사원증을 걸어줬다.<br/><br/> <br/><br/>박성호 기자는 “나갈 땐 사실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해주셨다. 우리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제 뒤에 함께 들어온 것 같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9년 동안의 MBC 탄압은 언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탄압에 우리 공동체는 끝까지 저항했고 모두 힘을 합쳐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br/><br/>이용마 기자는 “2012년 3월 해고되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 꿈 같다.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며칠 전 병상에서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2월에 빨간 날짜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원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날이다. 예정대로 다음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겠구나, 정말 몸서리를 쳤다”고 말했다. <br/><br/>그는 “작년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나왔던 촛불시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의 뉴스와 시사교양, 드라마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란 손수건을 목에 두른 구성원들의 박수와 환호는 복직자들이 출입증을 찍고 회사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이지 않았다.<br/><br/> <br/><br/>MBC는 지난 8일 최 사장 취임과 함께 노사 공동으로 해직자 6명의 복직을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사장 체제에서 새 출발을 하는 간판 보도프로그램 <뉴스데스크>의 앵커로는 복직한 박성호 기자와 손정은 아나운서가 내정됐다. 두 사람은 배현진 아나운서가 하차한 후 18일부터 개편되는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는다. 주말 <뉴스데스크>는 김수진 기자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기자는 MBC 기자협회장을 지냈고, 2012년 파업 때 해직됐다가 복직됐으며 손 아나운서와 김 기자는 모두 파업 이후 오랫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다. <br/><br/>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1일 라디오심의부에 ‘유배’당한 변창립 아나운서를 부사장으로, 역시 신사업개발센터에 부당전보됐던 정형일 기자를 보도본부장으로, ‘PD수첩’을 연출했던 조능희 PD를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선임하는 등 ‘최승호 체제’를 함께 할 임원진을 내정했다. 이들의 선임은 뒤이어 열린 주총에서 곧바로 확정됐다. 앞서 MBC는 최 사장이 취임한 8일 보도국 인사를 단행,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 밖으로 내몰렸던 기자들을 대거 핵심 보직에 배치했다.<br/><br/><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8.txt

제목: [문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다](10)스타도 춤도 노래도 없는 ‘시 예능’에 울고 웃고…한시의 추억에 빠진 14억 중국인  
날짜: 20171210  
기자: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10211613001  
ID: 01100101.2017121021161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ㆍ중국 문화 만리장성을 쌓는다 <br/>ㆍ‘전통의 재해석’ 제작기술·IT 발전 타고 확산…특유의 감성에 맞춘 콘텐츠 차곡차곡<br/><br/><br/><br/>360도로 열린 무대에 선 도전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9개의 한자가 표시된다. 도전자는 이 중 5개 한자를 배열해 순식간에 당시(唐詩)에 나오는 아름다운 구절로 완성해낸다. 그러자 무대 위의 모니터에는 시 구절에 등장하는 연꽃과 모란이 떠오른다. <br/><br/>사회자가 정답이라고 선언하면 한시 전문가들이 이 시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준다. 도전자 맞은편에서 같은 문제를 풀고 있던 100명의 참가자 정답률이 공개되면 도전자의 점수도 결정된다. 참가자의 오답률이 높을수록 도전자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br/><br/>시 구절만으로 어느 시대 누구의 시인지, 제시된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 구절에 맞는 한자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다양한 퀴즈에 시청자들은 점점 빠져든다. 여기에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 결혼을 앞둔 도전자 등 다양한 사연이 더해지면서 감동과 몰입도는 배가된다. 온 가족을 TV 앞에 끌어모은 이 프로그램을 두고 시청자들은 한시가 이렇게 흥미로울 줄 몰랐다고 열광한다. 중국 관영 CCTV 교육채널(CCTV10)에서 방송되는 <중국한시대회(中國詩詞大會)>. 한시를 소재로 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br/><br/>스타도,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꾸민 이도 없다. 가슴을 뻥 뚫어주는 가창력이나 화려한 춤 실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초·중·고 시절 공부했던 한시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대. 너무나 단조롭고, 어쩌면 지루할 것도 같은 이들의 도전이 어떻게 14억 중국인들을 울고 웃기는 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 됐을까.<br/><br/><br/><br/>■ 노래·랩 대신 한시 실력 뽐내는 예능<br/><br/>중국 베이징시 외곽 다싱(大興)구에 위치한 우웨이펑황 스튜디오는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출연하는 대형 음악 프로그램을 주로 촬영하는 곳이다. 한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 스튜디오가 1650㎡(500평) 정도인데 이곳의 면적은 5000㎡(1500평)가 넘는다. 이곳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중국한시대회> 시즌3이 촬영됐다. <br/><br/>고시(古詩)는 어렵고 딱딱하다. 뜻을 음미하거나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학교 숙제로 억지로 외운 기억이 더 많다. 그런데 <중국한시대회>는 2015년 처음 방송된 이후 중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됐다. CCTV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각 10회씩 방송된 시즌1의 조회수는 4억8600만뷰, 시즌2는 11억6300만뷰에 이른다. 화제를 만든 것은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출연자들이다. 두보가 이백보다 술을 덜 마신다는 이유 때문에 두보의 시를 좋아한다는 7세 소녀, 6년간 림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시를 읽으며 고통을 잊는다는 농촌 여성, 베이징대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박사 등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전국적 스타가 됐다. <br/><br/>책임프로듀서인 옌팡(顔芳·41)은 “<span class='quot0'>한시는 중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뇌리에 박혀 있는 익숙한 소재</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중국한시대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시에 대한 추억을 소환했을 뿐</span>”이라고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어렵고 딱딱한 한시를 어떻게 대중화시킬까 고민했는데 기획에서 첫 방송까지 608일 걸렸다</span>”고 말했다. <br/><br/><br/><br/>‘볼거리’를 위해 제작진이 중점을 둔 부분은 스튜디오였다. 360도로 펼쳐지는 무대에 한시와 그림을 구현할 LED 패널을 설치했고 도전자들이 앉는 책상마다 놓인 모니터는 각각 퍼즐조각처럼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도록 구성했다. <br/><br/>최근 몇년간 <한자받아쓰기대회> <사자성어대회> <수수께끼대회> 등 중국어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서 쌓은 노하우를 쏟아부은 것이다. 내년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에 방송될 예정인 시즌3에는 12만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중국은 넓고 사람도 많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자원이다. <br/><br/>옌 프로듀서는 “<span class='quot1'>백인백상(百人百像), 시를 좋아한다는 사실만 같을 뿐 100명의 모습이 다르고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span>”이라고 분석했다. <br/><br/><중국한시대회>의 성공 뒤에는 중국 관영 방송인 CCTV의 네트워크 장악력, 각 정부부처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이 프로그램 제작엔 교육부, 중국 공청단, 국가언어문자위원회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교육부의 지원하에 각 지역의 각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식이다. 전국에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의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출제 범위는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150편의 한시다. <br/><br/>옌 프로듀서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이득과 사람의 인화가 융합된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가 맞았다고 말했다. 한 회당 제작비는 80만위안에서 150만위안으로 다른 프로그램 대비 높은 편이 아닌데 CCTV에서 방송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얻을 수 있었고, 교육부와 함께 전국의 인재들을 출연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춘제 연휴라는 황금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은 제작비로 살 수 없는 것이다. <br/><br/><중국한시대회>는 교육부 산하 국가한반의 공자학원과 연계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br/><br/>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으로, 현재 140개 국가에 511개 학교가 있다. “먼 목표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가 말한 천시지리인화처럼, 중국 교육부 등 당국의 지원과 CCTV의 자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공자학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가까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br/><br/>■ 고유문화 프로그램 전성기 <br/><br/>CCTV 종합예능 채널에서 방송 중인 <낭독자(朗讀者)>는 한시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시뿐 아니라 고대 문헌, 유명 학자가 남긴 경구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배우나 작가 등 각 분야 유명인이나 전문가들이 나와 자신이 꼽는 인생의 글을 낭독한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 역시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br/><br/>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국인들의 자존감과 선민의식을 떠받치는 근거다. 최근 들어 대중문화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전통문화를 대중문화라는 틀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베이징뿐 아니라 각 지역 방송국에서도 전통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다. <br/><br/>허베이(河北)방송국은 한시 프로그램인 <중화우수한시(中華好詩詞)>를 방송 중이고, 구이저우(貴州)방송국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중화(最愛是中華)>를 내놨다. 한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CCTV는 전통민요를 소재로 한 <중국민요대회(中國民歌大會)>와 문화재를 다루는 <국가보물(國家寶藏)>도 방송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베이징 고궁박물원을 비롯해 상하이·난징·허난·후난 등 9대 국립 박물관을 찾아가 인기스타들이 역사 유물을 소개한다.<br/><br/>헤이룽장(黑龍江) 위성채널의 <견자여면(見字如面·Letters Alive)>은 옛날 편지를 낭송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편지를 받으니 마치 직접 만난 것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기 경험이 많은 중·노년의 배우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옛날의 편지를 읽어준다. <br/><br/>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송나라 시인이 벗에게 보낸 편지 등이 전파를 탔다. 연륜 있는 배우들이 연기력으로 당시 편지를 썼던 사람의 감정을 되살리면서 읽기 때문에 재미와 감동까지 더해진다. 스튜디오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낭송하고 나면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와 역사 전문가가 당시 배경에 대해 해설한다. <br/><br/>이외에도 각 지역 방송국에서는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전통무용과 음악, 음식, 무술, 주거 방식 등 분야와 소재도 무궁무진하다. <br/><br/>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세계 각국에서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을 꿈꾼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대륙의 광활한 시장은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br/><br/>그러나 중국인들의 문화 먹거리는 이미 중국 내에서 충분히 자급자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 보편적인 정서가 통할 수도 있지만 이미 중국 문화 시장에서 빠르게 지분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은 콘텐츠들이다. 생산되는 콘텐츠의 규모나 양도 엄청나지만 시장 잠식 속도도 빠르다. <br/><br/>이는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1~2년 새 나타나는 현상이다. <br/><br/>한때는 해외에서 유입된 문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베끼는 분위기가 만연했으나 현재는 자체적인 제작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진보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국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급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br/><br/>TV 프로그램, 영화,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인들 특유의 감성,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더해진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급속히 파고드는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문화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br/><br/><br/><br/>■ 모바일 메신저에서 시작된 콘텐츠 <br/><br/>CCTV 같은 관영 방송에서 판은 깔았지만 이를 확산시키는 주체는 모바일이다. 9억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은 문화 콘텐츠의 탄생과 성패를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9월 현재 웨이신 가입자수는 9억명을 넘었다.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하루 발송되는 메시지는 380억건, 음성 혹은 화상 전화 이용도 하루 2억건에 달한다. 유통의 속도와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br/><br/>판제커(潘傑客)는 벤츠 중국법인에서 최고책임자로 일했던 경영인이자 상하이 둥팡(東方)위성TV에서 토크쇼 <21@21>을 진행한 방송인이었다. 그는 현재 높은 인기를 누리는 모바일 문화 콘텐츠 회사를 이끌고 있다. 2013년 웨이신 공식 계정을 통해 출범한 ‘당신에게 시를 읽어드립니다(The Poem for You)’이다. 웨이신 공식 계정은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와 비슷한 모바일 커뮤니티 기능이다. <br/><br/>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사무실에서 만난 판제커는 누렇게 바랜 한국 신문을 내밀었다. 12년 전 발행된 신문에는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중국의 래리 킹, 최고 권위 토크쇼 진행자’로 소개된 기사에는 그의 활약상이 서술돼 있었다. 중국 최고의 진행자가 한국에 와 강제규 감독과 배우 전지현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이다. 오렌지색 넥타이를 맨 판제커는 한글로 된 기사를 읽을 수 없어 답답했다면서 기자에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며 웃었다. <br/><br/>화려하고 역동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익숙한 그가 선택한 콘텐츠는 왜 시였을까. 이에 대해 그는 “<span class='quot2'>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가닿는 순수한 감성에 주목했다</span>”고 말했다.<br/><br/><br/><br/>그가 시의 가능성을 본 것은 5년 전이다. 벤츠 베이징센터 최고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는 사교 클럽인 ‘비 마이 게스트(Be my guest)’를 만들었다. 중국 각계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다. 입회비는 받지 않았지만 입회 절차와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예술과 문화 활동을 공유했다. 이 클럽 안에는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미술, 공연, 문학작품 낭독회 등 다양한 소모임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시낭송 모임이었다. 그는 여기서 착안해 별도로 웨이신 공식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몇몇의 지인들이 모여 시를 읽어줬다. 그를 비롯해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의 CEO 리옌훙(李彦宏),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식 유니폼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궈페이(郭培) 등이 참여했다. 구독자수도 10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늘어났다. <br/><br/>이 계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를 읽어주겠다는 셀레브리티들도 모여들었다. 공식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홈페이지로 플랫폼도 넓혀갔다. <br/><br/>여기서 시를 읽은 사람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 아일랜드 대통령 마이클 D 히긴스 등의 목소리로 시가 낭송됐고 모바일을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현재까지 공식 구독자수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청취자도 10억명이 넘는다. 뉴미디어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콘텐츠 스타트업이 명멸하고 있지만 그는 ‘고루한’ 시로 4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br/><br/>그는 “<span class='quot2'>시, 문학, 음악은 소수의 엘리트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팔로어들을 보면 공장 노동자, 노점상, 경비, 변호사, 의사, 공무원, 군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원래 시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어쩌다 시를 듣게 됐고 시가 지닌 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팔로어가 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구독자로 한 농민을 꼽으며 그가 남긴 글을 보여줬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라 예전엔 어떤 게 시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당신에게 시를 읽어드립니다’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는 걸 시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시를 사랑하기로 했다.”<br/><br/>판제커는 “이렇게 규모가 커질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중국인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소비 능력이 커지고 있지만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특별한 개척자도, 유행의 선도자도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구독자들은 60개 나라에 분포돼 있는데 모두 중국 사람”이라며 “14억 중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까지 잠재 고객”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목표는 구독자를 3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 매출도 100억위안(1조7000억원) 규모가 된다. <br/><br/>■ 사극 드라마 1000억 시대<br/><br/>중국 드라마 시장은 거대 자본이 투자된 사극이 장악하고 있다. 사극 드라마 투자액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제작 혹은 방송된 주요 사극 제작비는 5억위안(약 850억원)에 육박했다. 2년 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br/><br/>중국 사극의 원년으로 꼽히는 2011년 <후궁견환전>의 총제작비는 7000만위안(119억원)으로 1억위안(17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2015년 방송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랑야방>의 제작비는 1억1000만위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방영 혹은 제작된 드라마를 보면 제작비가 3억위안 미만인 작품이 단 한 편도 없다. <br/><br/>중국 최고 인기 여배우로 꼽히는 판빙빙이 주연한 <영천하>는 제작비가 5억위안을 넘었다. 진나라 여성 상인을 소재로 끌어온 이 드라마는 내년 방송을 앞두고 있다. 중국 사극은 2015년부터 전성기를 맞았다. <무미랑전기> <화천골>이 1억위안 시대를 열자마자 SF 사극인 <환성>이 3억위안 기록을 세웠다. 2년 만에 <영천하>가 아시아 사극 최고 기록인 5억위안 제작비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사극 제작비의 무서운 상승에는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 <후궁견환전>을 시작으로 <화천골> <랑야방> <미월전> 등이 흥행을 이끌자 문화 분야의 대형 자본이 사극에 쏠렸다. 돈이 쏠리니 대형 작품이 쏟아지고, 흥행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스타들의 몸값도 올라갔다. 대형 사극이 계속 쏟아지면서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극이 제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미월전>과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청운지>도 모두 사극이었다. <br/><br/>내년에는 사극 1000억원 시대가 열린다. 편당 투자액 6억위안(약 1020억원)에 달하는 <장안십이시진>이 제작된다. 이 작품은 당나라 현종 시대에 수도에서 활약하던 자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용세트장 총면적은 70묘(46669㎡·1만4000평)에 이른다. <br/><br/>중국의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인물은 사극의 풍부한 자산이다. 여기에 엄청난 돈까지 몰리면서 사극의 시대와 소재도 다변화하고 있다. 황제나 공주, 장군 등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진화하고 있다. 내년 초 방송을 앞둔 <영천하>는 진나라 시절 과부 바청의 이야기를 담는다. <br/><br/>국내에서도 사극은 현대극과 달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국내에서 제작된 사극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작품은 2년 전 방송됐던 <육룡이 나르샤>(SBS)로 3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br/><br/>■ 영화, 게임도 신토불이 콘텐츠로 <br/><br/>할리우드뿐 아니라 세계 영화계는 몇년 전부터 중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중국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중국 배우들을 출연시켰다. 2014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중국 자본이 투자되면서 중국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리빙빙과 한경 등 중국 배우가 조연으로 출연했다. 덕분에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중국에서 거둬들였다. 2015년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도 전체 수익의 25%를 중국에서 냈다. 할리우드 영화의 새로운 주수입원으로 떠오르는 듯했던 중국은 이제 자국 영화로 스크린을 채우고 있다. <br/><br/>지난해 박스오피스 1위 영화는 저우싱츠(周星馳)가 기획, 제작, 연출을 맡은 <미인어>다. <미인어>의 총수입은 33억위안(약 5610억원)이다. 이 영화의 성적을 보면 중국 박스오피스 규모의 폭발력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는 개봉 22일 만에 중국 내 흥행 수입 31억위안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 국내 영화 박스오피스 전체 수입(26억2000억위안)을 넘어선 것이다. 인어공주를 모티프로 삼은 재벌가와 인어의 사랑 이야기지만 저우싱츠 감독 특유의 중국식 유머가 인기 동력이 됐다. <br/><br/>올해 최고의 박스오피스는 지난 7월 개봉한 <전랑(戰狼)2>. 57억위안의 수입을 거두면서 미국 박스오피스 모조닷컴이 집계하는 전 세계 역대 흥행 5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화는 중국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 렁펑이 내전 중인 아프리카에서 중국인과 현지 난민을 구조하는 내용의 액션물이다. 중국인 전사가 세계의 난민을 구하는 내용을 두고 중국 내에서는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호평이, 외부에서는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선전물이라는 혹평이 엇갈렸지만 중국 관객의 힘으로 세계적인 흥행작이 됐다. 올해 박스오피스 상위 순위를 보면 <수줍은 철권> <쿵푸요가> <서유복유편> 등 4편이 중국 영화다. 할리우드 영화 격전장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영화 시장이 국산 영화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영화관의 스크린수는 4만5000개다. 북미 지역을 추월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많은 스크린이 있지만 상당수를 중국 영화가 채운다. <br/><br/>모바일 게임 시장도 중국의 굴기가 뚜렷하다. 중국 내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게임도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내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은 57%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02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81.9%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자국산 콘텐츠가 부동의 1위를 점유하고 있다. <br/><br/>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으로 유명한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텅쉰(騰迅·텐센트)이 내놓은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는 다운로드수가 2억건이 넘었다. 일일 이용자수는 8000만명이며 이들이 구매하는 아이템수는 1억5000만건이다. 올해 1분기 수입은 이미 60억위안(약 1조원)을 뛰어넘었다. 왕자영요의 뜨거운 인기에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저하된다며 “왕자영요를 경계하자”는 제목의 사설까지 발표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일 접속자수 1억명 돌파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br/><br/>5000년이 넘는 중국의 역사는 마르지 않는 문화 콘텐츠의 샘이 되고 있다. 고대 한시부터 역사 속의 영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살아나고 있다. 상상력과 자본, 기술력까지 결합하면서 쏟아져나오는 문화 콘텐츠의 규모와 파급력이 미칠 범위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2000여년 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로 끝없는 장성을 쌓아올리고 있다. <br/><br/><시리즈 끝> <br/><br/>※ 이 시리즈는 삼성언론재단이 지원했습니다.<br/><br/><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9.txt

제목: 인체조직으로 유방복원 등 유방암 신 치료기술 개발  
날짜: 20171207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7143245001  
ID: 01100101.201712071432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은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 제거를 위해 유방의 일부를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 하더라도 여성들의 상실감 등 정신적 상처를 안겨준다.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재건술을 통해 유방의 형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 등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상존하고 있다.<br/><br/>전북대는 이런 유방암을 조기진단부터 치료, 재발 방지, 형상복원까지 모두 가능한 새로운 치료기술이 김철생·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7일 밝혔다. <br/><br/>이 치료기술은 환자가 수술 전의 유방 형상을 자신의 조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실험 후 상용화가 되면 유방암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북대는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널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됐고, 표지 논문으로도 추천됐다.이 논문에 따르면 전북대 연구팀은 아직까지 유방암 치료과정에서 한 번도 수행되지 않았던‘조기진단→약물전달→치료→재발방지→형상복원’까지 모두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특히 인공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유방을 자신의 조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술도 내놨다.<br/><br/>연구팀은 나노섬유기반에‘RGO(Reduced Graphene Oxide 약자로, 탄소소재를 바이오 소재로의 응용이 가능한 탄소 소재)’를 완벽하게 분산시키고, 항암 치료제와 지방선구세포(Pre-adipocyte)를 주입시켰다. 연구팀은 실제 실험을 통해 치료와 형상 복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br/>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 항암 치료기기 시장뿐만 아니라, 스텐트와 같은 새로운 인체 매식형 중재적 시술기구 시장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br/><br/>김철생 교수(공대 학장)는 “<span class='quot0'>이 원천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까지는 아직 전임상 및 임상실험이 남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바이오 기업과 협업해 상용화까지 이뤄내 유방암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0.txt

제목: “딱 10년 만이네요, 태안 앞바다 굴 까는 맛”  
날짜: 20171206  
기자: 글·사진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6220515001  
ID: 01100101.20171206220515001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ㆍ‘기름 유출’ 이겨낸 마을<br/><br/><br/>지난 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마을 주민 박희자씨(72)가 남편 김형수씨(76)와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전에 채취한 굴을 까고 있었다. 박씨는 굴을 까는 도구인 조새로 굴 껍데기 모서리를 쪼았다. 박씨는 “맛 한번 보라”며 통통한 굴을 하나 건넸다. 신선하고 청량한 갯내가 입안 가득 감돌았다.<br/><br/>박씨는 “<span class='quot0'>기름 유출사고 이후 한동안 굴이 제대로 자라지 않다가 2013년부터 굴을 캐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 굴은 10년 만의 풍작으로 잘 영글었다</span>”고 전했다. 박씨는 이어 “<span class='quot0'>3년 전만 해도 굴의 상품성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는 바다가 기름 유출사고 이전으로 회복한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굴은 바닷속 유기물을 걸러 먹고 살아 수질오염에 민감하다. 굴이 잘 자란다는 것은 바다가 깨끗해져 유기물이 늘어나고 건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br/>7일은 태안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되는 날이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했다. 유조선 오일탱크에 구멍이 나면서 유조선에 실린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쏟아졌다. <br/><br/>이 사고로 충남 6개 시·군의 해안 70.1㎞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다. 기름띠는 조류를 타고 전남과 제주도 인근의 섬까지 375㎞나 퍼졌다. 사고가 나자 전국 각지에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아 밀려온 기름을 손으로 퍼내고 갯바위를 닦았다.<br/><br/>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빠르게 개선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류오염센터가 진행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08년 태안지역 전체 해안의 69.2%에 달했던 잔존유징(기름이 지표면 아래로 스며든 정도)은 2014년 기준 0%로 바뀌었다.<br/><br/>충남 앞바다에서 대표적으로 잡히는 꽃게, 대하 등의 어획량도 회복됐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충남 꽃게 어획량은 2007년 4298t에서 사고 이듬해 3997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019t으로 늘었다. 대하의 어획량도 2007년 378t에서 2008년 89t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499t으로 증가했다.<br/><br/>태안의 해안과 어장은 예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주민 건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안군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가 분석한 ‘태안지역 암 발생률’을 보면, 태안 주민의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은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다른 해안지역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태안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2004∼200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2.1명에서 2009∼2013년 30.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남 서천군(23.4명), 전북 부안군(28.7명), 전남 고흥군(22.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명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장은 “<span class='quot1'>기름 유출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제는 기름 유출과 건강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시기</span>”라고 말했다.<br/><br/><글·사진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1.txt

제목: "중이온가속기 2021년까지 완공 가능, 기술적 과제 극복하고, 예산증액 없다" 과기정통부  
날짜: 20171206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6120417001  
ID: 01100101.20171206120417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이온가속기 ‘라온’의 기술적 과제가 대부분 극복됐으며, 사업비 증액 없이 목표대로 2021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br/><br/>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이온가속기 사업점검 TF인 ‘어떡할래TF’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결과보고회에서 총사업비 증액 없이 2021년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떡할래TF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 중인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TF의 이름은 유 장관이 직접 붙인 것으로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와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br/><br/>TF는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증가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중이온가속기는 예산증액 없이 기존에 책정된 예산인 총 1조4314억원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개발 진행상황 점검결과 기술적 문제는 거의 해소됐으나 예산 및 기간상에 여유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장치 개발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구매, 발주,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F는 추가소요 예산을 기존 시설에 대한 건설범위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br/><br/>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에 강한 전기를 가해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속된 중이온이 우라늄 등의 무거운 원소와 충돌하면 핵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희귀동위원소가 발생한다.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를 말하며 이때 발생한 희귀 동위원소는 물질의 생성원리를 찾는 기초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이온은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에서 전자가 빠진 상태로 양의 전기를 갖는 이온(전하를 띤 입자)을 말한다.<br/><br/>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대전의 중이온가속기 라온이 완공되면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입자물리학 연구부터 신소재 개발, 암 치료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걸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8번째로 중이온가속기 핵심 장치를 개발하고 성능시험까지 마친 바 있다. 중이온가속기가 완성되면 국내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학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한국의 이름을 딴 원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 이름을 딴 원소기호로는 미국 아메리슘, 프랑스 프랑슘, 독일 게르마늄, 일본 니호늄 등이 있다.<br/><br/>다만 중이온가속기의 핵심 장비 중 일부에 대한 성능시험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장비들을 만들고, 성능시험을 마쳐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2011년 착수했으며 2017년 완공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사업이 두 차례 지연되면서 목표가 2021년으로 수정된 바 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2.txt

제목: 이용마 기자, MBC로 돌아간다…사장 후보 모두 “해직자 복직”  
날짜: 20171205  
기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5154249001  
ID: 01100101.20171205154249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ㆍ신임 사장 8일 첫 출근 때 노조 대표와 함께 합의문 선포<br/><br/>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MBC 해직자 6명이 오는 8일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MBC 사장 최종 후보 3명 모두가 해직자 즉각 복직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 선언’을 노조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해고 2100여일 만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2070여일 만에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br/><br/>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돼야 한다”며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장 후보인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논설위원,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모두 ‘노사 공동 선언’을 수락했다. 이 전 실장은 통화에서 “MBC에 쌓인 수많은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이 해직자 문제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해직자들이 하루빨리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임 전 위원도 “노조의 제안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직자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 해직자 복직은 MBC 정상화라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이용마 기자가 다시 MBC와 함께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가 해직자 신분인 최 PD는 “복직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다. MBC 정상화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사장으로서 첫 출근 날이 해직자가 복직하는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br/><br/>이미 1심과 2심 법원은 방송 공정성을 목표로 내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6명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2015년 4월 사측이 상고해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임 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직자들이 법적으로 직원 신분을 회복한다. 내부 행정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해직자들은 8일 신임 사장 결재 직후 신분을 회복한다. 노조는 신임 사장 내정 후 첫 월요일인 11일 해직자들이 다시 MBC에 출근할 것으로 보고 복직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br/><br/>신임 사장은 7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내정되고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br/><br/><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3.txt

제목: 친환경 기능성 의류브랜드 랑힐트, 반려동물 의류도 이젠 친환경을 생각할 때  
날짜: 2017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4145548001  
ID: 01100101.20171204145548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등록 수만 100만, 추정치 500만으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애완 의류의 경우 털 위에 입힌다는 생각에 디자인에만 치중해 개발하여 소재에 대해서는 소홀한 제품을 자주 볼 수 있어 반려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br/><br/>사람이 입는 옷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아 보통 면을 비롯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흔히 볼 수 있는 반면, 반려동물 의류의 경우 흔히 제기하는 문제점들로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물질을 사용한 염색,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발암물질 등이 있다. 발암물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의류 내 단추 등 금속자제 도금 시 사용되는 니켈, 원단코팅 시 사용하는 합성물질, 방수처리 시 발수제에 다량 함유시키는 PFC 등이 있다. 위 물질들은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br/><br/><br/>반려동물 의류 브랜드 랑힐트(Ranghild)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이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반려동물 의류를 개발했다.<br/><br/>랑힐트에서 생산한 제품은 GOTS 인증을 받은 원단을 사용한다. 국제유기농섬유규격인 GOTS인증이란 유기농 자재 70% 이상 사용한 면 원단에만 주는 인증으로 랑힐트는 인증받은 원단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좋은 원단을 사용함에도 가격이 시중 반려동물 의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모든 제품을 국내 생산한다. 모든 원·부자재를 국내생산이라는 원칙으로 봉제까지 국내 생산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도 장점으로 꼽힌다.<br/><br/>이 기업은 2016년 상생 서포터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2017년 송도 K-PET Fair를 시작으로 BICAS부산 국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와 일산 K-PET Fair 등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제품을 선보여 많은 반려인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종합 애완용품숍인 홍콩 RUFF&FRTCH와 납품계약 체결로 인해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br/><br/>친환경 기능성 반려동물의류 브랜드 랑힐트 이동찬 대표는 “<span class='quot0'>랑힐트 제품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해물질을 배제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친환경과 유해물질 배제로 인한 피부질환 예방과 털갈이용 의류 등의 기능성,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유니크한 디자인과 심플함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입니다</span>”라고 전했다.

언론사: 경향신문-1-34.txt

제목: [포토다큐] 겨울, 그렇게 왔다  
날짜: 20171201  
기자: 사진·글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201174348002  
ID: 01100101.20171201174348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인제 자작나무숲 두 팔 벌리고<br/><br/>매번 보던 풍경도 보는 각도가 달라지니,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찾아온 강원도의 겨울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올해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될 만큼 풍광이 좋은 곳이다. 자작나무 70만여그루가 심어져 있다. 가을 산을 곱게 물들였던 자작나무숲은 겨울에 들어서면서 풍성했던 잎이 떨어져 앙상한 모습으로 변했다. 하지만 간간이 햇살을 받으면 숲은 하늘로 솟구치는 민들레 포자의 힘찬 날갯짓처럼 생동감이 넘친다.<br/><br/><br/>평창 들녘 햇살에 졸듯<br/><br/>추수가 끝난 들판의 모습은 어떨까. 가을에 비해 겨울 들녘은 확연히 한가로워 보였다. 하지만 농사의 시작은 봄이 아니라 역시 겨울이다.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수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년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논과 밭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채소 수확이 끝난 평창의 한 비탈진 밭에는 비료작물로 심어 놓은 호밀이 어느새 어른 발목 높이만큼 파릇파릇 자랐다. 땅심을 얻기 위한 객토용 흙더미도 넓은 밭 여기저기 쌓여 있다. 인공암벽장 손잡이 돌기처럼 솟아난 모습이 하얀 모자를 쓴 듯 앙증맞다.<br/><br/><br/>대관령 황태덕장 찬바람 사이로<br/><br/>대관령 황태덕장은 빼놓을 수 없는 강원도의 겨울 풍경이다. 황태덕장 주민들은 매서운 추위를 앞두고 명태를 널기 위한 ‘덕’을 설치해 놓았다. 덕은 널이나 막대기 따위를 나뭇가지나 기둥 사이에 얹어 만든 시렁을 말한다. 덕에 널린 명태는 혹독한 추위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건조되어야 비로소 황태로 거듭난다. 웅장한 규모의 덕장은 아직은 비어 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계속되어야 덕장에 명태를 말리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덕장 주민들이 애타게 한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이유다.<br/><br/><br/>강릉 안반데기 눈 시린 비탈로<br/><br/>해발 1100m의 강릉 안반데기는 고랭지 배추밭이다. 이곳 지형이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 즉 안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배추 수확이 이미 끝나 푸른 배추밭의 모습은 내년 여름에야 다시 볼 수 있다. 백두대간과 만나는 가파른 산비탈 밭은 눈이 쌓여 설국으로 변신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비탈밭 풍경이 시리도록 아름답다.<br/><br/>어느 한 해라도 겨울이 오지 않은 적이 있던가. 잊고 있어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짧은 가을을 못내 아쉬워하는 동안 겨울은 성큼성큼 다가와 색다른 풍경을 만들고 있다.<br/><br/><사진·글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5.txt

제목: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670배 초과...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언제 해결되나  
날짜: 20171129  
기자: 송윤경·허진무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9230538001  
ID: 01100101.20171129230538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를 미루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환경부가 마지못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br/><br/>환경부는 29일 “<span class='quot0'>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과 8월 시행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한다</span>”면서 13쪽의 발암·유해물질 검출량 통계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span class='quot0'>최종보고서는 아직 미군 측과 협의 중</span>”이라면서 수치만 공표한 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br/><br/>이날 나온 자료를 보면 용산기지의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671.8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됐다.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ℓ당 0.015㎎ 이하인데, 무려 10.077㎎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벤젠이 대량 검출된 관정의 위치는 기지 내 주유소가 있는 지점으로 추측되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지점에 대해 “<span class='quot0'>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br/>환경부는 지난해 1월과 8월 미군기지 안팎의 관정 54곳과 59곳을 각각 조사해 지하수의 발암·유해물질을 조사했다. 벤젠 외에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한 톨루엔도 나왔다. 에틸벤젠과 자일렌도 각각 기준치의 최대 6.4배, 1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졸도를 겪을 수 있으며 고농도 흡입했을 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과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언어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며 두통과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br/><br/>환경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0'>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가 논의해 공개하기로 했다</span>”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소송까지 내면서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과 법원의 판결에 등 떼밀려 공개한 것이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용산기지 2차, 3차 조사결과다. 1차 조사를 한 것은 2년 전인 2015년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소송까지 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상고로 맞섰다. 결국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야 지난 4월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도 분석은 없이 검출량만 적은 1쪽짜리 자료여서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올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br/><br/>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원 위치, 오염수 흐름 등에 관한 분석이 빠진 데 대해 “<span class='quot1'>SOFA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span>”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실태를 고발해 온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에 대해 “<span class='quot2'>지금이라도 측정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전보다 진보한 것이긴 하지만 분석결과가 빠져 있고 정화계획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알 수 없다</span>”면서 “조만간 설명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br/><br/>미 용산기지의 지하수 환경조사는 2001년 녹사평역 오염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휘발유 등의 기름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군 측은 “<span class='quot3'>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환경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다</span>”고 밝혔다. 기지 바깥의 지하수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약 47억원을 들여 정화를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를 퍼 올리면 둥둥 떠 있는 기름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지난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선 벤젠이 기준치의 587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8배, 톨루엔·에틸벤젠은 2배, 크실렌은 5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화작업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근본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br/><br/>기지 내·외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간 최종 보고서 마련이 늦어지면서, 녹사평역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16째인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오염정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미국은 기지내부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해왔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지하수 환경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합의부터 돼야 정화책임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송윤경·허진무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6.txt

제목: ‘반홍’ 동시다발 공격에…코너 몰린 홍준표  
날짜: 20171129  
기자: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9214936001  
ID: 01100101.20171129214936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ㆍ한선교·나경원 이어 이주영 “독불장군, 미래 없어” 맹폭 <br/>ㆍ홍 “나도 친위대 만들 것”…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홍<br/><br/><br/>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을 사실상 공개 지지하자, 이를 촉발점으로 그간 쌓여왔던 당내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저조한 당 지지율, 야권 내 고립 등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대안 부재론’에 힘입어 당 주도권을 넓혀왔던 홍 대표 체제가 출항 5개월 만에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br/><br/>홍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홍 대표의 ‘페이스북 정치’ ‘막말’ ‘원내대표 선거 지원’ 등을 비판했다. 친박계 한선교 의원은 전날 “홍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0'>원내대표 선거 초반부터 홍 대표는 겁박과 막말로 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span>”고 적었다.<br/><br/>대표가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당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br/><br/>홍 대표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나도 친위대를 만들겠다” “<span class='quot1'>내년 지방선거 전에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span>”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홍 대표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4'>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고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만든 암적 존재가 있어 암 덩어리라고 하고 도저히 생살로 돋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름이라 지적하는 당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이 있다</span>”고 거들었다. <br/><br/>홍 대표가 임명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한선교 의원과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br/><br/>당 상황을 두고, 홍 대표의 당 장악 과정에서 소외 세력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 일부 지자체장들의 물갈이를 공언했다. 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홍 대표의 거친 언사와 측근 중심의 당직 인사 등 여러 불만이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 ‘원내대표까지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다</span>”고 말했다.<br/><br/>더 큰 문제는 홍 대표가 ‘바퀴벌레’ ‘고름’ 등 막말로만 기억될 뿐 야권 대표주자로서 무게감이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홍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br/><br/>야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홍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공포정치를 하다가 디도스 사태를 기점으로 불만이 폭발해 대표에서 쫓겨났을 때랑 상황이 비슷하다</span>”며 “<span class='quot3'>차기 대표로 누가 좋을지를 얘기하는 의원들이 이미 있다</span>”고 말했다.<br/><br/>홍 대표의 향후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친홍 대 반홍’의 구도가 명확해진 만큼 홍 대표 재신임 선거 의미는 더 커졌다.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다면 홍 대표는 한고비를 넘겠지만, 패한다면 홍준표식 개혁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br/><br/><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7.txt

제목: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벤젠 기준치 670배 초과했는데...조사해놓고 발표 미룬 환경부  
날짜: 20171129  
기자: 송윤경·허진무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9125307001  
ID: 01100101.20171129125307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를 미루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환경부가 마지못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br/><br/>환경부는 29일 “<span class='quot0'>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과 8월 시행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한다</span>”면서 13쪽가량의 발암·유해물질 검출량 통계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span class='quot0'>최종보고서는 아직 미군 측과 협의 중</span>”이라면서 수치만 공표한 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br/><br/>이날 나온 자료를 보면 용산기지의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671.8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됐다.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ℓ당 0.015㎎ 이하인데, 무려 10.077㎎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벤젠이 대량 검출된 관정의 위치는 기지 내 주유소가 있는 지점으로 추측되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지점에 대해 “<span class='quot0'>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br/>환경부는 지난해 1월과 8월 미군기지 안팎의 관정 54곳과 59곳을 각각 조사해 지하수의 발암·유해물질을 조사했다. 벤젠 외에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한 톨루엔도 나왔다. 에틸벤젠과 자일렌도 각각 기준치의 최대 6.4배, 1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졸도를 겪을 수 있으며 고농도 흡입했을 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과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언어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며 두통과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br/><br/>환경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0'>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가 논의해 공개하기로 했다</span>”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소송까지 내면서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과 법원의 판결에 등 떼밀려 공개한 것이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용산기지 2차, 3차 조사결과다. 1차 조사를 한 것은 2년 전인 2015년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소송까지 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상고로 맞섰다. 결국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야 지난 4월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도 분석은 없이 검출량만 적은 1쪽짜리 자료여서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올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br/><br/>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원 위치, 오염수 흐름 등에 관한 분석이 빠진 데 대해 “<span class='quot1'>SOFA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span>”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실태를 고발해 온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에 대해 “<span class='quot2'>지금이라도 측정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전보다 진보한 것이긴 하지만 분석결과가 빠져 있고 정화계획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알 수 없다</span>”면서 “조만간 설명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br/><br/>미 용산기지의 지하수 환경조사는 2001년 녹사평역 오염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휘발유 등의 기름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군 측은 “<span class='quot3'>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환경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다</span>”고 밝혔다. 기지 바깥의 지하수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약 47억원을 들여 정화를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를 퍼 올리면 둥둥 떠 있는 기름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지난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선 벤젠이 기준치의 587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8배, 톨루엔·에틸벤젠은 2배, 크실렌은 5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화작업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근본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br/><br/>기지 내·외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간 최종 보고서 마련이 늦어지면서, 녹사평역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17째인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오염정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미국은 기지내부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해왔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지하수 환경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합의부터 돼야 정화책임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송윤경·허진무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8.txt

제목: 이은숙 국립암세터 원장, 취임식서 '핵심 도전과제' 제시  
날짜: 201711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9112736001  
ID: 01100101.201711291127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은숙 국립암센터 제7대 원장(사진)이 29일 취임식에서 ‘도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br/><br/>첫째, 암 연구-정책-진료가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터미널 구축이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탁월한 연구성과가 도출되더라도 이것이 임상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이 우리나라 암 연구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한계</span>”라고 지적했다. 부속병원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암빅데이터센터에 저장해 분석하고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항암치료 효과평가와 급여기준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br/>둘째, 국립암센터의 연구자원 개방과 연구자들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리체계 하에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과 자원부터 공개·공유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와 암 관련 통계, 진료정보, 유전체 분석자료 등을 연계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암 빅데이터의 중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br/><br/>셋째, 미래의료를 위한 혁신과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부속병원의 차질 없는 증축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익적 목적의 병상을 중점 확충할 계획이다. 증축을 기점으로 사물 인터넷 기반의 환자 서비스 구축과 데이터가 생명인 미래의료를 대비한 정보시스템 혁신도 적극 추진한다.<br/><br/>넷째,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중심의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이다. 암 생존자들이 정서적·사회적 난관에 부딪혀 위축된 삶을 살고 있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가 중심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체계적 증상관리와 생활관리,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br/>다섯째,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씨앗형 프로젝트’를 발굴이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임기동안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씨앗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국제적인 암 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만들겠다</span>”고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39.txt

제목: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검출  
날짜: 20171129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9100036001  
ID: 01100101.20171129100036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ㆍ식약처 ‘수입 육류 불합격 현황’ 자료…기준치 넘는 락토파민·질파테롤 나와<br/><br/><br/>미국에서 수입된 소의 위 부위와 쇠고기에서 유럽연합·일본 등 160여개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암성 성장촉진제가 기준치 이상 잇따라 검출됐다. <br/><br/>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 육류 불합격 현황을 보면, 미국 스위프트비프컴퍼니로부터 수입된 냉동 소 위에서 지난 6월8일과 13일 기준치를 초과한 락토파민이 검출돼 통관되지 않았다. 국내 락토파민 잔류허용 기준치는 0.01㎎/㎏이나 당시 기준치의 2배인 0.02㎎/㎏이 검출됐다.<br/><br/>또 2013년 10월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된 냉동 쇠고기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질파테롤이 2차례 검출돼 불합격으로 전량 폐기되거나 돌려보내졌다. 당시 이 쇠고기에서는 0.35㎎/㎏과 0.64㎎/㎏의 질파테롤이 각각 검출됐다. 쇠고기의 질파테롤 검출 기준은 당시까지 ‘불검출’이었으나 2014년 0.001㎎/㎏으로 바뀌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스위프트비프컴퍼니의 쇠고기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질파테롤이 검출된 셈이다. 2012년과 2013년에 수입된 멕시코산 쇠고기에서도 질파테롤이 검출된 바 있다.<br/><br/><br/>사람의 기관지 확장제로 쓰이는 락토파민은 가축에게 먹이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도축 직전에 락토파민을 먹이면 기름기가 줄고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파테롤 역시 비슷한 기능과 효과를 지니며 두 약품은 보통 사료에 첨가된다. <br/><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0'>락토파민과 질파테롤은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이 빨라지고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섭취하는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중국인들은 락토파민을 먹인 돼지를 ‘독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처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락토파민과 질파테롤이 상당수 국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유럽연합·러시아·중국·일본·대만 등 160여개 나라는 락토파민과 질파테롤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미국을 포함한 26개 나라는 락토파민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질파테롤도 한국·미국을 포함한 17개 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다만 김 의원은 “<span class='quot0'>한국에서는 현재 락토파민은 부분적으로 사용되지만, 질파테롤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락토파민도 국내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는 없다</span>”고 밝혔다.<br/><br/>미국의 경우 락토파민을 이용해 소와 돼지를 키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span class='quot0'>미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45%, 쇠고기의 30% 정도가 락토파민을 먹인 소·돼지에서 생산되며, 도축 후 마켓 등에 납품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20% 정도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span>”고 말했다.<br/><br/>락토파민 등 성장촉진제의 위해성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등의 검역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락토파민 등 성장촉진제 사용이 적정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0.txt

제목: 새 대법관 임명 제청된 안철상·민유숙, 오랜 재판 경험 ‘정통 법관’…파격보다 ‘안정’에 무게 둬  
날짜: 20171128  
기자: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224429001  
ID: 01100101.20171128224429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신임 대법관에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를 임명제청한 것은 ‘파격’보단 ‘안정’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서오남)’에 치중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비서울대 남성 법관과 여성 법관을 선택했다.<br/><br/>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의 이력만 보면 기존 대법관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 다 오랫동안 재판 업무를 해온 ‘정통 법관’이다. 안 법원장이 건국대 법대 출신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한 경험은 없다는 점이 특이한 정도다. 민 부장판사가 여성이지만 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 제청이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파격이었고 사법개혁과 관련해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첫 대법관 제청은 안정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span>”고 말했다.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선수 변호사(56·17기)는 제청 대상에서 빠졌다.<br/><br/>법원 내에선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 ‘서오남’이 아니어야 다양성을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양성은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일선 법관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도 형식적인 요건보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br/><br/>안 법원장은 특별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 연구를 오래 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활동가들 승소 판결을 내렸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재중동포의 귀화를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는데도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직업군인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했다.<br/><br/>민 부장판사는 양성평등·성소수자·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대법관들의 심리를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2006년엔 성 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근거 법리를 연구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엔 젠더법연구회 산하에 양성평등 소모임을 만들어 법원 내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해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일선 여성 법관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고위 법관 중 한 명이다. 최근엔 2011년 7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매몰된 피해자에 대해 서초구와 경찰이 안전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r/><br/><br/> ■ 안철상 = △경남 합천 △대구고, 건국대 법대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br/><br/>■ 민유숙 = △서울 △배화여고, 서울대 법대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br/><br/><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1.txt

제목: ‘합법적 존엄사’ 7명…임종문화 바뀌나  
날짜: 20171128  
기자: 홍진수·김경학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223057001  
ID: 01100101.20171128223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맞아 <br/>ㆍ미리 써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000명 넘어 <br/>ㆍ남자보다 여자 신청 많아…복지부 “내년 2월 본격 시행”<br/><br/><br/><br/>‘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7명 나왔다.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등을 대비해 써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br/><br/>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br/><br/>이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 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br/><br/>‘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중단 또는 유보했다. <br/><br/>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4일까지 2197명이었다. <br/><br/>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으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br/><br/>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로 연령은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 작성한 사람은 11명이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해석했다. <br/><br/>복지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같은 해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br/><br/>시범사업 종료와 법 시행일 사이인 내년 1월16일~2월3일에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1'>시범사업과 본사업이 혼재되면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기간 중이라도 시범사업 때 작성된 문서가 있으면 유효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span class='quot2'>시범사업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앞으로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김경학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2.txt

제목: [상생과 협력 특집]아모레퍼시픽 - 10년째 여성 암 환자들 위한 ‘뷰티 캠페인’  
날짜: 20171128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203421001  
ID: 01100101.201711282034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br/><br/>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환자들이 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총 128명의 유방암 환자 중 69.5%는 심각한 정도의 탈모를, 55.5%는 가슴 변화를, 50.8%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자아 신체상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이 평균 47.5점, 치료를 마친 후 6개월 이상 지난 환자군이 평균 53.4점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 여성 평균인 70.2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다.<br/><br/>이 캠페인에는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 1만994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033명의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또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대해 2017년까지 10년간 총 6개국 1만4065명의 여성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다.<br/><br/>이 캠페인은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 및 아모레퍼시픽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국내 캠페인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전개됐다.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20개 지역 병원에서 약 850여명의 환자를,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16개 병원에서 약 700여명의 환자를 만났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3.txt

제목: [기타뉴스]고양이가 귀여워 모인 작가들  
날짜: 20171128  
기자: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173021002  
ID: 01100101.20171128173021002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날씨가 추워지면 슬슬 길고양이들의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기를 찾아 자동차 보닛 등에 들어가서 몸을 뉘이는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 전 가볍게 차를 두드리자는 ‘라이브 노킹’ 캠페인도 이맘때면 듣는 얘기죠. <br/><br/>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이 전시를 주목할 만합니다. 종로구 북촌의 JY아트갤러리(북촌로 5가길 25)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인생은 짧고 고양이는 귀엽지’전이 열립니다. <br/><br/>JY아트갤러리 이선희 대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이용한 작가의 전시 덕분에 이번 전시까지 열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작가는 10년간 고양이 밥을 주는 ‘캣대디’ 생활을 해오면서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 책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명랑하라 고양이><여행하고 사랑하고 고양이 하라><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나쁜 고양이는 없다><365일 고양이 일력><어쩌지 고양이라서 할일이 너무 많은데>등의 내놓으며 ‘고양이 작가’로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br/><br/>“평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전시 덕분에 좋아하게 됐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 중에 암 투병 중인 분이 있었는데, 이 작가님의 책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병세가 호전됐다는 얘기를 듣고 뿌듯했습니다.”<br/><br/>찾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덕분에 이용한 작가의 전시는 9월에 연장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를 기획하는 갤러리 측에 이 작가가 ‘고양이’를 테마로 활동하는 다른 작가들과의 동반 전시를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도자고양이를 만드는 김종혁 작가, 고양이 일러스트를 그리는 루나 작가, 고양이 민화를 그리는 혜진 작가, 고양이 소품공예가인 훅끼 작가 등 5명의 작가가 모였습니다. ‘고양이로 뭉친 나른한 5인전’이라는 부제가 이 느슨한 연대를 이끈 고양이의 힘을 실감하게 합니다. <br/><br/>이용한 작가<br/><br/>“10년 동안 고양이 작업을 해오면서도 고양이를 테마로 여러명이 함께 전시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전시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br/><br/><br/><br/>김종혁 작가 <br/><br/>“현재는 작업실을 찾는 길고양이가 서른 마리에 육박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 머물며 고양이만의 유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오브제와 조명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고양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오브제에 입혀진 꽃과 그림 다양한 관심사를 투영시킨 겉모습을 보고 ‘고양이들도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유도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br/><br/><br/><br/>루나 작가 <br/><br/>“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림 그리는 집사, 루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녀와 냥이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br/><br/><br/><br/>혜진 작가 <br/><br/>“전통방식으로 한지를 염색해 천천히 색을 입혀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혜진입니다. 고양이를 통해 일상을 이야기하기도 상상을 보여주기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br/><br/><br/><br/>신혜원 작가 <br/><br/>“그릇 만들고 그림 그리는 신혜원입니다. 고양이 옆에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데 사람들에게 길냥이들 좀 ‘따깐’하게 봐주십사하고, 그간 구조했던 길냥이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희 기획팀에게 노벨상을 줘야한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br/><br/>이 대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두 차례 고양이 관련 전시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를 꾸준히 기획해온 JY아트갤러리는 북촌의 ‘예쁜’ 갤러리로 소문난 곳입니다. 실평수 2평의 아담한 공간에서 출발해 1년 만에 33평 규모의 어엿한 갤러리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br/><br/>이번 전시 관람은 무료입니다. 전시 작품 소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사진과 작품 관련 굿즈를 판매합니다. 판매수익금은 젊은 작가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 역시 이 수익금을 길고양이 보호단체를 통해 사료 사는데 쓸 거라고 합니다. 29일 오프닝 파티에서는 다섯 명의 작가가 내놓은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br/><br/><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4.txt

제목: 암세포만 골라 쏘는 ‘국산 방사선 암 치료기’ 나와  
날짜: 20171128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164523001  
ID: 01100101.2017112816452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로봇그룹 박상덕 수석연구원이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투사해 정상 조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사선 암 치료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기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쎄크 등이 참여했다.<br/><br/>방사선 치료는 통증이 적고 통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양 주변 정상조직까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br/><br/>공동연구팀은 종양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4차원 영상 종양 추적시스템과 엑스밴드(X-Band)급 선형가속기에 기초한 고성능 방사선 발생 기술을 결합했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엑스밴드는 근거리 물체를 선명하게 탐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치료 정밀도를 높이면서 종양 주변 정상조직에 쏘는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br/><br/>박상덕 수석연구원은 “<span class='quot0'>국산 방사선 암 치료기로 암 환자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용화하면 막대한 중국시장 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5.txt

제목: 12월 심혈관계통 질환자 해마다 급증…"겨울 찬바람 조심해야"  
날짜: 20171128  
기자: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141049001  
ID: 01100101.2017112814104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심혈관계통 질환자 관련 구급출동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방재난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br/><br/>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별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12월에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계통 질환이 만성질환자 중 3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br/><br/>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출동이 151만9287회였고 처치 환자 수는 108만 1335명이었다. 일일 평균 1387건 출동해 987명의 환자를 처지한 셈이다. 이중 만성질환이 69만9069명, 교통사고가 10만3718명, 사고부상이 27만8548명으로 집계됐다.<br/><br/>특히 12월에 만성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6만2602명)했는데 이중 당뇨를 제외하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계통질환이 전체의 38.6%(2만4307명)를 차지해 다른 질환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심혈관계통질환자는 2014년 6627명, 2015년 8560명, 2016년 9120명, 올해는 10월까지 1만190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br/><br/>최근 3년 동안 만성질환자 중 질병별 구급활동 순위는 1위 고혈압(17만2987명), 2위 당뇨(10만3227명), 3위 심장질환(4만6836명), 4위 각종 암(4만1880명), 5위 뇌혈관 질환(3만54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혈관계통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옷,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찬바람을 맞으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돼 위험할 수 있다.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br/><br/><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6.txt

제목: 한달간 7명 ‘존엄사’ 선택했다···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보고  
날짜: 20171128  
기자: 홍진수·김경학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8124414001  
ID: 01100101.2017112812441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7명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br/><br/>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br/><br/>다양한 질병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했다. 7명 중 2명은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썼고, 4명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197명이었다.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br/><br/>연령별로는 70대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등이었다.<br/><br/>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 등이었다.<br/><br/>임종기에 들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이었다. 이들 11명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로,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고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 작성한 경우는 11명이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같은 해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종료와 법시행일 사이인 내년 1월16일~2월3일에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1'>시범 사업과 본사업이 혼재되면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기간 중이라도 시범사업 때 작성된 문서가 있으면 유효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span class='quot2'>시범사업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앞으로 법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김경학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7.txt

제목: 제주,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심의 착수  
날짜: 20171127  
기자: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7230118001  
ID: 01100101.20171127230118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ㆍ시민사회단체 “의료공공성 훼손…허가 안돼” 반발<br/><br/>제주도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판단하는 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br/><br/>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24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현장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만간 2차 회의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br/><br/>앞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최종 사업 허가가 떨어지면 사상 첫 외국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br/><br/>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라며 “정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다.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br/>외국 영리병원이라고 하지만 내국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br/><br/>반면 병원이 건립되는 지역인 동홍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를 개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건립했다. 영리병원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br/><br/><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8.txt

제목: 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 적발  
날짜: 20171127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7103333001  
ID: 01100101.2017112710333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일명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부정 대출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인 사무장 등이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br/><br/>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ㄱ씨(59)와 한의사 ㄴ씨(58)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br/><br/>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ㄷ씨(49)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ㄹ씨(49)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br/><br/>ㄱ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올해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뒤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br/><br/>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200만∼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br/><br/>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다.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br/><br/>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br/><br/><br/><br/>ㄱ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ㄷ씨,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ㄷ씨와 짜고 15억 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ㄷ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 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액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49.txt

제목: 선거 끝났다고...아베의 자민당 잇따른 '막말' 본색 “왜 그리 검은 것 좋아하나”  
날짜: 20171126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6113941001  
ID: 01100101.20171126113941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에서 막말과 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잠시 ‘자숙’하는 듯했던 아베 정권이 10·22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자 또다시 오만과 해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r/><br/>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중의원 의원은 지난 23일 아프리카를 두고 ‘그렇게 검은 것’이라고 칭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같은 당 미하라 아사히코(三原朝彦)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하라 의원이 아프리카 국가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span class='quot0'>왜 그렇게 검은 것을 좋아하느냐</span>”고 말했다. <br/><br/>비판이 커지자 야마모토 의원은 25일 “<span class='quot1'>아프리카 대륙을 표현한 것으로,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span>”며 발언을 철회했다. 야마모토 의원의 사무소는 “<span class='quot2'>아프리카가 (과거) ‘검은 대륙’, ‘암흑대륙’으로 표현됐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흑인을 지칭해서 말한 게 아니다</span>”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br/><br/>야마모토 의원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방창생담당상이던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학예사의 활동이 부진하다면서 “가장 큰 암은 학예사로, 이 패거리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가 암 환자와 학예사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br/><br/>자민당 당 4역(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 선대위원장) 중 1명인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은 동성애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는 23일 기후(岐阜)시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을 찾는 국빈이 일왕 부부가 주최하는 궁중만찬에 참석하는 것에 관해 “<span class='quot3'>국빈의 파트너가 동성일 경우 출석에 반대한다</span>”면서 “일본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사실혼 관계였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를 동반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br/><br/>이에 동성애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로부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성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br/><br/>다케시타 총무회장은 지난 9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한 자민당 모임에서 “<span class='quot4'>히로시마는 인구가 많지만 시마네(島根)는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span>”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br/><br/>자민당 의원들의 부정·비위 사건도 잇달아 발각되고 있다. <br/><br/>가미타니 노보루(神谷昇) 중의원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9월말 자신의 선거구인 오사카(大阪)부 이즈미(和泉)시와 기시와다(岸和田) 등 시의회 의원 14명에게 210만엔(약 2000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들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전 방위 부대신은 자신이 대표인 정치자금 관리 단체가 작년 11월 정치자금으로 잠수함 조립식 모형과 디스플레이용 케이스를 19만엔(약 186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도쿄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는 관련 비용이 비품이나 소모품 지출인 것처럼 적었다. <br/><br/>아베 정권은 올 상반기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에 정부·여당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궁지에 몰린 바 있다. 도요타 마유코(豊田眞由子) 의원의 비서관에 대한 “대머리야” 폭언·폭행,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의 “방위성·자위대, 방위상로서도 부탁하고 싶다”는 관권 선거 발언 논란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영향 탓에 자민당은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역사적 대패를 맞기도 했다.이후 아베 총리는 ‘겸허한 자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발 위기론을 적극 활용해 지난달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했다. <br/><br/>하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span class='quot5'>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안 된다</span>”고 나치 독재자 히틀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집권 세력 내에는 망언이나 실언이 잦은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br/><br/><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0.txt

제목: [원희복의 인물탐구] 민중음악가 윤민석 “나는 딴따라 아닌 전사이고 싶었다”  
날짜: 20171126  
기자: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6094821001  
ID: 01100101.2017112609482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촛불혁명 과정에서 가장 낯 익은 노래를 꼽으라면 <헌법 제1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과 “<span class='quot0'>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span>”는 2항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반복되는 이 노래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흥얼거리는 촛불의 상징음악처럼 됐다. <br/><br/>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헌법이 이렇게 널리 홍보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 노래에 홍보비나 음원 사용료를 줬다는 소식은 없다. 이 노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처음 선보였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서도 즐겨 불렸다. <br/><br/>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사람은 윤민석씨(53)다. 보통 우리들은 그를 민중음악가로 부른다. 특히 그는 이번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 ㅅㅂ>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span class='quot0'>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근혜 순실 명박도둑 간신의 소굴/…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박근혜를 하옥시켜라</span>”라는 이 노래는 탄핵국면에서 많이도 불렸다. <br/><br/><br/><br/> ■ 촛불혁명의 상징음악 <헌법 제1조><br/>-노래대로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구속됐다. 예상하고 노랫말을 썼나.<br/><br/>“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들었다. 싸움에서 쓰임을 갖는 노래를 만들 때는 싸움에서 깃발처럼, 주문처럼, 기도처럼 그런 바람을 갖고 만든다. 그래서 주문대로 된 것이다. 세월호 노래 만들 때 나는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한다.”<br/><br/>-지난번 촛불을 주도한 퇴진행동은 후원금이 남아 백서도 만든다는데, 많이 사용한 노래에 대해 음원 사용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br/><br/>“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받는다. 아무리 무료라지만 그 노래 없었다면 집회가 됐겠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하지만… 주면 좋겠다. …세월호 때도 ‘아이들만 보고 가자’고 그랬고, 촛불 때도 ‘박근혜만 탄핵시키자’고 말했다. 하지만 서러움과 슬픔은 남아있다. (허~허~)”(그는 허탈하고 맥 빠진 웃음을 지었다)<br/><br/>-그렇더라. 처음 촛불을 든 노동자·농민·민중가수들은 잊혀지고 나중에 행사 사회를 보던 시민단체 간부와 유명가수, 그리고 정치인들이 촛불의 공을 차지하더라. <br/>“<span class='quot0'>심지어 이번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투쟁세력으로, 옛날 통합진보당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span>”<br/><br/>‘예리한’ 답변이다. 사실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내란음모 RO회합 참석은 무죄’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중가요 합창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촛불정부 사법부도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심지어 노래를 만든 당사자마저 “항일투쟁 독립군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br/>윤민석씨 인터뷰는 10월 말부터 접촉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바빴다. 그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후배 사무실에 얹혀 있는 조립식 녹음부스(모든 노래는 여기서 녹음됐다)를 옮길 장소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빈약한 녹음장비조차 둘 곳이 없던 그는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을 때까지 기꺼이 침묵…”이라며 민중가요 활동을 접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5일 ‘후련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30년 했던 민중음악과 결별하는 입장에서 그는 쌓였던 ‘울분’을 마구 토해냈다. 세상에 대한 섭섭함도, 자신에 대한 참담함도 진하게 묻어났다. <br/><br/>그는 촛불혁명 국면에서의 평가는 차치하고 민중음악가들이 힘든 것은 일반의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문화(노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수준으로 우리 노래는 대일밴드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br/><br/>-최소한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가 헌법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음원 사용료를 줘야 하지 않을까.<br/><br/>“어떤 헌법교수가 <헌법 제1조>는 책장에 있던 헌법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뭐하나. 헌법재판소 일을 하던 한 선배가 ‘이 행사에 제일 잘 맞는 노래가 너의 <헌법 제1조>다’라고 했다. 그런데 헌재는 ‘윤민석이 만들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내 전과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하~하~) 25년 전 꼬박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말이다.”<br/><br/>-정부가 독립영화는 물론 출판·음악도 지원한다. 민중음악도 음악의 한 장르로 지원할 수 있다. 민중가요도 음원 사용료를 보장하는 법 하나 못 만드나. <br/><br/>“울컥할 정도로 고마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자의 생각일 뿐이다. 민중음악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힘든 노동조합 행사장에서 민중음악 부르다 노조가 형편이 좋아지면 유명가수를 부른다. 민중 속에서도 우리는 대일밴드 수준이다.”<br/><br/>-같이 한 386세대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나. 그들이 민중음악 보호·지원책 하나 못 만드나. <br/><br/>“정치권으로 나간 친구들과 우리는 사는 궤도가 다르다. 대학 때 치열하게 같이 민중음악을 얘기한 친구가 국회의원이 됐다. 남아있는 우리가 민중음악을 위해 백 걸음을 걸어야 할 때 그 국회의원 친구는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아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달라진다. 자기는 고급 정보를 가진 존재이고, 계속 운동하는 우리는 나이브한 몽상가로 본다. 나중에는 연락조차 안 된다. 대부분 그렇다.”<br/><br/>-그래도 영원한 동지를 결의한 사이 아니었나. <br/><br/>“동지였지…, 그래도 변절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할 뿐이다. 오히려 동지 등에 칼을 꽂은 인물이 한둘이던가. 김○○, 이○○, 하○○… 사람은 늘 변한다.(하~하~)” <br/><br/>그가 초심을 잃지 않은, 아니 잃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명료했다. 그는 “내 노래를 부르며 나가자 싸우자 했고, 그러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은 친구가 있었다”면서 “그들에게 덜 미안해야 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그리고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정치판에 갈 때 ‘나같이 초심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었다</span>”고 했다.<br/><br/><br/><br/> ■ 고시 낙방, 대학 3학년 때 인생 달라져<br/>기자가 ‘너무 자신에게 가혹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가혹했던 것 같다”면서도 “<span class='quot1'>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강제징집돼 의문사를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다 불구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나</span>”라고 반문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죽은 이한열에게, 박종철에게 한없이 미안할 거라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br/><br/>처절한 자기 결백을 넘어 자기 학대 수준이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생의 롤 모델은 정신적 측면에서 문익환 목사,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김남주 시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우리 사회 악의 근원은 친일청산 못한 것과 분단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뻔뻔한 그들은 한 번도 철저하게 응징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허세인지 모르지만 나는 딴따라보다 그들을 응징하는 전사로 불리고 싶었다</span>”고 고백했다.<br/><br/>그는 1964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1·2등을 다퉜다. 우병우와 나란히 경찰대학교에 합격까지 했지만 서울대를 가려다 자신은 떨어지고, 우병우는 갔다. (이는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했지만 이미 공개돼 여기에서도 쓴다) 1984년 한양대 무역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간 그는 2년 안에 고시(공인회계사)에 합격해 서울대 실패를 만회하려 했다. 그는 속으로 데모하는 애들을 뻘짓한다고 욕했다. <br/><br/> ■ SNS ‘윤민석 300인 후원 프로젝트’<br/>그는 이때를 ‘싸가지 없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유의 ‘날라리’ 기질로 고시에 낙방했고, 3학년 때 낡은 광주민중항쟁 사진첩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 그리고 87년에 KBS 점거로 첫 구속된 이후, 89년 겨울에 임종석(현 대통령 비서실장) 석방투쟁으로 다시 구속됐다. 92년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13일 동안 고문당한 끝에 세칭 ‘남조선노동당 사건’에 엮여 3년 실형을 살았다.<br/><br/>그의 죄목은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 북한 찬양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1'>대학에 주사파도 흔하던 그때 한 선배가 가사를 주면서 곡을 달아 달라고 부탁해 10분 만에 곡만 써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검사도 처음에는 별 것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뻥 튀겨’ 기소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고문으로 내가 토한 피를 내가 먹었을 정도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서울구치소로 넘어갈 때 박종철처럼 죽지 않았다고 ‘만세’를 부르며 나왔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1998년 민중음악 수익모델로 음원은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매달 1만원을 내는 후원회원 1000명을 만드는 ‘송앤라이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span class='quot1'>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너흰 아니야>라는 노래와 <헌법 제1조> 노래 덕분에 후원회원이 990여명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span>”고 말했다. 결국 그는 수천만 원 빚만 지고 사업을 정리하고 말았다.<br/><br/><전대협 진군가> <반미출정가> <오 통일이여>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을 만들었던 그는 97년 대중가요도 만들었다. 가수 이정렬이 불렀던 <그대 고운 내사랑>은 7주간 방송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반칙으로 금메달을 가로챈 미국 안톤 오노를 풍자한 <퍼킹 USA 1·2·3>이 ‘대박’을 쳤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만든 것이 바로 <헌법 제1조>와 <너흰 아니야>다. <br/><br/>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졌을 때 <촛불을 들어라!>를,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을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그는 “<span class='quot1'>음대를 나오거나 자격증이 없지만 이 짓만 30년 한 음악의 숙련공</span>”이라며 “나는 기술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말했다. 그는 민중가요가 투박한 이유는 좋은 녹음시설이 없기 때문이고, 음악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br/>노래패에서 후배 양윤경을 만나 1998년 결혼했다. <br/><br/>결혼하기 전 그녀가 암인지 알았지만 결혼했다. 암을 잘 관리하던 아내는 2009년 급속도로 악화돼 2012년 4기 말기 판정을 받았다. 새로운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1억원이 있어야 했지만 그는 돈이 없었다. 그는 “<span class='quot1'>그때 생애 처음으로 ‘그냥 경찰대를 갔어야 했다’고 후회했다</span>”고 기억했다. <br/><br/>그때 트위터에 ‘1억원만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십시일반 1억5000만원이 모였다. 최근 그가 민중가요를 접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SNS 상에서 ‘윤민석 300인 후원 프로젝트’가 벌어지고 있다. 1만원씩 300명을 모아 매달 300만원을 전달하자는 모임이다. <br/><br/>그는 11월 21일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정말 눈물 나고 가슴 먹먹해지는 한없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부디 이제 후원을 멈추어 주십시오</span>”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관심도 못 받으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span class='quot1'>내가 돈이 없지 가오(일본어이지만 자존심이라는 말로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가 없나</span>”라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인물이었다.<br/><br/>기자는 그의 후원계좌를 여기에 공개할 것인가를 한참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생각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와 함께했던 힘있는 친구·동지들에게 ‘민중가요에 대한 한 걸음’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물론 그것은 ‘합법적 권리’를 제도화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다. <br/><br/> [영상] 원희복의 인물탐구-민중음악가 윤민석 “나는 딴따라 아닌 전사이고 싶었다”<br/><br/><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1.txt

제목: 암에 걸린 포드차 엔지니어, 병원에 자동차 생산라인을 도입했더니····  
날짜: 20171124  
기자: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4143158001  
ID: 01100101.201711241431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포드의 한 엔지니어가 자동차 생산 라인의 개념을 병원에 도입해 환자와 의사들이 좀더 나은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br/><br/>24일 포드에 따르면 독일 쾰른에 위치한 포드 조립 공장의 품질책임자 마이크 버틀러(Mike Butler)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자동차 생산 공정 일부를 암 치료 과정에 도입하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br/><br/>이후 포드 기술팀은 독일 쾰른대학병원에 대형화면을 도입,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켰다. 병원의 바닥 및 벽지에 칠한 투터운 유색선은 직원과 환자, 방문객들이 병원내 해당 클리닉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줬다. <br/><br/>포드는 병원에 이동식 칸막이 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포드가 제안한 새로운 시설들은 환자들이 병원 동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br/>쾰른 대학병원도 포드의 차량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병원 종합 종양학 센터 직원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드의 미래 자동차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br/><br/>마이크 버틀러는 “<span class='quot0'>5년간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며, 자동차 공정 시스템이 병원에 적용되면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포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암 센터와 적절한 협력을 통해 더욱 편하고 쾌적한 병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포드의 암 센터 협업 관련 영상은 포드 유럽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lnIBA1QXBiw)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2.txt

제목: <헬스 게시판> 부정맥, 부인암, 폐암 무료 건강강좌  
날짜: 2017112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4093134001  
ID: 01100101.20171124093134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강북삼성병원 부정맥 건강강좌<br/><br/>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12월 1일 오후 1시,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부정맥’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순환기내과 이성호 교수가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부정맥의 증상과 원인·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br/><br/>■건국대병원, 부인암 건강강좌<br/><br/>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은 12월 5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여성·부인종양센터 이선주 교수가 ‘부인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br/><br/>■순천향대 천안병원 폐암 건강강좌<br/><br/>순천향대 천안병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병원 송원홀에서 ‘폐암 예방’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호흡기내과 나주옥 교수가 연자로 나서 폐암 관련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폐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생활습관에 대해 설명한다. 나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특히 낮아 조기진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3.txt

제목: NH투자증권, 임직원 ‘천사펀드’로 장학금 후원  
날짜: 2017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3195638003  
ID: 01100101.20171123195638003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3만3046시간, 2208회.’<br/><br/>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의 2840명 임직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참여한 봉사활동을 나타내는 숫자들이다. 해외 현지법인 및 파견 직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직원들이 39개의 사내 봉사단체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의 1인당 봉사시간은 약 11.2시간에 이른다. <br/><br/>NH투자증권은 2010년 사장 직속으로 사회공헌단을 편제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회사답게 39개 사내 봉사단체들이 교육·아동복지,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말에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발해 포상하는 등 나눔문화를 장려하고 있다.<br/><br/>NH투자증권의 봉사활동은 여느 회사들처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실질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직원들 간의 공유 의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br/><br/>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범농협 차원의 도농(都農) 혁신사업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br/><br/>김원규 대표이사와 임원을 결연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들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을 나누고 있다. 더불어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기타 마을의 숙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AI(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발생 시에는 삼계탕 시식행사, 치킨 기프트 구매지원 및 방역 의약품 비용 지원 등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총 30개 마을과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br/><br/>‘천사펀드’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사내 기부금 모금제도이다. 이 제도에 가입한 임직원들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며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더해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결식아동 결연사업, 소아암재단 환아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농촌지역 의료·건강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br/><br/>‘희망나무 장학금’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학비 지원제도이다. 2005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 40명을 선발해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대학 진학 시 100만원의 별도 입학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1-54.txt

제목: 동양생명, 소아암 인식 개선 등 이웃사랑 실천하는 ‘수호천사’  
날짜: 2017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3195537001  
ID: 01100101.20171123195537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동양생명은 1999년부터 ‘수호천사 봉사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반기 기준 약 1000명의 임직원 및 설계사가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약 3000시간의 봉사시간을 기록했다. <br/><br/>수호천사 봉사단은 기존의 설계사나 사내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오던 자원봉사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시켜 전 임직원과 설계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거듭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수호천사 봉사단은 16개 팀으로 구성돼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미혼모 시설, 고아원 등 전국의 소외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사회단체와 제휴해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br/><br/>동양생명은 2013년부터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들을 돕기 위한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떠서 보내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br/><br/>수호천사 봉사단은 아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연날리기 활동을 돕는 등 행사 진행을 지원한다. 또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과 완치자 장학금도 전달한다. <br/><br/>청계천에서 열리는 ‘희망별빛’은 소아암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암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청계천 주변에 전시된 소아암 어린이 꿈 그림·글을 보고 함께 걸으며 소아암 완치를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수호천사 봉사단은 희망별빛에서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 안내 및 물품 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br/><br/> 이 밖에 동양생명은 다문화언어강사 후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착한 가방 만들기, 1사 1교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1-55.txt

제목: 교보생명, ‘큰 병’ 되기 전에 미리미리…‘작은 병’도 보장 추가  
날짜: 2017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3195536002  
ID: 01100101.2017112319553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화로 질병에 대한 보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의 패러다임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br/><br/>교보생명의 ‘교보미리미리CI보험’(사진)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개념 CI(중대질병) 보험이다. <br/><br/>이 상품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으로, CI 전 단계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br/><br/>먼저 완치율이 높아 CI에서 제외됐던 중대한갑상선암·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중증뇌질환을 보장한다. 또 뇌출혈·뇌경색증 등 중증질환 9종도 추가로 주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br/><br/>CI에 대한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br/>무엇보다도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추가한 것이 장점이다. 당뇨·고혈압 등으로 인한 합병증(당뇨병 진단·인슐린 치료, 안질환·실명, 족부절단)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CI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기 이상의 만성 간·폐·신장질환을 새롭게 보장한다. 또 재진단암특약을 통해 암 전이·재발에 따른 치료비와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br/>이 상품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br/><br/>이 상품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기본형 1억원 가입 시 30세 남자 20년납 기준 월 보험료는 25만2000원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56.txt

제목: 세계적인 바리톤 흐보로스토프스키 뇌종양으로 별세  
날짜: 20171122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2221450001  
ID: 01100101.20171122221450001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러시아의 세계적인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가 22일 암 투병 끝에 숨졌다. 향년 55세. <br/><br/>고인의 런던 에이전트인 21C 미디어 그룹 션 마이클 그로스 부사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span class='quot0'>흐보로스토프스키가 오늘 오전 3시 20분 런던에서 숨졌음을 깊은 애도와 함께 알린다</span>”고 밝혔다. 흐보로스토프스키는 2015년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투병해왔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오페라 무대를 떠나 치료에 전념해왔다. <br/><br/>흐보로스토프스키는 토머스 햄슨, 브린 터펠과 함께 이 시대의 대표적인 바리톤으로 꼽힌다.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태어났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 오페라 하우스에서 <리골레토>의 몬테로네 백작 역으로 데뷔했다. 이어 유럽, 미국 무대에 진출해 이름을 알렸고, 1989년 영국 카디프 BBC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명성을 쌓았다. 강렬한 목소리와 화려한 은발 외모로 ‘시베리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국내에도 수차례 내한해 한국 관객을 만난 적이 있으며,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듀오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br/><br/><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7.txt

제목: 딕훼밀리의 ‘또 만나요’ 작곡, 싱어송라이터 오세은 별세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2212709001  
ID: 01100101.20171122212709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1970년대 딕훼밀리의 히트곡 ‘또 만나요’를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오세은씨가 22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9세. 고인은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로 시작하는 ‘또 만나요’를 작사·작곡했다. <br/><br/>이 노래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백화점을 비롯해 유흥업소, 상점에서 폐장곡으로 널리 쓰이며 ‘국민 엔딩송’으로 불렸다. 1974년 발표해 금지곡이 된 ‘고아’가 수록된 3집은 한국 포크의 명반으로 꼽힌다. 유족으로는 TBC 탤런트 출신인 부인 이보임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건강관리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7시30분. (031)900-0444

언론사: 경향신문-1-58.txt

제목: <헬스 게시판> 두경부암 환우 행사, 틀니 변비 등 건강강좌  
날짜: 2017112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2090756001  
ID: 01100101.2017112209075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두경부암 환우의 날 행사...성악 공연 등 다양<br/><br/>연세암병원 두경부암센터(센터장 김세헌)와 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최은창)가 전국의 두경부암 전문 교수진을 초청해 두경부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4일 오후 4시3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다.<br/><br/>행사에서는 설암 2기 판정받고 완치된 환자가 직접 수기를 발표하고, 설암과 침샘암을 치료 중인 환자가 동영상으로 경험을 전한다. 이어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원 중 두경부 외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이비인후과 전공의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고, 설암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의 성악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두경부암 바로 알기 캠페인 동영상이 상영된다.<br/><br/>최은창 회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암으로 고통받고 힘들게 투병하는 암 환우들을 위로하고자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환우들의 경험과 환자들로 구성된 성악공연들을 준비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br/><br/>■일반틀니와 임플란트 보조 틀니 차이는?<br/><br/>서울대 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이달 30일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일반틀니와 임플란트 보조 틀니, 무엇이 다를까요’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br/><br/>사람의 치아는 충치나 치주질환, 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상실할 수 있다. 치아의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치아를 상실했다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음식의 섭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치와 잇몸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턱관절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인접치아나 맞물리는 치아에 영향을 주어 치아가 벌어지거나 손상되어 치료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br/><br/>이번 강좌에서는 치과보철과 김명주 교수와 함께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치료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종류와 차이점, 건강 상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02)2072-1367<br/><br/>■변비·과민성 장증후군의 여러 문제점은?<br/><br/>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이달 30일 2시 CEO강의실에서 변비·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주최로 열린다. 평소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의문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추최 측은 밝혔다.<br/><br/>변비(소화기내과 이태희 교수), 과민성 장증후군(소화기내과 이준성 교수), 변비 및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위한 영양관리(김은선 영양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강의를 마치고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에 유용한 음식’ 시식코너를 별도의 공간에 마련해 참석자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방법도 선보일 계획이다. (02)709-9222<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59.txt

제목: 불길 피해 3층서 뛰어내린 3·5세 남매, 한 달 전 암수술한 소방관이 받아냈다  
날짜: 20171121  
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1224341001  
ID: 01100101.2017112122434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1개월 전 암수술을 받은 50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린 어린 남매를 맨손으로 받아내 극적으로 구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54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5층짜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삽시간에 주차장에 있던 차량 4대를 태운 뒤 건물 외벽을 타고 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에 나섰다.<br/><br/>인천 서부소방서 원당119센터장 정인근 소방경(54)은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중 3층 창문 틈으로 소리치는 “살려달라”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섯 살(여)과 세 살(남)인 남매였다. 빌라 주민들은 난간 등을 타고 옆 건물로 피신했지만 키가 1m 남짓한 남매는 난간을 올라갈 수 없었다. 정 소방경은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피 중인 어른들에게 아이들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 주민이 남매를 차례대로 뛰어내리도록 도왔다. 바닥은 콘크리트였다. 정 소방경은 지난달 신장암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 허리를 굽힐 수도 없었으며 복대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br/><br/>21일 정 소방경은 “남매를 구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며 “다행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매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외상도 없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로 이 빌라에 살던 20여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r/><br/>인천 서부소방서는 정 소방경과 남매 구조를 도와준 주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br/><br/><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0.txt

제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암환자 사망…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날짜: 20171121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1195253001  
ID: 01100101.2017112119525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존엄사’를 택한 첫 사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br/><br/>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인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최근 숨졌다. 이 환자는 임종기에 들어간 뒤 어떠한 연명의료도 받지 않았다. 이 환자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의료진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사의 설명을 들은 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시범사업 기간 동안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강한 사람도 미리 써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어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환자 가족들이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다음달 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몇달 안에 임종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대상자를 넓힌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1.txt

제목: “고수익 보장한다”…고객 투자금 5억 탕진한 보험사 지점장  
날짜: 20171120  
기자: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20155241001  
ID: 01100101.2017112015524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에게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보험사 전 지점장 ㄱ씨(41)를 구속했다. <br/><br/>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5월 연금보험 가입업무를 보러 온 ㄴ씨(48·여)에게 재무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span class='quot0'>1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span>”고 속여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등 등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챙겼다.<br/><br/>ㄱ씨는 첫 1년 동안은 수익이 난 것처럼 매달 일정액을 꼬박꼬박 ㄴ씨에게 보내주며 신뢰를 쌓았다. ㄴ씨는 ㄱ씨의 사기 행각에 속아 암보험금 1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받은 돈 가운데 4600만원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강원도 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ㄱ씨는 ㄴ씨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소하자 회사를 그만뒀다</span>”고 말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2.txt

제목: [책 처방해 드립니다]시련이 시련에게…‘포기 말아요, 결국 다 지나갈테니’  
날짜: 20171117  
기자: 정지혜 사적인서점 대표·북디렉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7192211003  
ID: 01100101.20171117192211003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ㆍ3그램 <br/>ㆍ수신지 지음 | 미메시스 | 178쪽 | 1만4800원<br/><br/><br/>힘든 시간을 통과 중인 당신에게 <3그램>을 처방해 드립니다.<br/><br/>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수신지 작가가 몸의 변화를 느낀 건 스물일곱의 가을. 살이 쪘다고 하기엔 임산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배가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br/><br/>드라마 주인공들이나 겪는다고 생각했던,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암 투병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수신지 작가. 이 책은 난소암 증상을 느끼면서부터 수술과 항암 치료, 퇴원하며 병원 문을 나서기까지 그녀가 직접 겪은 난소암 투병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br/><br/>제목인 <3그램>은 난소 한 개의 평균 무게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가볍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삶의 무게였지요.<br/><br/>수신지 작가는 자신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병마에 의연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듯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병과 동고동락할 뿐이었지요. 밝고 평범한 젊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병원 생활은 작은 것에 놀라고, 작은 것에 서운해 하고, 작은 것에 감동받는 나날이었습니다. 같은 병실 아주머니와 TV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식사 시간과 함께 시작되는 연속극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자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이었습니다. <br/><br/>잘생긴 의사들을 보며 재밌는 상상을 하는가 하면, 소변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창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난 왜 병에 걸렸을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날도 있고, 매일 병문안 오던 남자친구가 오지 않은 어느 날엔 결혼을 앞둔 전 남친의 방문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수신지 작가의 투병기를 읽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릿해집니다.<br/><br/>“작은 새는 새장 문이 거의 열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만약 한 번 더 날갯짓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는 새장 안의 슬픈 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135쪽)<br/><br/>“<span class='quot0'>저 문을 나가는 날이 올까?</span>” “<span class='quot0'>응, 정말 끝나는 날이 있어.</span>”(154쪽)<br/><br/>수신지 작가는 병원을 작은 섬이라 표현합니다. 어둠이 내린 외딴섬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를 나 홀로 둥둥 떠다니는 환자들. 투병 생활 동안 그녀의 고독을 위로해준 건 여러 사람들의 암 극복 수기였습니다. <br/><br/>작가는 <3그램>이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읽기에 가장 이상적인 책이 되기를 바랐다고 해요. 각자의 고민을 끌어안고 섬이 된 사람들이 비단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시작은 투병 생활을 위로하기 위해 쓰인 책이었지만 사실 이 책은 힘든 시간을 통과 중인 모든 이들에게 짙은 위로를 건넵니다. <br/><br/>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나만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고통받고 있다면 <3그램>을 읽어 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시련, 아픔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고, 힘든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다고,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담담하게 말해줄 테니까요. 예상치 못한 불행이 나에게 들이닥칠 때, 이 책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br/><br/><정지혜 사적인서점 대표·북디렉터>

언론사: 경향신문-1-63.txt

제목: [사설]노후원전 조기 폐쇄하고 내진설계 확대해야  
날짜: 2017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205949001  
ID: 01100101.20171116205949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지난해 9월 경주지진에 이어 1년2개월 만에 포항지진이 일어남으로써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재확인됐다. 두 번의 강진은 한반도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활성단층대를 진앙으로 두고 있다. 이 일대에는 월성 6기, 한울 6기, 고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다. 원전지뢰밭이라 할 수 있다. <br/><br/>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 지진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인 전국의 원전 24기가 모두 정상운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진 안전지대라던 동남부 지역에서 강진이 단기간에 두 번이나 이어졌다는 것은 이 일대 단층이 본격 활성화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진의 진원지(9㎞)가 지난해 경주지진(11~15㎞)에 비해 얕아져서 체감위험도가 훨씬 커졌다는 사실도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지하의 지질구조를 분석한 ‘단층지도’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 엄습한 수상한 지질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지진이 잦았던 17세기 이후 400년 동안 지하 어디엔가 축적된 응력이 경주·포항지진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축적 응력이 지하 몇 ㎞ 깊이에서, 혹은 어느 원전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표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진이 일상의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가동 원전 24기 중 23기의 내진설계가 규모 6.5에 해당되는 최대지반가속도 0.2g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미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21기의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설계는 그대로 둔 채 주변 구조물 등을 보강해봐야 한계가 있다. 특히 얇은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된 중수로 원전(월성 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이 사실상 어렵다. 지진으로 압력관이 터지면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다. <br/><br/>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 공포감을 고취하려는 게 아니다. 다가올지 모를 비극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다. ‘원전사고는 1억년에 한번 나올 법하다’고 큰소리치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서라도 원전구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2년으로 예정된 월성 1호기 폐로를 비롯하여 내진보강이 어려운 노후원전들을 차례로 정리해야 한다. <br/><br/>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탈원전이다.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이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16일 ‘월성 1호기 폐로’를 논의한 한수원 이사회가 탈원전의 본격적인 첫걸음이기를 바란다.

언론사: 경향신문-1-64.txt

제목: 쿠데타 이후 짐바브웨는 어디로...과도정부 논의, 돌아오는 차기주자들  
날짜: 20171116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180424001  
ID: 01100101.20171116180424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1980년 독립 이후 로버트 무가베(93)의 ‘37년 독재’만 존재했던 짐바브웨가 사상 첫 군부 쿠데타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들어섰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무가베 없는 나라를 겪어본 적이 없다. 제2의 독재가 재연될지, 명실상부한 민선정부가 들어설지 앞날은 예측불허다. <br/><br/>하루 사이 짐바브웨 정국은 급변하고 있다. 남편 무가베에 이어 대통령이 되려던 부인 그레이스(52)는 실권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도정부 구성이 논의되고 무가베의 유력 경쟁자였던 야권의 모건 창기라이(65) 전 총리 등이 귀국했다. 쿠데타 직전 축출된 2인자 에머슨 음난가그와 전 부통령(75)도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짐바브웨와 특수 관계인 이웃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변 국가들도 개입에 나섰다. <br/><br/><br/><br/>■군부의 ‘로키 쿠데타’ <br/><br/><br/><br/>군부는 탱크와 군인을 앞세워 나라를 장악했지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레이스의 폭주와 집권을 막겠다는 군의 목표는 확고했다. 그러나 군이 직접 정권을 잡겠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언론 쿨루마아프리카는 15일(현지시간) “군부는 무가베를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독립투쟁 공신을 숙청하는 일을 중단하고 국가기관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전날 국영 ZBC를 통한 성명에서도 “우리는 오직 무가베 주변에서 이 나라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가져온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겨냥하고 있고 우리 임무를 완수하는 대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r/><br/>쿠데타를 지휘한 콘스탄티노 치웬가 사령관 역시 독립투쟁에 참가했던 인물로 무가베의 집권당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연맹-애국전선(ZANU-PF)의 열성적 지지자였다. 쿠데카의 계기가 된 음난가그와와 가깝다. 음난가그와가 경질되자 무가베가 치웬가마저 축출하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남아공 안보연구소의 데렉 마티즈자크는 AFP통신에 “무가베는 나라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군부는 무가베에게 해방영웅이라는 지위와 합당한 존중을 주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br/><br/>무가베가 짐바브웨의 독립 영웅으로 남더라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짐바브웨메일은 이날 “군부가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도정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br/>■쫓겨난 ‘구찌 그레이스’ <br/><br/><br/><br/>음난가그와를 쫓아내고 부인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던 무가베의 결정은 역설적으로 무가베의 시대를 끝내는 결과를 낳았다. 그레이스는 무가베와 함께 사저에 연금돼 있다가 15일 저녁 KG6 병영으로 옮겨졌다고 쿨루마아프리카는 전했다. <br/><br/>정부 청사에서 타자원으로 일하던 그레이스는 무가베의 구애를 받아 1998년 40살이 넘는 차이를 넘고 결혼했다. 결혼 이후 요란한 쇼핑과 낭비벽으로 ‘구찌 그레이스’ ‘검은 이멜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지만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남편의 권력에 기대 여성 기업인과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던 그레이스는 ZANU-PF의 여성 조직을 이끌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거침없는 언사로 무가베를 비호했고 2014년부터 조이스 무주루 부통령을 몰아내는 등 숙청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한 집회에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데 왜 안되느냐”고 말했다. <br/><br/>그는 ZANU-PF의 소장세력인 G40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그네이셔스 촘보 재정장관, 조나단 모요 교육장관 등 G40를 이끄는 핵심 정치인들은 쿠데타 이후 그레이스와 함께 KG6에 구금됐다. 월터 음젬비 외교장관은 외국으로 도주했다. 그레이스를 지지하던 ZANU-PF의 청년조직 대표 쿠드자나이 치판은 국영방송에 나와 “우린 아직 젊고 실수를 한다. 이번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군부를 비난한 것을 공개사과했다. <br/><br/>독립투쟁 세력의 눈에 그레이스는 정통성이 전혀 없었다. 독립운동 참전 용사가 결성한 해방전쟁용사협회 대표 크리스 무츠반그와는 로이터통신에 “<span class='quot0'>절벽으로 떨어지던 나라를 바로잡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독재자가 나이 들어 부인 주변 갱단에 나라를 물려주려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장이 끝났다</span>”고 말했다.<br/><br/><br/><br/>■돌아오는 차기 주자들 <br/><br/><br/><br/>짐바브웨 정국을 이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숨가쁘다. 과도정부를 이끌 유력한 후보로 군부의 지지를 받는 음난가그와가 거론된다. 그는 이날 트위터로 “‘가족왕조’를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 군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군은 과도기를 이끌고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썼다. 그는 지난 6일 무가베에게 경질된 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남아공으로 피신했다. <br/><br/>그러나 음난가그와가 집권한다면 ‘무가베 2.0’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가베의 독립투쟁 동지인 음난가그와는 1980년 무가베 집권 후 국방장관, 치안장관, 재정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무가베의 철권통치를 떠받친 오른팔이었다. 집요하고 잔혹한 일처리로 ‘악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1980년대 ZANU-PF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은델레 부족 수천명이 희생된 사건의 배후에도 그가 있었다. <br/><br/>야권의 지도자 창기라이 전 총리와 독립투쟁 세력을 이끌던 크리스토퍼 무창그와도 귀국했다. 제1야당 민주변화운동(MDC-T) 대표 창기라이는 2002년, 2008년 대선에서 무가베와 맞붙었고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는 탄압을 받았다. 남아공의 중재로 2008년 무가베와 협상 끝에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2013년까지 총리를 지냈지만 2013년 대선 이후 다시 갈라섰다. 이후 외국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무창그와는 2014년까지 짐바브웨민족해방전쟁용사협회를 이끌었지만 이후 ZANU-PF에서 숙청당했다. 이들 모두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br/><br/>주변국들도 분주하다. 남아프리카의 ‘맏형’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이날 짐바브웨에 특사를 보내 무가베 대통령, 군부 측과 접촉했다. 주마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군부의 개입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15개국 지역협력체인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주요 3개국인 앙골라·잠비아·탄자니아 외교장관들을 불러 16일 보츠와나에서 짐바브웨 사태를 논의한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5.txt

제목: 의료관광진흥협회, 유전자 신기술 협력 컨소시엄 출범  
날짜: 2017111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151628001  
ID: 01100101.2017111615162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회장 주천기, 가톨릭대 의대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는 16일 “<span class='quot0'>해외환자 치료를 담당할 병원과 유관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유전자 신기술 협력 컨소시엄’이 출범해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최첨단 유전자 신기술을 홍보하기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br/><br/>컨소시엄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몽골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컨소시엄 형태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br/><br/>업계에서는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를 출시한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과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으로 질병진단(산전, 암, 희귀질환)과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와 같은 최첨단 유전체 검사를 제공하는 녹십자지놈(대표 양송현) 등 2개 기업이 참석했다. 병원계에서는 나누리병원(원장 이광열)과 메드렉스병원(원장 양혁재)이 합류했다.<br/><br/>주천기 회장은 “<span class='quot1'>정례 모임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아 진료 상황, 유전자 치료제 제품 공유 등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주 회장은 “<span class='quot1'>외국인 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진솔하게 잘 알리고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료관광진흥협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6.txt

제목: [전남도]화순전남대병원·전남대병원 암환자 ‘5년생존율’, 수도권병원보다 높다  
날짜: 20171116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114740001  
ID: 01100101.201711161147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남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광주)에서 치료받은 암환자의 ‘5년생존율’이 수도권의 주요 7개 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16일 국가 지정 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 암등록본부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1999~2014년 사이 16년간 치료받은 암환자 5년생존율은 62.4%로 수도권의 주요 7개 병원(61.8%)에 비해 0.6% 포인트 더 높았다.치료방법 별로는 이 기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5년생존율은 각각 86.2%, 52.0%, 60.6%로, 수도권 7개 병원의 80.0%, 46.0%, 52.3%보다 더 높았다.<br/><br/>같은 기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신규등록된 암환자는 10만8998명(남자 5만7829명, 여자 5만1169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br/><br/>이 기간 동안 발생한 암등록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4.6%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남녀별 5년생존율은 남자가 53.6%, 여자가 76.5%로 남자보다 여자의 5년생존율이 더 높았다.<br/><br/>연도별로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1998∼2004년 54.2%(남자 41.7%, 여자 69.2%)에서 2010∼2014년 69.8%(남자 60.6%, 여자 79.7%)로, 연평균 3.0%(남자 4.4%, 여자 1.8%) 증가했다.<br/><br/>지난 16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모든 암환자(21만4000명) 중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암환자는 11만1729명으로 치료점유율은 52.0%였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7.txt

제목: [제주도]제주도, 천연기념물 제주마 공개 매각  
날짜: 20171116  
기자: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113303002  
ID: 01100101.20171116113303002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가 공개 매각된다. <br/><br/>제주도 축산진흥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주마에서 생산된 마필 75마리(암 42, 수 33)를 21일 서귀포시 축협 가축시장을 통해 공개 경매 한다고 16일 밝혔다. <br/><br/>이번 공개 경매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적정 사육두수인 150마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현재 23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중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매각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관리할 제주마를 제외한 75마리를 공개 경매하는 것이다. 심의에서는 혈연관계와 모색, 체형 등을 고려됐다. <br/><br/>경매 방법은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상한가를 정하고 그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이에게 돌아간다. 다만 상한가 입찰자가 많을 경우 현장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br/><br/>경매는 제주도민에 한해 가능하며, 경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21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가축시장을 직접 방문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제주마는 보통 경마용으로 쓰인다. <br/><br/>제주마 상한가는 올해부터 전년도 평균 낙찰가격이 된다. 10~13개월된 육성마는 암컷의 경우 767만원, 수컷의 경우 424만원이다. 3~7개월된 자마는 400만6000원, 수컷은 214만원이다. <br/><br/>김대철 제주도축산진흥원 마필연구담당은 “<span class='quot0'>경매의 상한가는 2016년에는 전년도 평균가격의 150%를 적용했으나 일부 마필의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부터 지난해 평균 낙찰가를 상한가로 정했다</span>”고 말했다.<br/><br/><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8.txt

제목: 유승민, 포항 지진피해 방문 “신속복구에 최선 다하겠다”  
날짜: 20171116  
기자: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6111928001  
ID: 01100101.2017111611192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59)가 16일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span class='quot0'>작년 (경주 지진피해)경험이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저희 바른정당도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유 대표는 이날 피해현장 재난상황실이 있는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span class='quot1'>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해서 남은 국비가 내려와 포항시 재정에 도움을 줬다</span>”며 주민들을 위로했다.<br/><br/>유 대표는 “주민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다”며 “또 현장의 일부 건물들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앞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집에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대책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br/><br/>이어 “실내체육관에 갔는데 말기암 환자도 있고 다음주 출산하는 분도 계시고, 다음달에 출산하는 분도 만삭으로 계시더라”며 “이런 분들이 체육관에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다. 포항시 관계자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환자·임산부는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br/><br/><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69.txt

제목: 탄소배출 3년 만에 늘었다는데 ‘깨끗한 석탄’ 쓰면 된다는 미국  
날짜: 20171114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4214749002  
ID: 01100101.20171114214749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ㆍ유엔기후변화회의<br/><br/><br/><br/>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이 깨끗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깨끗한 석탄’이 답이라는 주장에 국제사회와 전문가의 반응은 차갑다.<br/><br/>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 총회에 참가 중인 미국 대표단은 13일(현지시간) ‘기후 개선을 위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정부 인사들과 에너지 기업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섰다.<br/><br/>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에너지 특별보좌관 조지 D 뱅크스는 연설에서 “<span class='quot0'>화석연료가 계속 쓰인다는 데 의문의 여지는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제사회도 화석연료를 가능한 한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말했다. 미국 최대 석탄생산업체 피바디에너지 부회장 홀리 크루카도 “<span class='quot1'>석탄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span>”고 거들었다. 가디언은 피바디에너지가 지난해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조직 20여곳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br/><br/>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뱅크스의 연설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10여분간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유엔기후변화 특사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span class='quot2'>암 회의장에서 담배를 홍보한 것과 같다</span>”고 적었다.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 기후변화학 교수는 “<span class='quot3'>깨끗한 화석연료 같은 말은 없다</span>”고 비판했다.<br/><br/>미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이 발전하면 ‘깨끗한 화석연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는 CCS 연구·개발에 최대 26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CCS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산업구조상 향후 상당 기간 화석연료에 의지해야 하는 저개발국가의 경우 CCS 도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CCS 기술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br/><br/>이 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2017년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이처 기후변화’ 등 3개 학술지에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370억t으로 지난해보다 약 2% 증가할 전망이다. <br/><br/>네이처는 세계 총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3.5%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4'>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석탄 사용량도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었다</span>”고 전했다.<br/><br/>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0년 평균 1.2%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떨어졌다. 그간 미국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풍력·태양력 발전 비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br/><br/>본 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흔들리고 있는 파리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0.txt

제목: [공감]존엄사와 방치한 죽음 사이  
날짜: 20171114  
기자: 한지혜 | 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4211118001  
ID: 01100101.20171114211118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십년 넘게 결연을 맺은 남수단의 아이는 그동안 내전으로 인해 몇 번인가 소식이 끊겼다가 얼마 전 제3국에 있는 난민수용소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후원단체를 통한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하니 기존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겠느냐는 질문이 담긴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엄마가 밤새 끙끙 앓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다며 더는 간병을 못하겠다고 그냥 가겠다는 간병인의 전화가 새벽부터 걸려온 참이었다.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린 간병인에게 항의하면서 동시에 새 간병인을 구하는 와중에 내전으로 집을 잃은 남수단의 아이를 그래서 어째야 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후원에 대한 절차는 단체가 정한 방식에 따르겠다고 영혼 없이 대답하다가 문득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이는 무사한가요?”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을 가장 나중에 건네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더 번거로웠던 나는 사실 엄마에게도 화를 내고 있었다. 아무리 아파도 좀 참지. 간병인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는 밤새 왜 그렇게 앓았을까 원망 섞인 분노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다. 말기암 환자인 엄마의 통증보다 간병인의 피곤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서늘한 덩어리가 목울대에 얹혀 전화를 끊고 비로소 나는 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br/><br/>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날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는 소위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 연명의료는 하지 않기로 결심이 서 있었다. 연명의료로 2년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머물렀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때는 연명이, ‘의학적으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작별할 수도 있던 아버지를, 의식도 없이 억지로 육체만 세상에 붙들어놓았다 보내고 난 후에야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다짐했다. 누구도 그렇게 보내지 않기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도 했다. 그 약속은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의식이 있던 엄마는, 임종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거듭 그 의사에 변함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비장하게 눈물로 결심한 존엄은 지켜지지 못했다. 임종의 과정을 지키고 있던 의료진이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사람은 살리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 어렵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존엄한 죽음은 졸지에 방치한 죽음이 되었다.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 있는 것이 청각이라면서 그는 그 비난을 임종 과정에 있는 어머니 앞에서 퍼부었다. 그러므로 엄마가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말은 당신 자식들이 당신을 죽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일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우리의 울음이 그 비난 속에서 전달은 되었을까. 아버지의 연명치료를 결정하고 오래 마음 아팠던 것 이상으로 나는 그 의료진의 비난에 오래 가위눌릴 것이다. 그리고 그 가위눌림은 앞으로 존엄사를 선택하게 될 적잖은 이들이 짊어지고 가게 될 운명이기도 할 것이다. <br/><br/>삶은 과연 어떤 형태로 마무리 지을 때 그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br/><br/>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사흘 후, 딸아이는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2년 넘게 기르던 머리를 잘랐다. 좋은 상태로 보내야 한다며 오래 가꾸고 다듬은 한 타래의 머리를 봉투에 넣으면서, 한 삶과 이별하고 죽음과 맞서 싸우는 다른 삶에게 위로가 될 무언가를 보내면서 나는 엄마와의 작별을 떠올렸다. 그 비난이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선택했는가 말고 누가 무엇이 삶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엄마는 누구보다 존엄하게 세상과 작별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br/><br/><한지혜 | 소설가>

언론사: 경향신문-1-71.txt

제목: 미국 "깨끗한 석탄" 주장 속 세계 탄소배출량 3년 만에 다시 증가세  
날짜: 20171114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4172753001  
ID: 01100101.20171114172753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이 깨끗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깨끗한 석탄’이 답이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전문가의 반응은 차갑다.<br/><br/>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 총회에 참가 중인 미국 대표단은 13일(현지시간) ‘기후 개선을 위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정부 인사들과 에너지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발표자로 나섰다.<br/><br/>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에너지 특별 보좌관 조지 D. 뱅크스는 연설에서 “화석연료가 계속 쓰인다는 데 의문의 여지는 없다”면서 “국제사회도 화석 연료를 가능한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석탄생산업체 피바디에너지 부회장 홀리 크루카도 “석탄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가디언은 피바디에너지가 지난해 기후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조직 20여곳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br/><br/>뉴욕타임스는 “이날 행사는 200개국이 참가해 2주간 이어지는 기후변화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유일하게 공식 출연한 자리였다”면서 “미국 정부와 다른 핵심 참가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전했다. 행사장에 모여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뱅크스의 연설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10여분간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갓 블레스 아메리카’ 노래의 곡조에 맞춰 “당신들의 탐욕이 보인다. 석탄 머니를 위한 탐욕이 전세계를 죽이고 있다”고 외쳤다. 이들이 떠나자 행사장 220석 가운데 절반이 빈 채로 남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br/><br/>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트위터에 이날 행사를 가리켜 “암 회의장에서 담배를 홍보한 것과 같다”고 적었다. 그는 유엔의 기후변화 특사를 맡고 있다. 본 회의 의장국 피지 총리 프랭크 바이니마라마는 “우리 모두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 기후변화학 교수는 “깨끗한 화석연료 같은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br/><br/>미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이 발전하면 ‘깨끗한 화석연료’ 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는 CCS 연구·개발에 최대 26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CCS 기술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산업구조 상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석연료에 의지해야 하는 저개발국가의 경우 CCS 도입이 절실하다.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25개를 새로 지을 계획인 방글라데시 환경차관 무함마드 하쿠에는 이날 CCS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CCS 같은 기술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조시 프리드 청정에너지 국장은 “기후변화를 부인하면서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br/><br/>미국이 ‘깨끗한 석탄’을 꺼내든 날,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구온난화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연구단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2017년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이처 기후변화> 등 3개 학술지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370억t으로 지난해보다 약 2% 증가할 전망이다. 그전 3년간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연구책임자인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코린 르쿠에레 교수는 “배출량이 증가한 것보다 그 규모가 충격”이라면서 “올해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하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br/><br/>네이처는 세계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3.5%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되면서 석탄 사용량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고 전했다. 각 지방 정부에서 성장 촉진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강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됐다.<br/><br/>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0년 평균 1.2%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떨어졌다. 그간 미국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와 풍력, 태양력 발전 비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0.2% 감소한 유럽연합(EU)도 지난 10년 평균 2.2%에 비해 감소폭이 대폭 줄었다.<br/><br/>본 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흔들리고 있는 파리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행 방안은 내년 폴란드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2.txt

제목: <헬스 게시판> 백반증, 인공 심장박동기, 췌장암 건강강좌  
날짜: 2017111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4094219001  
ID: 01100101.2017111409421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br/><br/>대한백반증학회는 11월 19 오후 1시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에서 ‘제12회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br/><br/>1부는 백반증의 진단 및 치료를 중심으로, 백반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성균관대 의대 이동윤 교수), 감별이 필요한 저색소질환들(연세대 의대 오상호 교수, 백반증 광선치료·수술치료(카톨릭대 의대 박철종·배정민 교수) 강의가 열린다. 2부에는 백반증 치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동국대 의대 이애영 교수), 백반증 환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우태하한승경 피부과 한승경 원장), 최신 치료법 소개(차의과대 김동현 교수)가 이어진다. 문의: 대한백반증학회(02-3473-0284)<br/><br/>■고대 안암병원, ‘인공 심장박동기의 날’ 건강강좌<br/><br/>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센터장 김영훈)는 11월 17일 오후 2시 의과대학 유광사 홀에서 ‘인공 심장박동기의 날 2017’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실신과 돌연사(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 심장 박동기와 제세동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순환기내과 이광노 교수), 심장 박동기 및 제세동기 시술 후 자주 묻는 궁금증(고경정 간호사), 심장 박동기 또는 제세동기 시술 후 MRI촬영이 필요할 때는?(순환기내과 심재민 교수), 이식형루프기록기와 심장재동기화 치료의 소개(순환기내과 박희순 교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 강의가 진행된다.<br/><br/>■건양대병원, ‘세계 췌장암의 날’ 건강강좌<br/><br/>건양대병원(원장 최원준)은 11월 16일 오후 4시 암센터 대강당에서 ‘세계 췌장암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 ‘암중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다.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조기진단이 쉽지 않아 80% 이상의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한 3, 4기 암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이다.<br/><br/>소화기내과와 외과, 혈액종양내과 의료진들이 강사로 나서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 항암치료 등에 대해 강의한다. 췌장암의 진단(소화기내과 류기현 교수), 췌장암의 외과적 치료(외과 문주익 교수), 췌장암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최종권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강의 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3.txt

제목: 암 생존율은 높지만, ‘만성질환’ 관리는 못하는 한국···OECD 분석  
날짜: 20171113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3145254002  
ID: 01100101.2017111314525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생존율이 올라가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br/><br/>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br/><br/><br/><br/>■높아진 암 생존율<br/><br/>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급성기 진료수준이 지속해서 높아졌다. 2015년 한국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으로 30일내 사망한 입원환자 비율)은 3.9%로 OECD 평균(8.2%)보다 낮았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도 계속 감소해 2015년 8.1%로 줄어들면서 OECD 평균(7.5%)에 근접했다.<br/><br/>5년 순생존율(Net Survival;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누적확률)로 살펴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다.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br/><br/>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br/><br/>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기회를 받은 비율은 81.7%로 조사됐다.<br/><br/><br/><br/>■높은 만성질환 입원율···관리 소홀이거나, 무조건 입원하거나<br/><br/>만성질환 관리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1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의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천식 46.7명, 만성폐색성폐질환 189.8명, 당뇨병 137.2명이다.<br/><br/>이들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1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했거나, 입원 병상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다.<br/><br/><br/><br/> <br/><br/>많은 항생제 사용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많이 줄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br/><br/>2015년 기준 한국 국민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24.3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OECD 평균(20.6 DDD)보다 높았다. 특히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1000명당 8.6DDD로 전체 항생제의 35.4%를 차지하였으며, OECD 평균(3.5 DDD) 보다 2배 이상 많았다.<br/><br/>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는 7.7%로 OECD 평균(9.0%)보다 적었다. OECD 회원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로 계산한 한국 국민 1인당 경상 의료비는 2729달러로 OECD 평균(4003달러)보다 낮았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4.txt

제목: [기고]‘화학물질 중독’ 감시 체계 마련 시급  
날짜: 20171112  
기자: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12211334002  
ID: 01100101.20171112211334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 수가 5000명을 넘었지만 우리나라 공중 보건망은 개선된 것이 없다. 속칭 햄버거병, 계란 살충제 오염, 생리대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지만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다. 또 다른 특정 제품,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br/><br/>사고의 공통점을 보면 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피해 위험을 먼저 알아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이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들이다. 이들 사고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는 데에서 오는 일련의 사고다. <br/><br/>화학물질 위험은 표준적인 동물실험만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없다. 모든 화학물질은 동물실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건강 영향을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는다.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DDT의 암과 생식 독성, 탈리도마이드의 태아 기형은 동물실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PHMG, PGH, CMIT, MIT에 의한 폐 손상, 천식 등도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독성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아낼 길이 없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 입은 피해사례를 모으고 감시하는 국가 조직은 물론 감시망이 없다. <br/><br/>미국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있다. 이 위원회는 1990년에 가습기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 건강영향 위험을 알렸고, 가습기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에는 소비자가 입은 작은 사고나 건강영향을 모니터링하는 56개의 물질중독센터(Poison Center)도 있다. 누구나 경제 소비 활동에서 입은 사고, 불편, 중독 경험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실시간으로 물질중독센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피해 사례의 원인 규명, 추가 확산 차단은 물론 치료에도 활용한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을 사용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중 보건망이다. OECD 모든 나라와 WHO 회원국의 50%에 달하는 나라에도 이러한 목적의 물질중독센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물질중독을 감시하는 체계가 없다. <br/><br/>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과학기술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위험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말은 화학물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4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지금도 인공 화학물질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위험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억지하는 것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 예방의 첩경이다.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건강영향 사고를 차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정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br/><br/>국민들이 물질중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 퍼진 주요 지역 보건소와 병원을 연결하는 가칭 ‘물질중독정보센터’로 공중 보건망을 짜자. 물질중독정보센터 설립 및 신고된 피해사례 통계만으로도 기업의 악의적인 위험관리 방기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위험도 알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br/><br/><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언론사: 경향신문-1-75.txt

제목: 말기·임종기 환자 아니라도···연명의료 중단 결정 앞당긴다  
날짜: 20171109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9103106001  
ID: 01100101.201711091031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해온 ㄱ씨는 나중에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려고 했다. 그러나 내년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은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가 앓고 있는 암은 말기 판정을 받을 경우 2개월도 채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5개월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br/><br/>현재 ‘말기 환자’만 쓸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가 더 당겨진다. 환자가 스스로 중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시술’의 범위도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료·법조·윤리학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br/><br/>위원회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한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 법에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윤성 국립생명윤리정책연구원(연명의료관리기관)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부 암은 말기 판정을 받을 경우 길어야 2~3개월만 수명이 남을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결정은 최소한 4~5개월 전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span>”라고 설명했다. <br/><br/>▶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자가 직접 작성해보니···1대1 면담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 늘려야 <br/><br/>▶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대부분 병원서 임종…죽음 터부시 말아야 <br/><br/>위원회는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신기술 등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시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기 판정은 의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보고 의사 1명이 임종기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1'>이런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6.txt

제목: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날짜: 20171108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8114821001  
ID: 01100101.2017110811482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여성·환경단체 회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전한 생리대에 대한 바람을 담아 독성생리대 모형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br/>/김영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위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제품은 발암위험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가 위해평가 과정에서 사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생리대 사용량,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나온 결과다.<br/><br/>서울대 최경호 교수(보건대학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에서 식약처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암위해도를 계산한 결과 특정 브랜드의 ‘오버나이트’ 상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br/><br/>이날 포럼은 대한예방의학회·직업환경의학회·한국역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환경독성보건학회 등 환경보건 관련 5개 학회와 정의당 여성위원회, 권미혁·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미·심상정·윤소하·추혜선의원(정의당)이 마련했다.<br/><br/>앞서 두달 전 식약처는 생리대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0'>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우선 전수조사한 결과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span>”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당시 발표에서 “<span class='quot0'>최악의 시나리오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여러차례 강조했다.<br/><br/>그러나 최 교수가 식약처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발암위해도를 보면, 일부 오버나이트형 생리대 제품에서 10종의 VOCs 중 하나인 클로로포름이 최악 시나리오에서 기준치를 넘겼다. 식약처는 팬티형이 아닌 일반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월 52.5개(7일간 7.5개) 사용을 가정하고, 생리대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모두 흡수되는 것을 전제해 ‘최악 시나리오’를 상정했다.<br/><br/>화학물질에 엄격한 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클로로포름의 ‘경구 발암기울기’(oral slope factor)는 0.019㎎/㎏.day￣1다. 하루 체중 1㎏당 1㎎을 섭취할 경우 0.019만큼의 초과발암위해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발암 가능성에다가 특정물질로 인해 발암 가능성이 더해질 우려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초과발암위해도’다.<br/><br/>‘경구’ 발암기울기를 토대로 계산한 것은 식약처가 ‘경구 투입’ 즉 입을 통해 흡수한다는 전제에서 조사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br/><br/>클로로포름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인간에게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평가된다. 영수증에 포함된 비스페놀A 안전기준 등 화학물질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은 클로로포름에 대한 발암기울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 연방 환경청(EPA)은 클로로포름에 대한 발암기울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br/><br/>최 교수의 계산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 EPA의 발암기울기를 적용한 일부 오버나이트 제품 클로로포름 초과발암위해도는 0.0000015다. 독성학자들은 초과발암위해도가 0.000001을 넘길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br/><br/>식약처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0'>EPA는 클로로포름 같이 강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은 발암기울기를 이용한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를 위한 발암기울기도 제시하고 않고 있다</span>”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로로포름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발암 기준치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br/><br/>최 교수는 또 이날 포럼에서 두달 전 식약처가 생리대에 대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성급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br/><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인간의 독성지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평가해 ‘안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위해성 평가를 잘못한 것이지 건강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span>”라고 식약처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식약처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서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이해되도록 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br/><br/>또한 “학자들이 똑같이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사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어떤 독성참고치(안전 기준치)를 썼는지를 역산해서 알아야 할 정도였다”면서 이번 조사대상인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이 사용자들이 호소한 증상을 고려해 선정한 물질인지, 생식독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독성참고치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비교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생식기관의 피부를 통한 흡수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했는지 등 식약처의 조사평가 방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br/><br/>최 교수는 특히 “<span class='quot1'>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 가운데) 한 물질씩 계산해서 각각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는데 사용자는 한 물질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위해도를 계산해야 하며 그럴 경우 안전한 범위를 뜻하는 안전역을 넘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7.txt

제목: 암세포 간 ‘상호작용’ 규명…표적치료제 개발에 도움  
날짜: 20171107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7161922001  
ID: 01100101.201711071619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연구팀<br/><br/><br/><br/>카이스트(KAIST)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 발병 과정에서 생기는 유전자 네트워크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br/><br/>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돌연변이의 종류는 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혈병이나 소아암은 10여개, 성인 고형암은 50여개, 외부 인자로 발생하는 폐암 등은 수백개에 이른다.<br/><br/>따라서 네트워크 원리를 모른 채 소수의 암 유발 유전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약물 내성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br/><br/>조 교수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장암 환자 유전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의 영향력을 정량화했다. 이를 이용해 대장암 환자를 임상 특징에 따라 분류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암 발생 과정에서 임계전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계전이는 물질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br/><br/>연구팀은 기존의 대장암에서 잘 알려진 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 순서를 따르는 경우 임계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임계전이를 활용하면 유전자 돌연변이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새 항암 표적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시스템생물학으로 암세포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 네트워크 원리를 최초로 밝힌 사례</span>”라고 말했다. 신동관 박사와 이종훈·공정렬 학생연구원(박사 과정)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실렸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8.txt

제목: [대전시]카이스트 “대장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 네트워크 원리 규명”  
날짜: 20171107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7150903002  
ID: 01100101.20171107150903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는 조광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 발병 과정에서 생기는 유전자 네트워크의 원리를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br/><br/>조 교수팀의 연구는 대장암의 근본적인 발병 원리를 밝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효과적인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br/><br/>암 연구자들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암 치료를 위해 환자들에게서 빈번히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주요 암 유발 유전자를 찾아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다.<br/><br/>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해당 유전자의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 <br/><br/>때문에 유전자 네트워크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소수의 암 유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치료법은 일부에게만 효과가 있고 쉽게 약물 내성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다.<br/><br/>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장암 환자의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다중 돌연변이에 대해 수학모형을 구축했다. <br/><br/>유전자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의 영향력을 정량화하고, 대장암 환자군을 임상 특징에 따라 군집화 한 것이다.<br/><br/>이 수학모형을 활용하면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다수 유전자 돌연변이의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표적 약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다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 네트워크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해 새로운 차원의 항암제 표적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는 지난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79.txt

제목: 법률사무소 마중 “근로자들의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변호사가 될 것”  
날짜: 2017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7141437001  
ID: 01100101.20171107141437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근로복지공단에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오랜 소송에 시달리는 재해자를 많이 보았다. 현재 국내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김용준 변호사)의 말이다.<br/><br/>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변호사·노무사·전문의·손해배상변호사 등 산재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김용준 변호사는 설명했다.<br/><br/>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은 부상부터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암을 비롯해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방대하다. 소방관, 집배원 등 공무상 재해도 포함된다.<br/><br/>이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법령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잘못된 접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아 모든 피해를 재해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분야의 변호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br/><br/><br/><br/>‘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김용준 변호사는 “최적의 구성원으로 재난을 겪는 재해자의 편에 서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길임을 확신한다. 기존에 없었던 제대로 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를 만들겠다”며 마중의 대표 변호사로서 포부를 밝혔다.

언론사: 경향신문-1-80.txt

제목: “창원터널 폭발·화재사고 트럭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  
날짜: 20171106  
기자: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6210249001  
ID: 01100101.20171106210249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폭발·화재는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 등 차체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br/><br/>경찰은 사고 당일 폭발한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br/><br/>경찰은 창원터널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트럭 차체 아래쪽에서 불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수차례 번쩍거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불빛이 조명이 아닌 불꽃으로 추정하고 있다.<br/><br/>경찰은 차체 아래에서 불꽃이 수차례 튄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았거나 손상돼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br/>트럭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 트럭이 좌우로 휘청거린 이유도 운전사 윤씨(76)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윤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아 차가 좌우로 휘청거린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차량을 급하게 멈추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접촉해 속도를 늦추려다 폭발했을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경찰은 윤 씨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씨가 사고 3개월 전 대장암 1기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암 1기는 종양 부분만 떼는 간단한 수술이다. 경찰은 윤씨의 의료기록을 조회해 암 수술 등 지병이 이번 사고와 연관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br/><br/>경찰은 또 윤씨는 2011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에 4차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격증은 체험교육 이수로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시험 탈락이 부적격 운전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br/><br/>경찰은 폭발사고 원인을 밝히기 한편 물류회사와 화주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br/><br/><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1.txt

제목: 라스베이거스 한달만에...완전무장 전직군인,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로 26명 사망  
날짜: 20171106  
기자: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6085008001  
ID: 01100101.20171106085008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 난입한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 58명이 숨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한달여만에 다시 무차별 총격 사건에 의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br/><br/>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 5일(현지시간) 무장 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서덜랜드 스프링스 4번가 500블럭에 위치한 제1침례교회에 일요 예배일인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완전 무장을 한 괴한이 들어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마구 총을 쐈고 여러 명이 쓰러졌다. 총격범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완전한 전투복장 차림이었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여러 차례 총탄을 재장전하면서 총을 쐈다”고 말했다. 교회 건너편 주유소 직원은 “20발 넘게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다. <br/><br/>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26)은 최근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이라고 CBS 방송 등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켈리는 고교 졸업 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2014년 5월 군법회의에 회부돼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앤 스테파넥 대변인은 AP통신에 켈리가 2010년부터 불명예 제대 전까지 뉴멕시코 주 홀로먼 공군기지에 위치한 군수지원부대에서 복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군에서 쫓겨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br/><br/>켈리는 이날 완전 무장을 하고 교회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인근 과달루페 카운티 쪽으로 달아났다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지부의 프리먼 마틴 국장은 “<span class='quot0'>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총상을 입어 사망한 것인지, 그를 쫓아간 주민들의 총격에 의해 죽은 것인지 불분명하다</span>”고 말했다.<br/><br/>서덜랜드 스프링스는 샌안토니오에서 남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은 2000년 인구통계에서 362명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은 “<span class='quot1'>마을에 교회, 주유소, 우체국, 커뮤니티센터 등이 하나씩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span>”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마을 주민의 약 7%가 숨진 셈이라고 전했다.<br/><br/>총격 당시 제1침례교회 프랭크 포머로이 목사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의 14세 딸 애너벨 양이 사망했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2세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br/>주 휴스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샌안토니오 한인회와 협력해 한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평소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주민 데이비드 플로레스는 CNN에 “아버지가 총격범이 교회 건물로 들어와 총을 쏘는 걸 봤다고 한다. 교회 내부가 피로 물들었고 비명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br/><br/>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span class='quot2'>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이 예배 장소에 있을 때 이런 악마의 행동이 일어났다</span>”며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다”며 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이런 어두운 때에 미국인들은 함께 뭉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눈물과 슬픔을 통해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사건 수사 등을 약속했지만 총기 규제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br/><br/>올해 들어서만 300여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이 숨진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간 제도 보완 논의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br/><br/>총기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span class='quot3'>텍사스에서 총격에 영향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span>”며 “<span class='quot3'>기도에 덧붙여 의회는 반드시 총기 폭력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span>”고 강조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span class='quot4'>총격범은 예배당에서 사람들과 아이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span>”며 “<span class='quot4'>미국은 총기 폭력 위기에 시달리며, 의회는 행동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는 점점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최근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자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10만 명당 11명’으로 집계됐던 2015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br/><br/>구체적인 총기 관련 사망자 숫자는 2011~2014년에는 한해 3만3500명 수준에 머물다 2015년에는 3만6000명, 지난해에는 3만8000명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기 외에 사망 원인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심장 질환 196명, 암 185명, 당뇨 25명, 약물 과다복용 20명 등으로 나타났다.<br/><br/><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2.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 11월4일 국정원 돈 직접 건네받은 박근혜  
날짜: 20171104  
기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4103712001  
ID: 01100101.20171104103712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br/><br/><br/><br/>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핫라인’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대선 즈음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었을 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규정 위반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br/> ▶ [단독]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br/><br/><br/><br/><br/><br/>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시기가 묘합니다. 당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막 불거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 도피자금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정원 게이트가 갈수록 커져갑니다. <br/><br/> ▶ 검찰 “<span class='quot0'>박근혜, 작년 9월엔 국정원 돈 2억원 직접 받아</span>”<br/> ▶ [국정원 게이트 수사]문고리 3인방, 국정원 돈 인정하며 용처 함구…최순실도 받았나<br/> ▶ [국정원 게이트 수사]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청와대’ ATM 역할<br/><br/><br/><br/><br/><br/>‘웰다잉 연극단’ 리더인 최명환 단장(69)은 암 환자입니다. 그간 수술로 생긴 흉터만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 단장과 그의 극단은 병원·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노인 자살, 시한부 인생, 존엄사 같은 죽음과 관련된 연극을 선보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최 단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br/> ▶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고마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며 남기는 작별 인사<br/> ▶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대부분 병원서 임종…죽음 터부시 말아야<br/><br/><br/><br/><br/><br/>tvN <부암동 복수자들>은 마흔 전후 세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입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는 이 드라마에서 여성들의 서로 믿고 보듬는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나 악녀로 점철된 여타 드라마 속 여성과는 딴판인 이 모습이 ‘진짜 현실 여성’입니다.<br/> ▶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br/><br/><br/><br/><br/><br/>위근우 칼럼니스트와 함께 최근 불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주혁의 연기 궤적을 되짚어봅니다. 그간 김주혁이 주로 맡은 배역은 찰진 욕을 내뱉거나 고래고래 큰 소리를 치며 연기력을 과시한 다른 여타 배우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김주혁이 보여준 ‘우유부단한 연기’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낄지도 모릅니다.<br/> ▶ [위근우의 리플레이]‘남초 영화’ 반감 커지는 요즘, 그의 빈자리가 더 커보인다<br/><br/><br/><br/><br/>[서의동의 사람·사이] 이번 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맞아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이 소장은 “<span class='quot1'>중국이 지금까지 서양의 규범 안에서 경쟁해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판을 새롭게 돌리겠다’는 것</span>”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중국, 더 강한 중국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br/> ▶ [서의동의 사람·사이-이희옥]“시진핑의 중국, 세계질서 만드는 ‘룰세터’ 역할 강화할 것”<br/><br/><br/><br/><br/>한국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다 ‘사장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도 못한 채 한국을 떠난 캄보디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숙소는 언제든 사장이 드나들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여성이 열악하고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환경에서 지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br/> ▶ [공감하는 법]사장님에게 몸과 마음 다친 우옹, 왜 ‘죄인’이 되어 한국을 떠났나<br/><br/><br/><br/><br/><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부터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엔 7일 방문합니다. 순방 첫날,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한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준비하고 있어 트럼프 방한과 맞물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br/> ▶ [트럼프 아시아 순방]미 “한·미 정상, 대북 군사옵션 논의”…목표는 ‘전쟁 없는 해결’<br/> ▶ 정부, 내주 초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상징적 방안’ 검토 중<br/> ▶ [트럼프 아시아 순방]청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안정 전환점 될 것”<br/><br/><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3.txt

제목: [책과 삶]순응과 저항 사이, 조선 백성의 생존법  
날짜: 20171103  
기자: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3211517001  
ID: 01100101.2017110321151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모멸의 조선사 <br/>ㆍ조윤민 지음 | 글항아리 | 440쪽 | 1만8000원<br/><br/><br/>어느 역사에든 명암(明暗), 공과(功過), 시비(是非)가 있다. 이 책은 이 중에서도 암, 과, 비에 무게를 둔 시선으로 조선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조선시대 지배세력의 통치에 반응하고 대응한 백성들이 이야기의 주체이자 주인공이다. <br/>　<br/>백성이 쓰는 서사. 이를 위해 저자는 직업과 역할에 따라 10개 부류로 조선 백성들을 나눈다. 농부, 어부, 장인, 광부, 상인, 도시노동자, 광대, 기생, 백정, 노비 등이다. 이들이 상층부의 지배와 통치행위에 반응하는 방식은 세가지였다. 적응하고 순종하는가 하면 선망해 상승하기도 했고 기피하거나 저항이라는 형태로 몸부림치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보잘것없는, 하지만 강인했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br/>　<br/>피지배층의 근간이던 농부는 조선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었다. 조선이 추구했던 농본 정책과 민본 정책의 실상도 알고 보면 국가 노동력의 주축 유지와 재정 확보였다. 지배층의 수탈과 무능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었지만 결국 농사법을 개량하고 수확을 증대하며 공동체를 버티게 한 힘은 하층 농민들의 노력에서 나왔다. 상인들도 어떻게 상업발전을 이끌었는지 보여준다. 농부나 상인, 장인이 생산자였다면 광대나 기생, 백정, 노비 등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천민의 대표격이다. 이 중 기생은 양반 남성 중심의 지배질서 강화를 위한 도구로 강력한 유교적 가부장제를 구축했던 조선사회의 희생물이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극단의 평가는 이들을 왜곡된 시선에서 벗겨내주지 못하고 있다.<br/><br/><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4.txt

제목: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대부분 병원서 임종…죽음 터부시 말아야  
날짜: 20171103  
기자: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3181745001  
ID: 01100101.2017110318174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2년 전 말기 뇌종양을 앓던 40대 변호사 레크레티아 실즈(42)는 뉴질랜드 법원에 ‘죽을 권리’ 청구소송을 냈다. 4년 동안 뇌종양으로 고통받아온 그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면서, 자신을 도운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br/><br/>그러나 소송 심리가 시작된 후 실즈의 건강은 더 급격히 악화됐고, “조력자살(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나온 바로 다음날 결국 숨을 거뒀다.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마지막 기회를 잃은 그의 이야기는 뉴질랜드 내에서 조력자살과 안락사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br/><br/>‘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전 세계적 관심사다. 존엄사는 생명연장조치 중단, 조력자살, 안락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br/><br/>그러나 사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오히려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력자살과 안락사(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약물 등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몇 개 주 등에서는 이미 조력자살이나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br/><br/>한국의 존엄사 관련 논의가 더딘 데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분위기 탓이 크다. 김조한 웰다잉문화연구소 소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사회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정서는 외국과 많이 달라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식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환자나 노인들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실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 교수 연구팀이 환자, 환자가족, 의료진, 일반인 등 4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이들의 88.7%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삶의 완성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45%는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치료를 반대했지만, 2016년 전체 사망자의 74.9%가 병원에서 임종을 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90% 이상이 임종 직전까지 적극적 치료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됐다. 즉, 대부분 자신의 죽음이 ‘존엄사’가 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죽음이 터부시된 문화 때문에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br/>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통 없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품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나누며 충분히 작별의 시간을 가진 후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명숙 대한웰다잉협회 대표는 “<span class='quot1'>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남편과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나누곤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자식이 먼저 죽음을 입에 올리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뿌리 깊은데,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사전의향신청서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도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웰다잉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br/><br/><br/>■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라 <br/><br/>우리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평상시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자주 나눠보길 권한다. 가족, 지인들에게 ‘내가 떠나는 날은 꽃 피는 봄이었으면 좋겠다’ ‘한복을 입은 채 눈을 감고 싶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나아가 죽음의 방식 등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덜해질 것이다.<br/><br/> -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대표 <br/><br/><br/>■ 인생 소개서를 작성해 본다<br/><br/>꼭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짬짬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인생 소개서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다. 글을 읽는 대상은 내가 죽은 이후 태어날 후손들로 한다.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다.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지, 실패를 했을 때엔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시시콜콜한 것들을 모두 다 적는다. 보통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다보면 의외로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 웰다잉문화연구소 김조한 소장<br/><br/>■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해본다<br/><br/>보다 능동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죽음준비교육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화해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엔딩노트 쓰기, 유언장 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보길 바란다. - 죽음준비교육 전문강사 유경 <br/><br/><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5.txt

제목: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고마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며 남기는 작별 인사  
날짜: 20171103  
기자: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3172623001  
ID: 01100101.2017110317262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꼭 1주일이 되는 지난 10월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죽음준비교육 전문강사이자 ‘웰다잉 연극단’의 리더인 최명환 단장(69)을 만났다. 그는 이미 7년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br/><br/>그가 체크무늬의 베레모를 벗자 항암치료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백발의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2003년 처음 왼쪽 신장에서 발견된 암세포는 지난 14년 동안 4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신장, 폐, 췌장, 간으로 계속 전이됐다. 그는 “수술로 생긴 몸의 흉터를 다 합치면 70㎝가 넘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내자 이제는 인생의 훈장처럼 여겨진다”고 웃었다. <br/><br/>그는 제대로 ‘죽음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인간의 심리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모교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 학사학위까지 땄다. ‘죽음준비지도자’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복지관과 구청 등에 유언서 작성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등을 강연하러 다녔다. 그러나 ‘아침부터 재수 없다’며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나가버리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쉽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이 고민은 유치원 연극무대에도 올라본 적 없던 그를 ‘웰다잉 연극단’ 오디션에 지원하게 만들었다. <br/><br/>그와 함께 단원으로 선발된 17명의 평균 나이는 66세. 본인 혹은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준비교육’을 받았다는 것 외엔 공통점이 없었다. 이들은 병원 로비,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노인들의 자살 문제, 시한부 인생의 존엄사 등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연극을 선보이며 죽음과 마주한 이들을 위로했다. <br/><br/>그는 “전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 지금도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 “연극무대에서 그렇게 죽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고 고백했다. 특히 지난해 암이 또 다시 전이돼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도 그는 “죽음을 공부하고 극단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죽음 역시 삶 속에 있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br/><br/><br/><br/>최명환 단장의 ‘웰다잉 연극’<br/><br/>■ 죽음의 문턱에서 알게 된 것 <br/><br/>다니던 회사에서 임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최 단장의 인생은 ‘승승장구’라는 단어로 집약됐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았다고 믿었던 쉰일곱의 일상이 무너진 건 2003년 건강 검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신장의 3분의 1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억울함과 분노가 앞섰다. 머릿속에서 ‘왜’, ‘하필이면’이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다. 급기야 우울증까지 앓았다.<br/><br/>수술 후 2년이 지난 2005년, 최 단장은 반대편 신장마저 들어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아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허탈함에 웃음이 났다. 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니 죽음이 객관적으로 보였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별을,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재를 그려보며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에 아내는 화부터 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준비하고 싶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금기어였다.<br/><br/>- 첫 수술의 상처도 가시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요. <br/><br/>“사실 처음 수술을 앞두고는 놀람과 두려움에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환자들은 의사의 표정이나 말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말하는 의사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br/><br/>- 수술대 위에서 만감이 교차하셨겠네요.<br/><br/>“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이미 경험해서 아니까 더 고통스러웠죠. 그러면서도 만약 내가 이번에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꼭 ‘죽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역설적이죠? 수술대 위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 새 인생을 계획했으니(웃음).” <br/><br/>- ‘죽음 공부’라는 말이 낯설어요.<br/><br/>“두 번째 수술을 하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그다음 해 인사 발령 때 제 이름이 안 불리더라고요. 임원들에겐 그게 곧 퇴직을 의미하는 것인데(웃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이 ‘죽음’이란 놈부터 파보자, 싶어서 관련 주제의 책들을 섭렵했어요.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다시 모교로 돌아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 학사학위까지 땄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각당복지재단 산하 모임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죽음준비지도자 과정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신청했죠. 자격증도 따고요.”<br/><br/>- 죽음준비지도자라니 감이 잘 안 오네요.<br/><br/>“죽음 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막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언서 작성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등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이야 죽음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지만 10년 전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씁쓸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2009년이었나. 한 구청에서 ‘제2의 인생’이란 주제로 강좌를 열면서 저보고 웰다잉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 시작하자마자 3명이 나가버렸어요. ‘재수 없게, 아침부터’라고 투덜대면서.” <br/><br/>‘죽음’이라는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각당복지재단에서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웰다잉 극단을 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게 배우 오디션 제안이 들어왔다. 아내에게 ‘배우 제의가 들어왔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피식’ 웃었다. 오기가 생겼다. <br/><br/>- 단장님을 캐스팅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 하던가요?<br/><br/>“환갑 넘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본 적 있어요? 남성이 흔치 않아요.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모임에선 지금도 제가 아주 귀한 존재예요(웃음). 남은 인생 잘 살아보자, 했는데 못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오디션 보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관심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br/><br/><br/><br/>■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대 <br/><br/>그와 함께 단원으로 선발된 17명의 평균 나이는 66세. 본인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준비교육’을 받았다는 것 외엔 공통점이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늦깎이’ 배우들의 방향을 잡아준 사람은 연극인이자 서울예술대에 재직 중인 장두이 교수였다. 이들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열심히 했다. <br/><br/>“인생이 참 그래요. 내가 배우가 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사실 그전까지 나는 드라마 시청은 고사하고 유치원 연극무대에도 올라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br/><br/>- 발성이나 대본 외우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네요.<br/><br/>“그랬죠. 연습하면 할수록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대화하듯 대사를 하라는데 또 대화체는 아니라네. 이게 대체 뭔 말인지(웃음). 대사는 또 왜 그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세 번째 모임 때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갔는데, 내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만둔다는 말이 차마 나오질 않더라고. 매일 두시간씩 한강 둔치를 걸으며 발성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br/><br/>서투름이 노련함으로 바뀐 2009년, 첫 무대의 막이 올랐다. 20분짜리 단막극 2편이었지만 2시간 러닝타임 무대보다 벅찼다. 이듬해 최씨가 단장자리를 이어받은 뒤 극단은 더욱 탄탄하게 성장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핀 조명 하나 없는 병원 로비, 마을회관이 이들의 주 무대였다. 전국 방방곡곡 누리지 않은 곳이 없다. <br/><br/>- 몇 번의 무대에 오르신 거죠? <br/><br/>“몸이 아파 쉬었던 지난해를 빼고 오른 무대를 세어보니 총 136회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연기하는 사람도, 보는 관객도 주로 노인들이 많다 보니 상시 공연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볕 좋은 봄·가을에만 하다 보니 어쩔 땐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은 거죠. 연습은 주로 공연을 앞둔 여름에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개막 공연을 앞두고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요.”<br/><br/>-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세요?<br/><br/>“많죠.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양평군청에서 공연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는데 여든 넘은 노인 한 분이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셨어요. 그날 한 연극이 <소풍가는 날>이라고, 사별한 아내를 따라 자살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분이 ‘나도 2년 전에 아내가 죽었어.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살아지더라. 힘내’ 하고 날 위로하더라고요. 극 중 인물이 진짜 저인 줄 아셨던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정말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이래요. 연극 보고 많이 치유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고맙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랬어요.” <br/><br/>- 또 어떤 연극들을 하셨나요?<br/><br/>“첫 번째 연극은 <립스틱 아빠>라고 립스틱을 좋아했던 아내와 사별한 뒤 생전 립스틱 하나 사주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는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자식들의 나쁜 기운을 모두 떠안고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할머니의 죽음 준비 과정을 다룬 <춤추는 할머니>, <행복한 죽음>, 그리고 아까 말한 <소풍가는 날>. 지난 9월부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연극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예요.”<br/><br/>- 단장님의 상황이기도 하네요. 현재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br/><br/>“맞아요. 아무래도 나를 모델로 해서 쓴 것 같아(웃음). 두 번째 수술 이후 2012년 또다시 폐로 암세포가 전이됐어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지난해 5월쯤 황달이 심하게 와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4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수술을 했죠.”<br/><br/>- 그 뒤로 계속 안 좋아지신 거예요?<br/><br/>“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러다 올 초 가슴 쪽이 너무 아팠는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바로 병원에 가질 못했어요. 나중에 가보니 이번에는 췌장에서 간으로 암이 전이됐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치료를 하는데 강도가 앞엣것들과 달라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구토에 설사에 몸무게가 13㎏이나 줄었어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또 의사가 입맛 돌게 하는 약을 주네?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셈이지(웃음). 한 달에 세 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요.” <br/><br/>첫 만남부터 쉼 없이 대화를 이어온 최 단장이 잠시 휴식 시간을 달라고 했다.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유쾌하게 건네는 유머와 간간이 쏟아지던 웃음들이 더 기억됐을지도 모르겠다.<br/><br/>- 일상생활이 힘들진 않으세요?<br/><br/>“주사를 맞고 온 날이나 다음 날은 조금 힘들어요. 처음엔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성이 생길까 그게 걱정이죠.”<br/><br/>- 무대에 오르시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br/><br/>“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건데 무대에 오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집중을 해서 그런가 봐요. 집에 가면 ‘팍’ 하고 쓰러져 다음 날까지 못 일어나지만(웃음).” <br/><br/>- 그렇다면 더블 캐스팅을 고민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br/><br/>“그럴까도 했는데,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극은 3장에만 출연하는 조연 같은 주연이라 할 만해요(웃음). 연극을 하면서 죽는 것이 내 꿈인데 뭐.” <br/><br/><br/><br/>■ ‘준비된 죽음’은 불행하지 않다 <br/><br/>누구나 마땅히 겪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곧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 단장 역시 ‘죽음’이 쉽진 않다. 몇 번이나 확인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죽음이 때때로 버거운 순간들이 있다. <br/><br/>- 죽음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다고 해도 여전히 인정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으시겠죠.<br/><br/>“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최근 암 전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연극을 통해 수없이 죽는 역할을 해왔고, 10년이나 죽음 강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췌장암 4기입니다’라는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더 넋이 나간 아내를 보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br/><br/>-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br/><br/>“글쎄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어떤 삶이 의미가 있을까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매년 12월이면 버킷리스트를 써왔어요. 모자라다 싶은 건 다시 적고, 됐다 싶은 건 빼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지. 그게 내겐 연극이었고요(웃음).” <br/><br/>최 단장은 인생을 4막으로 나눴다. 1막은 교육의 시기로 사회진출 전까지의 삶이다. 2막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부모를 봉양하는 기간인 의무의 시기다. 3막은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투자의 시기고 4막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병수발의 시기다. <br/><br/>- 현재는 인생 3막을 즐기고 계신 셈이네요.<br/><br/>“그렇죠. 이건 길면 길수록 좋아요. 문제는 4막인데, 그 기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나는 한 달 내였으면 하는데,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해요. 죽음을 위해 건강해야 한다는 말이죠. 웃기지 않아요?” <br/><br/>- 연명의료 거부 고민도 해 보셨는지요. <br/><br/>“이미 2010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는걸요. 그런데 그때 쓴 건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이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양식에 맞게 써야 해요.”<br/><br/>- 아내분이나 가족들은 단장님의 이런 생각을 불편해하진 않으세요?<br/><br/>“요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응원하는 편이에요. 연극을 하다 쓰러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만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br/><br/>-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단장님은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해요. <br/><br/>“예전에는 누가 죽었다, 하면 두려웠어요.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나 서글프기도 했고요. 공부를 하고 연극을 하면서 두려움이 완벽히 사라졌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죽음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음도 삶 속에 있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봐요. 어렵죠? (웃음) 많이 친숙해졌어요. 죽음이. 나 역시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게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예요.” <br/><br/>- 끝으로 단장님이 바라는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br/><br/>“정신이 희미하게 사라져갈 무렵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멋지죠? (웃음)”<br/><br/><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6.txt

제목: 전남 고흥 263만원, 수원 영통 100만원...노인 많은 지역, 만성 질환 많고 병원비도 많이 드네  
날짜: 20171102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2150930003  
ID: 01100101.20171102150930003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남 고흥군 263만원, 경남 의령군 260만원, 전북 부안군 258만원, 지난해 이 지역 사람들이 쓴 1인당 진료비다. 반면 경기 수원 영통구는 100만원, 경기 화성시는 113만1000원, 경기 용인 수지구는 113만2000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br/><br/>고흥과 의령, 부안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 안팎이다. 영통과 화성, 수지는 노인 비율이 전국 평균인 13.3%보다 낮았다. 병원 진료비 씀씀이가 곧 ‘고령화 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고, 지역과 가구의 재정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br/><br/> <br/><br/>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27만명이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는 71조9671억원으로 2015년의 64조8300억원보다 7조1371억원(11.0%) 늘었다.<br/><br/>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46만8000원으로 전년의 133만5000원보다 13만3000원(10.0%) 늘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고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령, 부안 순이었다. 병원에 돈을 가장 적게 쓴 지역은 영통, 화성, 수지였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부안(28.7%)과 전북 고창군(29.2%)을 제외한 8곳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다. 그중에서도 고흥은 37.3%로 가장 높았다. 하위 10곳 중에선 6곳의 노인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가장 높은 수지도 11%였다. <br/><br/> <br/><br/>암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고령화와 상관관계가 깊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진료비를 많이 쓸 뿐 아니라 주요 암과 만성질환 환자가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위암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남 함양군(760명·노인 비율 30.3%)이었고, 그다음은 전남 보성군(728명·34.1%), 전북 진안군(723명·31.0%) 등이었다. 영통(181명·5.7%)은 10만명당 위암 진료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경남 창원 성산구(205명·5.8%)와 경기도 시흥시(214명·7.6%)가 뒤를 이었다.<br/><br/>10만명당 대장암 진료 인원은 노인 비율 29.2%인 충북 괴산군이 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봉화군(547명·31.7%), 경북 의성군(546명·36.5%) 순이었다. 대장암 환자가 적은 지역은 창원 성산구(153명), 경북 구미시(158.5명·7.4%), 수원 영통구(159.4명) 순이었다.<br/><br/>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료 인원은 전국적으로 10만명당 1만1884명이었다. 그런데 충남 서천군(2만4849명·31.0%), 전남 진도군(2만4096명·31.3%), 경북 의성군(2만3965명·36.5%) 등은 전국 평균의 2배였다. 반면 영통(7118명), 창원 성산구(7373명), 광주 광산구(7621명·7.8%)는 적었다.<br/><br/> <br/><br/>대형 병원과 성형외과들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서대문·강남·중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부산 서구 등에서 쓰인 진료비의 90% 안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쓴 돈이었다.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지역들이다. 사는 곳 주변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들 비율은 제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은 27.0%여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입·내원 일수의 62.9%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7.txt

제목: 암보험만 믿고 수술부위 통증 치료 받았는데 보험금 ‘제로’···왜?  
날짜: 20171102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102122732001  
ID: 01100101.201711021227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40대 주부 ㄱ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통원하면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항암 부작용과 수술부위 통증을 낫게 하려고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보험회사는 암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었다며 입원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다.<br/><br/>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만 가입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약관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암진단 시점, 지급 여부도 보험가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 받는 보험금도 천차만별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진단비, 입원비 정보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 등에 알렸다.<br/><br/>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환자를 직접 대하고 치료하는 임상의를 통해 암 진단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 약관에 따라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즉 암진단은 조직, 혈액검사에 따른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법원 판례도 암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보고일’로 규정했다.<br/><br/>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아예 못 받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보험은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나서야 보장의무가 생긴다. 이미 암이 발생하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 상품은 계약일부터 보장을 한다.<br/><br/>한편 보험금 지급 의무개시일 이후에도 보통 계약일 이후 1~2년 내로 암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진단비로 지급한다. 자가진단이 쉬운 유방암은 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만 진단비를 지급받게 된다.<br/><br/>ㄱ씨 사례처럼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때는 입원 기록이 있더라도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암 직접치료로는 종양 제거·증식 억제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이 해당된다. 법원 판례도 암치료 이후 후유증, 합병증 치료 목적의 입원은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개별 암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8.txt

제목: 폴 뉴먼의 유품 롤렉스 시계, 200억원에 낙찰  
날짜: 20171029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9213402004  
ID: 01100101.20171029213402004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의 주연 배우 폴 뉴먼(사진)이 생전 즐겨 찼던 시계가 경매에서 200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예상보다 17배나 높은 금액이다. <br/><br/>지난 27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필립스 경매에서 뉴먼의 롤렉스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Daytona)’ 시계가 1775만달러에 거래됐다고 AP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br/><br/>이 시계는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조앤 우드워드가 1968년 선물한 것이다. 1960~1970년대 제작된 초창기 데이토나 모델(Ref.6239)로 뉴먼이 자주 사용해 ‘폴 뉴먼의 데이토나’로도 불렸다. <br/><br/>뉴먼의 맏딸이자 역시 배우인 엘리노어 넬 뉴먼이 경매에 출품했는데 당초 100만달러 수준을 기대했으나 이보다 17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경매를 통한 수익은 자선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br/><br/>1950년대 드라마 출연으로 연기를 시작한 뉴먼은 <허슬러>(1961년), <내일을 향해 쏴라>(1969년), <스팅>(1973년) 등 영화를 찍으며 스타가 됐다. 그는 1986년 <컬러 오브 머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다. <br/><br/>57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6편의 영화를 직접 연출했던 그는 끝까지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80세이던 2006년 TV시리즈 <엠파이어 폴스>에 출연해 에미상,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그러나 암 투병 끝에 2007년 은퇴를 선언했고, 2008년 향년 83세로 숨을 거뒀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89.txt

제목: [월드 in 컬처] ‘내일을 향해 쏴라‘ 폴 뉴먼의 롤렉스, 200억원에 낙찰  
날짜: 20171029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9113033001  
ID: 01100101.20171029113033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의 주연 배우 폴 뉴먼이 생전 즐겨 착용했던 시계가 경매에서 한국 돈으로 200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17배나 높은 금액이다.<br/><br/>지난 27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필립스 경매에서 뉴먼의 롤렉스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Daytona) 시계가 1775만 달러에 거래됐다고 AP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br/><br/>이 시계는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조앤 우드워드가 1968년 선물한 것이다. 1960~70년대 제작된 초창기 데이토나 모델(Ref.6239)로 뉴먼이 자주 사용해 ‘폴 뉴먼의 데이토나’로도 불렸다. 뉴먼의 맏딸이자 역시 배우인 엘리노어 넬 뉴먼이 경매에 출품했는데 당초 100만달러 수준에 낙찰을 기대했으나 이보다 17배가 넘었다. 경매를 통한 수익은 자선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br/><br/>지금까지 시계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물품은 2015년 소더비에 나온 파텍 필립의 포켓 시계로, 2440만달러(약 270억원)에 낙찰됐다.<br/><br/>1950년대 드라마 출연으로 연기를 시작한 뉴먼은 <허슬러>(1961년), <내일을 향해 쏴라>(1969년), <스팅>(1973년) 등 영화를 찍으며 스타가 됐다. 수차례 후보에만 올랐을뿐 상을 타지 못했던 그는 1986년 <컬러 오브 머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다. 1969년 영화 <위닝> 촬영을 계기로 자동차 경주에 빠졌고, 경주용 자동차가 주인공었던 애니메이션 <카>(2006년)에 목소리 출연하기도 했다. 57편의 영화에서 연기를 했고 6편의 영화는 직접 연출했던 그는 끝까지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80세였던 2006년 TV시리즈 <엠파이어 폴스>에 출연해 에미상,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br/><br/>그러나 암 투병 끝에 2007년 은퇴를 선언했고, 2008년 향년 83세로 숨을 거뒀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0.txt

제목: '시술 전→시술 후' 사진 안 돼요...일본, 의료기관의 '비포애프터' 광고 게재 금지키로  
날짜: 20171026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6144026001  
ID: 01100101.20171026144026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span class='quot0'>‘시술 전 → 시술 후’ 사진 안 돼요.</span>” <br/><br/>일본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 흡입, 치아 세라믹 가공 등의 시술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의 인터넷사이트 게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에서 ‘비포애프터(BeforeAfter)’로 불리는 미용치료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br/><br/>2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br/><br/>후생성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술 전후’ 사진을 의료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게재할 경우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스폰서를 하고 있는 의료정보사이트나 순위사이트, 의료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포함된다. 후생성 측은 “가공이나 수정을 한 사진도 있다”면서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누구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자가 잘못 생각하고 따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r/><br/>의료기관의 인터넷사이트는 지난 6월 개정의료법에 따라 간판이나 텔레비전, ＣＭ 등과 같이 ‘광고’로 분류되고 있다. <br/><br/>다만 후생성은 소비자들이 검색해서 읽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해 ＣＭ 등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치료 효과의 설명 등은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인정할 방침이다. 또 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이나 선천적인 안면 이상 등의 경우 시술 전후의 이미지를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만큼 관련 학회의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이 광고료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게시판에 감상을 써올리는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br/><br/><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1.txt

제목: [천운영의 명랑한 뒷맛]사서함 ○○호의 그에게  
날짜: 20171025  
기자: 천운영 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5210049001  
ID: 01100101.2017102521004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매주 한 사람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간혹 건너뛰거나 두 통이 한번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대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온다. 편지봉투는 언제나 밀봉되지 않은 채로 온다. 나보다 먼저 누군가 읽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래야만 내게 전해질 수 있는 편지다. 발신자의 주소는 사서함 몇 호. 수신자의 주소는 돈키호테의 식탁. 우편함이 따로 없는 탓에 그 편지는 때로 바람에 날려 길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도 놓친 편지는 없을 거라 믿는다. 편지를 가방에 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 편지는 이상하게 바로 읽게 되지 않는다. 일과를 다 마치고 난 후 집에 돌아가, 소파나 침대에 몸을 던진 다음 비로소 꺼내 읽는다. 아직 씻지 않은 채로. 음식냄새 기름냄새를 지우지 않은 채로. 편지를 꺼낸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다. <br/><br/>고전적인 편지지. 아주 익숙한 볼펜의 질감. 정성들여 꾹꾹 눌러 쓴 글자들. 펜글씨 교본에 따라 쓴 글씨 같다. 자간도 일정하고 글씨체도 한결같다. 고친 흔적도 없다. 감정을 가늠할 수 없는 필적이다. 다른 곳에 몇 번이고 고쳐 쓴 내용을 베껴 그린 그림 같다. 어쩌면 최종적인 편지를 위해 몇 장의 편지지를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 정갈해서 출력물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br/><br/>편지는 언제나 내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겨울, 이 봄, 이 여름, 이 가을. 감기는 안 걸리고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몸은 고되지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반성을 했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임했는지. 여름의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며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고는 언제나 응원으로 마무리한다. 힘들어도 힘내시라. 지치고 말고 잘 지내시라. 웃음을 잃지 마시라. 건강하시라.<br/><br/>식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사서함 몇 호로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몇 통의 편지를 받았다. 모두 나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보낸 편지였다.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여겼는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고 믿었는지, 어쨌거나 그들에게 어떤 자극을 준 것만은 분명했다. 한결같이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썼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으로 책을 보내달라 했고, 누군가는 곧 그곳을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할 터이니 돈을 보태달라고도 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고, 편지는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주인만은 달랐다. 그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소설로 쓰고 싶다 했다.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면 그곳의 일들을 내가 소설로 쓰고 싶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편지를 읽었다. 수감자와의 서신교환을 통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로 그의 말대로 소설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다. 소극적인 응답. 그의 편지를 옆으로 치우지 않고 읽는 것으로 내 태도를 정했다. <br/><br/>두려웠다. 그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수감자여서가 아니었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태 소설을 쓰며 살아왔다. 소설이 얼굴이었다. 작가라는 사람은 소설 뒤에 숨어 있으면 되었다. 나는 공개되지 않아도 되었다. 책이 나오면 낭독회나 작가와의 만남을 하지만, 그건 일종의 행사였다. 굳이 알려 든다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나 내가 자주 가는 카페 같은 것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식당을 하고 있는 현재의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일정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 숨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주방 뒤로 숨어, 열심히 요리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br/><br/>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편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문득 생각나 날을 꼽아보고, 혹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는 않았나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궁금해지게 되고. 응답 없는 내 태도에도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소식을 전해오고 내 안부를 물어주는 그 편지. 위안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잊을 만하면 도착하는 그 편지로부터. 읽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의 새 편지를 가방에 넣다가 문득, 내 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했었을지 모른다고 믿어보기로 했다. 어쩐지 뭉클한 느낌이었다. <br/><br/>얼마 전에는 식당에 다녀간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멀리 부산에서 업무차 서울에 왔다가 들렀었다고 했다. 오래전 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았었으며, 그래서 온 김에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그냥 음식만 맛있게 먹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뒤늦게 편지를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더라는 이야기. 그리하여 그 편지를 메일로 다시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메일에 답은 하지 않았다. 실은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그의 바람대로 곧 소설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해야 할까. 다음에 오게 되면 알은척을 하시라 할까.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간직하기로 했다. <br/><br/>또 한 방문자를 기억한다. 일 년에 하루 정도 온전히 자기만의 외출을 할 수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라고 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일 년의 하루를, 소설가가 하는 식당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영업시간이 끝났고, 조금 취한 듯 보였으나 그만 돌아가시라 할 수 없었다. 그냥 그녀의 술잔에 술을 조금 더 채워주었다. 그녀는 고백했다. 자신이 암에 걸렸었다고, 가망 없다 했고 오래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그녀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에 좋은 책이 많은데, 아직 읽을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더 읽을 수 없다니. 그게 가장 슬펐다고 했다. 지금도 그게 제일 두렵다고 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껏 책이라니. 그깟 책이 뭐라고.<br/><br/>글을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글이 주는 힘에 대해 생각한다. 내 어깨를 두드려준 누군가의 편지를 생각한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내가 계속 소설을 써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준 사람들. 그리고 사서함 몇 호의 그는 이미 소설가다. 나는 그의 소설을 기다린다. 내 소설을 기다리는 누군가처럼.<br/><br/><천운영 소설가>

언론사: 경향신문-1-92.txt

제목: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환경부, 1년간 역학조사 착수  
날짜: 20171025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5205631001  
ID: 01100101.20171025205631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암 발병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경향신문 9월7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br/><br/>전북 익산시는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장점마을 환경오염·주민건강 실태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1년 동안 진행된다. <br/><br/>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 진원지로 주장하는 인근의 비료공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연관성을 규명키로 했다.<br/><br/>용역은 장점마을 인근에 자리한 4개 업체의 사용 원료가 인체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체 내 원료저장 등 관리실태, 공정별 세부시설평가,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 현황, 풍향 등을 살피게 된다.<br/><br/>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한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장점마을 주민을 포함해 과거 거주자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차 조사에서 혈액·생화학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피부질환·암 표지자 검사 등을 한 뒤,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진을 하기로 했다.<br/><br/>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학조사에 나서줘 다행</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비료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것인지의 여부 등 속 시원한 해답이 나와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장점마을은 2010년부터 주민 23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은 투병 중이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3.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여성·자연생태·문화 ‘3대봉사’ 실천  
날짜: 2017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5201952001  
ID: 01100101.20171025201952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모레는 여성, 자연생태, 문화 등 3대 핵심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br/><br/>아모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 전 세계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br/><br/>여성 암(유방, 자궁) 예방 교육 및 검진 지원, 저소득층 여성 암 수술 지원, 여성 암 환자 사후 관리 및 자존감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암 사망률 감소 및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핑크리본캠페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등을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기타 글로벌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r/><br/>매년 최소 35억원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4만9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br/>핑크리본캠페인은 2001년부터 지난 16년간 약 56만명이 핑크런, 핑크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으며 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br/><br/>아모레는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의 소임을 다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낼 ‘20 by 20’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94.txt

제목: 여성들이 생각하는 '건강위험 요인'은 운동 부족···청소년기엔 '왕따 걱정' 가장 커  
날짜: 20171025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5143444001  
ID: 01100101.201710251434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건강위험 요인은 ‘신체활동 부족’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br/><br/>25일 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에 의뢰해 지난해 4~6월 실시한 ‘건강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건강 걱정은 나이에 따라 달랐다. ‘본인 연령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문제 1순위를 꼽으라’는 질문에 14~17세 청소년은 ‘왕따·집단따돌림’(27.8%)을 꼽았다. 19~44세 가임기 여성들, 45~64세 갱년·폐경기 여성들은 10명 중 4명이 ‘암’이라고 답했다. 65~79세 노년층에서는 ‘관절염’(2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br/><br/>조사팀은 여성들을 생애단계별로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8세는 고3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방문 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졌다.<br/><br/> <br/><br/>‘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강문제를 꼽으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왕따와 집단따돌림이었다. 이어 월경장애, 교통사고, 폭력, 성폭력·성폭행 순이었다. 가임기 여성들은 교통사고, 암, 뇌졸중 등을 골랐다. 갱년·폐경기는 골다공증, 암, 폐경증후군, 노년기는 관절염, 뇌졸중, 골절 등을 들었다.<br/><br/>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위험요인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운동 및 신체활동 부족’을 꼽았다. 가임기 여성 가운데 일주일에 이틀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8%에 불과했다. 청소년들도 학교 체육 시간을 빼면 전혀 운동하지 않는 비율이 84.7%에 달했다. <br/><br/> <br/><br/>여성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미국(8.9시간), 프랑스(8.6시간), 호주(8.6시간), 일본(7.6시간) 등에 비해 많이 적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은 43.7%였다. <br/><br/>정상 체중인 여성 5명 중 1명은 자신이 과체중이나 비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기(22.3%)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과체중이나 비만인데 스스로 보통 이하라 여기는 여성들은 노년기로 갈수록 많았다. <br/><br/>5점 척도의 행복지수는 가임기 3.80점, 갱년·폐경기 3.61점, 노년기 3.34점이었다. 행복지수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도 역시 노년기로 살수록 낮아졌다.<br/><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려면 생애주기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애주기별로 건강이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등 여성건강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5.txt

제목: 마을주민 80명중 23명이 암환자, 원인 규명 착수  
날짜: 20171025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5113019003  
ID: 01100101.20171025113019003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착수됐다.<br/><br/>전북 익산시는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환경부가‘장점마을 환경오염·주민건강 실태조사’를 맡겼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1년동안 진행된다.<br/><br/>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 진원지로 주장하는 인근의 비료공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연관성을 규명키로 했다.<br/><br/>용역은 장점마을 인근에 자리한 4개 업체의 사용 원료가 인체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체 내 원료저장 등 관리실태, 공정별 세부시설평가,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 현황, 풍향 등을 살피게 된다.<br/><br/>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한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장점마을 주민을 포함해 과거 거주자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차 조사에서 혈액·생화학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피부질환·암 표지자 검사 등을 한 뒤,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진을 하기로 했다.<br/><br/>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학조사에 나서줘 다행</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무엇이 문제인지 속 시원한 해답이 나와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장점마을은 2010년부터 주민 80명 가운데 23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은 투병중이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6.txt

제목: “좀 있으면 김장철, 집에나 가 김장겸”…2017년판 MBC 프리덤  
날짜: 20171023  
기자: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3220609001  
ID: 01100101.2017102322060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ㆍ2012년 이어 또 뮤비 촬영…기자·해직자 등 막춤 합류 <br/>ㆍ25일 파업콘서트서 공개<br/><br/><br/><br/>“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봉춘!”<br/><br/>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상암동 MBC사옥 앞 광장. 앰프에서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오자 곳곳에 서 있던 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후드티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PD, 동물 모양의 머리띠를 쓴 기자, 텀블링을 하며 현란하게 춤을 추는 아나운서까지…. 전동 휠을 탄 카메라맨이 바쁘게 움직이며 이들의 움직임을 담았다.<br/><br/>방송센터 로비 1층. “좀 있으면 김장철! 집에나 가~김장겸!” 2절이 시작되자 선글라스를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던 박성제·박성호 전 기자 등 해직자들이 막춤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손가락을 허공에 찌르며 열정적으로 막춤을 췄다.<br/><br/>카메라맨의 발길은 방송센터 지하 1층 나무계단에 멈췄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이곳에 모인 700명의 MBC 노조원들은 큰 목소리로 ‘MBC 프리덤’의 마지막 소절을 완성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총파업 50일째인 이날 ‘2017 MBC 프리덤’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2012년 파업 당시 인기곡이던 그룹 UV의 노래 ‘이태원 프리덤’에 MBC의 상황을 비판하는 가사를 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뒤 5년 만에 다시 ‘MBC 프리덤’을 제작했다. “<span class='quot0'>집에나 가 김재철(당시 MBC 사장)!</span>”이라는 전편의 가사는 이번에는 “<span class='quot0'>집에나 가 김장겸(현 MBC 사장)!</span>”으로 바뀌었다. <br/><br/>5년 전 연출을 맡았던 김민식 PD가 다시 연출을 맡았다. 김 PD는 “<span class='quot1'>2012년 MBC 프리덤을 찍을 때만 해도 속편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동안 사측의 부당행위로 고생한 구성원들을 위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어내고 싶었다</span>”고 했다.<br/><br/>뮤직비디오 출연진으로는 ‘파업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2012년 파업 이후 해직된 6명의 언론인 가운데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제외한 다섯 사람 모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MBC 파업콘서트에서 공개된다.<br/><br/><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7.txt

제목: 성시연답게…말러의 ‘사랑이여, 안녕히’로 경기필과 작별한다  
날짜: 20171023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3212444001  
ID: 01100101.20171023212444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ㆍ상임지휘자 임기 연말 종료…27·28일 사실상 ‘굿바이 콘서트’<br/><br/><br/><br/>“10년쯤 뒤에요?” 성시연(41)은 그렇게 반문하며 하하 웃었다. 한참을 생각하곤 이렇게 말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겠죠. 이를테면 연습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단원들에게 ‘자, 준비됐나요?’ ‘식사는 하셨나요?’라고 물으면 단원들이 ‘네에~’하고 길게 합창으로 대답해요. 아마 그런 게 떠오르겠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짧지만 정다웠던 교감의 순간들!”<br/><br/>지휘자 성시연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떠난다. 4년 임기의 마무리를 목전에 뒀다. 그는 2014년 1월 상임지휘자 겸 예술단장 임무를 시작해 오는 12월로 임기 종료한다. <br/><br/>공식적으로는 연말 송년음악회가 마지막 방점이다. 하지만 내심의 ‘굿바이 콘서트’는 이달 2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또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하는 말러의 교향곡 9번이다. 역시 그다운 선택이다.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는 성시연은 말러가 지상에서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경기필하모닉 단원들과 작별한다. 그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을 4년간 지켜봤던 팬들에게도 이별을 고한다.<br/><br/> 서울 정동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지난 20일, 정동극장 앞마당에서 그를 만났다. 말러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자필 악보에 남겨놓은 ‘오, 아름다움이여, 사랑이여, 안녕히’라는 글귀가 저절로 떠오르는 오후였다.<br/><br/>우선 궁금한 것은 지난 4년간 이뤄진 경기필하모닉의 진보였다. 성시연은 “<span class='quot0'>이제는 합(合)이 맞아떨어지는 단계</span>”라고 자평했다. 오케스트라에게 ‘합’이 맞는다는 것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각양각색의 연주자들이 모여 있는 데다 음악에 대한 각자의 이해력과 연주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br/><br/>“처음 부임했을 때는 개인 간의 기량 차이, 파트 간 불균형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제는 상당히 극복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과 감각도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지휘자도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휘자가 자기만의 ‘고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 뿐이죠. 단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해요. 긴장감도 필요하지만 편안함도 있어야 ‘합’에 도달하니까요. 지금 우리 단원들은 제 손짓 하나에도, 때로는 입모양 하나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죠.”<br/><br/>부임 첫해에는 “경기필하모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이듬해에는 해외 투어, 그다음 해에는 음반 녹음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음반으로 내놨다. <br/><br/>그리고 창단 20주년을 맞은 올해에 경기필하모닉은 또 하나의 ‘꿈’을 이뤘다. 지난 9월 그들은 세계 최고의 연주회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 무대에 섰다.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 꿈을 계속 꿨죠. 제가 경기필하모닉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이뤄냈어요. 무지크페스트 베를린의 초청으로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아시아 오케스트라가 무지크페스트에 초청받은 첫 사례였죠.”<br/><br/>음악은 저마다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재구성된다. 지휘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휘자마다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성시연은 “<span class='quot0'>내 마음속에 말러 교향곡 9번이 자리 잡은 것은 미국 보스턴 심포니의 부지휘자로 막 부임했을 때</span>”라고 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그때 성시연은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였던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9번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다.<br/><br/>“아버지처럼 따르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공부했던 독일 한스 아이슬러 음대의 롤프 로이터 교수님이죠.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저를 계속 레슨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연, 나는 너무도 살고 싶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임종하시던 순간에 저를 포함해 제자들이 몇명 모였는데, ‘롤프, 학생들이 왔어! 눈을 떠봐!’라고 사모님이 귓가에 대고 크게 얘기했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간신히 입만 움직여서 ‘아우프 비더젠’(auf Wiedersehen·안녕히!)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선생님이 돌아가신 직후, 말러의 9번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으로 먹먹했죠.”<br/><br/>‘세상과의 작별인사’로 해석되는 말러 9번에 대해 성시연은 “<span class='quot0'>이 교향곡의 수많은 음표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사랑</span>”이라고 했다. 그렇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질 때 오히려 절절하게 실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러가 9번 교향곡 악보에 적어놓은 ‘분절된 문장’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성시연의 번역이다. “오, 아름다움이여, 사랑이여! 안녕히! 안녕히! 세상이여, 안녕히!” <br/><br/>성시연과 경기필하모닉은 27~28일 콘서트에서 말러의 교향곡 9번 외에 슈만의 첼로 협주곡(막시밀리안 호르눙 협연)을 함께 연주한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98.txt

제목: [사설]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존엄사 도입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3210348001  
ID: 01100101.2017102321034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생 불능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존엄사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죽음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엄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안락사는 회복 불능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br/><br/>존엄사는 영국·네덜란드·대만·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89%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생의 마지막 10년 중 절반을 질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죽음의 질’은 나쁜 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2015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인 3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한 해 전체 사망자의 20%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고 있다.<br/><br/>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 말고는 존엄사를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81곳을 통틀어 호스피스 병상은 1321개에 불과하다. 전체 말기 암 환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명치료 중단이 생명경시로 흐르지 않도록 의료 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국가라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이기 때문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99.txt

제목: "좀 있으면 김장철, 집에나 가 김장겸!"… 5년 만에 돌아온 ‘MBC 프리덤’  
날짜: 20171023  
기자: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3164954001  
ID: 01100101.20171023164954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23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해직 피디들이 등장하는 MBC프리덤 뮤직비디오 리허설을 하고 있다. <br/>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봉춘!”<br/><br/>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 앰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곳곳에 서 있던 이들이 립싱크를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후드티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PD, 동물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나온 기자, 덤블링을 하며 현란하게 춤을 추는 아나운서까지, 전동휠을 탄 카메라맨이 바쁘게 움직이며 이들의 움직임을 담았다.<br/><br/>“좀 있으면 김장철! 집에나 가 김장겸!” <br/><br/>방송센터 로비 1층. 2절이 시작되자 선글라스를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서있던 최승호 PD, 박성제 전 기자, 박성호 전 기자 등 해직자들이 막춤 대열에 합류했다. 손가락을 허공에 찌르며 막춤을 추는 선배들의 모습에 후배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신동진 기자는 피구공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양윤경 기자는 화장실에서 칫솔을 들고 나왔다. 2012년 파업 이후 노조를 탈퇴하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 앵커와의 ‘피구대첩’, ‘양치대첩’ 사건을 패러디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다.<br/><br/>숨가쁘게 움직이던 카메라맨의 발길은 방송센터 지하 1층 나무계단에 멈췄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이곳에 모인 700명의 MBC 노조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로 ‘MBC 프리덤’의 마지막 소절을 완성했다.‘2017 MBC프리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풍경이다.<br/><br/>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총파업 50일째인 이날 ‘2017 MBC프리덤’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2012년 170일간의 파업 당시 그룹 UV의 노래 ‘이태원 프리덤’에 MBC의 상황을 비판하는 가사를 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뒤 5년 만에 다시 ‘2017년판 MBC 프리덤’을 제작했다. “집에나 가 김재철!”이라는 전편의 가사는 이번에 “집에나 가 김장겸!”으로 바뀌었다.<br/><br/>5년 전 연출을 맡았던 김민식 PD가 이번에도 연출을 맡았다. 김 PD는 촬영 전 “<span class='quot0'>6년 만에 연출을 하다 보니 감이 떨어졌다</span>”며 멋쩍게 웃었다. 그러나 단 두번만의 시도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립싱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립덥’ 방식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한번에 찍는 원테이크 기법은 그대로 유지했다.<br/><br/>주인공으로는 MBC의 이른바 ‘파업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모두 2012년 파업 이후 해직당하거나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사측으로부터 탄압받은 구성원들이다. 지난 파업 이후 MBC에서 해직된 6명의 언론인 가운데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제외한 다섯 사람 모두 뮤직비디오에 나온다.<br/><br/>김 PD 역시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비제작 부서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2012년 MBC 프리덤을 찍을 때만 해도 속편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사측의 부당행위로 고생한 구성원들을 위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어내고 싶었다</span>”고 했다. 김 PD는 이날 뮤직비디오 촬영을 “<span class='quot0'>탄압받은 언론인을 위한 한풀이 굿판</span>”에 비유하기도 했다.<br/><br/>앞서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들뜬 표정으로 사옥 앞에 나와 합을 맞췄다. “<span class='quot1'>제가 이쪽에서 오면 선배가 이쪽에서 나오면 어때요?</span>” 한 사람당 촬영 분량은 길어야 5초 남짓이지만 조합원들은 각자 최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리허설에 임했다. 즉석에서 지나가는 청소노동자에게 빗자루를 빌려 소품으로 활용하는 조합원도 보였다.<br/><br/>촬영이 진행된 MBC 상암 사옥은 170일간의 파업 상흔이 MBC를 휩쓸고 간 이후인 2014년에 문을 열었다. 김 PD는 “<span class='quot0'>여의도 사옥 시절을 공정한 MBC의 전성기로 마음에 품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신사옥은 ‘경영진들의 놀이터’라는 느낌이 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촬영이 상암 사옥을 구성원들의 진정한 터전으로 되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br/><br/>완성된 뮤직비디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현장에서 공개된다.<br/><br/><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0.txt

제목: [굿바이 인터뷰]지휘자 성시연 "말러 9번의 메시지는 결국 사랑"  
날짜: 20171023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3144528001  
ID: 01100101.20171023144528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10년쯤 뒤에요?” 성시연(41)은 그렇게 반문하며 하하 웃었다. 한참을 생각하곤 이렇게 말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겠죠. 이를테면 연습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단원들에게 ‘자, 준비됐나요?’ ‘식사는 하셨나요?’라고 물으면 단원들이 ‘네에~’하고 길게 합창으로 대답해요. 아마 그런 게 떠오르겠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짧지만 정다웠던 교감의 순간들!”지휘자 성시연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떠난다. 4년 임기의 마무리를 목전에 뒀다. 그는 2014년 1월 상임지휘자 겸 예술단장 임무를 시작해 오는 12월로 임기 종료한다. 공식적으로는 연말 송년음악회가 마지막 방점이다. 하지만 내심의 ‘굿바이 콘서트’는 이달 2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또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하는 말러의 교향곡 9번이다. 역시 그다운 선택이다.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는 성시연은 말러가 지상에서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경기필하모닉 단원들과 작별한다. 그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을 4년간 지켜봤던 팬들에게도 이별을 고한다. 서울 정동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지난 20일, 정동극장 앞마당에서 그를 만났다. 말러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자필 악보에 남겨놓은 ‘오, 아름다움이여, 사랑이여, 안녕히’라는 글귀가 저절로 떠오르는 오후였다.<br/><br/>우선 궁금한 것은 지난 4년간 이뤄진 경기필하모닉의 진보였다. 성시연은 “<span class='quot0'>이제는 합(合)이 맞아떨어지는 단계</span>”라고 자평했다. 오케스트라에게 ‘합’이 맞는다는 것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각양각색의 연주자들이 모여 있는 데다 음악에 대한 각자의 이해력과 연주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br/><br/>“처음 부임했을 때는 개인간의 기량 차이, 파트 간 불균형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제는 상당히 극복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과 감각도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지휘자도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휘자가 자기만의 ‘고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 뿐이죠. 단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해요. 긴장감도 필요하지만 편안함도 있어야 ‘합’에 도달하니까요. 지금 우리 단원들은 제 손짓 하나에도, 때로는 입모양 하나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죠.”<br/><br/>부임 첫해에는 “경기필하모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이듬해에는 해외 투어, 그 다음 해에는 음반 녹음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음반으로 내놨다. 그리고 창단 20주년을 맞은 올해에 경기필하모닉은 또 하나의 ‘꿈’을 이뤘다. 지난 9월 그들은 세계 최고의 연주회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 무대에 섰다.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 꿈을 계속 꿨죠. 제가 경기필하모닉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4년만에 이뤄냈어요. 무지크페스트 베를린의 초청으로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아시아 오케스트라가 무지크페스트에 초청받은 첫 사례였죠.”<br/><br/>음악은 저마다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재구성된다. 지휘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휘자마다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성시연은 “<span class='quot0'>내 마음 속에 말러 교향곡 9번이 자리잡은 것은 미국 보스톤 심포니의 부지휘자로 막 부임했을 때</span>”라고 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그때 성시연은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였던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9번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다.<br/><br/>“아버지처럼 따르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공부했던 독일 한스 아이슬러 음대의 롤프 로이터 교수님이죠.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저를 계속 레슨하셨어요. 그러던 어느날 ‘시연, 나는 너무도 살고 싶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임종을 하시던 순간에 저를 포함해 제자들이 몇명 모였는데, ‘롤프, 학생들이 왔어! 눈을 떠봐!’라고 사모님이 귓가에 대고 크게 얘기했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간신히 입만 움직여서 ‘아우프 비더젠’(auf Wiedersehen·안녕히!)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선생님이 돌아가신 직후, 말러의 9번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으로 먹먹했죠.”<br/><br/>‘세상과의 직별인사’로 해석되는 말러 9번에 대해 성시연은 “<span class='quot0'>이 교향곡의 수많은 음표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세지는 결국 사랑</span>”이라고 했다. 그렇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질 때 오히려 절절하게 실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러가 9번 교향곡 악보에 적어놓은 ‘분절된 문장’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성시연의 번역이다. “오, 아름다움이여, 사랑이여! 안녕히! 안녕히! 세상이여, 안녕히!” 성시연과 경기필하모닉은 27~28일 콘서트에서 말러의 교향곡 9번 외에 슈만의 첼로 협주곡(막시밀리안 호르눙 협연)을 함께 연주한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1.txt

제목: [MBC의 몰락 10년사]⑮ MBC, 드디어 봄은 오는가  
날짜: 20171022  
기자: 김재영 MBC PD·(〈PD수첩〉 등 연출, 현재 송출업무 담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2184909001  
ID: 01100101.20171022184909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하며 한목소리로 사장 퇴진을 외쳤던 적이 있었는가? <br/>언제 절반 이상의 보직간부들이 사퇴를 하며 사장 용퇴를 건의했는가? <br/><br/>MBC의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원배 이사가 10월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9명의 이사 가운데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들(구여권)이 추천한 이사가 6명이었는데,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해 4명만 남게 되었다. 현 김장겸 사장 체제를 만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일파가 소수파가 된 것이다. 산술적으로 불리하게 된 고영주 이사장은 언론에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의 보궐이사를 선임하면, 5명의 과반수 이사들은 각종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진 MBC 문제와 50일 넘게 진행된 파업을 풀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은 이제 시한부 운명이 되었다. MBC 구성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기대감에 들떠 있다. 제대로 된 회사, 오직 시청자만을 바라보는 공영방송을 재건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br/><br/><br/><br/>■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br/><br/>이 와중에도 방문진 구여권 추천 이사들과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는 철 지난 레퍼토리를 읊어대고 있다. 2명의 이사가 제풀에 사표를 낸 상황을 언론노조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두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다. <br/><br/>먼저 이사들 스스로 낸 사표를 두고 언론노조 ‘강압’ 때문이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서슬 퍼런 청와대, 방통위, 국정원도 아니고 일개 노동조합이 이사들을 겁박할 물리적 수단을 가질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MBC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무노동 무임금’, 월급을 두 달째 포기하고 파업을 하면서 이들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 굳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음모론적으로 해결을 도모했다면 이런 희생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시민사회와 학계, 여론이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합세했다. <br/><br/>게다가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음모론적 해석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 게 주지의 사실로 판명났다. 이들의 프레임은 더욱 초라해졌다. 최근 밝혀진 국정원 문건뿐이었던가.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가리키고 있었다.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지난 10년을 완벽하게 지배했다는 걸. <br/><br/>2010년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던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제 입으로 “<span class='quot0'>김재철 MBC 사장이 청와대에 쪼인트 까여가며 좌파를 척결했다</span>”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백했다.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까지 개입했다고 스스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 이 사건 직전에는 MB 측근이었던 김재철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엄기영 당시 사장을 내쫓아야 했는데, 방법은 치졸했다. 김우룡 이사장은 보도와 제작, 두 핵심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빼앗았고, 엄 사장은 결국 치욕 속에 사표를 냈다. 김 이사장의 요구는 엄연히 법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이었고 불법이었다. 이를 감독할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지만,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기했다. 엄기영 전 사장은 권력에 기댈 곳이 없었는데, 당시 이근행 노조위원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1'>이동관 홍보수석, 이재오 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버틸) 방법이 없다</span>”고 토로했다고 한다. 권력 핵심 그룹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들 속에서 김우룡 이사장에 의해 엄기영 사장은 사퇴했다. 적어도 권력이 개입한 사퇴라면 이 정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br/><br/> <br/><br/> ■ MBC 파업, 승리가 멀지 않았지만… <br/>MBC 파업은 끝까지 가고 있다. MBC에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그나마 드라마가 전부였는데, 드라마 PD들의 결의로 드라마들도 릴레이로 줄줄이 결방하게 되었다. 한국 TV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일반 기업의 파업도 사회문제가 되면 당국이 조정에 나서는 게 순리다. 하물며 국민의 재산이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엄연한 공영방송의 파업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등등이 나서는 게 당연하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위원장’, ‘방송장악위원장’이라며 국회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br/><br/>2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하며 한목소리로 사장 퇴진을 외쳤던 적이 있었는가? 언제 절반 이상의 보직간부들이 사퇴를 하며 사장 용퇴를 건의했는가? 역사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공영방송사 파업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회가 쓴다는 도구의 이름은 ‘검사감독권’이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구성원이 보기에는 그 약한 권한을 쓰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현 방송통신위원회다. <br/><br/>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MBC를 장악한다며 국가정보원이 불법 비밀문건을 만들어내고, 권력 핵심들은 연일 점령군처럼 MBC DNA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도대체 MBC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생떼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MBC에서 적색 테러라도 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시절, 국정원이 MBC 거의 모든 구성원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공격하던 2010년, 아이러니하게도 MBC는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채널이었다. 이명박·박근혜를 추종하던 이들은 MBC가 지향하는 가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MBC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br/><br/>이 우스꽝스러운 역사 앞에 우리는 웃을 수가 없다. 김장겸 사장이 부장에서 사장이 되는 그 10년 사이 많은 이들이 천직에서 쫓겨났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가며 알 수 없는 세월을 보냈다. 누군가는 우울증 약으로 버텼고, 또 누군가는 암을 얻어 투병 중이다. MBC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언론사가 되었다. 갈등과 상처의 골은 깊고, 아프다. 해방은 멀지 않았지만 재건의 길은 아직 멀었다.<br/><br/><김재영 MBC PD·(〈PD수첩〉 등 연출, 현재 송출업무 담당)>

언론사: 경향신문-1-102.txt

제목: ‘소록도 할매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잰걸음  
날짜: 20171022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22131542001  
ID: 01100101.20171022131542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봤던 ‘할매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br/><br/>전남도와 고흥군,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앞장서고 있다. <br/><br/>전남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올해 안에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두분을 수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지난 6월부터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br/><br/>전남도에 따르면 추천위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계·학계·종교계·법조계·기업·기업·해외교포·봉사단체 등 대표 50여 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br/><br/>태스크포스는 후보 추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단체, 성당 등에서 상영하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했다.<br/><br/>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6월 두 간호사 출신지역인 오스트리아 티롤주를 방문해 노벨평화상 추천에 공동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얀 올레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 미하엘 슈바르징거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를 초청해 국제 사회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박병종 고흥군수와 소록도성당 김연준 신부도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br/><br/>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관도 운영된다.<br/><br/>본명이 마리안느 스퇴거(83)와 마가렛 피사렉(82)인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 동기로, 1962년과 1966년 소록도 병원 자원봉사자로 들어와 각각 43년과 39년간 한센인을 살폈다. 2005년 11월 건강이 나빠지자 편지 한장만 남긴채 조용히 출국해 현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머물고 있다. 마리안느는 암, 마가렛은 치매로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소록도 삶을 정리하고 떠나면서 소록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br/><br/><br/><br/>사랑하는 친구.은인들에게<br/><br/><br/><br/>이 편지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한편은 사랑의 편지이지만 한편은 헤어지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헤어지는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편지로 대신 합니다.<br/><br/><br/><br/>마가렛은 1959년 12월에 한국에 도착했고 마리안나는 1962년 2월에 와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습니다.<br/><br/><br/><br/>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간호로 제일 오랫동안 일하고 살았습니다.(천막을 쳤습니다.)<br/><br/><br/><br/>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br/><br/><br/><br/>현재 우리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소록도 국립병원 공무원들은(직원) 58-60세 나이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 할 때는 소록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이 될지 몰라 이곳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나이가 은퇴를 지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br/><br/><br/><br/>지금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되어서 있어서 우리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환자들에게 잘 도와주는 간호사들이 계셔서 마음 놓고 갑니다. 옛날에는 약과 치료품들이 많이 필요했을 때 고향에서 도움을 받아 도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소록도는 여러면에서 발전되어 환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우리들은 아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br/><br/><br/><br/>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가끔 저희가 충고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br/><br/><br/><br/>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에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br/><br/><br/><br/>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큽니다. 그 큰마음에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없어 하느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주실 겁니다.<br/><br/>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br/><br/><br/><br/>감사하는 마음으로<br/><br/>마리안느 올림<br/><br/>마가렛 올림<br/><br/>소록도 2005년 11월 22일<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3.txt

제목: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미라는 임신중' 출산중 숨진 산모 미라  
날짜: 20171019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http://leekihwan.tistory.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9101647001  
ID: 01100101.20171019101647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암덩어리인가.’ 2002년 9월 경기 파주 파평 윤씨 문중 묘소에서 발굴된 여성 미라의 상태를 관찰하던 연구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라의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암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그렇다면 수백년전 암으로 사망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밀검사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br/><br/>미라의 뱃속에서 만삭크기의 남자태아가 보였습니다. 미라의 외음부를 살짝 열어보니 태아의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산도(질)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자궁벽의 오른쪽 부위에 3×4㎝의 별 모양의 파열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금방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던 산모가 그만 출산 직전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 쇼크로 태아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운의 여인은 1566년 윤10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산중 사망한 이 ‘모자 미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사례입니다. 부패가스가 태아를 몸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임신 중 태아가 온전히 남아있기는 불가능하답니다.<br/><br/><br/><br/> <br/><br/> <br/><br/>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듣기 <br/><br/>2004년 대전에서 발굴된 ‘학봉장군’ 미라의 사인은 피를 토하는 중증 폐질환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학봉장군은 기관지 확장증 같은 폐질환 치료를 위해 지혈제로 꽃가루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경기 양주의 댕기머리 소년 미라(5~6살)의 사인은 ‘속립성 결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결핵균이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 몸에 퍼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경북 문경에서 발굴된 진성이낭(眞城李娘) 미라의 사인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17세기 여인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 안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성인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br/><br/>왜 유독 조선시대 무덤에서 미라가 출토될까요. 비밀은 무덤조성방식(회곽묘)에 있습니다. 석회와 모래 황토를 3:1:1로 섞어 싸바르면 몇 년 후 벽돌처럼 단단해진답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身體髮膚 受之父母)을 터럭하나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不敢毁傷 孝之始也)’이라는 가르침을 따랐던 조상들의 노심초사가 생생합니다. 이 풍습이 ‘의도하지 않은 미라’를 낳았습니다.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156회는 ‘미라는 임신중…. 출산중 숨진 산모 미라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br/><br/><이기환 논설위원 http://leekihwan.tistory.com/>

언론사: 경향신문-1-104.txt

제목: <헬스 게시판> 365mc 1억원 쾌척, 암예방 시민강좌, 염증성 장질환 건강강좌  
날짜: 2017101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9091255001  
ID: 01100101.201710190912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br/><br/>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br/><br/>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김진곤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br/><br/>‘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기부금은 여성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br/><br/>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br/><br/>■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암예방 시민강좌<br/><br/>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 암센터인 인천지역암센터는 21일부터 ‘2017 암예방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암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들에게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암 치료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강좌를 총 4회에 걸쳐 마련했다.<br/><br/>오는 21일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위암, 폐암, 대장암 등 암종별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해당 분야 의료진들의 강의가 마련돼 있다. 이어 3시부터는 암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스트레스관리, 건강밥상(영양관리) 등에 대한 강의도 실시될 예정이다. 각 회차 당 4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강의는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1층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강좌 일정은 인천지역암센터 홈페이지(www.ircc.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032)460-8477<br/><br/>■대전성모병원, 염증성 장질환 건강강좌 <br/><br/>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염증성 장질환’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소화기내과 김석환 교수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염증성 장질환의 신약’, 강상범 교수가 ‘여러 가지 약제의 효능과 부작용’ ‘염증성 장질환 환자로 잘 살아가기’, 원무팀 정낙칠 파트장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영양팀 이유미 파트장이 ‘환우를 위한 건강 밥상’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042)220-9990<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5.txt

제목: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출산중 숨진 산모 미라, '5분만 버텼어도…'  
날짜: 20171018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http://leekihwan.khan.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8151449001  
ID: 01100101.2017101815144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저기 무연고 무덤이 하나 있는데, 도굴된 것 같아요. 어느 분 묘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br/><br/>2002년 9월 6일 경기 파주시 교하리 야산(장명산)에서 파평 윤씨 문중 묘소의 이장작업이 한창이었다.<br/><br/>흩어져있던 묘역 6기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었다. 작업에는 김우림씨(당시 고려대박물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입회하고 있었다. 파평 윤씨의 묘역이 경기도기념물(182호)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전문가 입회는 필수였다. 그때 파평 윤씨 문중 대표가 “<span class='quot0'>이왕 정리하는 김에 무연고 묘를 조사해봤으면 좋겠다</span>”는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낸 것이다. 마침 문중사람과 포클레인 장비, 장의업체까지 있었으니 해볼만 한 작업이었다. 무덤을 노출시켜보니 회곽묘였다. 금방 난관에 봉착했다.<br/><br/>돌처럼 굳어진 회곽묘가 너무도 단단했고, 회곽의 이음새도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포클레인에 달린 브레이커(breaker)로 분쇄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의 힘겨운 작업 끝에 외관과 내관을 들어올리자 내관의 천판 위에서 글자가 어렴풋 보이기 시작했다.<br/><br/> <br/><br/> <br/><br/>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듣기 <br/><br/>■미라는 임신중!<br/><br/> 출산중 태아와 함께 사망한 파평 윤씨 여인의 미라가 발굴된 <br/>경기 파주시 교하동 야당동 야산. 이곳은 윤원형과 정난정 등 파평 윤씨 가문의 선산이다.‘坡平尹氏之柩(파평윤씨지구)’, 즉 파평윤씨의 무덤이라고 적힌 명정(銘旌ㆍ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이었다.<br/><br/>만약 남성이었다면 ‘坡平尹公○○○’라는 분명한 이름과 관직명이 적혀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었기에 이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파평 윤씨 가문의 딸이라는 딱지만 붙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br/><br/>시신을 꽁꽁 감싼, 전혀 썩지 않은 완벽한 형태와 화려한 색상의 염습의(殮襲衣ㆍ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입히고 묶는 옷)가 있었다.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다. 현장 입회한 전문가 김우림씨(고려대박물관 연구위원)는 문중측에 “<span class='quot1'>미라를 수습에서 연구까지 고려대팀이 연구학 싶다</span>”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문중측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승락했다.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결국 ‘미라’는 문중의 허락을 얻어 고려대 박물관을 거쳐 법의학 전문가인 김한겸 교수(고려대 의대)에게 인계됐다. <br/><br/>시신을 감싸고 꽁꽁 묶은 대렴(大殮)과 소렴(小殮)을 수습하고 마지막 남은 습의(襲衣·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힌 옷)와 속옷을 모두 벗겨냈다. 그런데 시신의 하의 가운데 가장 안에 착용한 홑바지 옷고름에서 글씨가 드러났다. ‘병인윤시월’이었다. 윤 10월이 낀 병인년이라면 추측이 가능했다. <br/><br/>역산해서 추정해보니 ‘병인윤시월’은 1566년 윤 10월, 즉 양력 12월일 가능성이 높았다. <br/><br/>미라의 영양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보였다. <br/><br/>“살짝 피부에 손을 대 보니 그 탄력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팔을 잡자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시신에 아직 수분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김한겸 교수)<br/><br/>그런데 시신을 살피던 연구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신의 옆구리(복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br/><br/>혹시 암덩어리가 아닐까. 이 또한 엄청난 발견이었다. 수 백 년 전 암으로 사망한 여인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암 덩어리. 만약 그렇다면 ‘암 연구’에 획기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미라의 X레이 사진을 찍어보았다. 판독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뼈가 보였다. 그렇다면 그 뼈는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뼈일까. <br/><br/>아니었다. <br/><br/>부풀어 오른 복강과 골반강 안에서 태아의 골격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다. <br/><br/>더구나 태아는 정상 분만 체위인 두위의 골격이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 이 여성은 분만 중에 난산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br/><br/><br/><br/>■유례없는 모자 미라의 출현��<br/><br/>한 사람의 미라가 아니라 ‘모자(母子) 미라’라는 이야기였다. 놀라운 일이었다.<br/><br/>임신 중 사망한 모자 미라가 남아있기는 감히 기적이라 말할 수 있다. 임신 중 사망하는 경우 부패가스가 장기에 차서 태아를 밀어내기 마련이다. 때문에 임신중 사망한 여인의 배 안에서 태아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태아가 그대로 뱃속에 남아있다니…. <br/><br/>흥분, 놀라움 속에 진행 중이던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서둘러 확인했다. 그랬더니 X레이 촬영에서 보였던 태아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처럼 속속들이 찍혔다. <br/><br/>우선 두개골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두개골 안에는 공기와 액체, 뇌의 잔여물이 선명했다. <br/><br/>어머니 미라의 몸체와 사지, 피하지방층, 그리고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 흉부 및 복부의 장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였다. 특히 관심의 초점인 태아는 복강 내에서 확연하게 보였다. 여성인지라 피하지방층은 풍부했다. 이번에는 태아 미라를 관찰했다. 어머니의 복강에는 많은 양의 공기가 있어서 부풀어 오른 자궁의 외연이 쉽게 보였다. <br/><br/>자궁 안에는 만삭 크기의 태아가 정상 분만 체위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태아의 두개골 안에서도 어머니처럼 공기와 액체, 뇌의 잔여물이 보였다. 태아의 키는 36㎝ 정도였다. 연구팀은 미라의 몸을 살짝 벌려 보았다. <br/><br/>“아! 태아의 태지(胎脂·양수의 침범을 막으려고 태아의 몸 표면을 싸고 있는 물질)와 함께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김한겸 교수)<br/><br/>이 모습을 본 산부인과 전문의가 명쾌한 설명을 해줬다.<br/><br/>“태아의 머리가 모체의 질(膣)의 전장을 통과하여 외음부 가까이까지 도달했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산모가 5분만 참았더라도 아기를 낳았을텐데요.”<br/><br/>이 산모는 아기를 낳기 직전에 세상을 떴으며, 아기도 엄마와 함께 세상의 빛을 보기 일보 직전에 죽은 것이었다. <br/><br/>출산 일보 직전에 숨진 모녀 미라의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br/><br/><br/><br/>■5분만 버텼어도…<br/><br/>더 분석한 결과 산모는 20대 초반의 건강한 여인이었다. 키는 153.5㎝ 정도였다. <br/><br/>의료진은 자궁을 열어 보았다. 자궁벽은 2~3㎜ 정도로 얇아져 있었다. 태아는 좌측으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태아의 음낭과 음경이 뚜렷한 남자아이였다. 머리는 산도(질)에 진입한 상태였기에 보이지 않았다.<br/><br/>그런데 자궁벽을 유심히 살피던 중 또다시 긴 탄식이 터져 나왔다. <br/><br/>자궁의 우측 부위에 3×4㎝ 크기로 별 모양의 파열 흔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때문에 오른쪽 자궁벽과 오른쪽 복벽이 흑갈색으로 변색된 것이다. 확실했다. 비운의 여인은 출산을 단 5분 남기고 그만 자궁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실혈사)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br/><br/>이 20대 여성은 분만 도중에 발생한 자궁파열로 인한 심한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br/><br/><br/><br/>■왜 미라에 애기부들 꽃가루가 가득할까 <br/><br/>조선시대 미라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학봉장군 미라는 어떨까.<br/><br/>2004년 5월 대전 중구 목달동 송절마을의 여산 송씨 문중의 묘역에서 가족 미라 3기가 한꺼번에 확인됐다. 부부와 증손자뻘 되는 후손의 미라다. <br/><br/>이 가운데 남편의 미라에 ‘학봉장군’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다. ‘학봉’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인근의 마을 이름을 딴 것이다. ‘장군’은 부부 미라와 함께 발견된 증손자뻘 후손의 미라가 조선초기 종 3품을 지낸 무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학봉 장군’ 미라의 명칭을 붙였다. <br/><br/>부부 미라의 조성시기가 15세기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로 알려져 있다. 남편인 학봉 장군은 167.7cm의 키에 턱수염과 콧수염이 발달한 외모였다. 학봉장군의 족보와 치아를 분석해보니 학봉장군은 1420년대에 출생해 42세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부인은 50대 초반인 1468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br/><br/>그런데 김한겸 교수팀이 학봉장군 미라를 정밀 분석해보니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br/><br/>미라의 몸 안에서 애기부들 꽃가루가 상당수 발견됐다. 핫도그처럼 생긴 수생식물인 애기부들은 핫도그처럼 행긴 6~7월 사이 연못이나 강가의 얕은 물속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군의 직장과 대장에서 간흡충란(디스토마)이 다수 발견됐다. 따라서 처음에는 학봉장군이 강변이나 연못에서 천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실현 불가능했다. 우선 학봉장군의 몸 안에 남아있던 애기부들의 양이 엄청났다. ‘목구멍에서 항문까지’ 애기부들 꽃가루가 검출됐다. 천렵하다가 익사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 몸 속에 들어간 것이다. 무엇보다 여름에 익사한 시신은 몇 시간만 방치해도 심한 부패가 진행된다. <br/><br/><br/><br/>■각혈로 숨진 학봉장군 <br/><br/>이런 마당에 무슨 미라가 만들어진단 말인가. 당연히 익사는 직접 사인은 아니었다. <br/><br/>그렇다면 꽃가루는 대체 무엇인가. 꽃가루 전문가인 김기중 교수(고려대 생명과학과)에 문의해본 연구팀은 무릎을 쳤다. <동의보감>을 보면 애기부들 꽃가루가 포황(蒲黃)이라는 지혈제로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학봉장군의 폐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다. 이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br/><br/>“건강한 사람의 폐는 죽고나면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폐질환이 있는 폐는 흉막하고 유착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망한 학봉 장군의 폐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김한겸 교수)<br/><br/>덕분에 방사선, 내시경, 흉강경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폐를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였다. <br/><br/>학봉장군에게는 안된 이야기지만 그 폐질환 때문에 600년 뒤의 후손들은 다양한 검사를 펼칠 수 있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br/><br/>최첨단 다양한 검사를 하면서 퍼즐을 맞춰갔다. 그랬다. 학봉 장군은 생전에 피를 토하는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중증 폐질환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br/><br/>“학봉장군은 피를 토하는 폐질환으로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지혈치료를 위해 애기부들 꽃가루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r/><br/><br/><br/>■댕기머리 소년의 직접사인은 결핵?<br/><br/>댕기머리 소년의 미라(단웅이)도 있다.<br/><br/>2001년 11월 5일 경기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해평 윤씨 선산의 회곽묘에서도 미라가 확인됐다. <br/><br/>주인공은 단정한 머리 가르마와 댕기머리를 한 소년이었다. 마치 막 잠이 든 것 같았다. <br/><br/>오죽하면 훗날 보관중인 미라를 친견한 이바노비치 몰로딘 러시아 시베리아 과학원 부원장이 감탄사를 연발했을까. <br/><br/>“아! 이건 미라가 아닙니다. 금방 세상을 떠난 시체입니다.”<br/><br/>과학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댕기머리 소년의 머리둘레는 약 53㎝, 신장은 100㎝ 정도였다. 댕기머리 소년의 손목뼈와 치아의 골화상태로 나이를 추정하니 4.5~6.6세 사이로 판단됐다. 폐의 병리조직검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확인됐다. 각혈의 흔적이 보이는 적혈구가 기도 내의 기관지에서 혈병을 형성하고 있었다. <br/><br/>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왼쪽 가슴이 오른쪽에 비해 내려앉아 있고, 내부장기를 덮는 복막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작은 결절이 널리 퍼져 있었다. 폐렴이나 폐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각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소년의 직접 사인이 최종적으로 추정됐다. 소년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항생제가 없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결핵균이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 몸에 퍼져 발병한 뒤 곧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치명적인 ‘속립성 결핵’이었을 것이다. <br/><br/>해평 윤씨측은 소년 미라가 1680~1683년 사이로 떠난 ‘윤호’라는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소년미라에게 훗날 ‘단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라를 보관하며 분석 연구한 단국대의 ‘단’과 곰 ‘웅(熊)’자를 합성해서 붙인 이름이다.<br/><br/><br/><br/>■진성이낭, 그녀는 왜 씨(氏)가 아닌 랑(娘)일까<br/><br/>또 한 분의 여인 ‘진성이낭’은 과연 누구인가. <br/><br/>2010년 4월18일 경북 문경시 흥덕동의 국군체육부대 영외아파트 건립 부지에서 노출된 회곽묘에서도 조선시대 여성 미라가 확인됐다. 미라의 사망연령은 35~50세 사이로 추정됐다. 신장은 150㎝ 가량 됐다. 당대 조선여성의 추정 평균키가 대략 149㎝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키의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br/><br/>관 위를 덮고 있던 명정에는 ‘진성이낭지구(眞城李娘之柩)’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성 이씨’ 가문의 여성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피장자가 여인임을 표시하는 ‘낭(娘)’ 자가 이채로웠다. 보통의 경우엔 ‘씨(氏)’ 자를 쓴다. 지금까지 확인된 명정 자료에서 ‘낭(娘)’자는 유일하다. 새로운 여성지칭어가 등장한 것이다.<br/><br/>일반적으로 ‘낭(娘)’자는 ‘○○낭자!’ 하는 것처럼 미혼의 처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알려졌다.<br/><br/><국조보감>은 “낭자의 쌍상투(머리를 둘로 갈라 틀어 올린 상투)나 새앙머리(두 갈래로 땋고 위아래로 가지런히 놓고 덩어리지게 잡아맨 후 댕기를 드린 머리)는 결혼 전에 쓰는 제도”라 했다. 그렇다면 미라는 미혼녀인가. 아니었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의 부검결과는 ‘30~50세의 중년여성’이었다. <br/><br/>연구자들이 다시 들춰보니 ‘낭’자는 미혼녀 뿐 아니라 부녀자를 통칭하거나 후실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br/><br/>즉 <가례집람>은 “‘신주’를 쓸 때…부인의 경우엔 기낭(幾娘)이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낭’은 부인에게 쓰는 표현이다.<br/><br/>또 조선중후기의 문인인 송준길(1606~1672)의 문집인 <동춘당집>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br/><br/>“…광빈의 어미 무덤 건너에 이낭(李娘)의 무덤이 있다. 이낭은 바로 나의 부실(副室·첩)인데…21살에 병으로 죽었으니 내가 가엾게 여겼다.”<br/><br/>여기서 인용된 ‘이낭’은 송준길의 첩실 명칭이다. 송시열(1607~1689)의 시문집인 <송자대전>에 등장하는 ‘오순지와의 문답’ 내용이 자못 흥미롭다.<br/><br/>“첩의 명정이나 신주에 씨(氏) 자를 넣는 것은 외람스럽고, 낭(娘)자는 마치 창기(娼妓)를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혹 조이(召史·양민의 아내)라고 쓰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오순지)<br/><br/>“첩에게 씨(氏)자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낭(娘) 자도 창기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주위제(주자의 아버지)도 주자의 모부인(母夫人)을 낭(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이’란 호칭은 법도에 맞지 않은 말 같습니다.”(송시열)<br/><br/>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씨(氏) 뿐 아니라 낭(娘)의 호칭도 통용되었다는 이야기다. <br/><br/>서울대 법의학연구소의 부검결과와 옛 문헌을 토대로 더듬어보면 미라의 신분을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겠다. 17세기를 살았던 진성 이씨 가문의 기혼녀이며, 혹은 어느 집안의 첩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br/><br/><br/><br/>■성인병으로 사망한 진성 이랑<br/><br/>그렇다면 이 여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일까. 이은주(서울아산병원 내과)·신동훈(서울대병원 해부학과) 교수 등이 공동연구팀을 꾸려 사인규명에 나섰다.<br/><br/>우선 속바지에 남아있던 유기물을 수습해서 분석했더니 편충 및 간흡충에 감염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편충과 간흡충은 붕어·모래무지 등 담수어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이다. 이 여성은 민물회를 즐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라가 발견된 경북 문경은 낙동강 상류지역이다. <br/><br/>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미라의 혈관 내벽에서 동맥경화증의 흔적을 확인했다. 그러나 CT 영상만으로는 사인으로 진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유전자분석기술을 동원했다.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참조용 표준유전체(게놈)’와 비교해서 해당질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br/><br/>그 결과 이 미라의 사인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판정됐다. 죽상동맥경화증은 나쁜(LDL) 콜레스테롤이 동맥 안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 탓에 발병한다. 자칫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칼로리식단과 고지혈증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성인병으로 치부된다. 그런 병이 7세기 조선의 여인의 사망원인이 된 것이다. <br/><br/><br/><br/>■나주 귀부인도 출산중 사망?<br/><br/>이밖에도 2007년 11월 강원도 강릉 최경선(1561~1622) 무덤에서 확인된 미라(일명 최경선 미라)는 왼쪽 아래턱이 골절된 상태로 발굴됐다.<br/><br/>2009년 전남 나주에서 확인된 여성 미라(16세기 후반)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라의 외음부 밖으로 태반 같은 물질이 나와 있었다. 출산중이나 출산후 불행히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43살로 추정되는 미라에게는 ‘나주 귀부인’(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발굴 1년 7개월 만에 다시 남편묘에 합장됐다. 이외에도 후손이 없이 도로공사나 택지정리 중 우연히 발굴된 ‘봉미라’(경기 안산), ‘흑미라’(경기 고양) 등도 있다. 두 미라 모두 임진왜란 즈음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봉미라는 버선에서 ‘봉’자가 쓰여있었다. 흑미라의 경우 미라의 색이 유난히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br/><br/><br/><br/>■미라의 산실 회곽묘의 비밀<br/><br/>유독 조선시대 미라만이 확인되는 이유는 뭘까. 해답은 무덤조성방식에 숨어있다. 고려시대의 장례법은 화장과 49재로 대표되는 불교식 상장례였다. <br/><br/>그러나 고려말 주자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가 대거 기용되면서 관혼상제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신진사대부는 불교식 화장을 ‘오랑캐 무부(無父·어버이도 모르는 자식)의 장례’라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주자가례>의 상장례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1388년(공양왕 1년) 사헌부가 올린 상소문을 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br/><br/>사헌부는 우선 ‘장례의 뜻이 뭐냐’고 묻고는 불교의 화장을 무자비하게 폄훼한다.<br/><br/>“장(葬)이 무엇입니까. 장(藏)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골을 ‘감추어’(藏)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화장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불길 속에서 장사하고 모발을 태우고 피부를 짓무르게 하여 그 해골만 남깁니다. 심지어 뼈를 태워 재를 날려서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야 서방정토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br/><br/>이어지는 사헌부의 상소문에는 유교식 상장례의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br/><br/>“(불교식 화장은) 인(仁)에 어긋납니다. 사람의 정신은 서로 통합니다. 생과 사가 원래 동일한 기운입니다. 사람과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부모가 지하에서 편안하면 자손도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br/><br/>그런 마당에 사람의 몸을 불태워 가루로 날려버리면 어찌 되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시신을 훼손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 유교식 매장법의 기본이었다. <br/><br/>“<주자가례>에서는 관과 곽의 규격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썩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시신을 싸매는 옷과 천을 수십겹 해도 얇을까 두려워 합니다. 또 곡식을 관 속에 두면 벌레나 개미가 침범할까 두려워합니다. 매장의 예법은 이렇게 엄정한 것입니다.”(<고려사> ‘형법·금령’)<br/><br/>이렇게 시신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으려고 고안한 매장시설이 관과 곽. 석실, 봉분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었다. 또하나의 장치를 더 만들었다. 관 내부에 송진과 황랍, 들깨기름, 어린 조개가루를 섞어만든 역청(瀝淸)까지 발랐다. 역청은 방부와 방수, 방충효과를 도울 뿐 아니라 코팅의 효과까지 냈다. <br/><br/>최후의 보호장치는 바로 회격(회곽묘)이었다. 회곽묘는 보통 석회와 가는 모래(細沙), 황토를 3:1:1로 섞어 회다짐을 하여 무덤 구덩이와 곽의 6면에 싸바르는 무덤조성양식이다. 회곽묘 조성을 권장한 <주자가례(朱子家禮)>는 회곽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한다.<br/><br/>“회(灰)는 나무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방지한다. 석회는 모래를 얻으면 단단해지고, 흙을 얻으면 들러붙어서 여러 해가 지나면 굳어져 전석(塼石)이 된다. 이에 따라 개미와 도적이 모두 가까이 오지 못한다.”<br/><br/><주자가례>의 표현은 적확하다. 회곽으로 싸바른 묘는 철통같다. 파평 윤씨의 무덤에서도 입증됐듯이 회곽묘는 포클레인의 브레이커로도 깨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다.<br/><br/>그러니까 조선시대 무덤은 관곽과 석실, 봉분시설 만으로도 부족해 회곽과 역청 등 4중 5중의 장치를 더해 그야말로 철벽이었던 것이다.<br/><br/><br/><br/>■회곽묘 안에서 무슨 일이?<br/><br/>이집트 미라와 같은 인공미라의 경우 시신부패를 막기위해 내부 장기를 모두 빼낸다. <br/><br/>그러나 유교식 장례에서 부패를 막거나 사체를 빨리 없애는 행위는 반자연적인 행위로 간주됐다.<br/><br/>조선시대 미라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뇌와 척수는 물론 소화기관 등 내부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다. <br/><br/>따라서 당대의 식습관이나 앓았던 병명, 그리고 직접 사인 등 장기와 그 장기 안에 남아있는 여러 증거물들로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주로 선산에 묻히고 미라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비석과 관련 유물들이 동반 발굴된다. 이것은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br/><br/>회곽묘 안의 시신은 어째서 썩지 않을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밀폐된 회곽묘 안이어서 산소가 철저히 차단됐기 때문일까. <br/><br/>그러나 한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었다.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은 어찌된 것인가. 이런 세균은 밀폐된 관 속에서도 활동한다. 따라서 이 경우라도 부패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회곽묘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무균상태로 보관된다는 사실이 김한겸 교수팀의 연구결과 밝혀졌다.<br/><br/>그렇다면 공기없이도 살 수 있다는 혐기성 세균은 어떻게 살균되었다는 이야기인가. <br/><br/><br/><br/>■의도하지 않은 미라의 출현 수수께끼<br/><br/>2011년 신동훈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팀이 이 미스터리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실제 회곽묘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관에 실험쥐를 넣고 10번에 걸쳐 온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관 주변에 설치한 삼물(三物·석회+모래+황토)의 온도가 최고 200도까지 올랐다. 관 내부에도 최고 149도까지 열이 전달됐다. 삼물의 경우 100도 이상 온도가 유지된 시간이 최고 140분까지였고, 관 내부는 최고 210분까지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관 내부에 안락사시킨 흰 쥐를 넣어두었는데, 그 사체가 10주 이상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게다가 쥐의 간과 뇌조직도 그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 토광묘에 넣어둔 쥐의 사체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br/><br/>이 무슨 조화일까. 연구팀은 횟가루가 물과 산성토양에 섞여 고열을 내는 화학반응에 착안했다. 이 화학반응이 일종의 열소독 과정을 일으켰고, 그 덕분에 회곽묘 내부가 무균상태로 유지됐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말하자면 회곽묘 내의 시신은 열소독을 거친 무균의 상태로 그대로 미라가 됐다는 것이다.<br/><br/>새삼 <효경>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효도의 시작으로 줄기차게 운위됐던 바로 그 문구, 즉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불감훼상 효지시야(不敢毁傷 孝之始也)’란 가르침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터럭하나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아닌가.<br/><br/>그 가르침에 따라 죽은 자의 시신까지도 온전히 보전하려고 회곽묘를 조성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노심초사가 ‘의도하지 않은 미라’를 낳았던 것이다. <br/><br/><br/><참고자료><br/><br/>김한겸 외, ‘파평 윤씨 모자 미라의 고병리학 분석’, <대한병리학회지>, 대한병리학회, 2004<br/><br/>신동훈, ‘조선시대 회곽묘에서 발견되는 미라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br/><br/>김명주, ‘조선시대 회곽묘 출토 미라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동양학> 제40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6<br/><br/>신명호, ‘조선시대 회격묘와 미라’, <동북아 문화연구> 제1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br/><br/>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진성이낭묘 출토유물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br/><br/>조유전·이기환, <한국사기행>, 책문, 2010<br/><br/><경향신문 논설위원 http://leekihwan.khan.kr/>

언론사: 경향신문-1-106.txt

제목: 대한암협회, 20~21일 '서울로X핑크로X미래로' 유방암 캠페인  
날짜: 20171018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8090716001  
ID: 01100101.2017101809071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암협회는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오는 20~21일 서울역 인근 ‘서울로 7017’에서 ‘서울로X핑크로X미래로’를 개최한다.<br/><br/>대한암협회 주최, 한국유방암학회·서울시·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엘카코리아)·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데비코어메디칼·넥센타이어·롯데월드타워 등이 후원한다.<br/><br/>‘이제는 유방암을 끝낼 때입니다’ 슬로건 아래, 양일간에 걸쳐 유방암 퀴즈와 다양한 캠페인과 질병 정보, 그리고 행동실천 다짐 등을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특히 저녁부터 서울로7017의 조명이 핑크빛으로 밝혀지며 20일 첫날 저녁에는 참여 시민들과 함께 서울로7017의 목련마당에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br/><br/>한국에서 매년 약 2만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유방암의 경우 조기 진단 시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다. 암협회에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노출된 이러한 유방암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질병 위험요인들은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캠페인 활동을 매년 펼쳐왔다.<br/><br/>협회 노동영 회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면서, 더 나아가 치료 등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방암은 고지방·고칼로리 등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모유수유 감소, 그리고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총 기간의 증가 등이 발병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암세포가 국소 부위에 집중되고 조기(0기-2기)에 발견된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7.txt

제목: 다양한 암세포 동시 발견법 개발…표적치료제 개발에 도움  
날짜: 20171017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7215330001  
ID: 01100101.2017101721533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KIST 김광명 박사팀<br/><br/><br/><br/>암은 유전적인 다양성이 높아 하나의 암에서도 여러 변종이 존재한다. 성공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이질성을 극복하고 암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항암물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br/><br/>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테라그노시스연구단 김광명 박사(사진)팀이 여러 암세포를 그 특성에 관계없이 하나로 인지해 찾아낼 수 있는 표적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러 암을 동시에 표적할 수 있어 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암 표적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암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한 종양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암세포들이 함께 존재한다. 같은 암이라고 해도 환자 개인별로 암세포가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br/><br/>이런 암세포의 이질성은 항암 치료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br/><br/>연구팀은 이질성을 갖는 암세포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고분자 나노입자를 만들었다. 이 나노입자를 암 조직에 전달하면 나노입자에서 당이 방출된다. 당이 암세포에 흡수되면 암세포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인공수용체가 만들어진다. 이 인공수용체는 여러 암을 하나의 암으로 보이게 만들어 다양한 약물전달체가 치료하고자 하는 암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도록 만든다. <br/><br/>연구팀은 이 비천연당이 뇌암과 세 종의 유방암, 폐암 등에서 암세포 표면에 동일한 인공수용체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 인공 표적 기술은 세포독성이나 생체 내 독성이 없어 생체적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명 박사는 “<span class='quot0'>이질성을 갖는 암세포를 표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이용한 최적화된 약물전달이 가능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암 치료제 개발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라고 밝혔다. <br/><br/>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 분야의 국제학술지 ‘바이오매테리얼스(Biomaterials)’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08.txt

제목: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출산 중 사망한 모자 미라  
날짜: 20171017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7213244001  
ID: 01100101.201710172132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이상한데….” 2002년 9월 경기 파주시 파평 윤씨 문중 묘소에서 발굴된 여성 미라(사진)의 상태를 육안 관찰하던 고려대 의대 김한겸 교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라의 복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혹 암덩어리 아닐까.’ 그렇다면 수백년 전 암으로 사망한 여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검사해보니 미라의 배 안에서 만삭 크기의 남자 태아가 보였다. 미라의 외음부를 살짝 열어보니 태아의 머리카락이 보였다. 태아의 머리가 산도(질)에 진입한 상태였다. 자궁벽에 3×4㎝의 별 모양 파열흔적이 선명했다. 연구팀이 장탄식했다. “아뿔싸! 산모가 5분만 버텼어도….” 미라의 옷고름 글씨(병인윤시월)를 역산해보면 여인은 1566년 윤10월에 사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만 버텼어도 사내를 낳았다고 축복받을 여인이었는데 그만 출산직전에 자궁파열에 의한 쇼크로 태아와 함께 세상을 뜬 것이다. <br/><br/>이 ‘모자 미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사례다. 임신 중 태아가 온전히 남아 있기는 불가능하다. “<span class='quot0'>부패가스가 태아를 몸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span>”(김한겸 교수)이다. 2004년 대전에서 발굴된 ‘학봉장군’ 미라의 사인은 피를 토하는 중증 폐질환이었다. 마침 “포황(애기부들 꽃가루)은 지혈제로 사용된다”는 <동의보감> 내용이 있다. 학봉장군의 장기에서 확인한 상당량의 애기부들 꽃가루를 단서로 폐를 정밀검사한 결과 얻어낸 사인이었다. 학봉장군은 기관지 확장증 같은 폐질환 치료를 위해 지혈제로 꽃가루를 복용하고 있었다. 2001년 경기 양주시에서 확인된 댕기머리 소년 미라(5~6세)의 사인은 ‘속립성 결핵’으로 추정됐다. 이 가련한 소년은 결핵균이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에 퍼져 사망에 이르렀다. 2010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굴된 진성이낭(眞城李娘) 미라의 사인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었다. 17세기 여인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대인의 성인병으로 사망했다.<br/><br/> <br/><br/> <br/><br/>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듣기 <br/><br/>조선시대 미라는 회곽묘에서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회와 모래, 황토를 3 대 1 대 1로 섞어 싸바르면 몇 년 후 벽돌처럼 단단해진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身體髮膚 受之父母)을 터럭 하나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不敢毁傷 孝之始也)’이라는 가르침을 따랐던 조상들의 노심초사가 생생하다. 이 풍습이 ‘의도하지 않은 미라’를 낳았다.<br/><br/><이기환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1-109.txt

제목: 암 환자 143만명, 지난해 6조원 썼다...고령화에 진료비 계속 증가  
날짜: 20171017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7152854001  
ID: 01100101.201710171528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가 쓴 진료비는 14.5%가 더 늘어났다. <br/><br/>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신생물(암)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5000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8만5000명 가량 늘었다. 이들 환자가 쓴 진료비 역시 2015년(5조1743억원)보다 75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9247억원을 기록했다. <br/><br/>지난해 암으로 새로 중증환자 등록을 한 사람은 27만8175명이었고, 이들이 쓴 진료비는 2조7100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환자로 등록한 암 환자는 총 186만2532명이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들의 진료비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2692억원으로 지난해 22조2673억원보다 13.5% 증가했다. 노인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10.4%, 2015년 11.4%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51만300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22만8000명), 급성기관지염(193만3000명) 등이었다. <br/><br/>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47조5931억원으로 전년보다 7.4% 많았다. 직장보험료는 39조9446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5485억원, 세대당 보험료는 월평균 9만8128원, 직장가입자는 10만4507원, 지역가입자는 8만4531원이었다.<br/><br/>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명이 낸 연간보험료는 93만9996원이었고, 연간 치료비로 나간 보험급여비는 99만5936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6배였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봤다는 의미다.<br/><br/>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이었고,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명(72.2%), 지역적용인구는 1410만명(27.8%)이었다.<br/><br/>작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는 11.4% 증가한 64조5768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97만명으로 이들이 26조8900억원을 진료비로 사용했다. 전체 4.1%가 진료비의 41.2%를 쓴 셈이다. 고혈압, 당뇨병, 악성신생물(암) 등 12개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679만명이다. 이 가운데 환자 증가가 많았던 질병은 만성신장병(10.6%), 간의 질환(7.4%), 당뇨병(7.1%), 악성신생물(6.3%) 등이었다. <br/><br/>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숫자는 8만9919개로 2.0% 증가했고,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5만5535명으로 8.0% 늘었다. 인력은 간호사 17만9989명(50.6%), 의사 9만7713명(27.5%), 약사 3만3946명(9.5%)이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0.txt

제목: 사진으로 보는 호스피스 의료 모습···‘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날짜: 20171017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7123148002  
ID: 01100101.2017101712314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가족, 의료진은 어떤 모습일까. <br/><br/>제5회 호스피스의 날(10월18일)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류가헌 갤러리에서 사진전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를 연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성남훈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복지부 허락을 받아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 일부를 기사로 공개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br/><br/>정부는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br/><br/>한국에서는 현재 81개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 1321개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환자가 가정과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br/><br/>복지부는 18일 오전 11시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br/><br/>복지부는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호스피스 사업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연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1.txt

제목: 소아 암 병동 단짝 하람이와 하은이  
날짜: 20171016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6201401001  
ID: 01100101.2017101620140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EBS1 ‘메디컬 다큐-7요일’<br/><br/>EBS 1TV <메디컬 다큐-7요일>에서는 암 병동의 단짝 하람이와 하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br/><br/>경기도 한 병원의 암 병동에는 김하람(7)·김하은(9)이 입원해 있다. 수모세포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는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하고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며 친해졌다. 수모세포종은 운동조절 기능에 관여하는 소뇌 부근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척수로 전이되는 소아 뇌종양의 일종이다. <br/><br/>초등학교 2학년인 하은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올해 2월쯤부터다. 어느날부터 글씨가 비뚤어지고 걸음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하람이는 1년 전부터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올해 들어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5월12일, 하람이의 생일에 종양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br/><br/>이후 두 아이는 비슷한 시기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양성자 치료 중이다. 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두 아이의 병동 생활을 따라가본다. 방송은 17일 오후 11시35분.<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2.txt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둘러싼 ‘진짜 담배’ 논쟁 끝나나···“유해성 비슷, 세금 90%로”  
날짜: 20171015  
기자: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5100409001  
ID: 01100101.20171015100409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담배를 ‘담배’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 한국 사회에는 담배 논쟁이 한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물건너 오면서다. 어떤 형태까지를 어느 정도의 담배로 규정하느냐는 곧 세금 문제와 연결된다.<br/><br/>개별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어떤 나라는 기름에, 어떤 나라는 술에, 또 다른 나라는 담배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편이다. 이들 제품이 자국에서 적게 생산돼 수입 의존도가 크거나, 몸에 해로워서 늘어날 건강보험 비용을 아끼려고 미리 세금을 더 걷기도 한다. 세금은 수요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의 하나다.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다. 담배의 경우 더 엄격한 편인데 여전히 발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담뱃세의 배경에는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크다고 소비자들은 의심한다.<br/><br/>■궐련형 전자담배, 진짜 담배인가<br/><br/>박근혜 정부 때 일반 담배에 소비세를 올린 뒤 뜨거웠던 세금 논쟁이 최근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문제로 옮겨붙었다. 그 전에 정부나 국회, 소비자는 전자담배를 어느 정도 ‘진짜 담배’로 볼 것이냐는 근본 질문에 맞닥뜨렸다.<br/><br/>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 판단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의 80% 수준으로 일단 과세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나아가 ‘차츰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엄연히 일반담배와 다르다’며 현행대로 낮은 세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br/><br/>그럼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뭘까. 이는 존재론적 철학 논제에 가깝다.<br/><br/>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서울)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덜미가 잡힌 기억을 얼핏 떠오르게 한다. ‘관습헌법’ 상 수도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 서울이기 때문이라는 동어반복적인 결정이었다. 즉 서울은 서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담배는? 이 주장대로라면 담배는 적어도 ‘조선시대 이래 관습상 피워온 그 담배’여야 할 수 있다. 씹는 담배는 일단 예외로 제쳐두고서라도, 연기와 냄새가 나며 기분 전환용으로 피우는 중독성 있는 기호제품 정도로 담배가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니코틴 같은 성분도 고려될 것이다. 이 관습상 기준으론 ‘타는 연기’가 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다르다고 업계는 주장한다.<br/><br/>공동체 관점에서 담배는 두 얼굴을 띈다. 국민 건강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면 흡연은 최소화해야 할 일이다. 담뱃갑에 각종 혐오스런 사진이나 문구를 넣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적절히 많이’ 피워줘야 하는 게 또한 담배다. 바로 세수 때문이다. 물론 담배의 두 얼굴은 동전의 양면이다.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벌금처럼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의미가 담겼다.<br/><br/>■핵심은 얼마나 세금을 매길 것이냐<br/><br/>지금 궐련형 담배 논쟁의 핵심은 이 세금 문제에 있다. 당장 형평성 문제부터 불거졌다.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반 담배 흡연가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는 건 불편해 보인다.<br/><br/>일반 담배 20개비들이 한 갑 평균 판매가는 4500원 정도다. 여기에 세금이 3323.4원(73.8%) 들어있다. 어지간한 대중용 제품 중 세금이 7할을 넘는 건 거의 없다. 제조원가와 판매점·제조사의 마진이 1176.6원이다.<br/><br/>세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은 담배소비세로 1007원이다. 이어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는 443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다.<br/><br/>4300원짜리 궐련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금은 총 1739.6원(40.4%)을 차지한다. 담배소비세가 528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438원, 지방교육세 232.2원 등으로 일반 담배 세금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126원으로 일반담배의 21% 정도로 낮다. 일반담배에 5원씩 붙는 연초안정화기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없다.<br/><br/>결국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원가와 판매점·제조사 마진은 2560.4원으로 일반담배의 2배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절반 수준인데 가격 차가 200원만 난다는 건 담배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로 들린다.<br/><br/>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이런 ‘국부유출’ 논란이다. “<span class='quot0'>과세액 차이로 인한 외국계 담배회사의 마진 증가는 정부의 세수누락으로 연결된다</span>”는 주장이다.<br/><br/>어떻게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이유는 사실상의 정부 공백상태 탓이 컸다.<br/><br/>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아래 정부도, 정치권도 본업에 뒷짐을 지다시피한 상황에서 필립모리스가 6월 ‘아이코스(iQOS)’라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내에 들여왔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새 제품 판매에 앞서 세금을 적어도 80%선으로 매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판부터 해버렸다. 8월에는 BAT도 ‘글로’라는 제품을 내놨고 국내 KT&G도 다음달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신종담배에 관한 과세법령 공백을 틈 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만큼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br/><br/>김 부총리는 “<span class='quot2'>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은 일종의 ‘죄악세(sin tax)’로 중과세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전자담배가 건강 위해도가 낮아 일반담배보다 세율을 낮게 하자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span>”고 말했다. <br/><br/>실제로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세금을 훨씬 낫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이런 주장에는 맹점도 있다.<br/><br/>이 논리대로 보자면 일반담배 중에서도 니코틴이나 타르 성분이 적게 든 이른바 ‘순한 담배’들은 세금을 더 적게 매겨야 이치에 맞다. 그러나 현실에선 일반담배에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br/><br/>■소비세 올리면 궐련형 가격 얼마나<br/><br/>궐련형 전자담배 업체 측 주장대로라면 당장 일반담배들 가운데도 세금 차이가 커져야 마땅해 보인다. 이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세당국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게 돼 있다.<br/><br/>거꾸로 전자담배도 형태는 다르지만 ‘담배는 담배’여서 같은 원칙으로 과세는 하되, 일부 성분 차이는 있는 만큼 세금을 더러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궐련형이 나오기 전 주목받던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는 세금 차이가 난다.<br/><br/>세계보건기구(WT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건강에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니코틴 함량 0.1㎎ 담배와 6.0㎎ 담배의 가격이 같은 이유다.<br/><br/>다만 액상형과 궐련형은 말이 전자담배이지 성분이나 형태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 등 농축액을 흡입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궐련형은 연초를 단지 일반담배처럼 태우지만 않을 뿐, 전기의 힘으로 가열해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형태다. 즉 불로 붙이지만 않을 뿐, 비슷한 담배 성분을 쪄서 흡입하는 식이다. 궐련형은 액상형보다는 차라리 일반담배에 더 가깝다고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자담배와 유사한 전자형 금연 보조제는 니코틴이 없는 연초유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액상으로 충전된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로 2~3회 흡입하고는 내뿜는 방식이다.<br/><br/>또한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가 얼마나 유해한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도 과세 방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해성 검사에 들어가 약 1년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br/><br/>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해외 분석자료가 많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적했다. 스위스 베른대학의 레토 어어 박사가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는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암과 관련한 화학 물질을 방출했다. 일본금연학회는 특히 “궐련 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br/><br/>이런 와중에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소비세가 낮다며 외국계 담배업체를 통해 국회 기재위에 뿌려진 자료는 뒤늦게 허위로 들통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아이코스가 가장 인기를 끄는 일본은 당초 소비세가 일반담배의 30%라고 했으나, 기재부가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81.6% 세율이 적용된다. 20~30%대라던 포르투갈과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도 70~80%로 나타났다.<br/><br/>갑론을박 끝에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바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가 지금보다 400원 정도 많은 약 535원으로 올라간다.<br/><br/>이러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현재 4300원에서 400원 정도 더 올릴지, 경쟁 대체재인 일반담배(4500원) 수준에서 맞출지도 관전거리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span class='quot3'>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세율을 인상하면 가격이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span>”이라는 입장을 일단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4'>그동안 4300원 가운데 세금을 뺀 나머지는 업체들 수익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세금 올린다고 가격을 실제로 올릴지는 더 지켜봐야 안다</span>”고 말했다.<br/><br/><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3.txt

제목: [서울 그집 ‘오래가게’] 박인당…사인이 대신할 수 없는 도장의 가치  
날짜: 20171011  
기자: 엄민용 기자·민경아 온라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1112045001  
ID: 01100101.2017101111204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서울시는 종로·을지로에 있는 전통 점포 39곳을 ‘오래가게’로 선정하고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문가의 조언과 평가는 물론 여행전문가, 문화해설사, 외국인, 대학생 등의 현장방문 평가도 진행했다. 서울시가 ‘오래가게’를 선정한 것은 ‘도시 이면에 숨어 있는 오래된 가게의 매력과 이야기를 알려 색다른 서울관광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들 39곳의 ‘오래가게’를 찾아 가게들이 만들고 품고 키워 온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 다섯 번째 가게는 ‘박인당’이다. <br/><br/>“<span class='quot0'>남의 이름만 팔 줄 알았지 내 이름이 세 번이 바뀔 때까지 몰랐어.</span>”<br/><br/>2004년 대한민국 정부가 ‘명장’으로 선정한 석재 박호영 옹(76)은 60여 년 동안 인장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도장에 새겼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 중학교 졸업장에 자신의 이름이 다른 한자로 쓰여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먹고살기 바쁜 탓에 그런 것을 고칠 생각도 못했다. 그저 남의 이름만 팠다.<br/><br/>종각과 인사동 문화의 거리 근처에 자리한 박인당은 1978년 ‘박인당’이라는 상호를 등록한 후 관철동에 자리를 잡기까지 녹록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 아픈 기억의 세월이다.<br/><br/>함경남도가 고향인 박호영 명장은 1·4후퇴 당시 가족들과 함께 거제도로 피란을 갔다. 그곳에서 먹고살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다 도장을 파주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살던 지인이 거제도를 찾아왔다가 도장을 파고 있는 박 명장의 손재주를 보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권유했다.<br/><br/>1954년 어머니와 함께 상경한 박 명장은 서울 신당동 ‘일성당’에 취직해 낮에는 하청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 나갔다. 그는 당시 서예가이자 전각가였던 김두칠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전통 인장 예술의 기초를 닦았다.그러다 1964년 박 명장은 당시 을지로5가에 위치한 ‘부흥인쇄’에 책상 하나를 놓고 본격적인 인장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사실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해 봤지만 인장업이 적성에 딱 맞았고, 이 일에만 집중하면 먹고사는 데 문제는 없겠구나 싶어 죽어라 하고 매달렸다</span>”며 그때 그 시절을 되돌아봤다.<br/><br/>‘박인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지는 39년째다. 박 명장은 2004년 정부로부터 기능인 최고의 영예인 ‘명장’(인장공예 부문)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받은 연하장을 꺼내 보이며 그날의 감동을 떠올렸다.<br/><br/>“먹고사는 데 바쁘다 보니 이 연하장을 받은 것도 잊고 살았네그려. 맨 몸으로 피란을 와서 전두환 대통령 도장도 파고,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연하장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잘 살았지 뭐.”<br/><br/>‘명장’으로 불리는 만큼 그에게서 인장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제자를 자처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아무나 그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도장을 새기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은 까닭이다.<br/><br/>“인장업은 며칠이나 몇 달 만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여. 보통 40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느 세월에 배울 거여. 그래서 모두 돌려보냈어. 내게 인장업을 배운 제자가 한 명 있기는 해. 현재 춘천에서 박인당이라는 이름으로 인장업을 하고 있지. 나보다 재주가 좋아 돈도 아주 많이 벌었어. 기특하지, 암 기특하고 말고.”<br/><br/>박인당은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단골손님도 많지만 최근에는 젊은 손님들로 넘쳐난다. 수작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와 도장을 새겨 간다고 한다. <br/><br/>인장의 가격은 재료마다 천차만별이다. 10만원대부터 400만원대를 호가하는 제품까지 다양하다. 직접 박인당을 찾아가 일을 맡겨도 되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문할 수도 있다.<br/><br/><br/><br/>지금껏 자리를 지켜오기까지 박인당도 참 많은 풍파를 버텨냈다. 네온사인에 휩싸여 젊음과 열정이 넘쳐나는 종로의 먹거리 골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래된 노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게세다.<br/><br/>관철동 골목에 넘쳐나던 도장가게는 점점 높아지는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박인당’도 이러한 시련을 비껴 가지 못했다. 건물 1층에 있던 박인당은 지하로, 다시 지상 3층으로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야 했다.<br/><br/>그래도 아직은 도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가게를 꾸려 가지만, 걱정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천직으로 알고 해 온 인장업의 대가 머잖아 끊기지나 않을까 걱정이 크다.<br/><br/>“나이가 있으니 나야 더 이상 무슨 꿈이 있겠어. 다만 이 업이 사라져 가는 게 아쉬워. 기계로 만드는 도장이 어떻게 도장으로서 가치가 있겠어. 그리고 사인은 더 위험해. 쓸 때마다 달라지는 사인이 어떻게 도장을 대신할 수 있냐고. 안 그래.”<br/><br/>한편 전문가 남민씨는 박인당에 대해 “<span class='quot1'>섬세한 손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명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외국인에게 한국의 인장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span>”고 그 가치를 높이 샀다.젊음이 넘쳐나는 거리 사이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오늘을 지키고 있는 박인당. 많은 이들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는 그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박인당을 둘러보며 서울의 근현대 생활문화를 함께 느껴 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듯하다.<br/> <br/><br/>‘박인당’은?<br/><br/>개업연도 : 1978년 / 주소 : 서울 종로구 관철동 252-1 / 전화 : 02-733-3429 / 대표재화 금액 : 도장 10만~450만원 / 체험 요소 : 도장 구매 가능 / 영업시간 : 사무실 전화 후 방문 필요 / 주변 관광지 : 청계천, 종각, 인사동 문화의 거리<br/><br/><엄민용 기자·민경아 온라인기자>

언론사: 경향신문-1-114.txt

제목: 21일, 소화기암환자를 위한 '바른 식단 캠페인' 열린다  
날짜: 2017101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1232944001  
ID: 01100101.201710112329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대한소화기암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공동 주최 <br/><br/>제3회 소화기암환자를 위한 바른 식단 캠페인이 오는 21일 오후 1~4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1층 서성환 연구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다. 소화기암 전문의와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강연과 함께 현장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br/><br/>이 캠페인은 대한소화기암학회(이사장 송시영·회장 이수택)와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가 소화기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양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br/><br/>이날 소화기암 수술 직후나 항암 및 방사선 요법을 진행 중인 환자의 원활한 회복과 부작용 극복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동아대 의대 장진석 교수(위암), 동국대 의대 임윤정 교수(대장암), 한양대 의대 최호순 교수(췌장암)가 국내 주요 소화기암과 영양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학회 이사장인 송시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소화기암 환자에서 왜 영양 문제가 중요한가’ 주제의 강연을 한다.<br/><br/>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손정민 교수가 ‘나의 일상과 건강 찾기의 지름길-올바르게 먹기’, 서울대병원 김영란 임상영양사가 ‘치료 중과 치료 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주제로 발표한다. 학회 이수택 회장(전북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서는 이날 발표를 한 전문가들이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소화기암과 영양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br/><br/>이날 캠페인에서는 질의 응답과 함께 소화기암 전문의와 임상영양사들이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진료 개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13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문의 02-313-7710<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5.txt

제목: 105살 어머니 지극정성 모시는 팔순 아들 ‘주민효행상’  
날짜: 20171011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1101736001  
ID: 01100101.2017101110173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전남 완도에서 105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온 팔순 아들이 효행상을 받았다.<br/><br/>신지면 동촌마을에 사는 김종천씨(86·사진)가 주인공.김씨는 제8회 신지면민의 날인 지난 9일 참효행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br/><br/>김씨는 30대에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4남매를 기르고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해왔다.<br/><br/>김씨의 아버지는 1995년 노환으로 별세했고, 현재 함께 사는 어머니는 105살로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완도군은 전했다. <br/><br/>김씨는 5년 전 부터 암 병마와 싸우며 3번의 수술과 12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는데도 노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씨 어머니는 신지면 최고령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br/><br/>김씨는 “<span class='quot0'>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쑥쓰럽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동네분들 모두가 어른을 따뜻하고 정성껏 모시는 내림도 어머니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6.txt

제목: “전자담배 ‘아이코스’에도 발암물질”  
날짜: 20171010  
기자: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0230439001  
ID: 01100101.201710102304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심재철 의원, 일 금연학회 자료 공개<br/><br/>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br/><br/>일본금연학회는 지난해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제목의 분석자료에서 “아이코스가 건강을 덜 위협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 담배처럼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br/><br/>미국 의학협회의 의학전문지 자마인터널메디신의 부편집장 미첼 카츠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열식 담배도 발암물질을 주위에 유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레토 어어 박사의 분석에서도 아이코스에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암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아이코스를 제작하는 미국 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는 표준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해 아이코스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평균 90~95% 적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심 의원은 표준담배는 개비당 타르가 9.4㎎, 니코틴이 0.72㎎ 함유돼 있는 연구용이어서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br/><br/><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7.txt

제목: 고등어, 노화방지 효과 ‘셀레늄’ 함량 1위  
날짜: 20171010  
기자: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0222057002  
ID: 01100101.20171010222057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ㆍ다소비 생선류 620여건 조사…우럭·방어 순으로 수치 높아<br/><br/><br/><br/>한국인이 즐겨 먹는 생선 중에 노화속도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은 생선은 고등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소비 생선류 35종 620여건을 조사한 결과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의 셀레늄 함량이 0.66㎎/㎏으로 가장 높게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br/><br/>197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영양소로 지정한 셀레늄은 1일 섭취 권장량이 성인 기준 50~200㎍이다. 과산화질 분해·제거와 활성산소 제거를 통해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효과, 심장기능 향상, 심근 퇴행성 질환과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등어는 껍질 안쪽 붉은 살 부위의 셀레늄 함량이 평균 0.76㎎/㎏으로, 흰 살 부위 0.54㎎/㎏보다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뿐 아니라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 함량도 높아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웰빙 식품</span>”이라고 말했다.<br/><br/>고등어 다음으로 셀레늄 함량이 높은 생선류는 우럭(0.54㎎/㎏)이고, 방어(0.49), 삼치(0.42), 조기(0.42), 청어(0.39), 가자미(0.36), 대구(0.35), 꽁치(0.34), 아귀(0.33) 순으로 조사됐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8.txt

제목: “아이코스에도 발암물질…간접흡연 더 위험할수도”  
날짜: 20171010  
기자: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10111740001  
ID: 01100101.20171010111740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발암위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아이코스 한국판매를 시작한 미국 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에는 표준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해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평균 90~95% 적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br/><br/>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 수집을 의뢰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br/><br/>일본금연학회는 지난해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제목의 분석자료에서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해 사용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궐련 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br/><br/>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기됐다. <br/><br/>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전문지 자마인터널메디신(JAMA Internal Medicine)의 부 편집장인 미첼 카츠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열식 담배도 발암 물질을 주위에 유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비 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span>”고 지적했으며 스위스 베른 대학의 레토 어어 박사의 분석에서도 아이코스에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암과 관련된 화학 물질을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내에선 아직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놓고 정밀한 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부터 유해성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br/><br/>심 의원측은 필립모리스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표준담배는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담배가 아니라 1개비당 타르가 9.4㎎, 니코틴이 0.72㎎ 함유돼 있는 연구용 담배로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연구용 담배 중 타르가 많이 들어있는 모델과 비교해 아이코스의 유해성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br/><br/>심 의원은 “<span class='quot1'>정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담배의 올바른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하며 유해성을 낮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즉각 제재해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아이코스는 담뱃잎을 말아서 만든 것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국내에서 아이코스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br/><br/><br/><br/><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19.txt

제목: 1년간 지구·우주서 따로 산 쌍둥이…과연 무슨 차이가  
날짜: 2017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02203813003  
ID: 01100101.20171002203813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EBS1 특선 다큐 ‘우주에서 보낸 1년’<br/><br/>우주에서 오래 머무르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 EBS 1TV 추석 특선 다큐멘터리 <우주에서 보낸 1년>은 우주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br/><br/>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장기간의 우주여행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와 미하일 코르니엔코를 ISS로 보내 1년 동안 체류하게 했다. 지구에선 스콧 켈리가 보낸 혈액, 소변 등 신체 샘플을 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마크 켈리의 신체 샘플과 비교 대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br/><br/>연구팀은 장기 기능 변화부터 인지·추론·판단력 등 정신적 능력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다.<br/><br/>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의 신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머무르는 동안 그의 키는 5㎝가량 커졌고 골밀도와 근육량은 감소했다.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졌고 쌍둥이 형제보다 노화 진행 속도는 느려졌다. <br/><br/>하지만 지구에 돌아오자 스콧 켈리의 몸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그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확인해본다. 방송은 5일 낮 12시40분.

언론사: 경향신문-1-120.txt

제목: '머리카락 31㎝에 마음을 담아'...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헤어 도네이션’  
날짜: 20171002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1002142946001  
ID: 01100101.2017100214294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필요한 것은 31㎝ 이상 길이의 머리카락.’<br/><br/>일본에서 ‘헤어 도네이션’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헤어 도네이션은 소아암 등의 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머리카락을 잃은 아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해 가발을 보내주는 ‘머리카락 기부’ 활동이다. <br/><br/>2일 NHK에 따르면 일본에선 2009년 오사카에서 설립된 시민단체 ‘일본 헤어 도네이션 앤 채러티(JHD&C)’를 중심으로 머리카락 기부가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머리카락을 잃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자는 취지로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가발을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br/><br/>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선 머리카락 길이가 31㎝ 이상이어야 한다. 가발 하나를 만드는 데 약 30명분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 <br/><br/>13살 때 뇌종양 수술을 한 시마부쿠로 레나(島袋麗奈)는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 약 1년간을 기다린 끝에 가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마부쿠로는 “머리를 묶거나 말거나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마음껏 스타일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JHD&C에선 지금까지 4~18세 아이들 180명 이상에게 가발을 보냈다. 지금도 약 160명의 아이들이 가발을 쓰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한다. . <br/><br/>지금까지 머리카락 기부자는 주로 20~40대 여성들이었지만, 최근에는 10대 아이들의 기부가 늘고 있다. JHD&C로 보내오는 머리카락은 하루 약 200건. 지난 8월에는 이 가운데 40%가 10대 아이들이 기부한 것이었다고 한다. <br/><br/>와타나베 기이치(渡邊貴一) 대표는 10대 아이들의 머리카락 기부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최근 몇 년 간 인기 여배우이자 가수 시바사키 고를 시작으로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 머리카락을 기부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하게 된 어머니 세대들이 공감하게 됐고, 이런 공감이 아이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br/><br/>JHD&C가 지난 여름방학 때 개최한 이벤트에도 약 100명의 부모·아이가 참가해 실제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보거나 가발을 받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월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는 어린이신문 기사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앞으로 2년간 머리카락을 기르면 ‘31㎝’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기부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다. <br/><br/>머리카락 기부를 위한 ‘여고생 모임’도 만들어지고 있다. <br/><br/>군마(群馬)현의 고교 2년생 이야노 마리아(伊谷野眞莉愛)는 지난 5월 ‘여고생 헤어 도네이션 동호회’를 만들었다. 함께 지냈던 할아버지를 암으로 잃고난 뒤 같은 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br/><br/>현재 회원은 30여명. 한 달에 한 번 만나 머리카락 기부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머리카락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SNS 상에서도 활동 상황을 올리면서 머리카락 기부를 전파하고 있다. 시간도, 용돈도 없는 고교생에게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부담없음’이 이 동호회의 매력 중 하나다. 서로 격려하면서 머리카락을 길러 ‘헤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단결하는 것에서 유대감과 충실감을 얻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br/><br/><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1.txt

제목: [사설]생리대 조사에도 불신이 여전한 이유는 뭔가  
날짜: 2017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9211251001  
ID: 01100101.2017092921125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유해성분을 조사하지 않은 성급한 결과라며 식약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환경단체들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은 물론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태세여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조사 결과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 것이다.<br/><br/>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무엇보다도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데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조사했다. 84종의 유기화합물 가운데 생식에 문제를 주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과 톨루엔 등이다. 식약처는 대부분 품목에서 유기화합물이 나왔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기화합물 일부는 간 등 생식과 관련이 없는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우려한 생리대가 생리불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는 만큼 조사는 물론 발표에 이르기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에 하나 이번 발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 잇따라 총리의 지적을 받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독단에 따른 것이라면 더욱 우려할 만하다.<br/><br/>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성이다. 이번 사례는 아무리 과학적 조사에 기반을 뒀다고 해도 결론이 신중하지 못하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런 식이라면 2차 유기화합물 전수조사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도 비슷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생리불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어 역학조사로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탓하기보다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론사: 경향신문-1-122.txt

제목: <건강 날날날> 9월29일 세계 심장의 날, 큰 일교차…심장 건강도 오락가락  
날짜: 201709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9071520001  
ID: 01100101.2017092907152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9월 29일은 세계심장연맹(WHF)이 심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10%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br/><br/>이대목동병원 박준범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29일 “<span class='quot0'>수도관이 오래되면 이물질이 쌓이듯 혈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지방이 축적돼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증상이 관상동맥에 나타나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협심증</span>”이라고 설명했다. 협심증이 나타나면 가슴 중앙의 압박감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주로 나타나며 이는 목과 어깨까지 번지기도 한다. 흔히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오면 협심증, 쉴 때 오면 심금경색(협심증과 유사하지만 보다 증상이 강함)일 가능성이 높다.<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이 위험 인자인 협심증은 가슴 통증이 10~20분 내에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고,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흉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좁아진 혈관을 계속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세포와 조직, 근육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죽는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가벼운 운동에도 숨차고, 몸이 붓는다면 심부전 의심<br/><br/>박 교수에 따르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심부전증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지라고 불린다. 심부전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다른 심장질환이 심장을 점차 손상시켜 결국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br/><br/>심부전증이 생기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는 탓에 호흡곤란이 먼저 찾아온다. 초기에는 가벼운 운동 뒤에 호흡 곤란이 찾아오지만 질환이 악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된다. 발목을 비롯해 온몸에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한다. <br/><br/>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심부전증을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에 심장 근육의 탄력성에 도움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금연·금주, 카페인 섭취 줄이기 등 생활습관 개선 필요<br/><br/>심장은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끊임없이 뛰는데, 전기 전달 체계에 변화나 이상으로 심장의 정상 리듬이 깨진 상태를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은 크게 1분에 60회 미만으로 심장이 뛰는 서맥성 부정맥, 100회 이상으로 뛰는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뉘고,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으로 구분한다.<br/><br/>특별한 원인 없이 심장이 비이상적으로 뛰면 심장은 혈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이 때문에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심방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마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오르며 심장 박동 또는 맥박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왼쪽 손목 한쪽의 맥을 짚어 분당 맥박수를 체크해 보고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br/><br/>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이나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br/><br/>■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출처: 대한심장학회)<br/><br/>―담배는 반드시 끊는다<br/><br/>―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br/><br/>―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br/><br/>―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br/><br/>―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한다<br/><br/>―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br/><br/>―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br/><br/>―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br/><br/>―심장질환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3.txt

제목: <건강 날날날> 9월29일 세계 심장의 날…돌연사 주범 부정맥 주의보  
날짜: 201709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9065229001  
ID: 01100101.201709290652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9월 29일은 세계심장연맹(WHF)이 심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10%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br/><br/>유성선병원 최민석 심장부정맥센터장은 29일 “<span class='quot0'>대표적인 심장질환으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심부전,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맥 등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중에서도 부정맥은 전체 돌연사 원인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돌연사의 주범</span>”이라고 밝혔다. 부정맥 증가율은 협심증, 심근경색의 5배에 달하며 숨어있는 환자를 포함하면 40만~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한다.<br/><br/>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부정맥은 두근거림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현기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에는 바로 심장마비나 급사로 이어지기도 하는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br/><br/>■맥이 느린 서맥, 빠른 빈맥, 불규칙하고 빠른 세동<br/><br/>심장은 심장 안의 전기 전달 체계를 이용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뛴다. 하지만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심장의 정상적 리듬이 깨져 부정맥이 된다. 1분에 60회 미만으로 뛰면 서맥(느린맥), 100회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빨리 뛰면 빈맥(빠른맥)으로 구분한다.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는 경우는 세동(심방세동)이라고 한다.<br/><br/>서맥 부정맥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지럼증, 피곤함, 기운 없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전기전달체계의 이상으로 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전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원인인 경우, 전기 자극을 만들어주거나 전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해 치료한다.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은 팔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 혈관을 통해 전극선을 심장 내에 삽입하고 이 전극선을 박동기에 연결한 후, 왼쪽 쇄골 아래 가슴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시술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된다.<br/><br/>■빈맥, 약물·고주파 시술·제세동기 삽입 등으로 치료<br/><br/>빈맥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과 아랫부분인 심실 중 어느 곳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심방에서 발생하는 빈맥을 심방성(상심실성) 빈맥, 아랫부분인 심실에서 발생하는 빈맥을 심실성 빈맥이라고 한다. 상심실성 빈맥 중 가장 흔한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다. <br/><br/>주요 증상은 가슴이 심하게 뛰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체한 듯한 느낌, 어지럼증, 식은땀, 흉통이다. 심방에서 발생하는 빈맥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거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RFCA)로 완치할 수 있다. 심실에서 발생하는 빈맥은 심실 기능 장애가 없으면 약물치료를 하거나 완치를 위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한다. 심실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세동기(인공심박조율기)를 삽입하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약물 치료,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한다.<br/><br/>■심방세동, 고주파 시술(RFCA)로 완치 가능<br/><br/>세동은 심실에서 발생하는 경우(심실세동)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돌연사의 원인이므로 제세동기를 삽입하여 돌연사를 예방한다. 심방에서 발생하는 세동(심방세동)은 심방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확장되거나 폐정맥(폐에서 심방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이 심방으로 연결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현상이 발생해 심방이 300번 이상 뛰게 되는 현상이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고 어지럼증,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br/><br/>약물치료를 통해 규칙적인 정상맥으로 만들거나 맥박 횟수를 안정화 시키는 치료가 과거의 주된 치료 방법이었다. 약물치료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면 거의 모든 빈맥이 완치될 수 있다. 난치성 질환인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도 약물로 정상맥을 회복할 확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증상 조절에 한계가 있으나 고주파 시술을 이용하는 경우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다.<br/><br/>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술로, 전극도자들을 말초혈관을 통해 심장에 삽입한 후 X-레이 투시영상의 도움을 받아 심장 내 이상 부위를 절제하거나 괴사시켜 부정맥을 완치·조절한다. 하지만 X-레이 사용 시 방사선 노출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X-레이 없이 초음파만을 이용하는 제로(ZERO) 방사선 전극도자 절제술이 최신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심방세동과 같이 시술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므로 제로 방사선 전극도자 절제술이 필요하다. <br/><br/>■예방엔 금연, 절주, 운동,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br/><br/>부정맥은 심장의 선천적 이상 외에 담배, 술, 카페인, 심근경색과 고혈압 등 다른 심장 질환 등이 유발 요인이다. 예방하려면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회 이상,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아주 약하게 시작해 점점 강도를 높였다가 마무리할 때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심장 질환은 일찍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크므로 증상을 미리 숙지한 뒤,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4.txt

제목: “유전자가위로 에이즈·백혈병 치료”  
날짜: 20170928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8214223001  
ID: 01100101.2017092821422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유전자가위 창시자 다나 캐럴 교수<br/><br/><br/>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경우 형질이 바뀌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때 문제 유전자를 제거하고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유전자 교정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자연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유전자 편집을 해온 자연을 대신해 인간이 생명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r/><br/>유전자 교정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는 역할은 ‘유전자가위’가 담당한다.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곳을 자를 경우 변이가 생겨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생명이다. 현재 유전자가위는 2003년 1세대 유전자가위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ZFN)가 개발된 후 2세대 탈렌(TALEN)을 거쳐 유전자 교정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크게 높인 3세대 ‘크리스퍼 카스나인’(CRISPR-CAS9)의 시대로 이행했다.<br/><br/>‘징크 핑거’ 유전자가위를 만들었고 현재도 1~3세대 유전자가위로 유전자 교정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다나 캐럴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석좌교수(사진)가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네이처 유전제 교정 콘퍼런스’ 기조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br/><br/>유전자가위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할 과학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캐럴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 미국에서는 유전병이 있으면 아이를 갖지 않거나 입양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만 유전 교정은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에게 출산 이후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현재 겸상 적혈구증을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상인의 적혈구가 원반 형태인 데 비해 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적혈구는 낫 모양이다.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악성 빈혈을 일으키고 모세혈관의 괴사를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손실되면서 만 2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근디스트로피’를 비롯해 에이즈, 백혈병, 혈액암, 겸상적혈구증 등 여러 유전 질환을 유전자가위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br/><br/>질병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거나 뿔 없는 소를 만들고, 매머드 복원 실험도 진행하는 등 동식물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 교정은 다른 개체의 DNA를 주입하지 않고 개체의 정상 유전자를 이용해 교정하기 때문에 GMO와 같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br/><br/>그러나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유전자 교정 기술의 부작용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아이의 눈 색깔이나 머리 색깔, 키와 같은 형질을 바꾸는 목적에서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0'>동물 복제를 할 경우 조기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에게 실험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5.txt

제목: 지자체 운동장·체육관 55%서 유해물질 나왔다  
날짜: 20170928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8212545001  
ID: 01100101.2017092821254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ㆍ김병욱 의원 자료 공개 <br/>ㆍ납 함유량 431배 넘는 곳도 <br/>ㆍ광주·세종·충북 ‘기준 이하’<br/><br/><br/>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곳 중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br/><br/>이 자료에 따르면 933곳 인조잔디 운동장 중 55%인 512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4개 시·도 67개 시·군·구에 있는 136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기 김포시 개곡리 게이트볼장 잔디에서는 납 성분 8765㎎/㎏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치 90㎎/㎏의 약 97배에 달한다. 경남 창원시 게이트볼장(7163㎎/㎏)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7019㎎/㎏)도 허용 기준치를 각각 80, 78배 초과했다.<br/><br/>시·도별로는 울산(88%), 부산(76%), 대전(75%), 제주(72%) 등 12개 시·도에서 분석 대상 절반 이상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운동장이 있는 시·도는 광주, 세종, 충북의 3곳에 그쳤다.<br/><br/>64개 운동장에서는 납과 함께 대표적인 중금속인 ‘6가크롬’(Cr6+)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크롬은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br/><br/>충남 천안시 쌍용1동 게이트볼장은 389㎎/㎏, 서울시 신월야구공원은 365㎎/㎏이 검출돼 허용 기준치의 15배를 넘겼다.<br/><br/>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10개 중 6개꼴로 중금속 및 발암물질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충북 청주체육관 농구장에서 검출된 납 함유량은 3만8800㎎/㎏으로, 허용 기준치(90㎎/㎏)를 무려 431배 초과했다.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에는 수은이 기준치(25㎎/㎏)의 8배(194㎎/㎏) 검출됐다. 인천시 부평구 원적상체육공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우레탄에는 허용치를 4배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체육시설단지 트랙과 경남 창녕공설운동장 트랙에는 기준치(10㎎/㎏)의 5배인 50㎎/㎏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각각 검출됐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암 또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졌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6.txt

제목: 유전자 가위의 ‘개척자’ 다나 캐롤 “유전자 교정, 중대 유전 질환에만 적용해야”  
날짜: 20170928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8181722001  
ID: 01100101.2017092818172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경우 형질이 바뀌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때 문제 유전자를 제거하고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유전자 교정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자연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유전자 편집을 해온 자연을 대신해 인간이 생명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r/><br/>유전자 교정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는 역할은 ‘유전자 가위’가 담당한다.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곳을 자를 경우 변이가 생겨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정확성이 생명이다. 현재 유전자 가위는 2003년 1세대 유전자 가위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ZFN)가 개발된 후 2세대 ‘탈렌’(TALEN)을 거쳐 유전자 교정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크게 높인 3세대 ‘크리스퍼 카스나인’(CRISPR-CAS9)의 시대로 이행했다.<br/><br/>‘징크 핑거’ 유전자 가위를 만들었고 현재도 1~3세대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교정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다나 캐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네이처 유전제 교정 콘퍼런스’ 기조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br/><br/><br/><br/>유전자 가위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할 과학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캐롤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은 유전병이 있으면 아이를 갖지 않거나 입양하는 방법을 추천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 교정은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 이런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현재 겸상 적혈구증을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상인의 적혈구가 원반 형태인데 비해 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적혈구는 낫모양이다.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악성 빈혈을 일으키고 모세혈관의 괴사를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손실되면서 만 2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근디스트로피’를 비롯해 에이즈, 백혈병, 혈액암, 겸상적혈구증 등 여러 유전 질환을 유전자 가위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br/><br/>질병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거나 뿔 없는 소를 만들고, 매머드 복원 실험도 진행하는 등 동식물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 교정은 다른 개체의 DNA를 주입하지 않고 개체의 정상 유전자를 이용해 교정하기 때문에 GMO와 같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br/><br/>그러나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유전자 교정 기술의 부작용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유전자 교정 기술이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중대 질환에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이의 눈 색깔이나 머리 색깔, 키와 같은 형질을 바꾸는 목적에서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캐롤 교수는 “<span class='quot0'>기본적으로는 모든 치료가 그렇듯 사람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적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도 사회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미리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0'>동물 복제를 할 경우 조기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에게 실험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유전자 교정의 성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7.txt

제목: 지자체 체육시설 중금속 ‘범벅’  
날짜: 20170928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8115137001  
ID: 01100101.20170928115137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br/><br/>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br/><br/>이 자료에서 933개소 인조잔디 운동장 중 55%인 512개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4개 시·도 67개 시·군·구에 있는 136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기 김포시 개곡리 게이트볼장 잔디에서는 납 성분 8765㎎/㎏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치 90㎎/㎏의 약 97배에 달한다. 경남 창원시 게이트볼장(7163㎎/㎏)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7019㎎/㎏)도 허용 기준치를 각각 80, 78배 초과했다.<br/><br/>시·도별로는 울산(88%), 부산(76%), 대전(75%), 제주(72%) 등 12개 시·도에서 분석 대상 절반 이상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운동장이 있는 시·도는 광주, 세종, 충북의 3곳에 그쳤다.<br/><br/>64개 운동장에서는 납과 함께 대표적인 중금속인 ‘6가크롬’(Cr6+)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크롬은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 쌍용1동 게이트볼장은 389㎎/㎏, 서울시 신월야구공원은 365㎎/㎏이 검출돼 허용 기준치의 15배를 넘겼다.<br/><br/>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10개 중 6개꼴로 중금속 및 발암물질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충북 청주체육관 농구장에서 검출된 납 함유량은 3만8800㎎/㎏으로, 허용 기준치(90㎎/㎏)를 무려 431배 초과했다.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에는 수은이 기준치(25㎎/㎏)의 8배(194㎎/㎏) 검출됐다. 인천시 부평구 원적상체육공원 농구장과 베드민턴장 우레탄에는 허용치를 4배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체육시설단지 트랙과 경남 창녕공설운동장 트랙에는 기준치(10㎎/㎏)의 5배인 50㎎/㎏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각각 검출됐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암 또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졌다.<br/><br/>김병욱 의원은 “<span class='quot0'>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돌보려 공공 체육시설을 찾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설별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리고 개보수 작업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28.txt

제목: 삼육대, 체험·상담형 성교육 ‘2017 LOVE FESTIVAL’ 개최  
날짜: 20170927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7171609001  
ID: 01100101.2017092717160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25·26일 솔로몬광장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체험·상담형 성교육 ‘2017 LOVE FESTIVAL’을 열었다. 과학적·실용적 성지식 함양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br/><br/>삼육대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성교육을 ‘사랑’이라는 테마로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방법’ ‘사랑의 약속’ ‘사랑의 미래’ ‘사랑의 선물’ 부스를 설치했다. ‘사랑의 삼각형’에서는 설문을 통한 사랑유형과 심리,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높은 이성의 특징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방법’에서는 그래픽 자료를 활용한 생리주기, 가임기, 피임약 및 피임기구 사용법, 성병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br/><br/>유방암 자가검진 부스인 ‘사랑의 약속’은 모형을 이용한 섬유종, 암 감별법,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교육을 실시했다. ‘사랑의 미래’ 부스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 인구구성추계 관련 그래픽 자료를 전시하고 퀴즈 풀이를 통해 상품을 증정했다. ‘사랑의 선물’에서는 성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가공식품, 첨가물 알아보기와 함께 간단히 준비해 먹을 수 있는 천연식품과 조리법을 소개했다.<br/><br/>삼육대는 25일 오전 대강당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홍진화 교수를 초청해 ‘20대 암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유방암 자가검진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br/><br/>삼육대 간호학과 김일옥 교수가 한국연합회 여성협회 지원을 받아 ‘LOVE FESTIVAL’을 열었다. 김일옥 교수는 “<span class='quot0'>대학생들에게는 성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정작 정규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참가인원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성황을 이뤄 주최자로서 크게 만족한다</span>”고 말했다. <br/><br/>행사에 참가한 물리치료학과 김혜림씨(21)는 “<span class='quot1'>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몰랐던 성지식을 배우고, 시연까지 해 흥미로웠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 무척 유익했다</span>”고 말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경향신문-1-129.txt

제목: 명절 음주 안돼요…간염·간경변, 간암, 부정맥까지 위험해요  
날짜: 2017092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7080237001  
ID: 01100101.2017092708023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올해 추석(한가위) 10일간의 연휴는 긴 만큼이나 고향 방문·성묘·여행 등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아졌다. 부정맥이 있거나 간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술을 철처히 금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한 잔 술도 위험하다는 얘기다.<br/><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담도센터 권정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추석을 맞아 차례나 성묘 뒤 음복이나 가족끼리 모여 술 한두 잔을 기울이다 보면,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B형이나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이거나 알코올·지방간 등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한 두잔 술로 인한 간경변(간경화)나 간암의 위험성이 급격히 올라간다</span>”고 경고했다.<br/><br/>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체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 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로 꼽힌다. 하지만 심각하게 병들어도 티를 내지 않는 ‘바보’이기도 하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이다. 손상이 심해질 때까지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br/><br/>간염과 더불어 간이 딱딱해지면서 기능을 잃는 간경변은 상당수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염·간경화 환자나 술이 약한 사람들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간이 손상될 수 있다. 간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자각 증상을 느꼈을 땐 손쓰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간암이 발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면 피부나 눈 흰자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오른쪽 윗배의 통증과 불쾌감, 체중감소 등 정도이다.<br/><br/>간암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성 B형이나 C형간염, 간경변증 등의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폐나 뼈로 전이가 많이 되어 치료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br/><br/>간암 치료에는 절제술, 색전술, 고주파시술, 항암·방사선치료, 하이푸(HIFU), 이식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하이푸’ 치료법은 원발성 간암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 간암으로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에도 효과적으로 시도되는 ‘신의료기술’이다. 방사선을 쏘이듯 초음파를 고강도로 모아 암세포에 쏘여 열에 약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원리를 갖는다. 색전술, 동맥내 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등 다른 암치료법과 병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br/><br/>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외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1'>간 건강을 지키려면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명절에 술을 조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또한 “<span class='quot1'>하이푸는 종양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악성 및 양성종양인 간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장비</span>”라고 설명했다.<br/><br/>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한 부정맥 환자들도 술을 금해야 한다. 술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황유미 교수는 “<span class='quot2'>음주나 흡연, 불면, 과로 등은 부정맥의 주요 유발인자이며 과도하게 느리거나 빠른 맥박, 불규칙한 맥박, 건너 뛰는 맥박 등 증상이 다양하다</span>”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0.txt

제목: “이념 떠난 자리 ‘따듯한 보훈’이 제자리 찾을 것”  
날짜: 20170927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7060050001  
ID: 01100101.20170927060050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지난 5월17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61) 이름이 발표되자 “역대급 홈런”이라는 환호가 쏟아졌다.<br/><br/>‘역대급 홈런’이란 평가 속엔 피우진 처장의 간단치 않았던 삶의 궤적이 담겨 있다. 그는 싸우고 또 싸웠다. 전역 당시 유방암 투병 중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퇴역 조치에, 동료 여군의 성희롱 피해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전역 후에도 젊은여군포럼을 만들어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섰다.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1982년 첫 여성 헬기조종사에 이어 2017년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까지. 그의 인생이 훑고 간 자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피 처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초대 내각 여성 30% 발탁이라는 대통령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이념의 그늘에 뒤덮였던 ‘보훈’과 ‘유공’이 피 처장이 약속한 “따뜻한 보훈”으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 <br/><br/>그러나 중령 ‘피우진’의 유리천장은 이제 보훈처장 ‘피우진’에겐 콘크리트천장이 될 수 있다. 여성에게 최초라는 명예는 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겼다. 취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피 처장의 소회를 들어봤다. <br/><br/><br/><br/>■“이념의 잣대가 아닌 따뜻한 보훈”<br/><br/>-지난 5월 17일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br/><br/>“새정부에 걸맞는 새로운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국민 여러분께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치고, 실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다. 보훈가족은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새 정부 보훈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것도 이런 작업의 하나다.”<br/><br/>-‘따뜻한 보훈’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br/><br/>“‘따뜻한’이라는 의미는 정책과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 개념이다.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약 24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사연과 애환이 제각기 다 다르다. 그러나 다친 몸과 고령화 되어가는 나이로 인해 ‘내가 헌신한 나라와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기가 쉽다. 보훈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상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억울함이다. 다른 보훈 수혜자들과 비교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가족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보훈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을 하기 위해 각각의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그래서 단지 제도로 보상금을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뵙고 눈높이를 맞추며 그 잡은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인간존중이 ‘따뜻한 보훈’의 배경 철학이다.”<br/><br/>-문재인 대통령도‘보훈’을 강조하는데.<br/><br/>“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이들이 잊혀 진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젊은이도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훈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br/><br/>-‘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한가.<br/><br/>“해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다. 2015년에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분들과 후손의 경우 연소득과 자산 등 생활수준 전반에 걸쳐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일반 국민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의 공헌과 기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는 매달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먼저 독립유공자 본인은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을 기존 수권 유족 1인에서 전체 유족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br/><br/>-독립유공자 예우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도 중요한데.<br/><br/>“맞다.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 여러 독립운동 자료에 따르면 독립운동에 300만명 가량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은 이중 1만476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 약 10% 정도만 그 공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상 근거가 되는 재판기록이나 수형기록을 모두 조사하여 독립운동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병에 참여했다가 희생한 순국자와 참여자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도 구성하겠다.”<br/><br/>-독립운동가 후손들이 3대가 넘어가면서 서훈신청이 줄고 있다고 한다. 보훈처가 먼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후손을 찾아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br/><br/>“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제도를 실시한 게 1949년부터니까 올해로 만 68년이 되는데, 현재까지 총 1만4764명이 포상을 받았다. 그간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전에는 주로 후손이나 관련 단체요청에 의해 포상 심사가 시작되었으나, 2005년 노무현정부 때부터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출범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를 포상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찾아 훈장을 전수하고, 예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를 확인해도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 전달 못한 훈장이 5500개에 달한다. 젊은 나이에 순국하셔서 후손이 없거나, 6·25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선 남한에 본적을 두었던 1000여분 만이라도 전부 조사해서 찾아 낼 예정이다.”<br/><br/>-상당한 실무작업이 요구될텐데.<br/><br/>“이분들 같은 경우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읍·면·동사무소의 수장고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곳에 있는 종이 자료들은 오래돼 부서지기도 해 확인작업이 조심스럽다.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이런 일을 전담할 부서로 공훈발굴과를 신설했다.”<br/><br/>-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br/><br/>“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옛 서대문구의회 터에 이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기공식을 갖고 202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운영하느냐를 두고 지난 정부 때는 갈등을 빚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사업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해결이 됐다.”<br/><br/>-지난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에조차 이념 잣대를 들이대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여 ‘나라사랑’이라는 공동체 가치로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보훈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2012년 말부터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강의와 관련하여 국회 등을 중심으로 이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보훈처 전체 업무를 폄하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나라사랑교육 중 강사 중심의 일방향 교육은 폐지했다. 대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학습으로 나라사랑교육 패러다임을 완전 전환했다.”<br/><br/>-구체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br/><br/>“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 강사진 강의’의 경우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나라사랑이라는 것이 개인의 가치이자 근원적 감정의 발로이므로 일방향 방식의 강의는 한계가 있었던 제도였다. 부작용으로 개인 강사의 가치가 함부로 전달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계몽이나 쇄뇌의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신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나라사랑, 애국과 안보의 정신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국민의 보훈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에는 본인의 재능을 살려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이발을 해준다거나 하는 ‘보훈봉사 프로그램’, 전국에 분포한 현충시설을 찾아가 유공자의 공훈을 알아보는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국가유공자의 삶을 느껴보고 그 정신을 직접 더듬어 볼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있다.”<br/><br/>-보훈 현장에서 개선하고픈 점은.<br/><br/>“아무래도 수장의 관심 영역이 있으면 비관심 영역도 생기게 돼서 보훈 업무 중 상대적으로 시대 발전에 뒤처진 업무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훈처 직원들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많은 일, 보훈 가족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많은 민원들 중에서도 보상의 형평성 확보, 보훈복지 체계구축, 국제보훈의 프레임 마련 등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립해서 추진 중이다.”<br/><br/><br/><br/>■“현충원 묘역의 계급 구분 없는 안장은 사회적 요구”<br/><br/>-얼마전 최명신 장군이 월남전 당시 부하들이 묻혀 있는 병사 묘역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장군 묘역이 아닌 병사묘 역에 안장되면서 화제가 됐다. 미국 등 선진국 국립묘지는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묘역에 안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계급에 따라 묘역이 구분이 되는 등 죽어서도 계급을 따지는 관행이 있다.<br/><br/>“과거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장군·장교·사병과 같은 생전의 계급을 사후에도 적용하여, 장군묘역·장교묘역·사병묘역을 구분하는 등 계급에 따른 안장을 실시해 왔다. 보훈처에서는 계급 구분 없는 안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7년 2월 9일부터 영관급 이하 장교와 사병을 계급 구분 없이 같은 묘역에 안장하고 있다. 다만, 장군묘역은 묘역 조성 이후 만장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별도 묘역에 안장되고 있다. 장군묘역이 만장된 후, 장군·장교·사병의 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을 실시할 것인지는 국방부와 상이군경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br/><br/>-국민들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국립대전현충원은 보훈처가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br/><br/>“현충원은 보훈처가 일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현충원은 군 의장대가, 대전현충원은 민간의전단이 안장의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대전현충원은 2009년부터 국방부가 군 의장대 지원을 끊어 민간인들이 과거 군 의장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br/><br/>-보훈가족에 특화된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던데.<br/><br/>“보훈의학연구소를 내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고엽제 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보훈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것을 연구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br/><br/><br/><br/>■“군 명예를 훼손하는 예비역들의 정치적 행위는 삼가해야”<br/><br/>-문재인 정부의 보훈처장 인사는 ‘신선한 충격’으로 주목받았는데.<br/><br/>“그 동안 보훈처장은 남성, 그리고 장성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여성이고 계급도 중령으로 전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 또 제가 암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만든 잘못된 제도를 없앤 것을 군 인권 경력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기존 보훈처장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이 제가 살아온 세월과 맞물려지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br/><br/>-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발탁 배경은.<br/><br/>“우선 제가 보훈처장으로 임명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이 제가 살아온 세월과 맞물려지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br/><br/>-과격 시위에 나선 일부 예비역들에 대해 젊은층들에게는‘무법자 할배’라는 이미지가 있다. 이들 중에는 보훈처의 감독을 받고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소속 예비역들도 있는데.<br/><br/>“무슨 말인지 안다. 이분들도 저희가 예우를 해야 할 보훈 대상이다. 물론 보훈단체가 국민에게 사랑 받으려면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치 수단화됐던 부분은 보훈처장 입장에서도 아픈 부분이다. 그분들이 살아온 희생을 국민들이 기려야 함에도 그런 일부 행동 때문에 왜곡되고 다른 유공자들에 대한 시각도 영향을 받는다. 단체 입장에서는 전부가 아닌 일부 회원들의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제도적으로 과격 행동을 막으면서 끊임 없이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br/><br/>-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br/><br/>“재향군인회는 예비역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한때 나라 위해 청춘을 바친 경험을 가지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같은 가치를 사회에 전파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다. 이는 재향군인회법과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예비역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수익금을 회원복지에는 미미하게 사용하고 지휘부의 비리에 활용하거나, 이념 편향성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데 재향군인회 단체의 명예를 활용하는 지휘부들이 있었다. 이런 부끄러운 소수 지휘부들의 과거 비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재향군인회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보훈처가 해임권이나 직무정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군법에 감독조항을 넣으려 했는데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보류중이다. 재향군인회나 성우회가 사회 올바른 어른들의 표상으로서 깨끗하고, 순수한 애국심을 보여줄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군이 될 수 있다고 본다.”<br/><br/><br/><br/>■“국군의 날 변경에 대한 독립 관련단체들의 의견 전달하겠다”<br/><br/>-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br/><br/>“먼저 국군의 날 주관 부처인 국방부와 기념일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훈처도 그 뒤를 이어서 기념일 변경에 적합한 절차들을 밟을 수 있다고 본다. 저희 보훈처에 소속된 독립 관련 단체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주장하는 바가 있기에 이런 내용들을 국방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br/><br/>-여군으로서 느꼈던 군대와 여성 공직자로서 느끼는 정부 부처의 차이점이 있을텐데.<br/><br/>“여군일 때와 지금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가장 달라진 점을 꼽자면, 복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군인일 때는 군복을 입었고, 당시 전투복을 제일 좋아했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누구나 그 군복 안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런 매력 때문에 군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내면으로는 군인이 보는 안보와 군의 구성원으로서 과거 헌신했던 보훈 대상자가 보는 안보는 다르므로 관점을 바꾸었다. 귀한 집 아들 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엄마였을 우리 보훈 가족들 개개인의 관점으로 안보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의 미래이자 과거라는 보훈의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 부처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br/><br/>-전역 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제목은 누가 지었나.<br/><br/>“우선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을 썼던 시기가 복직 과정에서 병원에 있어야 했던 시기였다. 그때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어야 했고, 할 일 없이 병원에 있으면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살아왔던 삶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다. 그때 마침 지인이 책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일기를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정한 책 제목은 <응답하라, 여기는 피닉스>였고,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에서 소개한 한 일화의 소제목이었다. 그런데 출판사 쪽에서 아예 책의 제목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간단한 설문조사처럼 투표를 했더니 반응이 더 좋아서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되어 군 생활을 계속했다. 2002년에 유방암에 걸려 가슴절제술을 받고 유방암을 이겨냈지만 당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현역 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을 시킨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며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다시 군에 복직했다.)<br/><br/><br/><br/>■“정치는 절대 안한다”<br/><br/>-2008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적 있는데, 정치권에 문을 두드린 배경이 궁금하다.<br/><br/>“여성 정치인 꿈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과거에 정당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군에서 전역을 당하고 복직 소송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진보신당의 노회찬 의원이 제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했던 노 의원과 인연이 닿았고, 당시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 그리고 사회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비례대표에 응했다. 그렇다고 정치인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br/><br/>-젊은여군 포럼을 만든 이유도 궁금하다. 회원들과 요새 어떻게 지내나.<br/><br/>“젊은 여군 포럼은 선배의 입장에서 여군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는 중에 대선이 시작되었고, 정책적 지향점이 맞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회원들과는 요새 바빠서 잘 만나지는 못했지만,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br/><br/>-군인으로서 헬기 조종사를 선택한 이유는.<br/><br/>“그건 당시 여군이 놓여있던 환경과 관련이 있다. 당시 여군은 ‘여군 병과’로서, 즉 성별로 구분되는 병과로 존재했다. 그런데 그때 여군에게도 임무를 주고 병과 별로 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헬기조종사를 뽑기에 지원을 하게 됐다. 여군에게도 처음으로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임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br/><br/>-후배 여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br/><br/>“거대한 군 시스템 안에서 7%에 불과한 소수 여군이라는 정체성이 종종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게 한다. 남녀 군이 더불어 살아가는 군 문화, 그리고 여성인력 활용 제도가 많이 발달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여기 지켜보는 선후배들이 있다고. 혼자인 것 같지만 옆을 보면 동료 여군들이 있고, 또한 앞서 간 선배 여군도 있고 뒤따라 오는 후배 여군도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르는 신호가 응원의 메시지임을 감지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br/><br/>-부당 전역에 맞선 여군, 철의 여인이라는 말을 듣는데.<br/><br/>“사실 부당한 처우에 맞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1.txt

제목: “건강장애아 통합 관리할 기구 만들었으면”  
날짜: 20170925  
기자: 창원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5222126002  
ID: 01100101.2017092522212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서창범 전국건강장애부모회 회장<br/><br/><br/><br/>“건강장애는 갈라파고스섬과 같습니다. 질병 영역이라 장애인복지법 적용도 안 받고 교육 문제가 걸려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 협업도 없어요.”<br/><br/>서창범 전국건강장애부모회 회장(47·사진)은 25일 경남 창원중앙역 인근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건강장애부모회는 건강장애아를 가진 부모 10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이들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향신문 9월22일자 20면 보도). 건강장애아란 희귀난치성 질환을 장기치료하느라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말한다.<br/><br/>- 건강장애 학생이 얼마나 될까.<br/><br/>“건강장애아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95명이다. 하지만 5~19세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3만7000명이 넘는다.”<br/><br/>- 현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br/><br/>“초등학생은 1일 1시간, 중·고등학생은 1일 2시간 수업(원격강의 포함)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아 학년 진급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병은 ‘치료종결’(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이 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 그냥 학교로 가라고만 해서는 안된다. 암을 앓았던 아이는 에어컨 근처에 있으면 안 좋고, 학교급식도 민감하지만 규정도 없고 관심도 없다. 원격수업도 대부분이 민간위탁인 데다 정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도 아니다. 건강장애아들이 학교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건강장애아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끌어 넣어달라는 것이다.”<br/><br/>- 공교육 체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br/><br/>“건강장애 아이들을 위한 통합적 관리기구로 ‘건강장애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가 협업해 건강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계획과 학습을 총괄 지원하고 지역 국공립 대학병원과 연계해 의료체계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전문 암센터·어린이전문 희귀난치성질환센터·어린이 화상 및 교통사고 치료센터·어린이 호스피스 병동 등이 필요하다.”<br/><br/>서 회장의 딸 홍비양(18)은 중학생이던 5년 전 암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1년 만에 치료종결됐고 올해 대입준비를 하고 있다.<br/><br/>-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br/><br/>“딸이 암진단을 받은 지 두 달 뒤부터 다음 ‘아고라’에 소아·청소년 암 및 재발 환자의 의료보험 급여 확대와 기타 지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딸아이가 아팠을 때 생각나는 것은 모금전화번호인 ‘ARS’(자동응답시스템)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 만약 내가 힘이 부치면 딸이 이 일을 할 것 같다.”<br/><br/>- 김동연 부총리와의 면담이 추석연휴 직후에 성사될 것 같은데.<br/><br/>“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을 앓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 만약 김 부총리를 만난다면 아픈 아이들의 고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br/><br/><창원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2.txt

제목: "최근 5년간 암 걸린 소방관 151명, 4년간 2.3배 증가"  
날짜: 20170925  
기자: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5104454001  
ID: 01100101.20170925104454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이 151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암 걸린 소방관이 증가하는 추세다.<br/><br/>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암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7월 말)) 암에 걸린 소방관은 151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br/><br/>연도별로 보면 2013년 19명, 2014년 21명, 2015년 29명, 2016년에 43명, 올해 7월까지 39명이다.<br/><br/>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7명, 대구 15명, 경북 14명, 전남 11명, 광주 10명, 서울 9명, 경남 8명, 부산 7명 순이었다. 세종·울산·제주는 지난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이 없었다.<br/><br/>또한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4만840명의 소방관 중 건강이상 소견(요관찰+유소견)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했다.<br/><br/>질환 유형별로는 소방관 4만840명 중 1만422명(25.5%)이 ‘고지혈증’ 소견을 보였다. 한국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소방관의 고지혈증 질환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다음으로 ‘고혈압’ 소견이 3869명(9.5%), 난청 3839명(9.4%), 당뇨 3371명(8.3%), 기타 흉부질환 3104명(7.6%) 순이었다.<br/><br/>진 의원은 “<span class='quot0'>소방관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중에 유독가스와 참혹한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출동명령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방당국은 소방관의 업무와 소방관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소방관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3.txt

제목: 전원합의체 활성화 성과…‘사법개혁 저지 논란’ 오점  
날짜: 20170922  
기자: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2212555003  
ID: 01100101.20170922212555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ㆍ퇴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암’<br/><br/><br/>양승태 대법원장(69)이 22일 퇴임식을 갖고 15대 대법원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대법원 재판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양 대법원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대법원이 보수화되고, 그로 인해 일부 판결들이 논란이 됐다. 법관의 관료화가 심화되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점도 지적을 받는다.<br/><br/>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span class='quot0'>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도를 넘는 비난과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span>”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법관은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지난 6년의 임기에는 양 대법원장의 ‘명과 암’이 공존한다.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이 11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여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을 심리한다. 대법원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되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활성화는 대법원 판결에 깊이를 더하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도 있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을 거친 고위 법관이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65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span class='quot1'>평생법관제가 정착하면서 승진하지 못하면 법복을 벗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판사들의 의식도 바뀌었다</span>”고 말했다. <br/><br/>2013년 대법원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도입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법원 안팎의 평가가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7월에는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br/><br/>반면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13명의 대법관 중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span class='quot2'>대법관마다 성향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출신 등만 놓고 봤을 때 대법관 다양화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span>”고 평가했다.<br/><br/>‘양승태 대법원’이 내놓은 일부 판결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3년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만들어 기업 편을 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해 오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실상 중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기 말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저지 논란은 양 대법원장의 오점으로 남는다.<br/><br/><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4.txt

제목: 대장암 사망률, 위암 첫 추월  
날짜: 20170922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2151703002  
ID: 01100101.2017092215170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서구적 식습관 보편화가 원인<br/><br/><br/>서구적인 식습관 탓에 지난해 대장암 사망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위암을 앞질렀다.<br/><br/>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53.0명으로 1년 전보다 2.1명(1.4%)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5.1명),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 순으로 높았다.<br/><br/>대장암 사망률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위암을 앞지르며 사망 원인 주요 3대 암이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장암뿐 아니라 췌장암도 느는 추세이며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span>”고 말했다. 췌장암 사망률은 2006년 7.0명에서 2015년 10.7명, 지난해 11.0명으로 높아졌다.<br/><br/>성별로 보면 남성은 폐암, 간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성은 폐암, 대장암, 간암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20대는 백혈병,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높았다.<br/><br/>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932명(1.8%)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2만8298명, 남성이 15만2529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전년보다 7.9명(1.5%) 늘어난 549.4명으로 1992년(539.8명) 이후 가장 높았다.<br/><br/>통계청은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5.txt

제목: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올리브C’ 출시  
날짜: 2017092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1173143001  
ID: 01100101.20170921173143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임상시험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시작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HBA 한국스마트임상센터’(대표 이병일)는 임상시험 지원자와 연구자를 매칭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올리브C)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br/><br/>‘모두(All)를 살리는(Live) 임상(Clinical Trial)을 꿈꾼다’는 모토를 담은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및 iOS(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br/><br/>올리브C는 신약정보가 절박한 환자군(암, 희귀질환 등)부터 병원밖 건강군 모집까지, 임상시험 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국내 임상시험 모집공고 정보를 찾아 직접 임상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br/><br/>임상시험 자원자(환자/건강인)의 관심 질환(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백혈병 등)을 설정하면 맞춤 임상시험 추천한다. 사전에 본인의 건강정보를 디지털로 확인하고, 전국의 임상시험센터에 모바일로 바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연결했다. 인근 지역별 임상시험 실시기관(GPS)을 설정하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질환과 관련해 ‘희망 임상시험’을 사전에 신청하면 추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했다.<br/><br/>올리브C는 현재 제약사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임상시험센터 임상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고 있다. 또 임상시험 연구자 전용 서비스를 함께 마련했다.<br/><br/>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한 제약 임상시험은 628건(2016년 기준)이며, 절반 이상이 다국가 임상시험이다. 이병일 대표는 “<span class='quot0'>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자의 조기 확보가 중요한 신약개발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임상시험센터 연구자,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로 기여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6.txt

제목: [녹색세상]원전 단가 ‘숨겨진 비용’  
날짜: 20170921  
기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1113406002  
ID: 01100101.20170921113406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우리나라 원자력공학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가?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획기적 기술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나라 원자력공학을 이끌고 있는 학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원자력발전 단가는 미국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렴할까?<br/><br/>미국 태양광기업인 퍼스트솔라는 이미 2013년에 미국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전기판매 단가의 23% 수준으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정부는 2016년 에너지 전망보고서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너무 비싼 원자력발전의 미래 단가(미래에 기술이 발전할 것을 예상한)를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 태양광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미국 내 기업이 공급하는 태양광 에너지 단가는 올해 1분기에 2016년 대비 최대 30%까지 낮추었다. 기업이 손해 보고 팔 리는 없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숨겨진 비용들이 추가되면서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단가에서 간과하고 있는 발전소 해체 비용은 가히 상상 이상이다. 미국이 계산한 원자력발전소 1기의 해체 비용은 영국이 사용하는 총 전력을 위한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조차 들 수 없는 가장 더러운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은 향후 누가 지불할 것인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지불할 리 만무하다. <br/><br/>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가 1971년에 제시한 규제 포획이론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가 규제를 받는 집단에 오히려 포획당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나 특정 집단이 로비를 통해 공익에 반하는 규제나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유도하고 이익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몇 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생각하면 쉽다. 공익을 위해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 버리고 각종 복잡한 관계들을 설정하면서 싸게 팔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다. 복잡하게 접근했기에 다양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이 공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은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의 대폭 증가라는 결과로 증명된다. <br/><br/>기업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외면하는 정부의 대처는 유난히 환경분야에서 많이 나타난다.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손해를 인식하고 공익을 위한 로비나 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이익을 한 곳에서 흡수하는 특정 기업은 막대한 로비자금을 쉽게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정해야 할 바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한 대부분 이들의 관리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군가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더라도 현대과학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가 그렇고 석면 지붕이 그렇다. 원전 주변의 방사능 유출 또한 그러하다. 청정한 지리산자락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사망해도 인근에 건설된 아스콘공장이 원인이라는 증명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설사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보상받거나 오염유발자의 처벌은 요원하다. 십 수명의 생명가치가 공장의 이익과 비교될 수 있을까?<br/><br/>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위험요인은 위의 사례와 비견될 수준의 피해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이다. 특정 집단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원을 방해하는 정책은 지난 정부로 막을 내려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기술력은 원자력발전을 유지해야만 할 만큼 후진적이지는 않아 보인다.<br/><br/><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언론사: 경향신문-1-137.txt

제목: [‘탈원전’의 길 찾기]발전소·고압선 지역의 희생…‘생산 과정’ 또한 비민주적  
날짜: 20170921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1060145001  
ID: 01100101.2017092106014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ㆍ“인간·환경 모두 해치면 안돼…우리의 소비 태도 되돌아봐야”<br/><br/>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를 가정해 되짚어 보자. 각 가정과 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은 220V(가정용) 혹은 380V(산업용)다. 지역 곳곳의 배전선로엔 22만900V의 전기가 흐르는데, 동네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변압기를 통해 전압이 낮춰져 공급되는 것이다. 전기는 배전선로를 흐르기 전에 크고 작은 변전소를 거친다. 전기의 탄생지인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를 이어주는 송전선로에는 76만5000V, 34만5000V, 15만4000V의 고압 전력이 흐른다.<br/><br/>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력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전력은 정작 해안가의 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로 서해안을 따라 충남 당진, 태안, 보령에 밀집돼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서해안의 전남 영광, 동해안의 경북 울진, 경주 월성, 부산 기장군의 고리에 분포해 있다.<br/><br/>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이 아닌 이 같은 중앙집중식 발전방식은 석탄·원전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 고압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임모씨(58)는 “<span class='quot0'>비가 내리면 고인 물에 검은 가루가 떠다니는 일이 흔하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마을에서 암 발병도 늘고 있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나라에선 시골 사람 죽어가는 건 관심도 안 가진다</span>”고 했다. 경주의 월성 원전으로부터 7㎞ 떨어진 감포읍에 사는 김모씨(45)는 “원전 같은 건 똑똑한 사람 없는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면서 “사고 나면 여기 사람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포기하고 사는 거다”라고 말했다.<br/><br/>독일의 로자룩셈부르크 재단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에너지 생산은 환경이나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생산은 사회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에너지 소비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참여를 계기로 확인하게 된 한국의 전력정책 실태를 고발한 책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를 통해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낳지 않는 ‘착한 전기’를 쓰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br/>　원자력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기는 과연 민주적인가. 에너지 공론화 국면을 맞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br/><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8.txt

제목: 동물실험에서 100% 저항성 보인 새 에이즈 백신 후보 물질 개발  
날짜: 20170921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21030054001  
ID: 01100101.201709210300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거의 완벽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 항체가 만들어졌다.<br/><br/>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글로벌제약사 사노피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HIV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항체를 개발해 향후 효과적인 에이즈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20일자에 각각 실렸다.<br/><br/>HIV 표면에는 사람의 면역세포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다. 바이러스는 이 단백질을 이용해 증식하고,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만일 이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다면,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br/><br/>하지만 HIV 바이러스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여러 변종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뛰어난 효능을 가진 여러 항체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고안했다. 우선 HIV 보균자들에서 분리한 여러 항체 중 효능이 뛰어난 3가지 항체(VRC01,10E8v4, PGDM1400)를 골랐다. 이어 각 항체의 활성 부위를 합성해 하나의 항체로 만들었다. <br/><br/>연구진은 세 종의 항체를 하나로 합치자 단일 항체보다 더 광범위한 변종에서 더 높은 저항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새 항체의 성능을 확인하려 원숭이에 항체를 주사하고, HIV를 감염시키자 모든 원숭이가 HIV 감염에 저항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208종의 HIV 중 4개만 이 ‘트리플 조합’ 항체에 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br/><br/>반면 항체 중 하나인 VRC01을 주사한 원숭이의 경우에는 75%가, 항체 PGDM1400만 투여한 원숭이들은 62%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br/><br/>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NIH의 권영도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다른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및 자가면역성 질환 치료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span>”라고 밝혔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39.txt

제목: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외수, "찰진 어조로 욕 한 마디 올린다"  
날짜: 20170918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8183925001  
ID: 01100101.2017091818392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소설가 이외수씨(71)가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심경을 밝혔다.<br/><br/>이씨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span class='quot0'>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넘(놈)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넘(놈)들에게 찰진 어조로 욕 한 마디 올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뉴월 마른 벼락을 사력을 다해 쫓아가서 맞아 뒈질 넘들!</span>”이라고 적었다.<br/><br/>이씨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고위직’의 누군가가 귀띔해준 내용도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선생님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는 내용</span>”이었다며 “<span class='quot0'>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가정보원은 이외수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인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압박했다. 당시 문성근, 김미화, 김제동씨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0.txt

제목: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9월 한달간 행사와 전국 건강강좌 등 다채  
날짜: 20170918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8150653001  
ID: 01100101.20170918150653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는 18일 “9월 ‘대장앎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제10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1530! 건강 올리고 대장암 내리고’ 행사를 서울로7017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br/><br/>1530은 1주일에 5일동안 매일 30분씩 운동하자는 의미로,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성인에게 필요한 운동량을 뜻한다. 이 캠페인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br/><br/>대장항문학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8울 진행한 ‘대장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4%)은 ‘운동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로 권장 운동량 1530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꼴(21.7%)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학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 소재 52개 병원에서 대장(大腸) 건강에 대한 무료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대장암의 진단, 치료, 예방 등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병원에서 진행하는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건강강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신청은 각 병원별로 접수한다.<br/><br/>대장암이란 대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종양을 말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관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된다. 몸의 소화기관은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진다.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난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고 결장은 다시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에스(S)결장으로 나누어진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고 부른다. (학회 사무실 02-2040-7736, 인터넷 www.colon.or.kr)<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1.txt

제목: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52조원 투자···“일자리·상생 강화”  
날짜: 20170918  
기자: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8100353001  
ID: 01100101.20170918100353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51조9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br/><br/>이들 기업은 1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내놓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r/><br/>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경기 평택과 화성, 충남 아산 등지에서 메모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 2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충북 청주에 15조5000억원 규모의 낸드(NAND) 관련 투자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경기 파주와 경북 구미에서 OLED 분야에 1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br/><br/>이날 간담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br/><br/>업계는 대규모 공장 신설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안전·환경규제 확대, 전문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span class='quot0'>실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프로젝트별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상생협력과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span class='quot1'>올해 6월부터 7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를 협력사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span class='quot2'>회사와 임직원이 재원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3년째 실시한 데 이어 협력사 지원펀드를 14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span>”고 밝혔다. <br/><br/>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span class='quot3'>1000억원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하고 LG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협력사 모든 직원에 대해 암·희귀질환 발병 시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의료복지를 지원한다</span>”고 말했다. <br/><br/>이들 업계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장비·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r/><br/>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반도체성장펀드 1호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반도체성장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매칭 등으로 조성됐다. 펀드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활용되며, 올해 인투코어테크놀로지가 1호 투자 기업으로 선정됐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2.txt

제목: 부산에 로봇 영화촬영 시스템  
날짜: 20170918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8100154001  
ID: 01100101.201709181001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부산에 로봇촬영기사가 등장한다.<br/><br/>부산시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일부를 개조해 ‘시네마 로보틱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비와 시비 60억 원이 투입된다.<br/><br/>시네마 로보틱스는 자동차 제작시 이용하는 로봇 암(Robot Arm) 제어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만든 무인 영상로봇제어시스템이다. 로봇암을 원격 조종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촬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br/><br/>외국에서는 영화 <그래비티>(2013), <원더우먼>(2017) 등 블록버스터 제작에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암살>(2015), <군함도>(2017) 제작에 활용됐다.<br/><br/>시네마 로보틱스 제작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컴퓨터 그래픽 합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해 기존 작업에 비해 제작비를 30% 이상의 아낄 수 있다.<br/><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3차원 전자영상 촬영제작실에 시네마 로보틱스를 보강하면 사실감 높은 영화를 한자리에서 제작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고부가가치 영상물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시네마 로보틱스가 들어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2011~2017년 140억 원을 들여 3차원·가상 특수촬영제작실, 가상·실감형 전자제작시스템 등을 갖춘 3D 프로덕션센터-디지털 베이(3차원 전자영상 촬영제작실)를 조성한 바 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3.txt

제목: 영화 ‘택시운전사’, 유럽도 사로잡는다  
날짜: 20170915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5222141001  
ID: 01100101.20170915222141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 등 <br/>ㆍ5개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br/><br/><br/>영화 <택시운전사>가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돼 해외 관객과 만난다. 배급사 쇼박스는 <택시운전사>가 제5회 브뤼셀한국영화제, 제6회 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 제10회 스페인한국영화제, 제12회 파리한국영화제, 제10회 헝가리한국영화제 등에 개막작으로 공식 초청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각기 10월18일과 24일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와 파리한국영화제에는 <택시운전사>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참석한다.<br/><br/><택시운전사>는 앞서 지난 7월 북미 지역에서 열린 제21회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배우 송강호씨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쇼박스 측은 “<span class='quot0'>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해외 관객들도 크게 공감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택시운전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간 서울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1980년 광주의 진실을 평범한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려내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2일 개봉한 <택시운전사>는 14일까지 관객 1211만8296명을 동원했다. <br/><br/>최근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사복씨의 정체가 그의 아들에 의해 밝혀져 화제가 됐다. 김씨는 1984년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4.txt

제목: 항문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장암 치료법…EBS1 ‘명의’  
날짜: 20170914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4194457002  
ID: 01100101.20170914194457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EBS 1TV <명의>에서는 과도한 육식과 음주 문화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직장암에 대해 알아본다. <br/><br/>직장은 항문과 가까운 곳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암이 생긴다면 항문의 보존 여부도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암의 위치가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항문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복부에 인공항문(장루)을 달아야만 한다. <br/><br/>최근 직장암 판정을 받은 정모씨(79)는 항문과 가까운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 그는 장루를 만들 바엔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배변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잃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환자들이 인공항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다.<br/><br/>다행히 최근엔 항암 방사선치료의 발달로 암의 위치가 항문과 가깝더라도 항문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직장암, 항문을 살려라’ 편에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장암의 수술법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방송은 15일 오후 9시50분.<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5.txt

제목: ‘암 발병 공포’ 익산 장점마을 옆 비료공장 가동 못한다  
날짜: 20170914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4135120001  
ID: 01100101.2017091413512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전북 익산의 암환자 집단발병 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 진원지로 지목해 온 인근 비료제조공장의 조업중단 조치는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익산시는 14일 ㄱ농산이 익산시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낸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가동을 멈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함라면 장점마을에 자리한 이 업체는 주민 암 발병 진원지로 지목돼왔다.<br/><br/>익산시는 지난 3월 ㄱ농산 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br/><br/>ㄱ농산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5월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섰다. 법원은 “폐쇄명령은 마땅하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ㄱ농산은 지난 7월20일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비료공장은 가동을 할 수 없게 됐다. <br/><br/>2010년 80여명이 살고 있던 장점마을은 그 해부터 암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12명이 사망했고, 현재 11명이 투병중이다. 대책위를 구성한 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에 원인조사를 청원했다. 청원 사전조사를 벌인 환경부는 이 마을 지하수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발견한데 이어 오는 10월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6.txt

제목: 순천향대 부천병원, 러시아어권 해외환자 유치 “고공비행”  
날짜: 2017091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3134835001  
ID: 01100101.20170913134835001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러시아어권 국가 등 해외환자 유치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유치 누적 환자 5만명을 돌파했다.<br/><br/>이같은 성과는 병원 집행부의 해외경영 프로젝트에 따라 10년 가까이 의료진과 행정 직원,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이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소규모 팀을 꾸려 작은 도시까지 파고드는 현지 전략이 해외환자 유치에 주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원장단이 몸소 현지에 나가 해외환자 발굴에 동분서주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br/><br/>13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응진 부원장(외과)과 박은수 교수(성형외과) 등 의료진과 최준환 국제의료협력팀 총괄팀장 등 6명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 그리고 극동 지역의 하바롭스크 등 3개 도시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설명회를 가졌다.<br/><br/>■신응진 부원장팀, 7박8일 러시아 의료상담 강행군<br/><br/>신 부원장과 박 교수는 7박8일 일정 중 6일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 매일 20~30명의 환자들과 짧게는 10분 이상, 길게는 30분 이상씩 상담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의료진이 러시아어에 능통한 전문 코디네이터와 함께 진료를 하는 동안 국제의료협력팀 직원들은 환자를 송출하는 여행사 등 에이전시 여러 곳을 돌며 협력관계 현판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는 등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마케팅을 벌였다. 신 부원장과 박 교수도 상담시간을 쪼개서 현지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br/><br/>이번 신 부원장이 이끈 러시아 의료설명회는 비즈니스 미팅 25곳(신규 5곳 포함)과 7박8일 동안 10회의 의료상담, 198명의 환자 상담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반외과 109건 중 13명의 중증 암·종양 환자, 성형외과 89건 가운데 재건과 미용성형 환자 8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구체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하바롭스크 지역의 비만클리닉 슬림 월드(Slim World)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세미나 개최와 상호 환자 송출, 고도비만수술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합의했다.<br/><br/>20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4년 국제의료협력단(단장 김형철 교수)을 발족시켰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규 도시 발굴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러시아어권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해마다 방문 환자수가 늘고 있다.<br/><br/>해외 10개 도시에 20여 곳의 순천향영상협진센터를 구축하여 외국인환자의 치료 전후로 철저한 환자관리를 한다. 러시아어, 몽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코디네이터가 외국인환자를 1대1 밀착 관리, 입원·검사·치료와 인근 거주 등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br/>■‘순천향대 부천병원’ 글로벌 의료브랜드 자리매김<br/><br/>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14명의 러시아어 상주 코디네이터가 고품질의 환자관리와 통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를 초청하여 나눔의료를 베풀고, 해외의료인들에게 무료로 의료연수를 시켜주는 등 ‘순천향 의료브랜드’를 깊이 각인시키는 협력 사업도 활발하다.<br/><br/>한국 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양적 팽창을 초고속으로 이뤄냈다. 진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의료 기술도 세계 첨단을 달릴 만큼 고도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를 포함한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역점사업이다. 지금까지 해외환자의 주류를 이루었던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와 국제 유가 하락 등 경제적인 이유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환자 유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br/><br/>최근 3년간 한국을 찾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환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지 에이전시 7~8곳이 활발히 운영중이고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 그리고 하바롭스크와 인천간 직항편이 개설되어 사정이 더 좋아졌다.<br/><br/>신응진 부원장은 “<span class='quot0'>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금년 하반기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알마티·쉼켄트와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의료상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비즈니스 행사에 참가하는 등 의료상담 출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현지 옥외광고와 방송매체 홍보도 추진 중</span>”이라고 밝혔다.<br/><br/>국제의료협력단 최준환 총괄팀장은 “<span class='quot1'>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해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중국 등지에서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span>”며 ”러시아 현지 여행사와 에이전시 350여 곳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최일선 교두보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순천향대 부천병원 제공)<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7.txt

제목: MB정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앞세워 ‘좌파 퇴출’ 공작  
날짜: 20170911  
기자: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1224316001  
ID: 01100101.20170911224316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이명박 정부 때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br/><br/>청와대 주문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에 대한 퇴출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특히 국정원은 ‘VIP(대통령) 일일보고’라는 문건도 청와대에 올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셈이다. <br/><br/>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산하기구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및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br/><br/>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집요한 공작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문화·연예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 <br/><br/>국정원이 분야별로 작성한 명단을 보면 문화계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씨 등 6명,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씨 등 8명,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씨 등 52명, 방송인 김미화·김구라·김제동씨 등 8명,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씨 등 8명이 명단에 올랐다.<br/><br/>청와대도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2010년 4월) 등 수시로 문서를 내려보내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 <br/><br/>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br/><br/>2009년 7월에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로 퇴출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좌파 연예인 대응 TF’와 별도로 심리전단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연예인 공격활동을 펼쳤다. 특정 연예인을 ‘종북성향’이라고 낙인찍은 다음 문화·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라고 공격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고 사설 정보지 형태로도 같은 내용을 유포시킨 것이다. 해당 연예인을 고용한 광고주에게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항의 e메일을 발송하는 활동도 벌였다.<br/><br/>국정원 개혁위는 “<span class='quot0'>청와대와 국정원 지휘부는 퇴출을 지시하고 담당부서는 오프라인에서 유관부처 및 기관을 압박하고 온라인에서는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했다</span>”고 밝혔다.<br/><br/>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좌파’로 공격하는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br/><br/>국정원 개혁위는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으며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br/><br/><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8.txt

제목: MB 국정원, 방송사엔 "○○○ 퇴출시켜라" 압력…인터넷엔 "○○○ 퇴출 당연" 댓글  
날짜: 20170911  
기자: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11202630001  
ID: 01100101.20170911202630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찍힌 문화·연예게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탄압과 공작은 집요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 찍은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공작은 조직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됐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연예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각 분야별로 명단을 작성해 퇴출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계에서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씨 등 6명, 배우로는 문성근·명계남·김민선씨 등 8명, 영화감독으로는 이창동·박찬욱·봉준호씨 등 52명, 방송인으로는 김미화·김구라·김제동씨 등 8명, 가수로는 윤도현·신해철·김장훈씨 등 8명이 명단에 올랐다.<br/><br/>청와대도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등 각종 문서를 내려보내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했다.<br/><br/>이에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br/><br/>국정원 개혁위는 ‘좌파 연예인 대응TF’ 회의 및 활동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활동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특히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보면 방송사의 출연인물 사규 개정까지 유도하는 등 방송사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일지이다.<br/><br/><br/><br/>①좌파 연예인 대응TF<br/><br/>△ 2009년 10월, 2011년 6월 :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br/><br/>△ 2009년 11월 :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 유도<br/><br/>△ 2010년 1월 : ‘2010년 문화·예술 분야 등 건전화 사업 계획’ 보고. 김주성 전 기조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문화·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br/><br/>△ 2010년 1월 :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 배제 유도<br/><br/>△ 2010년 2월 :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br/><br/>△ 2010년 3월 :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br/><br/>△ 2010년 3월 :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br/><br/>△ 2010년 4월 :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br/><br/>△ 2010년 4월 : OOO 출연 MBC ‘환상의 짝궁’ 폐지 유도<br/><br/><br/><br/>②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br/><br/>△ 2010년 3월 :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원장 지시)<br/><br/> - 신임사장 취임(3.2)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br/><br/>△ 2010년 8월 :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민정수석 요청)<br/><br/>△ 2010년 9월 :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br/><br/> -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연 우려<br/><br/>△ 2010년 10월 :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br/><br/> -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br/><br/>△ 2010년 10월 :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원장 지시)<br/><br/>△ 2010년 11월 :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원장 지시)<br/><br/>△ 2010년 11월 : ‘좌파성향 방송ㆍ연예인 순화ㆍ견제활동 방향 보고’ (원장 지시)→ 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치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br/><br/>△ 2011년 4월 :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원장 지시)<br/><br/>△ 2011년 8월 :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청와대 보고)<br/><br/> -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 시키고, 사규에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br/><br/><br/><br/>③ ‘심리전단’ 활동<br/><br/> △ 사이버 상에서 특정 연예인의 종북성향 폭로, ‘문화·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 부각, 댓글·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 ‘모델교체’ 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활동 수행<br/><br/> △ 2009년 10월 :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댓글 게재(500여건)<br/><br/> △ 2010년 10월 :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모델 교체 유도<br/><br/> △ 2011년 1월 :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br/><br/> △ 2011년 4월 :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이적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br/><br/> △ 2011년 5월 :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br/><br/><br/><br/>국정원 개혁위는 “<span class='quot0'>기획관리비서관, 홍보·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와 국정원 지휘부는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담당부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유관부처 및 기관을 조정,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압박하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했다</span>”고 밝혔다.<br/><br/><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49.txt

제목: [새책]위험한 제약회사 外  
날짜: 2017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8192027001  
ID: 01100101.2017090819202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위험한 제약회사<br/><br/>약은 선진국에서 심장질환,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부작용을 은폐·조작하는 실태를 고발한다. 의사이면서 비영리 연구기관을 이끄는 저자는 제약회사가 담배회사와 공통점이 많고, ‘갱단’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터 괴체 지음. 윤소하 옮김. 공존. 2만5000원<br/><br/><br/>▲급진적 풍요<br/><br/>나노과학의 창시자인 저자가 나노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전망한 책이다. 초경량 자동차, 초소형 나노로봇이 보편화되고, 기후변화 이전으로 환경을 복구하는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나노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룬다. 에릭 드렉슬러 지음. 임지원 옮김. 김영사. 1만9800원<br/><br/><br/>▲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br/><br/>재일조선인 출신 첫 도쿄대 교수인 저자가 쓴 철학적 직업론이다.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문학적으로 통찰할 것을 권한다. 자아실현이라는 말에 짓눌리지 말 것, ‘지금, 여기’를 살면서 ‘그때’를 기다릴 것 등을 조언한다.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강상중 지음. 노수경 옮김. 사계절. 1만2000원<br/><br/><br/>▲분노수업<br/><br/>마하트마 간디의 다섯 번째 손자가 열두 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2년간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저자는 간디와 함께 오지의 아쉬람에서 살며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간디가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알 수 있다. 아룬 간디 지음. 이경식 옮김. 세종서적. 1만6000원<br/><br/><br/>▲표절 백문백답<br/><br/>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연구윤리 담당자 등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절 문답서를 표방하는 책이다. 표절의 개념부터 출처 표시법, 저작물 유형에 따른 표절,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등을 망라한다. 저자는 이 분야 권위자이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남형두 지음. 청송미디어. 1만6000원

언론사: 경향신문-1-150.txt

제목: 재발률 높은 대장암•위암 면역암치료로 장기생존율 높인다  
날짜: 2017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8173050001  
ID: 01100101.2017090817305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는 대장암과 위암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유독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성의 특성상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에 더 노출돼 있는 한국 남성들에게 비교적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실제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장암과 위암은 국내 남성 발병률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인 남성의 건강에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대장암과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발병이 되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면 이미 3기, 4기 정도로 말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br/> <br/>문제는 생존율이다. 두 암 모두 초기인 1기에는 생존율이 90%에 이르지만, 4기에는 5~10% 정도로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암 질환의 경우 초기발견 여부에 따라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 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br/> <br/>초기발견에 실패한 환자 대부분은 수술을 받지 못한다. 만약 수술이 가능해 절제술을 받는다 해도 재발과 전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위암 환자의 40~60%는 재발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고 대장암은 20~50%가 재발 및 전이를 겪게 되는데, 이때는 항암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br/> <br/>하지만 항암치료 그 독성이 매우 강해 구토나 탈모 등의 부작용으로 환자의 면역력 저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항암제로 인한 내성도 문제다. 장기적인 항암치료는 환자 신체에 내성을 만들어 치료효과를 떨어트린다. 결국 환자의 기력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치료법과 치료제가 제한된다.<br/> <br/>이와 같은 이유로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면역암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면역암치료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면역력만을 높인다고 해서 치료효과까지 높이기는 힘들다. 여기에 한의학적 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더 긍정적인 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이와 관련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제시한다. 이는 면역력 증진을 통해 항암치료 고통 완화, 암세포 사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한다.<br/> <br/>이중병행암관리에 사용되는 옻나무제제 치종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옻나무추출물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암세포 전이에 영향을 주는 신생혈관 생성 억제와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돼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치종단은 SCI급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014년)’에 등재해 일부 항암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과 위암 모두 발병률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 <br/>한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이 가평푸른숲요양병원으로 확장 이전에 새롭게 오픈했다. 가평푸른숲요양병원은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한 강남푸른숲한의원과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제3병원으로 더 나은 환경과 의료서비스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암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151.txt

제목: [김경의 트렌드 vs 클래식]그 많은 질병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날짜: 20170907  
기자: 김경 칼럼니스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7205922002  
ID: 01100101.20170907205922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살충제 계란’ 파장 속에서 누구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span class='quot0'>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보건 당국이 독성화학물질을 만들어 내거나 사용하는 기업 혹은 농장과 결탁을 하고 있다면?</span>” 누구든 했을 법한 질문이다. ‘양심’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언론이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질문이었고.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가 집요하게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잡고 늘어지며 하는 대사처럼 “<span class='quot1'>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span>”.<br/><br/>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묻는 언론이 있었고 그 언론이 꼽은 최고의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예스’나 다름없는 답을 내놓았다. 서울대 약학과 정진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다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br/><br/>“현재 발표되고 있는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 급성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간 많은 양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자꾸만 유해하다 안 하다 하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략) 제 생각에는 정부 부처는 시끄러울 수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해한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회적 위치와 상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내게 분명히 “예스”라고 읽혔다. <br/><br/>그 ‘예스’라는 희미한 신호음과 함께 읽기 시작한 책이 있다. <죽음의 식탁>이라는 책이다. 마리 모니크 로뱅이라는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 기자 출신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지난 수십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불임,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병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에서 50명의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들과 인터뷰해서 쓴 책이다. 2년간의 방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저자는 밭이나 농장에서 쓰는 농약, 살충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우리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바로 그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알려준다.<br/><br/>하지만 생각해 보면 독성화학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에겐 발이 없고 마땅히 신을 만한 신발도 없고, 자동차가 없으며 차표도 물론 없다. 인간에게 가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싶은 의지나 야망도 당연히 있을 리 없다. 다만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규제기관의 논리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로 잘 먹고 잘사는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가 있을 뿐이다. 그로 인해 세상은 어디나 구석구석 독성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갖가지 질병이 만연한 곳이 됐고. <br/><br/>세상에,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단다. 많이 먹으면 나쁘지만 안 죽을 만큼 조금씩 먹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다. 그게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논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논리다. 하지만 왜 정부와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는 독극물의 ‘일일 섭취허용량’ 개념을 비웃으며 하등 이로울 것이 없는 미량의 독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결국 “<span class='quot2'>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소비자이고, 그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게</span>”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체계라고 했던 영국인 교수 에릭 밀스톤의 말이 계속 귓속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인지. <br/><br/>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당분간 계란 섭취를 피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물론 내 가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재앙에 가까운 질병을 피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안 먹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다. 계란 하나 안 먹는다고 우리 일상에 만연된 그 많은 먹거리의 위험과 질병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br/><br/>어떤 면에서 <죽음의 식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피터 싱어의 <죽음의 밥상>이 처음 출간됐을 때 생각이 난다. 그때는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형 농장의 횡포와 이를 숨기거나 묵인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도 컸지만 그보다는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이전까지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동물들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에 처하는지 몰랐던지라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육식을 값싸게 즐긴 나 자신을 반성하기에도 벅찼다. <br/><br/>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피터 싱어의 <죽음의 밥상> 출간과 광우병 사태 이후 나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 생각했고 조금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기농 혹은 친환경이라는 딱지가 붙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는 되레 조금씩 배신당했고 세상은 조금씩 더 나빠졌다. <br/><br/>이제는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유기농 채식주의자가 되지 못한 나는 혼자 그렇게 산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비관한다. 그 편이 제일 속 편하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물어보고 싶다. 국민이 원한다면 농약이나 독극물에 가까운 화학약품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등의 시스템적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토록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 정부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누구도 아닌 국민된 자격으로 물으니 국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 오버.<br/><br/><김경 칼럼니스트>

언론사: 경향신문-1-152.txt

제목: 유해 단백질 분해 기능 규명…암 치료 활용 기대  
날짜: 20170907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7172549001  
ID: 01100101.201709071725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생명공학연 김보연·서울대 권용태 교수팀, 미국 연구팀 함께<br/><br/><br/>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보연 박사(왼쪽 사진)팀과 서울대 권용태 교수(오른쪽)팀, 미국 피츠버그대 시앙 췬 시에 교수팀이 세포 내 해로운 단백질의 분해를 활성화하는 ‘p62’ 단백질의 기능을 새로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br/><br/>노화, 유전적 변이, 세포 내 스트레스 등으로 쓰레기 단백질이 쌓이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 암, 퇴행성 뇌질환,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포 내 단백질의 수명이 다하면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는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과 세포 내 단백질 찌꺼기를 스스로 잡아먹는 것처럼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가포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연구팀은 세포 내 쓰레기이면서 단백질 응고체 전달자로 알려진 p62 단백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했다. <br/><br/>단백질 분해의 주요 경로인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과 깊은 상호조절 기제가 있음도 밝혀냈다. <br/><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26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3.txt

제목: 익산 시골마을에 ‘암 공포’…40여가구 주민 중 18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날짜: 20170906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6212928001  
ID: 01100101.20170906212928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ㆍ발병 원인, 인근 공장 지목 <br/>ㆍ지하수서 유독성 물질 검출 <br/>ㆍ주민 “조속한 역학조사를”<br/><br/>40여가구가 사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시골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반 사이에 7명의 주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11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5일 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형구씨(52)는 암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다. 2013년 6월 어느 날 아버지는 간암으로,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각각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모님이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려니 했다”며 “그런데 그해부터 이듬해까지 주민들이 잇따라 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니 자연사가 아니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br/><br/>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암 집단발병 원인으로 인근의 한 제조공장을 주목하고 있다. 최재철 대책위원장(57)은 “<span class='quot0'>문제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중에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한 물질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익산시의 폐쇄명령조치로 사실상 문을 닫은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인근에 공장들이 수두룩하고,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유독 우리 공장만 암 발병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span>”고 말했다. 업체는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다시 부분조업을 허용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6월 주민 청원에 따라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이 마을 지하수에선 피렌 3136ng/ℓ와 크리센 2217ng/ℓ가 나왔다. 피렌은 타르에 들어있는 유독성 물질이고, 크리센은 타르에 함유된 탄화수소의 하나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기준치 자체가 없다. 또 어린이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가 18.1㎎/ℓ 검출됐다. 먹는 물의 경우 질산성질소 기준치는 10㎎/ℓ 이하다. 김인수 이장은 “<span class='quot2'>다음달부터 환경부가 우리 마을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4.txt

제목: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어요"···유황샘물 사업에 수십억 끌어모은 일당  
날짜: 20170906  
기자: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6154342001  
ID: 01100101.2017090615434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치료·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유황샘물에 투자하면 출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유황샘물은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과 함께 팔렸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효능을 발휘한다는 성분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황샘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 주고, 출자금액의 3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대표 최모씨(57)를 구속하고, 목사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br/><br/>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경기도 내 한 기도원에서 ‘암치료·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며 유황샘물을 알음알음 팔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최씨 등은 유황샘물을 대규모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황샘물을 개발했다는 기도원 목사 이모씨(75)에게 접근했고, 이씨 등과 함께 업체를 차렸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씨의 업체는 자본력도 부족하고 유통경로도 거의 없어 유황샘물을 팔아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애초에 최씨가 허위 사업으로 투자금을 챙기기 위해 아이템을 찾다가 유황샘물을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최씨의 업체는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 강동구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유황샘물에는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함유돼 있어 암치료·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며 “유황샘물 사업 관련 1계좌에 550만원을 납부하면, 매월 100만원씩, 투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광고했다. 유황샘물 개발자라는 이씨도 설명회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효능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강원 춘천시에 차린 유황샘물 생산현장을 투자자들에게 견학시키기도 했다. 시중은행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률에 투자자는 1600명 넘게 모였고, 이들은 총 27억원을 업체에 투자했다.<br/><br/>최씨 업체는 유황샘물은 마트 등에서 2ℓ 페트병 6개에서 1만원대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다. 그러나 호응이 없었고, 판매는 2주만에 끝났다. 이후 최씨 업체는 후순위 투자금을 모아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내는 ‘돌려막기’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갔다.<br/><br/>최씨가 접근하기 전부터 유황샘물은 ‘이 물을 오랫동안 마시니 몸이 좋아졌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물’이라는 기도원 방문자들의 간증과 함께 팔려왔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황샘물에는 신체에 효능을 발휘한다는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확인되지 않았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5.txt

제목: 한국 찾은 고려인 가족의 비극···3년전 어머니 이어 아들도 사망  
날짜: 20170906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6105036001  
ID: 01100101.2017090610503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병원비 걱정에 질병 치료를 미루다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공항 행 버스에서 숨진 고려인 3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숨진 남성의 어머니도 한국에 정착했지만 3년 전 암으로 사망했다. <br/><br/>6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숨진 손에브게니씨(35)는 지난 6월20일 한국에 입국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인 손씨는 2년전 먼저 입국해 광주에 정착한 동생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해 왔다. <br/><br/>광주의 한 공장에 취직한 손씨는 얼마 못 가 공장을 그만둬야 했다. 신장이 좋지 않는 등 지병이 있던 손씨는 일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손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광주 인근 농촌지역에서 일을 해 왔다. <br/><br/><br/><br/>다리가 심하게 붓는 등 건강이 더 나빠졌지만 치료비를 걱정한 형제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형제는 어렵사리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했다. <br/><br/>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동생과 함께 새벽 고속버스를 탔던 손씨는 동생이 버스 화물칸에 짐을 넣는 사이 발작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br/><br/>고려인이었던 손씨의 어머니도 한국에 정착했다가 수년전 숨졌다. 2007년 광주에 정착한 손씨의 어머니는 7년여 동안 힘들게 일하며 고국에 남은 손씨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하지만 2014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두달 만에 숨졌다고 한다. 한국에서 어머니와 형 등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된 손니콜라이씨(33)는 망연자실했다. <br/><br/>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span class='quot0'>고려인 선조들처럼 손씨도 한 많은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객사하고 말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혼자 남은 동생이 장례비 걱정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span>”고 눈물을 훔쳤다. 문의 광주 고려인마을(062-961-1925).<br/><br/><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6.txt

제목: [구정은의 세상]김장겸의 ‘사소한 일’  
날짜: 20170905  
기자: 구정은 정책사회부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5210843002  
ID: 01100101.20170905210843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03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은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 ‘공작’을 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과장한 정보들을 줄줄이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이다. 영국은 참전했고, 영국 군인 179명이 먼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br/><br/>BBC 방송이 문제를 제기했다. 블레어 정부가 참전 지지 여론을 키우기 위해 이라크에 관한 보고서에 “<span class='quot0'>대량살상무기를 45분 안에 발사할 수 있다</span>”는 내용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위험을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파문이 커지고 의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블레어 총리의 측근이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BBC를 맹공격했다. BBC 이사회는 저널리스트들 편에 섰다. 당시 이사회는 “<span class='quot1'>기자들과 뉴스 제작진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원칙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공익에 반(反)하는 외압을 거부한다</span>”고 선언했다.<br/><br/>BBC라고 정부의 압박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다. 시청료 징수가 중단되는 2007년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기금지원법안을 통과시켜야만 방송사 재정을 보장받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뉴스를 만드는 이들이 총리실의 공격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자신감은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BBC는 공영방송의 정신을 규정한 ‘공익헌장’을 보도 기준으로 삼는데, 자국 군인들이 참전한 전쟁에서도 시종 냉정함을 잃지 않는 보도로 “역시 BBC”라는 소리를 들었다.<br/><br/>언론계 생활을 함께 시작한 MBC의 한 친구와 얼마 전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약속 시간을 불과 20분 남겨놓고, 오늘 점심은 좀 힘들겠다고 연락이 왔다. 기자들은 약속을 급하게 취소할 때가 적지 않다. 갑자기 테러가 일어났다든가, 항공기가 추락했다든가. 뭔가 급한 일이 생겼거니 했다. 다음날에야 알았다. 그가 그날 점심 무렵 김장겸 사장 체제의 MBC에서 끝내 못 버티고 자리를 내놨다는 것을.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짐작만 해볼 따름이다.<br/><br/>‘일베 기자’라 불리는 기자가 자신이 잘 아는 만화가를 ‘소비자 인터뷰’로 방송에 내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실소가 나온다. 누군가에겐 뉴스가 ‘장난’이구나. 어느 지방 MBC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혓바닥을 내미는 동영상을 봤을 때에는 모욕감이 들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언론인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줄줄이 폭로되는 것을 보니, 그 속에서 대체 어떻게 기자로, PD로, 아나운서로, 작가로 버틸 수 있었을까 싶다.<br/><br/>방송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받아쓰기 뉴스가 횡행하다 못해 우스운 지경으로 추락했다. ‘비오는 날 단팥빵’ ‘알통 나온 사람은 보수적’ 같은 리포트가 버젓이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사이에, KBS 기자들이 힘들게 취재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증언은 회사로부터 방송을 거부당했다. 진짜 뉴스는 사라지고 가짜뉴스가 진실을 뒤덮었다.<br/><br/>두 방송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언론의 문제이자,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화도 없는 사무실에 배치돼 하루 종일 사측과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MBC 기자의 얘기도 들었다. 5년 전 해고돼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기자,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5일 뒤늦게 고용노동부 조사에 응했다. 김 사장 측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 “<span class='quot2'>센터 설립과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span>” 그에게는 남의 일을 빼앗고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야만적인 행위들이 여전히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보다.<br/><br/>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은 줄어들고, 순간의 재미는 있지만 씹고 나면 허무한 풍선껌 같은 뉴스들이 넘쳐난다. 언론이 헛발질을 하는 사이에 미디어 환경은 바뀌었다. 기술도 변했고 기기도 달라졌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의 날을 벼리는 통로와 사고체계가 바뀌어 가는 시대에, 이에 적응하고 변신해도 모자랄 시기에 언론은 진창에서 허우적거렸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방송은 언제라도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줘버린 것이다.<br/><br/>파업이 시작됐다. 광고조차 내보내지 못해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를 내보내고 프로그램을 재탕하는 MBC 화면을 보니 애처롭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달라지려면 뿌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일손 놓고 파업에 나선 이들보다 더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br/><br/>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힘들게 돌아온 만큼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시민들이 뒤에 있으니까. 마지막 일전에 나선 이들에게 기자로서 동지애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응원을 보낸다.<br/><br/><구정은 정책사회부장>

언론사: 경향신문-1-157.txt

제목: MBC 김재철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인정 안 해, 나도 고통받았다"  
날짜: 20170905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5165025001  
ID: 01100101.20170905165025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김장겸 MBC 사장에 이어 2012년 파업 당시 경영진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임기 동안)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해고한 기자, PD들에게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조차 “<span class='quot0'>판결이 있더라도 임원들이 논의해서 하는 것</span>”이라고 강변했다.<br/><br/>김재철 전 사장은 5일 오후 1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나타났다. 김장겸 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지 2시간여 만이다.<br/><br/>김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파업 참가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한 것 뿐”이라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br/><br/> <br/><br/>파업 이후 MBC 경영진은 파업 참가자들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인사평가를 최하 등급으로 분류해 이른바 ‘삼청교육대’라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김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span class='quot1'>본부장과 국장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span>”고 말했다. <br/><br/>자신이 쫓아낸 기자·PD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2'>판결이 있어도 임원들이 다 의논해서 하는 것</span>”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2012년 공정방송 회복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파업을 이끈 정영하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장(노조위원장)과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박성호 기자회장, 이용마 기자,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 6명을 해고했다. 이 기자는 그 후 암 투병중이다.<br/><br/> <br/><br/>MBC 기자 출신인 김 전 사장은 보도국 부국장과 보도제작국 국장, 지역 MBC 사장 등을 거친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임기 중 방송의 독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권력에 휘둘린 게 아니다”라며 “(당시) 보도국장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거 내라(보도해라) 저거 내라 한 적 있는지. 언론계 선배로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김 전 사장은 임기 중 추진했던 MBC 민영화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김 전 사장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이 권력이 되든, 저 권력이 되든 항상 문제가 발생한 게 MBC”라면서 “그러니까 MBC는 민영화돼야 한다. 내 철학이다. 민영화 돼야 권력에서 자유롭다. 그게 내 꿈이고 소원”이라고 했다. <br/><br/>이번 총파업을 보며 당시의 행위들을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김 전 사장은 “나는 일반 시민”이라고 했고, ‘후배들이 4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나도 고통받고 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인천공항과 천성산 터널을 짓기 전 여론이 반대했던 것을 언급하며 “<span class='quot1'>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해줄 것</span>”이라고 했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8.txt

제목: [구정은의 세상] 김장겸의 '사소한 일'  
날짜: 20170905  
기자: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5141743001  
ID: 01100101.20170905141743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03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은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 ‘공작’을 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과장한 정보들을 줄줄이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이다. 영국은 참전했고, 영국 군인 179명이 먼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br/><br/>BBC 방송이 문제를 제기했다. 블레어 정부가 참전 지지 여론을 키우기 위해 이라크에 관한 보고서에 “<span class='quot0'>대량살상무기를 45분 안에 발사할 수 있다</span>”는 내용을 슬그머니 끼어넣으며 위험을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파문이 커지고 의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블레어 총리의 측근이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BBC를 맹공격했다. BBC 이사회는 저널리스트들 편에 섰다. 당시 이사회는 “<span class='quot1'>기자들과 뉴스 제작진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원칙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공익에 반(反)하는 외압을 거부한다</span>”라고 선언했다.<br/><br/>BBC라고 정부의 압박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다. 시청료 징수가 중단되는 2007년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기금지원법안을 통과시켜야만 방송사 재정을 보장받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영진과 이사회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뉴스를 만드는 이들이 총리실의 공격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자신감은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BBC는 공영방송의 정신을 규정한 ‘공익헌장’을 두고 보도 기준으로 삼는데, 자국 군인들이 참전한 전쟁에서도 시종 냉정함을 잃지 않는 보도로 “역시 BBC”라는 소리를 들었다.<br/><br/>언론계 생활을 함께 시작한 MBC의 한 친구와 얼마 전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약속 시간을 불과 20분 남겨놓고, 오늘 점심은 좀 힘들겠다고 연락이 왔다. 기자들은 약속을 급하게 취소할 때가 적지 않다. 갑자기 테러가 일어났다든가, 항공기가 추락했다든가. 뭔가 급한 일이 생겼거니 했다. 다음날에야 알았다. 그가 그날 점심 무렵 김장겸 사장 체제의 MBC에서 끝내 못 버티고 자리를 내놨다는 것을.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짐작만 해볼 따름이다.<br/><br/>‘일베 기자’라 불리는 기자가 자신이 잘 아는 만화가를 ‘소비자 인터뷰’로 방송에 내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실소가 나온다. 누군가에겐 뉴스가 ‘장난’이구나. 어느 지방 MBC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혓바닥을 내미는 동영상을 봤을 때에는 모욕감이 들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언론인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줄줄이 폭로되는 것을 보니, 그 속에서 대체 어떻게 기자로, PD로, 아나운서로, 작가로 버틸 수 있었을까 싶다.<br/><br/>방송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받아쓰기 뉴스가 횡행하다 못해 우스운 지경으로 추락했다. ‘비오는 날 단팥빵’, ‘알통 나온 사람은 보수적’ 같은 리포트가 버젓이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사이에, KBS 기자들이 힘들게 취재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증언은 방송을 거부당했다. 진짜 뉴스는 사라지고 가짜 뉴스가 진실을 뒤덮었다.<br/><br/>두 방송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언론의 문제이자,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화도 없는 사무실에 배치돼 하루종일 사측과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MBC 기자의 얘기도 들었다. 5년 전 해고돼 아직도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기자,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5일 뒤늦게 고용노동부 조사에 응했다. 김 사장 측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 “<span class='quot2'>센터 설립와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span>”. 그에게는 남의 일을 빼앗고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야만적인 행위들이 여전히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보다.<br/><br/>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은 줄어들고, 순간의 재미는 있지만 씹고 나면 허무한 풍선껌같은 뉴스들이 넘쳐난다. 언론이 헛발질을 하는 사이에 미디어 환경은 바뀌었다. 기술도 변했고 기기도 달라졌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의 날을 벼리는 통로와 사고체계가 바뀌어 가는 시대에, 한참 적응하고 변신해도 모자랄 시기에 언론은 진창에서 허우적거렸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방송은 언제라도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줘버린 것이다.<br/><br/>파업이 시작됐다. 광고조차 내보내지 못해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를 내보내고 프로그램을 재탕하는 MBC 화면을 보니 애처롭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달라지려면 뿌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일손 놓고 파업에 나선 이들보다 더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br/><br/>결국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힘들게 돌아온 만큼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시민들이 뒤에 있으니까. 마지막 일전에 나선 이들에게 기자로서 동지애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응원을 보낸다.<br/><br/><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59.txt

제목: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날짜: 20170904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4215409001  
ID: 01100101.20170904215409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br/><br/>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span class='quot0'>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span>”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br/><br/>김 연구원이 치료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민주화’이다. 시간의 민주화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정상적 상태에 균열을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장시간 노동은 권력관계의 산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민주화 과정이 그랬듯이 시간의 민주화 역시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가장 시급한 대책은 업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무량을 그대로 두고 업무시간만 제한한다면, “집에 가져가서 하는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또 “<span class='quot1'>노동시간 단축의 정당성을 일자리 창출·공유에서만 찾는 일자리 담론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span>”고도 주장했다. 과잉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고용 확대만을 추구하면 자칫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날 위험이 있어서다.<br/><br/>‘카톡 감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원격 업무지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노동일과 노동일 사이에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최근 대두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 기술·컨설팅 분야의 노사연합은 업무시간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을 무시해도 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독일은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티스트레스법안을 마련했다. 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신기술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의 24시간화와 탈공간화 및 불안정화, 고용관계가 아닌 건수 중심의 계약, 기본급 없는 건별 수수료 지급, 위험의 개인화, ‘항시 대기’ 상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임금체계와 제도의 개혁도 ‘시간의 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장시간 노동체제는 저임금 구조에 기댄 채 지속돼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체계가 유연화돼 왔다</span>”고 밝혔다. 기업들이 점차 기본급 비율은 낮추고 수당이나 상여금 등 변동급 비율을 높이면서, 부족한 임금분을 메우기 위해 초과노동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본급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 출산전후휴가, 주휴수당 등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나 대리운전기사, 배달앱 노동자 같은 호출 노동자에게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br/><br/>‘야근은 암이다’ ‘과로는 가정파괴범이다’와 같은 공격적인 화법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장시간 노동 이후의 ‘다른 삶’을 상상하기 위해 ‘한갓진 삶’ ‘알바도 유급휴가를’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주말은 아빠와 함께’ 등의 구호를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자 스스로가 “<span class='quot1'>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기보다는 ‘자기 돌봄’의 윤리가 요구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시 퇴근을 당연한 권리라고 지지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0.txt

제목: [기고]권력이 없애버리려 했던 ‘MBC의 DNA’  
날짜: 20170904  
기자: 이우호 | 전 MBC 논설위원실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4213319001  
ID: 01100101.2017090421331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2012년 대량 해고와 징계의 광풍이 몰아치던 여름. 나는 낯익은 100여명의 후배들과 잠실의 신천역 부근에 있어 이름 붙여진 ‘신천교육대’라는 강제교육장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는 날들을 경험한다. 보이지 않는 창틀에 갇힌 후배들은 32년차 최고참 선배와 ‘교육 동기생’이 된 어색함, 참기 힘든 모멸감 같은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게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곤 했다. 교육이 끝나자 누구는 출퇴근하는 데 네 시간이 넘는 먼 곳으로, 누구는 헬멧을 써야 하는 신사옥 건설 현장으로, 또 누구는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관리하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br/><br/>30여년 전, 5공 군사정권 치하의 MBC 정동 사옥. 담배를 꼬나물고 우리를 이유 없이 꼬나보던 안기부, 보안사 기관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하던 현관, 그 길목에 커다란 한자 휘호가 걸려 있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시면서 그 근원을 생각하라.’ 얼마나 좋은 말인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의 주인, 국민을 생각하라.’ 그러나 그 ‘근원’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전두환이 되는, 웃기지도 않은 역설이 회사를 지배했다. 영화 <모던 타임스>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채플린처럼 우리는 ‘땡전 뉴스’의 아이템들과 대통령 찬양 특집을 찍어내고 있었다. 온 나라가 그랬듯 강요된 침묵 속에서, 바위처럼 굳어버린 체념으로 이따금 솟아나는 울분과 자괴를 누르던 나날이었다.<br/><br/>그렇게 부끄러운 오욕의 세월이 흘러 1987년, 분노의 들불이 전국을 뒤덮은 6월항쟁이 일어나고, 매캐한 최루탄 냄새를 안고 들어온 우리는 기관원들의 눈을 피해 체념과 자조를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해 12월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마침내 1988년 8월26일, 방송사상 최초의 파업이 결행되던 날 노보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br/><br/>“새벽이 다가온다. 6개월이 채 안된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는 그때 뭐하셨어요?’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br/><br/>단지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가 되려는 심정들이 뭉쳐서 가공할 힘을 만들어냈고 군사정권이 파견한 총독과 다를 바 없던 사장의 철옹성을 무너뜨렸다. <br/><br/>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자 했던 자유의 DNA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훗날 ‘그들’이 아예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 DNA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장르마다 창의력 넘치는 명품들을 빚어냈고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우리는 그때 전혀 예감할 수 없었다. 역사가 다시 후퇴할 줄은. 2012년 이후에도 쉼 없이 광풍이 몰아치던 작년 봄, 나는 해고되거나 머나먼 변방으로 쫓겨난 후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해직 후배 이용마의 암 투병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당사자들과 그 수많은 가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안겨준, 교활하게 진화된 악랄함은 방송사를 총칼로 점령했던 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입신영달을 위협했던 자유와 저항의 DNA를 말살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축 파티를 벌였을지 모른다.<br/><br/>세월은 또 흘러 시민들의 빛나는 ‘촛불혁명’이 일어났지만 MBC를 지배한 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송인들의 자유를 권력자의 손아귀에 헌납하고도 방송 독립의 최전방에 선 전사처럼 결사항전을 선언한 사장.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PD를 향해 “방송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외쳐대던 부사장.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앞에서 <무한도전> 김태호를 비롯한 예능 PD들은 “사람들 웃기는 방송 만들려고 예능 PD가 됐는데 그거 만들라고 뽑아놓은 회사가 정작 웃기는 짓은 다 한다. 이젠 제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일갈을 날렸다. 이런 의기가 바로 MBC를 되살려 낼 DNA다.<br/><br/>이제 다시 파업이 시작되었다. 내가 아는 후배들은 무슨 투사가 아니라 상식과 염치를 아는 ‘방송쟁이’일 뿐이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갈구할 따름이다. 지금도 회사 현관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음수사원’의 진정한 의미- 방송의 주인, 국민을 늘 생각하고 시민사회의 정신을 구현해 낼 것인가? 파란만장한 MBC의 수난사를 생생히 체험했던 나는 정(正)이 사(邪)를 끝내 몰아내는 역사의 필연을 믿는다.<br/><br/><이우호 | 전 MBC 논설위원실장>

언론사: 경향신문-1-161.txt

제목: "당신께 배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날짜: 20170904  
기자: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4165620001  
ID: 01100101.20170904165620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아프리카 남수단공화국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4일 전남 담양 천주교 묘지를 찾아 고 이태석 신부의 묘소를 참배했다.<br/><br/>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 신부는 2001년 사제 서품을 받고 남수단 오지인 톤즈에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의사였던 그는 병원을 짓고 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헌신적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던 그는 암 투병중 지난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br/><br/><br/><br/>선수단의 참배는 남수단 교육부장관과 체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수단 교육부는 오는 2018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태석 신부의 삶을 싣기로 했다. <br/><br/>축구팀은 이날 참배에 앞서 지난달 26~31일 경북 영덕에서 개최된 국제축구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다.<br/><br/><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2.txt

제목: 대마오일·양귀비씨앗 함유 건강식품 해외직구 ‘주의보’  
날짜: 20170904  
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4110215001  
ID: 01100101.2017090411021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라며 마약류인 대마오일과 양귀비씨앗의 해외 직구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br/><br/>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5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br/><br/>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가 함유된 대마오일(Hemp Oil) 38건과 양귀비씨앗(Poppy Seeds) 27건을 미국 등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br/><br/>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대마종자오일(Hemp Seed Oil)과 색상과 형상이 비슷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마 잎 등으로 만든 대마오일은 세관 분석 결과, 마약류 성분이 함유돼 통관이 보류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는다. <br/><br/>양귀비씨앗도 최근 쿠키와 케이크 등의 식품의 식감개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이 늘고 있다. 양귀비 씨앗 품종인 파파베르 솜니페룸 등은 마약류로 지정됐다.<br/><br/><br/><br/>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까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고의로 밀반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가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들여왔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r/><br/><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3.txt

제목: '시간마름병'을 아시나요?... "장시간 노동 없애려면 '시간의 민주화' 필요해"  
날짜: 20170904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4104431001  
ID: 01100101.20170904104431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한국은 수년 째 세계 최장 노동 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br/><br/>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황해문화』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경험,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의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안의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br/><br/>김연구원이 시간마름병의 치료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민주화’이다. 시간의 민주화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정상적 상태에 균열을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연구원은 “장시간 노동은 권력관계의 산물”이라며 “시간 권리를 향한 전방위적인 문제제기와 조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an class='quot0'>민주화 과정이 그랬듯이 시간의 민주화 역시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span>”고도 덧붙였다.<br/><br/>가장 시급한 대책은 업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을 그대로 두고 업무 시간만 제한한다면, “집에 가져가서 하는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연구원은 또 “노동시간 단축의 정당성을 일자리 창출·공유에서만 찾는 일자리 담론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잉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고용 확대만을 추구하면 자칫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날 위험이 있어서다.<br/><br/>‘카톡 감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원격 업무지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1일 노동일과 1일 노동일 사이에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최근 대두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 기술·컨설팅 분야의 노사연합은 업무시간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을 무시해도 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독일은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티스트레스법안을 마련했다. 김연구원은 “신기술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의 24시간화와 탈공간화 및 불안정화, 고용관계가 아닌 건수 중심의 계약, 기본급 없는 건별 수수료 지급, 위험의 개인화, ‘항시 대기’ 상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착취를 가속화하는 기획들에 대항한 새로운 시간 투쟁을 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임금 체계와 제도의 개혁도 ‘시간의 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지적됐다. 김연구원은 “장시간 노동체제는 저임금 구조에 기댄 채 지속돼왔다”며 “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체계가 유연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점차 기본급 비율은 낮추고 수당이나 상여금 등 변동급 비율을 높이면서, 부족한 임금분을 메우기 위해 초과노동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업들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 출산전후휴가, 주휴수당 등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나 대리운전기사, 배달앱노동자 같은 호출 노동자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br/><br/>생활 전반에 스며든 언어나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야근은 암이다’ ‘과로는 가정파괴범이다’와 같은 공격적인 화법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김연구원은 장시간 노동 이후의 ‘다른 삶’을 상상하기 위해 ‘한갓진 삶’ ‘알바도 유급휴가를’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주말은 아빠와 함께’ 등의 구호를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소비주의가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유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김연구원은 노동자 스스로가 “<span class='quot1'>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기 보다는 ‘자기 돌봄’의 윤리가 요구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시퇴근을 당연한 권리라고 지지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4.txt

제목: [여적]‘요오드’ 원전  
날짜: 20170903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3205201001  
ID: 01100101.20170903205201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독일 서남부의 아헨시가 최근 ‘요오드’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에서 70㎞ 떨어진 벨기에 남동부 티앙제에서 가동 중인 원전(3기) 때문이다. 티앙제 원전의 노후화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에 인접국 독일의 도시가 ‘순망치한’을 걱정하며 화들짝 놀란 것이다. 방사능 누출이라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요오드 정제를 무료 배송할 작정이다. 왜 하필 요오드인가. 원전폭발 때 발생되는 두 가지 위험한 지표물질이 바로 세슘과 요오드이다.<br/><br/>몸속에 침투한 세슘-137은 세포유전자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 불임 등을 유발한다. 요오드-131도 인체의 갑상선에 들어오는 물질이다. 갑상선에 저장되어 방출하는 방사선(베타선)이 주변 세포에 영향을 끼쳐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 이후 4~5년 뒤부터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많게는 20배까지 급증했다. 이 때문에 사고발생 직전에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하면 방사성 요오드-131의 침투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미리 복용해둔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안에 자리잡으면 뒤에 방사성 요오드-131이 침투해도 자리잡을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오드화칼륨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방사성 요오드의 갑상선 침투만 막아줄 뿐이다. 외부 피폭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또 방사성물질이 몸에 들어오기 24시간 전에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해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방사성 요오드를 흡입한 후에는 복용 효과가 급속도로 떨어진다. 자칫 갑상선 항진 및 기능저하증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게다가 45세 이상의 연령층은 복용할 수 없다.<br/><br/>국내에서도 지금 원전 주변 주민 600여명이 힘겨운 갑상선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전이 밀집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엔 38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다. 독일의 아헨시가 남의 나라(벨기에) 원전을 걱정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요오드를 배포하는 것뿐이다. 원전의 위험은 이렇듯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문제가 됐다. 체르노빌 원전 참사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체르노빌 오염지역(2600㎢)에 사람이 살려면 300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br/><이기환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1-165.txt

제목: [인터뷰]최승호 감독 "방송이 빨리 정상화돼, 스스로 <공범자들2> 만들 수 있어야"  
날짜: 20170903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3150919001  
ID: 01100101.20170903150919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지난해 겨울, 매주 수백만명이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또다른 분노 대상은 공영방송이었다. KBS 취재차량에는 ‘박근혜 퇴진’ ‘하야하라’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짖어봐”라는 조롱까지 듣던 MBC 기자들은 결국 마이크에서 자사 로고를 떼고 카메라 앞에 섰다. 광장에서는 “언론도 공범”이라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br/><br/>그랬던 시민들이 이제 방송을 되살리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각각 열렸던 ‘돌아오라 마봉춘·고봉순(돌마고) 불금파티’에는 시민 수천명이 모여 파업을 앞둔 공영방송 구성원들을 응원했다. 세월호 유가족도 무대에 서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원하며 노래를 불렀다. 한 시민은 “지난 시간 동안 KBS와 MBC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br/><br/>그 여론의 중심에는 MBC에서 해직된 PD인 최승호 감독(55)의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있다. <공범자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큰 타격을 입은 뒤 정권이 어떻게 KBS와 MBC에 대한 파괴 공작을 벌였는지를 그렸다. 정연주 KBS 사장을 억지로 몰아내고, PD들을 체포하고,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MBC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해고·전보되는 모습이 담담하게 담겼다. 최 감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장겸·안광한·김재철 등 전현직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공범자들’을 찾아가 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방송을 망가뜨렸는지, 왜 ‘증거 없이’ 기자와 PD들을 해고했는지, 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방송 공정성을 해쳤는지 물었다. <br/><br/>밑도끝도 없이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이들도 있었다. MBC 전현직 간부들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span class='quot0'>공영방송이 그동안 제역할을 못한 이유를 다뤄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span>”라며 기각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이 영화에는 3일까지 20만명의 관객이 들었다. 다음은 1일 서울 광화문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만난 최 감독과의 일문일답.<br/><br/><br/><br/>-2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범자들>을 봤다.<br/><br/>“좌석점유율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있는 영화 중 2위다. 사실 경쟁력이 있는 영화인데 상영관이 너무 적다. 그래도 다큐를 본 관객들이 거리에서 만나 간혹 알아보고 인사를 청하기도 한다. ‘(전작인) <자백>을 봤습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방송프로그램을 만들던 시절에 내 방송을 본 분들과는 또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반가움을 표한다.”<br/><br/>-왜 ‘공범자들’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나.<br/><br/>“재미있으니까(웃음). 그들의 어마어마한 짓을 기록해야 한다. 공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벌은 그들의 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 것 같다. TV 프로그램은 빠르게 잊히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거의 영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간다. 아무리 관객이 적게 들어도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고, 100년 뒤에도 찾아서 볼 수 있다. 기록성이 강한 매체다. 공범자들의 얼굴 하나하나와 행위와 변명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봤다. 직접 만나면서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효과를 낳는다.”<br/><br/>-‘공범자들’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정했나.<br/><br/>“사실 내가 만지작거렸던 제목은 ‘10년 전쟁’ ‘뉴스 워’ 이런 제목이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영화 개봉 전 스토리펀딩을 시작하기 전날, <자백> 마케팅을 대행해준 영화 홍보대행사 올댓시네마의 김태주 실장이 ‘공범자들’이라는 제목을 제안했다. 두말 없이 선택했다.”<br/><br/>-주로 어떤 관객들이 보러 오나.<br/><br/>“다른 영화보다는 좀더 나이드신 분들이 보러 오시는 것 같다. 평점을 남긴 분들 중 30~40대가 많다. 친구들과 보러 온 10대들도 만났다. 한 학생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왜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지 느꼈다’고 했다. 고등학생이 <공범자들>을 본 감상을 페이스북에 길게 쓴 것도 봤다.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 김민식 MBC PD가 홀로 회사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학급 안에서 불의한 일을 지적했을 때 ‘또라이’ 취급을 받은 경험이 생각났다고 하더라.”<br/><br/>-영화를 본 관객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br/><br/>“진보적인 분들은 ‘나도 촛불집회 가서 KBS, MBC를 질타하고 미워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KBS와 MBC 싸움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무슨 영화인지 모른 채 주변에서 가자고 해 보러왔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진보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통제한 줄 몰랐다’며 놀란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인터넷 평점도 영화 개봉 이후 7점대에서 9점 이상으로 올라갔다. ‘평점 테러’가 줄고, 영화를 직접 보고 영화평을 쓰는 사람이 늘었다.”<br/><br/>-<공범자들>을 본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되살리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영화가 시민들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br/><br/>“아주 처절하게 깨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다. 시사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공범자들>을 많이 알려달라, ‘돌마고 불금파티’에 많이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꼭 한다.”<br/><br/> <br/><br/>-영화 속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말 수준 이하의 반응을 보인다. 가장 참담했던 순간은 언제였나.<br/><br/>“안광한 전 사장을 인터뷰했을 때였다(영화에서 안 전 사장은 최 감독을 마주치자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다). 그렇게 도망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가면서도 ‘방송을 한 사람이고 MBC 사장을 3년씩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악의 누추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물론 악한이지만, 악한으로서라도 최소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길 원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린 느낌이었다. 밉다는 수준을 넘어서 나 스스로가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br/><br/>-또 다른 ‘공범자들’도 있지 않나. “<span class='quot1'>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span>”고 법정에서 다시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같은.<br/><br/>“안 전 사장은 그나마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큰일날 사람이다.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 그런 사람에게 MBC라는 사회적 공기를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는 자기 확신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으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한다.”<br/><br/>-안광한 전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는 다른 유형의 ‘공범자’도 있었나.<br/><br/>“길환영 전 KBS 사장은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그는 영화 속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도국장에게 사표를 종용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건 다 아는 일이다. 그걸 부인하려고 세월호 유가족까지 끌어들여 ‘유족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일이다.”<br/><br/>-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스터의 주인공이 됐나.<br/><br/>“이명박이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까. 박근혜는 이명박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이명박이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br/><br/>-스스로 꼽은 영화의 명장면은.<br/><br/>“(MBC에서 해직된 뒤 암에 걸린) 이용마의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용마와 김민식이 2012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좋은 시퀀스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이용마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용마의 얼굴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깊은 느낌을 자아내는 장면이다. 바로 앞까지는 이명박이 나온다. 어처구니없는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다. 병색이 짙은 모습의 이용마가 나오면서 감정선이 급전직하한다. 그리고 과거의 건강한 모습이 등장하고, 지난 9년간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이 화면에 올라간다. 무대인사를 하러 가면 불이 켜진 뒤 눈물을 닦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br/><br/>-영화에 쓰지 못한 아까운 영상이 있다면.<br/><br/>“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인터뷰했는데 쓰지 못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쫓겨난 뒤에 넣어야 하는데 사건의 흐름을 가로막는 느낌이 들어 뺐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KBS에서 쫓겨난 직후, 유재천 당시 KBS 이사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목소리 높여 항의하던 KBS 구성원들이 멍하게 서서 숨소리만 내는 장면이 있었다.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방송인들이 가졌을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인데 영화 앞부분에 너무 성찰적인 장면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라냈다. 앞으로 감독판 등으로 공개할 기회가 있길 바라고 있다.”<br/><br/>-KBS와 MBC가 5년 만에 파업을 시작한다. 2012년과 다른 점은 ‘공범자들’의 이탈이다. 양 방송사의 보직간부 상당수가 이탈했다.<br/><br/>“지금이라도 이탈하면 공범자가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금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김장겸과 있겠다는 것은 MBC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얘기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진짜 공범자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br/><br/>-일부 MBC 간부들은 끝까지 퇴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데.<br/><br/>“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부질없는 시도다. 그들도 영화를 봐야 한다. 법원에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영화 내용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주장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려 하는데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MBC와 구성원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석고대죄해야 한다.”<br/><br/>-국회에서도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주최로 <공범자들> 시사회가 열렸다.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는.<br/><br/>“언론의 실패는 정치에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고 KBS와 MBC를 장악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영화를 통해 직시해야 한다. 언론을 장악해서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일이 생겼다. KBS와 MBC가 제대로 견제했으면 박근혜가 그렇게까지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자기 스스로 게이트의 일부가 됐을까.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언론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실패한 거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 보자는 소리를 안한다. (웃음)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좀 봐야 하고.”<br/><br/>-앞으로 어떤 분들이 <공범자들>을 보길 바라는가.<br/><br/>“‘공범자들’도 참회의 뜻으로 봐야 한다. 자신들이 한 짓을 객관적으로 보라.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법원에서 훑어본, 사실관계가 정확한 내용이다. 언론은 사회의 근본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언론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br/><br/>-MBC 해고무효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돌아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가.<br/><br/>“‘PD수첩’을 해야지. ‘PD수첩’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을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br/><br/>-<공범자들 2>를 만들 계획은.<br/><br/>“KBS와 MBC가 정상화되면 자신들의 뉴스로, 프로그램으로 <공범자들 2>를 만들어야 한다. ‘PD수첩’으로, ‘MBC 스페셜’로, ‘추적 60분’으로도 만들고 자성을 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정상화됐는지 제대로 밝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방송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해 수준의 방송을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른 방송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6.txt

제목: 가을 환절기 알레르기 비염, 만성비염 관리 생활 지침  
날짜: 2017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2045329001  
ID: 01100101.2017090204532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다. 금년 여름은 8월에 잦은 비 때문인지 예년과 같은 폭염과 열대야는 비교적 적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상이 만들어 놓은 절기는 신기하게도 계절의 흐름을 맞추는 것 같다.<br/><br/>이제는 무더위가 어느덧 누그러지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계절의 중심이 여름보다는 가을에 가까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여 일년 중 가장 풍요롭고 지내기 좋은 계절이라 여겼다. 하지만 가을이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비염과 같은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환자들에게는 가을이 비염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br/><br/>이렇게 가을 환절기 비염증상이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 코호한의원 부산점 장재영 원장은 체온과 면역력과의 관계때문이라고 말한다. 체온과 면역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 논문은 많은데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60년 동안 사람의 체온변화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상 체온이라고 알려진 36.5도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36도의 저체온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현대인들의 암이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자가면역질환 등 면역관련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체온이 저하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br/><br/>코호한의원 부산점 장재영원장은 “<span class='quot0'>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기온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비염 환자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에는 체온이 회복되지 않아 비염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span>”라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비염환자들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지침을 당부한다. “먼저 체온과 면역력과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환절기에는 체온상승을 위한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 운동으로는 체력 소모가 많은 과격한 운동보다는 30분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가 좋다”라면서, “하지만 운동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30분정도의 족욕이나 반신욕도 체온 상승에 도움되는데, 반신욕을 할 때 땀을 흘렸다면 빨리 땀을 닦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주어야 땀이 마르면서 들어오는 찬기운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언론사: 경향신문-1-167.txt

제목: 대표 여성암 ‘유방암·자궁경부암’ 치료열쇠, 면역력 증강에 있다  
날짜: 2017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1173329001  
ID: 01100101.201709011733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중년 여성에게 발생하던 두 암의 발병 연령대가 부쩍 낮아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성암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볼 수 있다.<br/> <br/>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0%에 달하며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암의 특성상 초기에는 그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십상이다. 유방암 초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1~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백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대부터 예방접종을 받으며 꾸준히 관리해야 여성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br/> <br/>대부분의 암 치료가 그러하듯,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도 기수에 따른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때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폐경 여부,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해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 적절한 치료를 적용하게 된다. 만약 초기에 발견된 환자라면 수술적 절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항암치료를 피할 수 없다.<br/> <br/>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암제는 암세포 제거에 효과를 보이지만, 그 강한 독성이 정상세포까지 침투하여 결국 환자의 면역체계를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오심과 구토, 탈모, 피부 및 손톱의 변색, 빈혈, 생식기능 부작용이나 피로, 식욕저하, 안구 건조증, 구간 건조증, 방광염, 설사 등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앞서 항암치료는 종양 제거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치료과정에서 겪는 환자들의 고통이 매우 커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 <br/>이에 의료업계 전문가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완치를 위해서는 면역암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를 만들고 적절한 암 관리를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면역암치료로 관심 집중되고 있는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근본적으로 암 발생을 막는 치료를 시행 중에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면역암치료는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해준다"며 "물론 면역암치료만으로 완치는 어렵다. 이때는 한의학적 요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br/>특히 이중병행암관리에 사용되는 옻나무제제 치종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치종단은 SCI급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014년)’에 등재해 일부 항암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br/> <br/>옻나무추출물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특허 받은 한방제제는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암세포 전이에 영향을 주는 신생혈관 생성 억제와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돼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옻나무제제 치종단은 강남푸른숲한의원과 청평푸른숲한방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br/> <br/>한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이 가평푸른숲요양병원으로 확장 이전에 새롭게 오픈했다. 가평푸른숲요양병원은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한 강남푸른숲한의원과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제3병원으로 더 나은 환경과 의료서비스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암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168.txt

제목: 정보공개센터 “서울 가로수에 ‘발암가능 물질’ 성분 농약 사용”  
날짜: 20170901  
기자: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901144006001  
ID: 01100101.2017090114400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가로수와 공원에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다. <br/><br/>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난해 농약 사용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성동·성북·강남·광진구 등 5개구가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했다.<br/><br/>강동·성동·성북구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강남구에서는 ‘만코제브’, 광진구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이 포함된 농약이 뿌려졌다. 이들 성분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됐고, 인체에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것들이다.<br/><br/>정보공개센터는 강동·강남·동작·서초·영등포구 등 5곳에서는 노동환경연구소가 ‘발암의심 물질’로 지적한 성분이 담긴 농약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발암의심물질은 동물에게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증명됐으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놓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이다. 강동·서초·영등포에서는 ‘뷰프로페진’, 동작구에서는 ‘아세페이트’가 포함된 농약이 살포됐다.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에도 ‘뷰프로페진’이 함유된 농약이 사용됐다.<br/><br/>‘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밝혀져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어드마이어 살충제’도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전했다.<br/><br/>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발암가능물질이 없는 농약이나 친환경 농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노동자들에게 농약 성분의 위험성을 자세히 고지하는 등 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69.txt

제목: [종교와 음식] (27) 부처 제자가 ‘지옥의 어머니’ 구하려 올린 공양  
날짜: 20170831  
기자: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31212522001  
ID: 01100101.20170831212522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ㆍ백중(百中) 상차림<br/><br/><br/>오는 5일(음력 7월15일)은 ‘백중’(百中)이다. 과일과 채소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적인 보름 명절이다. 농촌에서는 민속놀이를 즐길 만큼 축제 같은 날이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나 명맥이 거의 퇴색했다. 반면 불가에선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날이다. 이때 사찰에서는 부처와 조상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올린다.<br/><br/>불가에서 설명하는 백중의 유래는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목련존자에서 비롯됐다. 불교 경전인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에게 묻는다. 그러자 하안거를 끝내는 날에 모인 수행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답을 얻고는 500명의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하게 된다. 공양을 받은 그들이 함께 축원을 하면서 목련존자 어머니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br/><br/>이 같은 불가의 기념일은 전통 농경사회와 결합되어 오랫동안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명절로 내려왔다. 특히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속 명절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를 지칭하는 한자 표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명절의 의미를 담아 ‘百中’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적인 의미가 더해져 ‘百衆’이라고도 표기한다.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며 의식을 치렀다는 의미다. 또 ‘백종(百種)’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100가지 열매와 곡식, 채소를 차린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조선 중기 성현이 쓴 <용재총화>에도 100종의 꽃과 과일을 모아 바치고 죽은 부모의 신령을 불러 제사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br/><br/>100가지 음식의 화려한 상차림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도 제사상에 100가지 음식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대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만큼 산과 들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푸짐하게 차려낸다.<br/><br/>사찰음식 전문가인 대안 스님(조계종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대체로 나물 일곱 가지와 전 일곱 가지를 올리고 과일과 햇곡식, 과자도 차린다</span>”고 설명했다. 대안 스님은 “<span class='quot0'>백중 상차림은 비교적 화려한 편인데 성철 스님이 계시던 시절 백년암에선 차 한잔만 올렸다</span>”고 말했다.<br/><br/><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0.txt

제목: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책임질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누구?  
날짜: 20170831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31115015001  
ID: 01100101.2017083111501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물러난 뒤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31일 임명된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52·사진)는 분자세포생물학 분야의 권위자다.<br/><br/>1965년 서울생인 그는 영일고, 서울대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96년에 미국 텍사스대에서 생화학과 분자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와 세인트주드 어린이 연구병원에서 연구한 후 2000년 고려대 조교수로 부임했다가 2002년 KAIST로 자리를 옮겼다. <br/><br/>정교수로 승진한 2010년부터는 교내 ‘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암 원인 연구 등에 대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널리 인정받아 2014년부터 KAIST 지정석좌교수로 재직중이며, 2016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학부 정회원으로 뽑히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br/><br/>임 신임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포럼’의 과학기술분과에서 활동해 왔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경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과학기술 자문을 맡았다.<br/><br/>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 교수 임명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51)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61)를 내정했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1.txt

제목: SK그룹, ‘딥 체인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척  
날짜: 2017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30195746001  
ID: 01100101.20170830195746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SK는 ‘딥 체인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 딥 체인지를 선언한 SK는 4차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br/><br/>최태원 회장은 지난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span class='quot0'>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들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큰 가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span>”며 생각의 전환을 당부했다. 주요 관계사들도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br/><br/>SK(주) C&C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IBM의 AI시스템인 왓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이브릴’은 한국어 학습이 완료 단계다. 에이브릴은 의료, 엔터테인먼트, 학습, 금융 등 다양한 협업들을 진행 중이다.<br/><br/>SK(주) C&C는 지난 4월 건양대병원과 ‘왓슨 포 온콜로지’ 진료를 시작했다. 담당의사가 암 환자의 정보와 의료기록,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br/><br/>지난 5월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 공동 개발’을 고려대와 추진 중이다. SK(주) C&C는 인공지능을 엔터테인먼트와 개인비서, 금융 콜센터 부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br/><br/>SK이노베이션도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플랜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br/><br/>SK이노베이션은 울산컴플렉스(CLX)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를 구축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적 운영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비용 절감과 함께 최적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br/><br/>SK그룹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사업의 중장기적 확대 기반 마련과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br/><br/>SK이노베이션은 ‘펀더멘털 딥 체인지’를 통해 미래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역대 세 번째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의 50%를 화학·윤활유 등 비석유부문에서 창출해냈다.<br/><br/>석유기업에서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진화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사업 등 신규사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는 유럽 등지의 수요 증가로 지난 3월 생산설비를 기존의 두 배 이상인 3.9GWh로 확대하기로 했다. <br/><br/>SK종합화학은 2017년도 조직개편에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글로벌 마케팅본부를 중국에 새롭게 만들고, 중국 시노펙과 합작해 세운 중한석화, 사우디아라비아 사빅과의 넥슬렌 합작사업 등과 같은 성공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br/><br/>SK 루브리컨츠는 2015년부터 스페인 렙솔과 합작하여 생산한 고급 윤활기유를 유럽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 외에도 충칭에 반도체 후공정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낸드플래시 등 응용복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1-172.txt

제목: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실손보험 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날짜: 20170828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8215424003  
ID: 01100101.20170828215424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ㆍ정부 “질병 보장성 확대”에 전문가들 조언<br/><br/><br/><br/>요즘 실손의료보험과 암·중대질병(CI)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치료에 급여보장 항목을 늘리겠다는 ‘문재인케어’가 공개되고 지난 27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 중 41만건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br/><br/>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들 보험을 해지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급여보장항목 확대 추이나 보험료 인하 시점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부당책정 결과 발표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낮은 손해율까지 언급하면서 보험료 부당책정 문제를 거론한 만큼 소비자로서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br/>먼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병원마다 유사한 질병치료라도 서비스 내용과 가격이 서로 다르다. <br/><br/>교통사고 이후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보통 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청구하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넘게 부르는 병원도 있다. 병원들은 그동안 원가보다 낮은 급여항목 수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병원마다 재정 사정과 수익목표가 다르고 비급여 항목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치료가격이 천차만별이다.<br/><br/>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문재인케어로 이제는 그런 항목들까지 예비급여로 등록하도록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표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span>”이라고 예상했다.<br/><br/>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 약속만 믿고 해지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실손보험 손해율은 130~140%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보장성 확대가 일시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경우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도 있다. 8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모씨(34)는 “보험료 부담보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게 더 걱정된다”며 “어차피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문재인케어로 중복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언제쯤 내가 염려하는 질병치료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되 보험료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해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span class='quot3'>자동갱신상품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지만 기존 위험률을 반영해 비싸게 만들어진 장기계약 상품은 해지하는 게 낫다</span>”고 말했다. <br/><br/>새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누구도 그 변화를 미리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과거 보험상품은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만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다.<br/><br/>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치면 웬만한 치료비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암·CI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질병 진단 시 일정 보험금에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3.txt

제목: 경북 경산·영천 양계장 토양에서도 맹독성 살충제 DDT 검출...호주 기준 최고 7.8배 초과  
날짜: 20170828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8134540001  
ID: 01100101.20170828134540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계란과 닭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된 경북 경산·영천 산란계 농장의 토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br/><br/>농촌진흥청은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 2곳의 토양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DD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br/><br/>경산 농장의 경우는 닭 방사장에서 0.163㎎/㎏의 DDT가,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046∼0.539㎎/㎏의 DDT가 각각 검출됐다. 영천 농장의 경우에는 닭 방사장에서 0.469㎎/㎏,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176∼0.465㎎/㎏의 DDT가 각각 나왔다.<br/><br/>우리나라는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 등에 대한 DDT 관리기준을 별도로 갖고 있지않다. 호주는 가금류 사육지에 대해 0.06㎎/㎏, 가축방목지에 대해 0.1㎎/㎏의 기준치를, 캐나다는 농경지에 대해 0.7㎎/㎏의 기준치를 각각 설정해 놓고 있다. 경산과 영천 닭 방사장의 DDT검출치는 호주의 가금류 사육지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영천 농장의 닭 방사장의 DDT는 호주의 기준치에 비해 7.8배 높은 것이다.<br/><br/>농진청은 이들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수와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농장 인근의 대추·호두 과실과 콩 잎이나 영천 농장 인근의 복숭아 잎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r/><br/>정부는 앞서 DDT가 검출된 경산·영천 산란계 농장의 닭과 달걀에 대해서는 지난 23일과 24일 폐기 조치를 취했다. <br/><br/>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살충제이다. 1945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이후 해충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됐으나, 이후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1973년부터 곡식에서의 사용이 전면 중단했다.<br/><br/>DDT는 토양 안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대략 50년이 소요되고, 빛이나 산화에 강해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br/><br/>농진청은 2015년 이후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과 2016년 시설재배지, 논, 밭은 물론 농작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과수원 토양(245지점)에 대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연말 나올 예정이다.<br/><br/>농촌진흥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산란계 농장의 토양에서도 DDT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양 중 DDT 저감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4.txt

제목: 암 투병 환자 3명 보험금 3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날짜: 20170828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8132650001  
ID: 01100101.20170828132650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암 투병 환자의 보험금 3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전모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br/><br/>전씨는 2015월 8월 여수시 ㄱ병원에 입원 중인 암 투병 환자(62) 등 3명에 접근해 “<span class='quot0'>현금을 투자하면 40% 수익을 돌려주겠다</span>”면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전씨는 펀드매니저를 자청하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r/><br/>전씨는 이들 환자가 암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자주 병문안을 다니는 행위 등으로 환심을 샀다고 조사경찰관은 덧붙였다.<br/><br/>실제로 전씨는 먼저 100만원을 받은 후 계좌로 14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들로부터 79차례에 3억원을 받은 잠적했다가 붙잡혔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5.txt

제목: ‘작가의 말’ 못 넣은 유작…정미경 ‘가수는 입을 다무네’  
날짜: 20170827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7215908001  
ID: 01100101.20170827215908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ㆍ암 투병 중 폐렴으로 지난 1월 별세…문예지 연재 작품 묶어 장편 출간<br/><br/><br/><br/>지난 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작가 정미경(사진)의 유작 장편소설 <가수는 입을 다무네>가 출간됐다. 현재는 폐간된 계간 문예지 ‘세계의 문학’에 2014년 1년간 연재됐던 작품은 작가의 사후에야 단행본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책에는 작가의 말이 없으며, 글도 추가 수정 작업 없이 연재 상태 그대로 편집됐다.<br/><br/>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록 밴드의 보컬 율과 우연히 그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담게 된 대학생 최이경의 이야기가 소설의 뼈대다.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며 재기를 원하는 율은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뭉친 존재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아내 여혜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젊은 뮤지션 호영이 곁에 있음에도 율은 둘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위악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그의 현재는 지독한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 속에 멈춰 있고 이경은 이를 카메라에 담는다. 그러나 ‘진짜 삶은 잘려 나간 부분, 아웃테이크 속에 있다’는 소설 속 문장처럼, 시간이 지나며 다루기 힘든 피사체로만 생각했던 율의 삶에서 이경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br/><br/>자신의 이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음악가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예술가소설로 보인다. 문학평론가 김미현은 “<span class='quot0'>소설 속 주인공인 가수 율을 작가 정미경으로 치환시키면 예술가들이 지닌 영광과 상처를 날것 그대로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중에 고치고 싶었겠으나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그녀의 마지막 장편소설은 작가 정미경의 삶 혹은 문학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예술가소설로 읽힌다</span>”고 평했다.<br/><br/><br/><br/>그러나 소설 속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카메라 안에 미처 다 담지 못하는 율과 이경이라는 인간이 겪는 삶에 할애되고 있다. 그렇기에 강지희 문학평론가는 “<span class='quot1'>정미경은 마지막 장편을 통해 예술이 아니라 삶을 향해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span>”고 말하기도 했다.<br/><br/>정미경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폭설>이, 2001년 세계의 문학 소설 부문에 <비소 여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국내 중견 여성작가로 꼽혔다. <br/><br/>암으로 투병 중이던 그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급성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월 5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6.txt

제목: 정미경 유작 ‘가수는 입을 다무네’, 예술가의 소설이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  
날짜: 20170827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7135850001  
ID: 01100101.2017082713585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지난 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작가 정미경의 유작 장편소설 <가수는 입을 다무네>가 출간됐다. 현재는 페간된 계간 문예지 <세계의 문학>에 2014년 1년간 연재됐던 작품은 작가의 사후에서야 단행본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책에는 작가의 말이 없으며, 글도 추가 수정 작업 없이 연재 상태 그대로 편집됐다. <br/><br/>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록 밴드의 보컬 율과 우연히 그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담게 된 대학생 최이경의 이야기가 소설의 빼대다.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며 재기를 원하는 율은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뭉친 존재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아내 여혜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젊은 뮤지션 호영이 곁에 있음에도 율은 둘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위악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그의 현재는 지독한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 속에 멈춰있고 이경은 이를 카메라에 담는다. 그러나 ‘진짜 삶은 잘려 나간 부분, 아웃테이크 속에 있다’는 소설 속 문장처럼, 시간이 지나며 다루기 힘든 피사체로만 생각했던 율의 삶에서 이경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br/><br/>자신이 구축한 예술적 이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음악가의 삶을 그린 작품은 예술가 소설로 보인다. 문학평론가 김미현은 “<span class='quot0'>소설 속 주인공인 가수 율을 작가 정미경으로 치환시키면 예술가들이 지닌 영광과 상처를 날것 그대로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중에 고치고 싶었겠으나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그녀의 마지막 장편소설은 작가 정미경의 삶 혹은 문학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예술가 소설로 읽힌다</span>”고 평했다.<br/><br/>그러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카메라 안에 미처 다 담지 못하는 율과 이경이라는 인간이 겪는 삶에 할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시 인간에 대한 소설이기도하다. 그렇기에 강지희 문학평론가는 “<span class='quot1'>정미경은 마지막 장편을 통해 예술이 아니라 삶을 향해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span>”라고 말하기도 했다.<br/><br/>정미경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폭설>이 2001년 세계의 문학 소설 부문에 <비소 여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국내 중견 여성작가로 꼽혔다. 암으로 투병 중이던 그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급성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월 5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br/><br/><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77.txt

제목: 남성 발병률 높은 대장암•폐암, 한방암치료로 재발전이 억제  
날짜: 2017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5172249001  
ID: 01100101.201708251722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0만 명당 45명 발병, 조사대상 184개국 중 불명예스런 1위. 이 통계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국내 대장암 발병 수치다. 특히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이 58.7명으로 33.5명인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수년 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br/> <br/>나이가 많아야 암에 걸린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 30-40대 암 환자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다. 여성보다 사회진출이 활발한 남성들의 경우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음주와 스트레스, 흡연 등에 더 노출돼 있어 대장암이나 폐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br/> <br/>의료업계에 따르면 대장암과 폐암은 특별한 징후가 없어 초기 발견이 힘들다. 증상이 나타나 발견되더라도 3~4기 이상으로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다. 또한 두 암은 전이와 재발률이 높은 편이기에 재발과 전이에 대비한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br/> <br/>대장암과 폐암 환자 대부분은 수술이 힘들거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항암은 고통스런 치료과정을 동반한 치료로 유명하다. 강력한 독성을 지닌 항암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구토, 탈모,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환자의 면역력 저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r/> <br/>또한 수술적 절제를 한다 해도 재발률이 20~50%에 이른다. 대장암의 경우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국소 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전신으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항암치료에 내성이 생겨 가뜩이나 고통스런 치료가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완치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br/> <br/>이에 전문가들은 대장암, 폐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위해서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한방암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업계에서 한방암치료로 관심 집중되고 있는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근본적으로 암 발생을 막는 치료를 시행 중에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한방암치료는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해준다"며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암 완치는 어렵다. 이때는 한의학적 요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br/>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제제 치종단이 눈길을 끈다. 치종단은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특허 받은 한방제제로, 다양한 성분들이 암의 전이와 재발방지를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특히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br/><br/>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대장암과 폐암 모두 발병률이 높은 암인 만큼 평소 검진을 통해 빠른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발병 이후엔 암세포의 전이, 재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암을 얼마나 빠르게 치료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1-178.txt

제목: 인기 현대홈쇼핑 ‘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 식약처 ‘합격’으로 안전성 확인  
날짜: 2017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5152452001  
ID: 01100101.20170825152452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다는 꽃, 바로 히비스커스이다. 고대로부터 여신에게 바치는 꽃이라 하여 클레오파트라 등이 즐겨먹었다는 히비스커스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다이어트 기능성분인 HCA, 갈산, 카테킨, 히비스커스산 등이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및 지방의 체내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br/>또한 항산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딸기의 약 100배, 슈퍼푸드로 알려진 마퀴베리의 30배나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야말로 다이어트부터 항산화효과까지 보유한 만능식품이라 불릴 만 하다.<br/><br/>그런데 이렇게 인체에 유익한 히비스커스가 인기몰이를 하며 국내로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히비스커스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과 8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히비스커스 가공품에 대하여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하였고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 중 보문트레이딩㈜의 ‘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만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보문트레이딩의 ‘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는 EU유기농 획득 및 홈쇼핑 아로니아 신드롬을 일으킨 ‘슈퍼베리 아로니아’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마이크로스트럭처 폴란드 공장에 많은 설비투자를 한 것은 물론 대표이사가 매달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관리로 금속성 이물질 ‘불검출’ 성적을 받아 ‘판매적합’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사의 꼼꼼한 품질검사까지 통과한 제품이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br/><br/>또한 최근에는 히비스커스 판매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여 매달 5~10명의 소아암환자들이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직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br/><br/>한편 보문트레이딩의 ‘유기농 로젤 히비스커스’는 현대홈쇼핑에서 18회 방송 및 9회 매진 등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며 8월 27일 07시 50분 현대홈쇼핑에서 방송 판매 예정이다. 미녀탤런트 김윤경이 출연하여 히비스커스를 섭취하는 본인의 관리비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179.txt

제목: "촛불 시위에 감명...대통령 탄핵하는 방법 알려달라"...방한한 미 페미니스트 작가 리베카 솔닛  
날짜: 20170825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5140256001  
ID: 01100101.2017082514025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span class='quot0'>친구들에게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을 배워오겠다고 말했다.</span>” <br/><br/>‘맨스플레인’(남성이 여성의 무지를 전제하고 아는 척 설명하는 행동)이란 신조어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 리베카 솔닛(56·사진)이 25일 한국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솔닛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창비서교사옥 50주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는 여성의 권한을 빼앗고 과거의 성역할로 여성을 복귀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남성중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모 촛불시위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촛불시위로 성공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한국민들이 비법을 전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2015년 한국에 번역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국내 페미니즘 도서 열풍의 신호탄이 됐다. 솔닛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여성혐오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도 했다.<br/><br/>신간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창비)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솔닛은 25일부터 대중 강연 등을 벌인다. 이 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솔닛이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여성혐오 살인, 여성을 배제하는 문학작품, 코미디, 역사까지 다채로운 주제에 관해 쓴 11편의 글들을 담고 있다.<br/><br/>다음은 일문일답.<br/><br/><br/><br/>-젊은 페미니스트들의 특징이 뭐라고 보나.<br/><br/>“큰 틀에서 보면 페미니스트 세대 간의 이견은 없다고 생각한다.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강남역 사건), 인도 버스 집단강간, 미국 대학캠퍼스 내 강간 등을 향해 젊은 여성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역량을 활용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실천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와 도구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또 인종이나 성차별,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지점에서 교차하는지를 포착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br/><br/><br/><br/>-책에서 언급하는 ‘강간의 문화’를 놓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br/><br/>“현재 백악관은 강간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전통적인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다. 남성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여성의 권한을 빼앗고 과거의 성역할로 여성을 복귀시키려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했음에도 당선됐다. 트럼프가 당선된 일은 그로테스크하고 부끄럽다.”<br/><br/><br/><br/>-한국 페미니스트들에게 연대의 메시지가 있다면. <br/><br/>“역사를 긴 호흡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다. 수가 늘어나면 힘도 커질 것이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들이 추구할 것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간 남성들이 해 온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 해결은 모두를 위한 해방이다.”<br/><br/><br/><br/>-‘맨스프레인’ 이후 다른 신조어를 만들 계획은 없나 <br/><br/>“사실 내가 맨스플레인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2008년 한 여성 블로거가 내 에세이에 대한 답글에서 사용했다. 최근엔 ‘프리빌리비어스(privilivious:‘특권(privilege)’과 ‘망각하는(oblivious)’의 합성어)‘라는 말을 만들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지 전혀 모르는 현상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념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단어들이 대두하리라고 생각한다.”<br/><br/><br/><br/>-페미니즘 외에도 반전주의, 환경보호 등 여러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br/><br/>“15년간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승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를 위한 해방’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의 공통분모다. 페미니즘도 인권운동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기 살상 위협, 전통적 전쟁, 가정폭력, 빈곤이나 불평등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 나같은 사람은 책이나 지적 아이디어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영감을 느낀다.”<br/><br/><br/><br/>-저출산·저성장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해방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br/><br/>“미국도 여성들에게 출산과 커리어개발을 모두 부담지우는 경향이 나타난다. 만약 보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있고 남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성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제가 정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미니즘 맥락 속에서 여성이 평등한 관계를 쟁취한다면 여성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br/><br/><br/><br/>-<걷기의 인문학> 책 서문에서 촛불시위를 언급했다.<br/><br/>“조너선 셸이라는 정치학자가 저서 에서 ‘비폭력운동은 20세기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에서도 비폭력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연대와 결집의 순간에 사람들 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때 역사적 순간, 변혁의 순간이 된다. 촛불시위로 성공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행운을 빌어달라. 비법을 전수해주기를 바란다.”<br/><br/><br/><br/>-지난 미국 대선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br/><br/>“우리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웃음). ‘퍼펙트 스톰’에 비견될만큼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수많은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이다. 선거 자체도 러시아의 개입,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상당히 부패한 채로 전개되었다. 여성혐오 정서도 심각했고, 주류언론들도 문제였다. 의사가 우리에게 암에 걸릴 확률이 10~20%라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트럼프가 10~20%의 지지율 보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는데, 이런 상황속에 미국민들이 더욱 깨어있게 되었다. 버니 샌더스의 경우, 무상의료 분배정책 등 샌더스의 정책들은 지지하지만, 그가 경선을 큰 차이로 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샌더스가 정당한 후보인 것처럼 생각했다. 미국 좌파 진영 내에서도 많은 여성혐오가 있었고, 이는 트럼프와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것 같다. 언제 종식이 될 지 모르겠지만 어서 끝나기를 바란다. 페미니즘은 모든 인간의 해방을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다. 인종차별, 동성애, 경제적 불평등 등 다른 문제들과 연대한다면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0.txt

제목: 일제 강제 동원 만행 추적하는 일본인 작가…EBS1 ‘기록작가 하야시…’  
날짜: 20170824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4144833001  
ID: 01100101.2017082414483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일본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작업을 기록한 다큐 영화. 하야시 에이다이의 아버지는 전쟁 중 징용된 조선인 탄광 노동자들의 탈출을 도와주다 발각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br/><br/>소년 하야시 에이다이는 그후 ‘비국민’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기록작가로서 한평생 권력에 저항하는 삶을 살게 했다. 국익 추구와 전쟁 수행을 위해 인명을 경시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는 역사를 망각하고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br/><br/>하야시 에이다이는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 여성 노동자, 조선인 광부들이 눈물 젖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넘었다는 아리랑고개, 주인을 알 수 없는 조선인들의 묘와 유골 등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삶을 취재한다. 조선인 광부를 죽인 일본인 노무 관리인은 몇 십 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고백한다. 하야시 에이다이는 암 투병 중인 지금도 여전히 펜을 놓지 않고 있다. <br/><br/>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출품작. 방송은 25일 낮 12시45분.<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1.txt

제목: 간암 치료제 효능 증진, 동물실험 성공  
날짜: 20170823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3164450001  
ID: 01100101.2017082316445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카이스트·서울대 공동 연구팀<br/><br/><br/>국내 연구진이 간암·신장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소라페닙’(Sorafenib)의 효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조광현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왼쪽)팀과 윤정환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오른쪽)팀은 간암 세포 내 특정 효소의 활성을 막는 약물을 함께 투여하면 소라페닙의 효능을 높일 수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br/><br/>연구진은 간암세포 치료에 쓰이는 유일한 승인 약물인 소라페닙이 20~30% 정도의 환자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하고 대부분의 경우 내성으로 효과가 없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생물학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스템생물학적 분석으로 암세포 내 단백질인 ‘이황화 이성질화 효소’가 소라페닙에 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 효소를 차단했을 때 소라페닙의 효능이 크게 증가함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소라페닙과 단백질 이황화 이성질화 효소 차단제를 같이 처리할 경우 간암 증식 억제에 상승효과가 있음을 관찰했다.<br/><br/>조광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전통적인 생물학 연구로 수십년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시스템 생물학으로 밝혀낸 사례로 암 표적 치료제 작용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고 밝혔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2.txt

제목: 풀어키운 닭 몸에도 맹독성 DDT 나왔다···흙목욕 과정에 흡수된 듯  
날짜: 20170823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3110933001  
ID: 01100101.20170823110933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계란에서 맹독성 농약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지역 농가의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당국은 해당 농가가 옛 과수원 부지에서 닭을 자유롭게 키워온 점을 들어 토양에 오염된 DDT가 닭의 체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하고 있다.<br/><br/>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DDT가 검출된 2개 농장의 닭 12마리를 검사한 결과, DDT가 나왔다.<br/><br/>경산의 박모씨 농장의 경우 4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닭의 잔류허용기준치(0.3㎎/㎏)를 초과한 0.453㎎/㎏의 DDT가 나왔다. 영천의 이모씨 농장에서는 닭 8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0.410㎎/㎏의 DDT가 검출됐다. 두 농장의 나머지 닭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0.050∼0.236㎎/㎏의 DDT가 검출됐다.<br/><br/>친환경 인증을 받아 계란을 생산해온 두 농가의 양계장은 예전에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키우던 곳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당국은 주목했다. 이들 농가는 그동안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DDT 등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북도 등 당국은 농장주가 닭을 자유롭게 풀어 키워온 점을 들어 닭이 오염된 흙에서 목욕을 하거나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DDT가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br/>앞서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이들 2개 농장의 계란에서 DDT가 나온 바 있다. 당시 DDT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계란의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였기 때문에 생산된 계란은 일반계란으로 출하가 허용됐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계란 출하를 자체 중단했다.<br/><br/>한국전 후 미국 등에서 들어온 DDT는 살충제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다가 1973년부터 금지됐다. 인체에 흡수되면 암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br/><br/>당국은 반감기(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50년 정도로 아주 긴 DDT가 과수원 당시 뿌려진 뒤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본다.<br/><br/>이번 DDT 검출을 계기로 앞으로 땅 위에 닭을 풀어 키우는 ‘동물복지형’ 양계장을 만들 때는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3.txt

제목: ‘이주여성들 충남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뛴다’…충남도 67명 코디네이터 양성  
날짜: 20170822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2182912001  
ID: 01100101.201708221829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돼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지원한다.<br/><br/>충남도는 도내 이주여성 67명이 단국대병원과 함께 운영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했다고 22일 밝혔다.<br/><br/>수료생들은 중국와 일본, 러시아, 베트남, 몽골 출신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여성들 가운데 선발돼 8주간의 교육을 받았다.이들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암 질환 환자의 치료·관리, 건강검진·치과진료, 온천과 연계한 수중재활체조,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br/><br/>충남도는 앞으로 이들이 모국에서 건너온 환자와 가족들의 통역, 의료상담, 진료지원, 관광안내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충남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주여성들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해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4.txt

제목: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 4700억원 배상하라”  
날짜: 20170822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2134330001  
ID: 01100101.2017082213433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ㆍ미 법원, 존슨앤존슨에 관련 소송 최고액 판결<br/><br/><br/><br/>글로벌 기업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회사 측이 4억1700만달러(약 4745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br/><br/>미국에서 제기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회사 측은 과학적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br/><br/>미국 로스앤젤레스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에바 에체베리아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br/><br/>에체베리아는 1950년대부터 매일 여성 위생용품으로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탤크(활석)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탤크는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목욕제품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br/><br/>하지만 탤크의 원물질에 석면이 포함돼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에선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br/><br/>에체베리아는 소장에서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며 회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암 유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span class='quot0'>그는 난소암으로 죽어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20~30년간 존슨앤존슨 제품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을 뿐</span>”이라고 말했다.<br/><br/>앞서 지난 5월 미 미주리주법원 배심원단도 베이비파우더를 쓴 여성이 난소암에 걸려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에 1억10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3월에는 베이비파우더 사용과 암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5.txt

제목: ‘건강해진다는데…’ 맨발로 걷는 사람들  
날짜: 20170822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2111225001  
ID: 01100101.2017082211122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KBS1 ‘생로병사의 비밀’<br/><br/>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맨발이면 청춘이다’라는 주제로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발 건강에 대해 알아본다.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성인병 판정을 받았던 이영욱 경위(56).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지만 10여 년간의 맨발 걷기를 통해 지금은 마라톤을 완주할 만큼 건강해졌다. 7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백설희씨(52) 역시 맨발 걷기 실천 후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등 발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신발이 발달했음에도 발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br/><br/><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는 저서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있는 대니얼 호월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본다. 그는 10년째 모든 생활을 맨발로 하고 있다. 맨발로 각종 운동을 하는 맨발 동호회 ‘뉴욕 인우드 베어풋’ 그룹의 모습도 살펴본다. 방송은 23일 오후 10시.<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6.txt

제목: [‘살충제 계란’ 파문]전문가 “살충제 계란, 만성독성 문제” “매일 2.6개 먹어도 해 없다”는 식약처  
날짜: 20170821  
기자: 김경학·김기범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1223347001  
ID: 01100101.201708212233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난각표시 위변조 처벌 강화…먹거리 피해 집단소송 도입<br/><br/><br/><br/>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검출된 5개 살충제 성분은 인체에 해를 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독성학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일 먹는 달걀은 1회 섭취나 급성 독성만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span>”며 반박하고 나섰다.<br/><br/>식약처는 21일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상위 97.5%)가 살충제가 가장 많이 나온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살충제 5종의 위해를 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은 평생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고, 피프로닐은 매일 2.6개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span>”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은 추가로 위해평가를 할 계획이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span class='quot2'>DDT도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보면 위해 우려는 없어 보인다</span>”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계란에 찍히는 난각번호 표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br/><br/>그러나 독성학 전문가들이 포함된 환경보건학회는 이날 “<span class='quot0'>식약처와 일부 전문가 집단의 급성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이 학회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만성독성 영향”이라며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0.003㎎/㎏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만성)허용섭취량은 15분의 1인 0.0002㎎/㎏”이라면서 “피프로닐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큰 만큼 급성독성이 약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span class='quot3'>피프로닐은 갑상샘계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체중이 10㎏에 못 미치는 아이의 경우 하루 1개만 먹어도 만성독성에서 최대 허용섭취량에 근사한 수치가 나온다</span>”고 말했다. 환경보건학회는 “현재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서만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계란이 어떤 살충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실제 농가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모두 회수해 유해성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김경학·김기범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7.txt

제목: [단독]환경보건 전문가들 "살충제 계란 안전하다" 정부 발표에 반박 성명  
날짜: 20170821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1222834001  
ID: 01100101.2017082122283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살충제 계란’에서 현재까지 검출된 독성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 발표를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독성학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정부의 살충제 계란 관련 발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한국환경보건학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식약처와 일부 전문가 집단의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며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학회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만성독성 영향”이라며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0.003 mg/kg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만성)허용섭취량은 15분의 1인 0.0002 mg/kg”이라면서 “피프로닐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큰만큼 급성독성이 약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살충제 계란에서 주요 독성물질로 문제가 된 피프로닐은 갑상샘계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체중이 10kg에 못 미치는 아이의 경우 하루 1개만 먹어도 만성독성에서 최대허용섭취량에 근사한 수치가 나온다</span>”고 말했다. 갑상선 교란은 영유아 건강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보건학회는 “계란 살충제 노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 대해서만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계란이 어떤 살충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는 이어 “실제 농가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모두 회수해 유해성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살충제 방제 작업 직후에는 계란에 훨씬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출량은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 학회는 또 고섭취군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뿐 아니라 “<span class='quot1'>오염된 계란의 유통망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소비자의 노출과 위해성 평가</span>”를 실시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환경보건학회는 정부가 “<span class='quot2'>불충분한 부분적 정보를 토대로 계란 살충제 섭취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공포</span>”하고 있다며 “<span class='quot2'>소통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span>”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재발 방지책으로 “생산현장과 유통 및 소비 단계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누어져있는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는 식품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HACCP의 사후관리체계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원화된 안전 관리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생산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축산용 살충제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건강영향 정보 공개, 소통망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정부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실태 조사에도 소극적이었던 2012년 자비를 들여 피해자 발굴, 원인 조사 등에 나섰던 전문가 집단이다. 당시 이 학회 소속 학자들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방관 속에서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전국 돌며 피해자 만나고 주머니 털어 연구 경향신문 2016년 5월 7일자 보도). <br/><br/><br/>\* 이하 환경보건학회 성명 전문<br/><br/><br/><br/>계란 살충제 오염 파동에 대한 (사)환경보건학회의 입장<br/><br/><br/><br/>계란은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한해 평균 250개를 소비하는 식품으로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가 자주 먹기 때문에 계란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계란 살충제 오염 사태는 우리의 식탁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국가의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망에 큰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생활환경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배웠다. 계란 살충제는 여러 맥락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닮았다. 정부의 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소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계란 살충제 오염 파동은 우리의 식탁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명백히 드러낸다.<br/><br/><br/><br/>(사)한국환경보건학회는 계란 살충제 오염 사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br/><br/>1. 이원화된 관리행정으로 사각지대 발생. 계란 잔류 살충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식품위생 안전 관리망이 생산, 유통 및 소비 단계에 따라 이원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큰 이유이다.<br/><br/>2. 의약외품 관리 체계의 허점. 허가된 닭 진드기 방제약제 14종 이외에 농가에서 방제효과가 좋고 더 독한 살충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허가된 방제약제 조차도 생산현장의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되어 있었다.<br/><br/>3. 축산물 안전 및 위생 감시체계 실패. 계란 등 축산물의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살충제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감시체계가 실패했다. 현장과 연계되지 않은 감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br/><br/><br/><br/>계란 살충제 오염 사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br/><br/>1. 계란 살충제의 만성적인 영향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식약처와 일부 전문가 단체는 일상적 수준으로 계란을 섭취하는 경우 ‘급성 독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극단적인 고섭취군을 대상으로 산정한 식약처의 8월 21일 발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발표는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경계한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강피해는 만성독성 영향이다. 예를 들어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신경독성에 근거한 것으로 0.003 mg/kg이다. 한편 암원성에 근거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기구에서 정한 (만성)허용섭취량은 급성독성참고치보다 15배 낮은 0.0002 mg/kg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프로닐의 광분해 산물은 더욱 안정하며 독성도 더 크다. 급성독성이 미미함만을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출 관리 및 건강영향 조사 등이 뒤따라야 한다.<br/><br/>2. 계란 살충제 노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살충제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현재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 대해서만 계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생산현장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모두 추적해야 한다. 농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방제용 약제 제품을 전수 회수하여 포함된 유해 살충제 성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란 모니터링이 추가되어야 한다. 살충제 방제 작업 직후에는 계란에 훨씬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출량은 더 클 수도 있다. 현장에서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계란의 살충제 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 <span class='quot1'>오염된 계란의 유통망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소비자의 노출과 위해성 평가</span>를 통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br/><br/>3.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이 요구된다. 계란 살충제 파동에 대한 식약처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불필요한 걱정이라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정당한 우려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우리는 해당 살충제들의 급성독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만성독성영향이 우려되는 섭취량을 제시하고 잠재적 고노출군의 건강피해를 추적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br/><br/><br/><br/>계란 살충제 오염 파동을 계기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식탁 안전.위생망을 근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br/><br/>1. 생산현장과 유통 및 소비 단계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누어져있는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는 식품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HACCP의 사후관리체계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원화된 안전 관리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는 상존한다.<br/><br/>2. 생산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축산용 살충제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허가된 방제약제는 더이상 판매되지 않거나, 빈 양계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제약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br/><br/>3. 투명하고 객관적인 건강영향 정보 공개, 소통망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정부에서 계란 살충제 오염 사실을 즉각 공개하고 대책을 강구한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span class='quot2'>불충분한 부분적 정보를 토대로 계란 살충제 섭취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공포</span>했다. 성급한 안전진단을 결론내리면서도 분석에서 누락된 살충제가 연이어 나왔고 유통이력추적 제도의 허점이 노출되는 등 국민을 혼란스럽고 걱정하게 했다. <span class='quot2'>소통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span>이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원한다.<br/><br/><br/><br/>계란 살충제 사태는 우리의 식탁이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식 동물사육 등에 대한 검토 등 축산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계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br/><br/><br/><br/>2017년 8월 21일<br/><br/>(사)한국환경보건학회<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88.txt

제목: [사설]농가는 속이고 정부는 DDT 은폐 의혹, 누굴 믿어야 하나  
날짜: 2017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1211749001  
ID: 01100101.20170821211749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 대응도 모자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 420곳을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1곳, 충남 2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추가로 검출돼 부적합 농장이 52곳으로 늘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부적합 계란 35만개가량이 빵이나 훈제계란 등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br/><br/>농식품부는 경북 영천과 경산에 있는 농장의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197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DDT 성분이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과 마비, 경련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농약이다. 반감기(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최대 50년에 달해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span class='quot0'>영천과 경산의 농장에서 검출된 DDT는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계란 유통을 허용했다</span>”고 했지만 이런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4~5월 충남 홍성의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이를 즉각 공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사태를 키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뒤에도 늑장 대처와 엉터리 통계, 농장 명단 오기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장이 ‘부적합’으로 발표돼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br/><br/>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span class='quot1'>가축사육 환경 개선과 식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span>”고 지시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참사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언론사: 경향신문-1-189.txt

제목: 피프로닐은 안 되고, 맹독성 살충제 DDT는 되고...정부 '2중 잣대' 괜찮나  
날짜: 20170821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1155127001  
ID: 01100101.20170821155127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피프로닐은 안 되고, DDT는 되고….<br/><br/>농림축산식품부가 맹독성 살충제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된 계란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그냥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경우라도 해당 농가의 계란을 모두 회수·폐기했지만, 더 인체에 해로운 편인 DDT 등 다른 농약은 그냥 유통시키는 ‘2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br/><br/>정부가 지난 15~17일 실시한 전수검사에서는 8개 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나왔다. 3개 농가 계란에서는 기준치(0.02㎎/㎏)를 초과한 피프로닐이 나왔고, 5개 농가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의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정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3개 농가는 물론 기준치 이내인 5개 농가 계란도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br/><br/>정부는 그러나 DDT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북 영천과 경산지역 2개 농가에서 기준치(0.1㎎/㎏)를 밑도는 0.028㎎/㎏과 0.047㎎/㎏의 DDE(DDT가 체내에 들어간 뒤 변해서 생긴 물질)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들 계란의 유통은 허용했다. 정부는 이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계란을 유통시키기 전에 친환경 마크를 떼도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 친환경만 아니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br/><br/>전수조사 대상 친환경 인증 농가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과 DDT 이외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모두 8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당국은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은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는 점을 들어 검출된 양에 관계 없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농가의 모든 계란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DDT와 비펜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은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경우 친환경 마크를 떼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br/><br/>결국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시에도 출하를 금지시킨 것은 피프로닐 뿐이다. 나머지 농약의 경우는 친환경 마크를 떼고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br/><br/>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성분은 몰라도 DDT의 경우는 검출 사실을 즉시 발표하고 피프로닐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은 DDT 검출 사실을 나흘 동안 알리지 않았다. 피프로닐은 사람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두통, 구토, 복통, 어지럼증, 심할 경우 경련성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T는 암과 마비·경련 등을 일으키고 반감기(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긴 ‘위험한 살충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br/><br/>농식품부는 반감기가 50년 이상으로 알려진 DDT가 1970년대까지 쓰였고, 이 중 일부가 토양 등에 남았을 수 있다는 자료를 냈다. 지금도 DDT가 농축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DDT가 검출된 계란의 유통을 허용해 버렸다. 이유는 ‘기준치 아래’라는 것이다. 피프로닐과는 다른 명확한 고무줄 잣대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0.txt

제목: 식약처는 "안전하다"는데...전문가들 "살충제 계란, 문제는 '만성 독성'" 반박  
날짜: 20170821  
기자: 김경학·김기범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1145652001  
ID: 01100101.201708211456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검출된 5개 살충제 성분은 인체에 해를 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독성학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매일 먹는 달걀의 경우는 1회 섭취나 급성 독성만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span>”며 반박하고 나섰다.<br/><br/> ■빵, 훈제계란으로 유통된 ‘살충제 달걀’ 35만개<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산란계 농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총 52개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달걀 451만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출된 살충제 5종 모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줄 정도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산란계 농가의 ‘난각번호’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식품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br/><br/>식약처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압류된 계란 대부분은 수집·판매업체 보관 단계에서 회수했으며 33만개가량이 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압류됐다. 이 중 3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34만8000개를 공급받아 빵이나 훈제계란 등으로 가공,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이 확인돼 남은 제품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달걀이 학교급식에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br/><br/> ■“하루 36개씩 먹어도 영향 없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1'>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상위 97.5%)가 살충제가 가장 많이 나온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의 위해를 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평생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고, 피프로닐은 매일 2.6개를 먹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span>”고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은 추가로 위해평가를 할 계획이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span class='quot2'>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연맹과 국회 등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계란 살충제에 대해 엄밀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span class='quot1'>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살충제 검사를 했지만 부적합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피프로닐은 계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품목이 아닌데다 관련 정보가 없어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았다</span>”고 설명했다. 난각번호 취합 오류에 대해서는 “판매업체가 육안으로 확인해 기록·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공표 전에 현품 확인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br/><br/>현재 난각번호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표시하지만 농가에서도 표시할 수 있고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1'>현재는 생산지역 시·도와 생산자 이름만 표시하는데, 산란일자나 세척·냉장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생산단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1개 농장에서 여러 코드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농식품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검출된 김제의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는 난각표시조차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난각 표시기준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br/><br/> ■전문가들 “<span class='quot0'>만성 독성이 문제...살충제 모두 조사해야</span>”<br/>식약처 발표에 대해 독성학 전문가들이 포함된 환경보건학회는 “<span class='quot0'>급성독성이 미미하다는 식약처와 일부 전문가 집단의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span>”라고 지적한다. 이 학회는 “우리가 우려하는 건강피해는 만성독성 영향”이라며 “예를 들어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0.003 mg/kg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만성)허용섭취량은 15분의 1인 0.0002 mg/kg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피프로닐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크다”며 “급성독성이 적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갑상샘계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몸무게가 10kg인 아이가 하루 1개만 먹어도 만성 독성에서 최대허용섭취량에 근사한 수치가 나온다. 갑상선 교란은 영유아들의 건강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보건학회는 “현재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 오염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을뿐”이라며 “어떤 살충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가에서 실제 사용하는 살충제를 모두 회수해 유해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염된 계란의 유통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김경학·김기범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1.txt

제목: [‘살충제 계란’ 파문]친환경 농가 2곳 계란서 ‘맹독성 농약’ DDT 검출  
날짜: 20170820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20223810001  
ID: 01100101.20170820223810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정부가 국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농약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성분이 검출됐다. 또 지난 4~5월에 이뤄진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이미 살충제 성분이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br/><br/>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북 영천과 경산지역 2개 농가에서 각각 기준치(0.1㎎/㎏)를 밑도는 0.028㎎/㎏과 0.047㎎/㎏의 DDT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과거 살충제로 사용된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과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며 반감기(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최대 24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7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br/><br/>농식품부는 DDT가 흙 등에 농축돼 있다가 닭의 체내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DDT가 검출된 사실을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DDT가 나온 농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떼고 계란을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br/><br/>농식품부는 지난 4~5월 실시한 계란 유통검사를 통해, 충남 홍성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발표하지 않았다.<br/><br/>한편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곳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이 20일까지 2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일식품’(부산)과 ‘행복담기주식회사’(충북)이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2.txt

제목: [커버스토리]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버림받는다…5년 만의 파업 앞둔 MBC  
날짜: 20170819  
기자: 글 남지원·사진 이준헌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9120100001  
ID: 01100101.20170819120100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ㆍ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의 9년 적폐 끝장낼 각오로 ‘마지막 싸움’<br/><br/><br/><br/> <br/>“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국민들에게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마지막 싸움’이다.” <br/><br/>5년 만에 다시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는 MBC 직원들의 말은 비장했다. 더 이상 공영방송 말살을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달 시작된 제작중단은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로 이어졌다. 일손을 내려놓은 이들이 18일까지 300명 가까이에 이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기를 조율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br/><br/>2012년 MBC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뉴스데스크>가 15분으로 축소 편성되고 <무한도전>이 전파를 타지 못하는 사이, 사측은 대체인력을 뽑아 빈자리를 메우면서 파업 집행부 등 6명을 해고했다. 부당한 징계·전보는 5년 동안 일상이 됐다.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땅에 떨어졌다. 이 파행은 정권에 줄을 댄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정권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언론의 공정성과 비판 기능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의식과 여론의 건강한 통로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br/><br/>다시 마이크와 카메라를 놓고 거리로 나서려는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나서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지난 5년 MBC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수없는 싸움을 벌였다. 보도국 신지영 기자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부장의 글을 카톡으로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았고, 23년 경력의 김범도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밀려나 ‘저성과자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안에서 힘겹게 싸워왔다. 을 지키려 애쓰던 김현기 PD와 동료들은 결국 제작거부의 불을 댕겼다. 지난해 경영진의 실토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듯이 2012년 “증거도 없이” 해직된 박성제 기자는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며 앞으로 달라질 MBC의 미래를 꿈꿔왔다. “<span class='quot0'>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버림받겠지만 제대로 싸워서 시민에게 돌아간다면 MBC가 그간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span>”고 그는 말한다. <br/><br/>MBC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노조 소속이 아닌 경력기자들마저 제작중단에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5년의 겨울이 끝나고,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들의 꿈은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MBC의 언론노동자 1700여명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으로 이어진 체제와 적폐를 끝장낼 각오로 마지막 싸움에 나섰다.<br/>▶“경영진 사유한 뉴스, 나도 ‘공범자’였다”<br/>>>신지영 기자는 왜 마이크를 내려놓았나<br/><br/><br/>MBC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중단에 돌입한 지 6일째인 16일. 보도국 편집2센터 <뉴스투데이> 편집부 소속 신지영 기자(36·사진)는 동료들과 아침 팻말 시위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왔다. 어떤 아이템을 골라 어떤 기사를 쓸지 고민하던 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한다. 기자로서의 고민과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이 뒤섞인다. 회사는 정상화될까. 총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월급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정상화될까. 냉장고에 파먹을 건 좀 남아있을까. 신 기자는 2015년 말부터 <뉴스투데이>의 이슈투데이 코너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그는 말한다. 징계 후 ‘유배지’로 쫓겨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적어도 보도국 소속으로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br/><br/>신 기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5월 초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진 사건을 두고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은 “<span class='quot1'>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span>”고 언급한 리포트 초고를 썼다. 신 기자는 자식이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부모들에게 안정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장의 방송을 막을 힘은 없었다. 신 기자는 이 글을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했다. 그는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다. <br/><br/>정직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신 기자는 다행히 보도국 밖으로는 밀려나지 않았다. 사회1부와 문화부를 거쳐 현재 부서로 왔다. 직접 취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언론노조원’과 마찬가지로 정치부나 사회부 법조팀 같은, 흔히 언론사의 핵심 부서라고 여겨지는 곳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차장대우 승진은 동기들보다 1년 늦었다. 업무 때문이 아닌 것을 알기에 모욕적이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순간은 많았다. 어떤 후배는 정기인사철도 아닌데 보도국 바깥으로 전보됐다. 이유는 누구도 몰랐다. 5년 전 파업 때 앞장선 선배들과 현장에서 양심을 지키려 애쓴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마이크를 빼앗기고 보도국에서 사라졌다. “<span class='quot0'>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MBC 소속이었다면 광주에 가지 못한 채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다.</span>”<br/><br/>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촛불이 한창 타오를 때 신 기자가 리포트를 쓰는 ‘이슈투데이’는 한 번도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다. 아이템을 제출하면 시청률이 안 나올 것 같다거나, 주시청자층과 동떨어진 주제라는 대답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돌아왔다. 그는 때때로 자신도 ‘공범자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 역시 경영진이 사유(私有)한 뉴스의 들러리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MBC 기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이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를 줄줄이 공개하며 제작을 중단했을 때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동료들을 대기발령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br/><br/>급기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공개됐을 때 신 기자는 ‘여기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노예임을, 호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지난 10일 저녁 모인 보도국 기자 81명은 만장일치로 제작중단을 결의했다. “<span class='quot0'>많이 맞은 사람은 누가 손만 들어도 움찔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상태였다.</span>” 2012년 파업 이후 100명 넘는 구성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부당전보를 당한 MBC에서, 지난 5년간 ‘제작중단’ 같은 적극적 저항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5년 전과 지금은 마음가짐이 다르다. “사실 5년 전에는 막연히 파업을 해야 하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작중단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른 구성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지, 기자총회에서 찬반 토론은 오가지 않았다. 시기와 방법만 논의했을 뿐이다.<br/><br/>신 기자는 “MBC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현장에서 지켜봐왔다. 이래서는 안되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에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span class='quot0'>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공영방송이 정권 색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 뉴스가 시청자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노력하겠다.</span>” 노조는 24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한다. 가결되면 MBC 구성원 1700여명은 5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다. <br/><br/><br/><br/>▶“파업 후 마이크 뺏기고 세트장에 발령”<br/>>>김범도 아나운서가 본 MBC 아나운서 잔혹사<br/><br/><br/>지금은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일보다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피켓을 드는 일이 더 많지만 한때는 MBC의 얼굴이었다. 1994년 입사해 MBC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인 을 6년간 진행했고, 월드컵과 올림픽 MC·앵커도 여러 번 했다. 김범도 MBC 아나운서(51·사진)의 얼굴이 방송에서 사라진 지 5년이다. <br/><br/>MBC 구성원 상당수가 2012년 파업 후 상처를 입었다. 그중 가장 상처입은 조직 중 하나로 아나운서국을 꼽는다. 파업 당시 50명이 안됐던 아나운서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퇴사하거나 전보당했다. 지난 17일 아나운서들은 또 환송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뉴스투데이> 앵커에서 경질된 뒤 열 달 동안 ‘벽만 보고 지내다’ 퇴사한 김소영 아나운서를 보내는 자리였다.<br/><br/>한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섭외에서 묵살된 횟수를 50번까지 세고 그만뒀다고 했다. 또 다른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연합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제지당했다. 박혜진, 오상진, 문지애 등 MBC의 ‘스타’ ‘간판’이라 불리던 아나운서 12명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다 떠밀리듯 회사를 나갔다. 심의실과 주조정실, 사회공헌실처럼 아나운서가 필요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10명이나 된다. 김범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국 바깥으로 쫓겨난 선후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성공시대>로 방송대상까지 받은 변창립, <우리말 나들이>를 만든 주역 강재형, MBC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선숙, 탁월한 뉴스 전달력을 갖춘 최율미, 아나운서대상 장기범상까지 받았던 김상호, 아나운서연합회장을 하다 쫓겨난 신동진, 신뢰감을 주는 앵커 박경추, 지적이고 다양한 방송을 했던 차미연, 두말할 것 없는 스타 아나운서 손정은, <신입사원>을 통해 시청자가 뽑은 오승훈. 이 기라성 같은 선후배들이 모두 아나운서국 바깥에 있다.” <br/><br/>반면 회사 편에 선 이들은 승승장구했다. 2012년 파업에서 빠져나간 뒤 기자로 전직한 배현진 앵커는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앵커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은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직 중이다.<br/><br/>김범도 아나운서는 7월3일 ‘전보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서야 아나운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MBC 내 ‘최다 부서이동 최다 저성과자’ 기록을 가졌다. 2012년 파업이 끝나고 마이크를 빼앗겼고, 경인지사 인천총국을 거쳐 ‘신천교육대’라 불리던 신천 MBC아카데미에서 ‘브런치 만들기’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 뒤에는 용인의 드라마세트장으로 발령났다. 2013년 4월 가처분소송에서 이겨 잠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한 적도 있었다. 심야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이 주어졌다. 당시 담당 PD가 자율성을 보장한 덕분에 그는 조심스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주행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아나운서협회장을 맡아 피켓시위 등에 참여한 뒤 또 다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됐다.<br/><br/>MBC는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내 일을 주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인사고과 최하점인 R등급을 주는 일을 반복해왔다. 김 아나운서는 R등급을 4번 받았고, 저성과자로 분류돼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언론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그는 말했다. <br/><br/>그사이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뽑아 아나운서국에 배치했다. 매시 정각의 라디오뉴스는 심지어 아나운서가 아닌 사람들이 읽는다. 아나운서들은 뉴스를 진행한 뒤 자기 이름을 대는 ‘네임사인’을 하지만 이들의 뉴스에는 네임사인이 없다.<br/><br/>“<span class='quot0'>재계약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도록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아 ‘말 잘 듣는 방송인’ 역할만 시키는 것, 라디오뉴스에 네임사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쓰는 일 모두가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말살하려는 것</span>”이라고 그는 말했다. “뉴스를 누가 읽는지도 모르게 방송하는 MBC는 언론사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성향이 다른 원로 선배들도 이 일에는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MBC 아나운서 27명은 18일 아침부터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김 아나운서는 “<span class='quot2'>특히 앵커를 맡고 있던 동료들이 편향된 뉴스를 읽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했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지난 파업 때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먼저 이탈자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탈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span>”고도 했다. 지난 5년간 아나운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br/><br/>그는 언젠가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 라디오뉴스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5년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방송인으로서는 보여준 것이 없지만 언론인으로서는 가장 화려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br/><br/><br/><br/>▶“이번엔 제대로 싸워 과오 용서받을 것”<br/>>>해직기자 박성제가 꿈꾸는 MBC의 미래<br/><br/><br/>“<span class='quot0'>이번에 제대로 뭔가 해내지 못하면 버림받겠지만, 이번에 제대로 싸워서 시민을 위한 감시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MBC가 그간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span>” 17일 마주 앉은 MBC 해직기자 박성제씨(50·사진)는 “<span class='quot0'>MBC 구성원들이 이번에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걸 던져서 싸워야 한다</span>”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송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 적당히 타협한다면 정말로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br/><br/>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성제 기자는 2012년 6월20일 최승호 PD와 함께 해고됐다. 박성호 기자 등 파업 집행부 4명에 대한 해고도 불법이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도 아니었고 파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닌 박성제 기자와 최 PD를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다. 지난해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는 백종문 현 MBC 부사장이 “<span class='quot3'>최승호와 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span>”는 말을 한 사실이 담겨 있다. 박 기자는 다른 해직자 5명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br/><br/>부당해고 한 달 뒤인 2012년 7월18일 노조는 파업을 접었다.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모든 대선주자와 여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MBC 정상화를 다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업무에 복귀해 보니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혹한 탄압이 돌아왔다. 그는 “<span class='quot3'>우리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허황된 약속을 믿은 채 정치권만 바라본 것이 패인이었다</span>”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에 맡겨둘 생각 말고, 제대로 된 사장을 뽑는 일까지 MBC 구성원들의 힘으로 쟁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박 기자를 비롯한 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복직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참에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언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를 대법원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직도 ‘MBC 좌편향을 견제하려고 종합편성채널을 만들었다’느니 ‘이제야 MBC가 정상화됐다’느니 하는 소리를 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MBC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판례를 만들어놔야 후배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해고 위험 없이 싸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br/><br/>해직기자로 산 지난 5년.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은 암에 걸렸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박 기자가 해고된 자신보다 더 안쓰러워하는 건 회사에 남아 온몸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후배들이다. “<span class='quot0'>술 한잔 하자며 연락해온 후배들로부터 또 누가 쫓겨났다, 누가 부장과 싸우다 인사고과 최하등급을 받고 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새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더라</span>”고 했다. 공영방송 문제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보며 울먹이는 후배도 있었다.<br/><br/>그는 해직 후 스피커 제작업체를 만들었다. 그사이에도 시간을 쪼개 책과 칼럼을 쓰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기자 감각’을 유지하려 애쓴다. 기사를 쓰지 못하는 ‘언론의 경계인’으로서 바라본 미디어의 현실은 해직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시민들은 ‘기레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언론이 권력을 부지런히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뉴스 수용자들은 이제 스스로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한다. 박 기자는 최근 출간한 책 <권력과 언론>에 “<span class='quot4'>해직기자로 보낸 지난 5년은 우리 언론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span>”고 썼다. 그는 “<span class='quot4'>언론이, 특히 공영방송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청와대나 정치권, 재벌, 광고주 등 어떤 권력과도 싸워야 한다</span>”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아도 검찰은 살아남고, 재벌개혁을 안 하면 재벌은 더 잘살겠지만 언론개혁을 안 하면 언론은 생존할 수가 없다. 공영방송은 더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br/><br/>바닥으로 떨어진 MBC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박 기자는 낙관적이다. “손석희 JTBC 사장, 정찬형 tbs 사장, 최승호 PD 같은 언론인을 길러낸 것이 MBC였다. 짓눌리고 쫓겨난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곧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침뉴스팀장으로 일하다 해직된 그는 “기사가 가장 많은 부서의 데스크를 맡아, 후배들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기사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서 “그동안 기사에 너무 굶주렸다”며 웃었다.<br/><br/>박 기자는 “<span class='quot4'>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텨 MBC를 재건할 생각을 하자</span>”고 동료들에게 당부했다. “지금 싸우는 것은 결국 뉴스를 잘 만들겠다고 하는 일 아니겠나. 파업하면서 어떤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토론했으면 한다. 그동안 회사를 떠나지 않고 버텨준 후배들이 고맙다.”<br/><br/> <br/><br/>▶“시민에 죄송스러워 얼굴 못 들고 다녀”<br/>>>제작 거부 불붙인 PD수첩 김현기 PD<br/><br/><br/>MBC 시사제작국 김현기 PD(43·사진)는 으로 ‘입봉’했다. 2005년 한학수 PD가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을 취재할 때 막내 PD로 합류했다. 당시 MBC에는 제작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풍토가 있었다. 어떤 사안을 취재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불합리한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부장과 국장이 방향을 조언하며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광우병 위험성 문제 같은 보도가 그 시기에 나왔다. 이 ‘PD저널리즘’과 탐사보도의 대명사일 때였다.<br/><br/>10년 뒤인 2015년 이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와 보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천지가 개벽한 수준이었다.” 간부들의 사전 허락 없이는 취재도 방송도 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다루겠다고 했더니 “지방의 병원 하나 문 닫는 일에 누가 관심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는 “<100분 토론>에서 점검할 테니 굳이 에서 다룰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당시 <100분 토론>의 제목은 ‘복면시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br/><br/>김현기 PD는 2016년 1월 전 직원의 20%를 희망퇴직으로 감축하려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취재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와 대기발령 대상자 10여명을 단독으로 섭외한 뒤 기획안을 들고 국장실에 들어갔다. 어김없이 제작이 불허됐다. “<span class='quot0'>기업이 경영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아이템이 되느냐</span>”는 이유였다.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했다. ‘이 취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측에서 젊은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취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향이 있었는데, 방송이 나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발했다면 훨씬 영향이 컸을 것이다.” <br/><br/>그가 하고 싶었던 아이템은 이런 방식으로 불허됐다. 사건·사고가 아니면 제작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10년 전 회당 4000만원 언저리였던 제작비는 2000만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span class='quot0'>PD 2명이 한 팀을 이뤄 열흘 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무조건 초과할 수밖에 없는 액수</span>”였다. 제작비가 초과되면 PD들의 인사고과를 깎았다.<br/><br/> 구성원들은 노조 조합원이 절반, 비조합원이 절반이다. 본부장은 ‘중립성’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숫자를 맞췄다고 했다. 아이템 제작이 불허될 때마다 울컥했지만 ‘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빌미로 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독였다. 그럼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순간이 많았다. 세월호 2주기 때였다. 동료 PD와 “<span class='quot5'>1주기 때도 안했는데 2주기에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span>”는 대화를 나누다 회사 밖으로 나갔다. 유가족이 세월호 문제를 방송해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br/><br/> 팀은 지난달 21일부터 제작중단에 돌입했다.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프로그램에서 숱한 순간을 참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이 ‘너희 수장 한상균을 구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br/><br/>“그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시작한 싸움에는 출구전략이 없었다.” 김 PD는 “비제작부서에 전보됐다 돌아온 이영백 PD 등이 자기검열에 매몰돼 있지 않았던 것도 저항할 수 있게 해준 요인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팀이 당긴 불씨는 이제 곧 총파업으로 폭발할 시간을 앞두고 있다. ‘우리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풍선마다 가스가 들어차 있다가 풍선이 먼저 터진 것뿐이다. 우리 때문에 다른 풍선들까지 터진 것이 아니다.”<br/><br/>김 PD는 제작중단 이후 대기발령 2개월을 받았다. 통상 중징계 전에 내려지는 조치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부터 이어진 징계와 전보 속에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자신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이제야 차례가 온 것뿐이다. 그간의 부채의식이 조금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다른 동료나 후배가 아니라 자신이라서 다행이라고도 말했다.<br/><br/>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프리랜서 작가들, 촬영만 마친 채 제작중단에 나서느라 결방된 아이템이 마음에 걸린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이상이 생긴 아이를 취재했다. 아이 부모님이 을 믿고 집안과 아이 모습까지 모두 촬영하도록 허락해줬는데 방송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상황이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방송부터 내보낼 생각이다. 아이 어머니에게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으니 반드시 돌아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김 PD는 힘주어 말했다.<br/><br/><글 남지원·사진 이준헌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3.txt

제목: [MBC 릴레이 인터뷰④]해직기자 박성제가 꿈꾸는 MBC의 미래  
날짜: 20170819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9103324002  
ID: 01100101.20170819103324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국민들에게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마지막 싸움’이다.” <br/><br/>5년 만에 다시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는 MBC 직원들의 말은 비장했다. 더 이상 공영방송 말살을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달 시작된 제작중단은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로 이어졌다. 일손을 내려놓은 이들이 18일까지 300명 가까이에 이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기를 조율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br/><br/>2012년 MBC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뉴스데스크>가 15분으로 축소 편성되고 <무한도전>이 전파를 타지 못하는 사이, 사측은 대체인력을 뽑아 빈자리를 메우면서 파업 집행부 등 6명을 해고했다. 부당한 징계·전보는 5년 동안 일상이 됐다.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땅에 떨어졌다. 이 파행은 정권에 줄을 댄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정권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언론의 공정성과 비판 기능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의식과 여론의 건강한 통로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br/><br/>다시 마이크와 카메라를 놓고 거리로 나서려는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나서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지난 5년 MBC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수없는 싸움을 벌였다. 보도국 신지영 기자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부장의 글을 카톡으로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았고, 23년 경력의 김범도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밀려나 ‘저성과자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안에서 힘겹게 싸워왔다. 을 지키려 애쓰던 김현기 PD와 동료들은 결국 제작거부의 불을 댕겼다. 지난해 경영진의 실토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듯이 2012년 “증거도 없이” 해직된 박성제 기자는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며 앞으로 달라질 MBC의 미래를 꿈꿔왔다. “<span class='quot0'>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버림받겠지만 제대로 싸워서 시민에게 돌아간다면 MBC가 그간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span>”고 그는 말한다. <br/><br/>MBC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노조 소속이 아닌 경력기자들마저 제작중단에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5년의 겨울이 끝나고,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들의 꿈은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MBC의 언론노동자 1700여명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으로 이어진 체제와 적폐를 끝장낼 각오로 마지막 싸움에 나섰다.<br/><br/><br/><br/> <br/><br/>“<span class='quot0'>이번에 제대로 뭔가 해내지 못하면 버림받겠지만, 이번에 제대로 싸워서 시민을 위한 감시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MBC가 그간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span>” <br/><br/>17일 마주앉은 MBC 해직기자 박성제씨(50)는 “<span class='quot1'>MBC 구성원들이 이번에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걸 던져서 싸워야 한다</span>”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송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 적당히 타협한다면 정말로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br/><br/>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 기자는 2012년 6월20일 최승호 PD와 함께 해고됐다. 박성호 기자 등 파업 집행부 4명에 대한 해고도 물론 불법이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도 아니었고 파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닌 박 기자와 최 PD를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그 때도 나왔다. 지난해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는 백종문 현 MBC 부사장이 “<span class='quot2'>최승호와 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지만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들어가든 내가 알 바 아니다</span>”는 말을 한 사실이 담겨 있다. 박 기자는 다른 해직자 5명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br/><br/>부당해고 한 달 뒤인 2012년 7월18일 노조는 파업을 접었다.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기였고, 모든 대선주자와 여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MBC 정상화를 다짐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MBC를 정상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방송사에는 최대 이벤트인 올림픽이 다가온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최소한의 정상화는 이뤄질 거라고 믿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혹한 탄압만 돌아왔다. 그는 “<span class='quot2'>우리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허황된 약속을 믿은 채 정치권만 바라본 것이 패인이었다</span>”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에 맡겨둘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 제대로 된 사장을 뽑는 일까지 MBC 기자들의 힘으로 쟁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br/><br/>파업에서 노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해도 박 기자와 해직언론인들이 당장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MBC 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복직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를 비롯한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계기 삼아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 언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를 대법원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다른 언론인들이 MBC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직도 ‘MBC 좌편향을 견제하려고 종합편성채널을 만들었다’느니, ‘MBC는 정상화됐는데 종편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MBC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판례를 만들어놔야 후배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해고당할 위험 없이 싸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br/><br/>해직기자로 산 지난 5년.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은 암에 걸렸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해고된 자신보다 박 기자가 더 안쓰러워 하는 건 회사에 남아 온몸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후배들이다. “<span class='quot0'>술 한 잔 하자며 연락해온 후배들로부터 또 누가 쫓겨났다, 누가 부장과 싸우다 인사고과 최하등급을 받고 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새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더라</span>”고 했다. 공영방송 문제를 다룬 최승호 PD의 영화 〈공범자들〉을 보며 울먹이던 후배도 있었다.<br/><br/>그는 해직 후 스피커 제작업체를 만들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을 쪼개 책과 칼럼을 쓰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기자 감각’을 유지하려 애쓴다. 기사를 쓰지 못하는 ‘언론의 경계인’으로서 바라본 미디어의 현실은 해직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시민들은 ‘기레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뉴스 수용자들은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언론이 권력을 부지런히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br/><br/>박 기자는 최근 출간한 책 〈권력과 언론〉에서 “<span class='quot3'>해직기자로 보낸 지난 5년은 우리 언론의 비참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span>”고 썼다. 그는 “<span class='quot3'>언론이, 특히 공영방송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청와대나 야당, 보수세력, 재벌, 광고주 등 그 어떤 권력과도 싸워야 한다</span>”고 말했다. 박 기자는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아도 검찰은 살아남고, 재벌개혁을 안하면 재벌은 더 잘살겠지만 언론개혁을 안하면 언론은 생존할 수가 없다. 독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더 그렇다”라고 그는 말했다.<br/><br/> <br/><br/>바닥으로 떨어진 MBC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박 기자는 낙관적이다. MBC가 정상화되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도와 영향력을 생각보다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3'>돈은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벌지 몰라도, 방송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전체 방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3'>MBC도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만 복구되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JTBC 사장, 정찬형 tbs 사장, 최승호 PD 같은 언론인을 길러낸 것이 MBC의 조직문화다. 짓눌리고 비제작부서로 쫓겨난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곧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그 자신도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한다. 박 기자는 부장을 처음 맡아 아침뉴스팀장으로 일하다 파업에 참여했고 곧바로 해직됐다. 그래서 데스크 업무를 경험한 기간이 길지 않다. “<span class='quot0'>기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부서의 데스크를 맡아, 현장이 그리웠던 후배들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기사부터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고 싶다</span>”고 그는 말했다. “<span class='quot0'>그동안 기사에 너무 굶주렸다</span>”며 웃기도 했다.<br/><br/>박 기자는 “<span class='quot3'>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텨서 MBC를 재건할 생각을 하자</span>”고 동료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지금 싸우는 것은 결국 뉴스를 잘 만들겠다고 하는 일 아니겠나. 파업하면서 어떤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많이 토론했으면 한다. 그동안 회사를 떠나지 않고 안에서 버텨준 후배들이 고맙다”고 덧붙였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4.txt

제목: 트럼프 인종차별 옹호에 반발, 경제계 이어 문화계 자문단도 사퇴  
날짜: 20170819  
기자: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9014754001  
ID: 01100101.20170819014754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옹호에 대한 파장이 문화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단 소속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사퇴한 데 이어 문화·인문자문위원들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br/><br/>트럼프 대통령의 문화·인문 자문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span class='quot0'>당신의 말과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한다</span>”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br/><br/>이들은 “당신은 증오의 암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비난하길 거부해 미국을 병들게 하려는 이들을 더욱 대담하게 했다”며 “당신의 말과 행동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br/><br/>이들은 “우월주의, 차별, 독설은 미국의 가치가 아니며 당신의 가치도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면서 “당신에게 이런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당신이 사임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br/><br/>현재 문화·인문 자문위원회에는 배우 칼 펜, 영화감독 조지 울프, 화가 척 클로스, 사진작가 질 쿠퍼 우달, 영화제작자 에릭 오트너 등 1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br/><br/>앞서 일부 자문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인종·성·소수자 등 각종 차별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즉각 사퇴한 바 있다.<br/><br/>문화계 인사들 이전에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회장,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CEO 등을 비롯해 제조업자문위원단(AMC)과 전략정책포럼(SPF)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자문단에서 사퇴한 바 있다.<br/><br/><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5.txt

제목: [‘살충제 계란’ 파문]“영유아가 하루 달걀 2개 먹어도 급성독성 위험 낮아”  
날짜: 20170818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8212127001  
ID: 01100101.201708182121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br/>ㆍ“살충제 독성 1~3개월 체내 잔류…장기 섭취 땐 만성질환 위험 높여”<br/><br/><br/>국내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들의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료계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인체에서 모두 빠져나가는 데 길게는 석 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현재로선 인체 유해성은 낮지만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막고 장기적인 영향을 관찰·연구해야 한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br/>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 위원장은 정부의 농가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모두 독성이 낮은 물질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국내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구토·복통·두통·현기증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간장·신장 같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규정한 잔류 기준치는 0.02㎎/㎏이다. 홍 위원장은 “<span class='quot1'>10㎏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먹더라도 급성독성 참고치의 20% 이하 수준</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비펜트린도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플루페녹수론은 동물 실험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피리다벤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홍 위원장은 “<span class='quot1'>모두 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이며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피리다벤의 반감기는 1~2일인 반면 플루페녹수론은 한 달가량이다. 반감기는 몸 안에 들어온 물질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몸에서 물질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기간은 반감기의 3배 정도다. <br/><br/>홍 위원장은 “<span class='quot1'>플루페녹수론을 뺀 나머지 성분은 일주일 정도면 90% 이상 몸에서 빠져나가며, 한 달이면 다 배출된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1'>당장 암이나 신경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간 먹으면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span>”고 했다. 의협은 “인체 의약품 관리는 식약처, 동물에 대한 약품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데 환경보건 연구와 동물 약품을 통합 관리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6.txt

제목: 까다로운 육종암, 한방 면역암치료 선택 아닌 필수  
날짜: 2017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8174436001  
ID: 01100101.201708181744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병은 ‘암’이다. 여전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암은 종류만 해도 희귀 암을 포함해 100여 종에 이른다.<br/><br/>이와 같이 다양한 암 종중에서도 육종암은 팔 다리 뼈와 근육, 지방조직 등 연부조직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내장기관에 생기는 암과 달리 근육과 지방에 종양이 생긴다. 육종암은 발병 부위에 따라 혈관, 지방, 골육종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되는데, 특히 폐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전이해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킨다. 또한 치료가 매우 힘들어 병원에서도 치료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br/><br/>의학업계에 따르면, 크기가 크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육종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며 항암치료를 받아도 큰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치료 과정에서 항암부작용 및 항암내성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것. 이는 강한 독성의 항암제가 환자의 조혈모세포에 영향을 미쳐 혈액 내 백혈구나 혈소판 등의 수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br/><br/>이처럼 치료가 까다로운 암 질환은 치료에 있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암 환자들이 한방 면역암치료에 주목하고 있는데, 면역암치료에 사용되는 한방제제는 기존 항암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암세포 혈관 신생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br/><br/>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방제제로는 강남푸른숲한의원의 옻나무추출물제제 치종단이 있다. 이는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약으로 옻나무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다. 옻나무추출물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세계 여러 저널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는데, 치종단은 SCI급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014년)에 등재돼 그 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br/><br/>더불어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중병행암관리’를 제시해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암 치료에 힘쓰고 있다. 면역암치료의 일환인 이중병행암관리는 치종단, 치종탕 처방 등의 한방암치료법과 현대의학을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 및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과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육종암처럼 까다로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종단과 같은 옻나무추출물제제는 육종암에 반응율이 좋아 보다 큰 호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오는 8월 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이 가평푸른숲요양병원으로 확장 이전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한 강남푸른숲한의원과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제3병원으로,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암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언론사: 경향신문-1-197.txt

제목: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트럼프 발언은 김정은 수준에 딱 맞는 것"  
날짜: 20170818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8121436001  
ID: 01100101.20170818121436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육사37기·사진)이 “<span class='quot0'>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 위협이 계속되면 불과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바람직한 효과를 거둔 것</span>”으로 평가했다고 한 외신이 전했다.<br/><br/><br/><br/>미 탐파 베이 타임즈는 17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1'>전인범 전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김정은(북한 노동장 위원장)은 실리적인 사람으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span>”고 보도했다.<br/><br/>이 신문에 따르면, 전인범 전 사령관은 “<span class='quot2'>한국 속담에 싸우는 개는 짖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김정은이 미쳤다고 믿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2'>그러나 북한정권은 계산착오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전인범 전 사령관은 “<span class='quot2'>트럼프 대통령의 불과 화염 발언은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박사 수준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그런면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아마도 북한 수준에 맞는 것</span>”이라고 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2'>북한의 극단적인 (협박성) 발언은 (한국 국민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미국에게는 매우 새로운 것으로 느껴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그러나 (한반도에서) 한국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2'>(한국 국민들에게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은) 마치 암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암과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span>”라고 밝혔다.<br/><br/>전인범 전 사령관은 “<span class='quot2'>남한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하갱도에 숨겨져 있어) 최선이 아닐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2'>북한은 지난 70년간 터널을 파왔다</span>”며 “<span class='quot2'>심지어 북한 사람들조차 땅속 터널이 정확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일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2015년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전인범 전 사령관은 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8.txt

제목: 아흔개의 사랑을 던진 사나이…콜로라도 베티스 특별한 복귀전  
날짜: 20170816  
기자: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6214025001  
ID: 01100101.2017081621402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ㆍ암투병 9개월 끝 다시 마운드에 <br/>ㆍ7이닝 90구 한점도 내주지 않아 <br/>ㆍ경기 지켜본 아내·관중 기립 박수<br/><br/><br/>야수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그라운드. 더그아웃에서 투수 혼자 천천히 마운드를 향했다. 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야구장 쿠어스필드.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마운드에 투수가 섰다. “<span class='quot0'>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있었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0'>이것은, 야구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span>”라고 덴버포스트가 전했다.<br/><br/>채드 베티스(28·콜로라도)는 2015년 11월21일, 아내 크리스티나와 결혼했다. 애리조나 스콧데일의 화려한 리조트에서 식을 열었다. 1년 뒤 결혼기념일,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는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함께 있었다. 아내 배안에는 소중한 딸이 자라고 있었고, 남편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퍼지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식사 도중 전화벨이 울렸다. “암이 맞다”는 의사의 통보.<br/><br/>아내 크리스티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슬퍼하지 말자. 우리의 사랑과 함께 할 미래와, 그리고 우리 딸만 생각하자”고 했다. “<span class='quot0'>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span>”<br/><br/>8일 뒤 베티스는 암세포가 자란 한쪽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2월의 어느 날 의사로부터 “<span class='quot1'>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span>”는 전화를 받았다. 베티스는 환호와 함께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다. 2016시즌 14승을 거뒀고, 올 시즌 더 큰 성장이 기대되던 투수였다.<br/><br/>캠프 중이던 지난 3월10일 정기 검진에서 암세포가 림프를 통해 전이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야구가 다시 멈췄다. 3월20일부터 9주 동안 21차례의 화학치료를 받아야 했다. 담당의사는 우완 투수인 베티스를 배려해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았다.<br/><br/>“솔직히 힘들고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21타자 남았다고 생각했다. 한 타자, 한 타자 잡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다. 치료 도중 소중한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힘이 됐다. 몸무게 95㎏은 유지했지만,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었다. 5월16일, 마지막 화학치료 때 머리칼은 물론 눈썹도 사라졌다.<br/><br/>6월부터 재활에 들어갔다. 더블A와 트리플A에서 공을 던졌다. 암 진단 뒤 9개월이 흘렀고, 지난 15일 애틀랜타전 마운드에 올랐다. 팬들은 기립박수로 투병 끝에 돌아온 베티스를 맞았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공을 던졌다. 관중석에서 아내 크리스티나가 그 공 하나하나를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7이닝 동안 안타 6개를 허용했지만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9개월 만에 돌아와 던진 90개는 야구공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다. 팀 동료 놀란 아레나도는 “베티스는 정말 야구를 사랑한다. 그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힘”이라고 말했다.<br/><br/>경기가 끝났다. 0-0에서 내려와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마운드에 오른 것만으로 승리나 다름없었다. 지난 5월 고환암 수술을 받은 피츠버그 투수 제임슨 타이욘이 축하 문자를 보냈다. 신인이던 2006년 희귀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돌아온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 존 레스터도 트윗을 적었다. “헤이, 브러더. 복귀 축하해.”<br/><br/><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199.txt

제목: 보험금 적게 주는 등 보험사들 과징금 대폭 올린다  
날짜: 20170816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6141026002  
ID: 01100101.20170816141026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늘어난다.<br/><br/>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10월19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br/><br/>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부당한 특약에 가입시키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br/><br/>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36건의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예를 들어 2011년말 ㄱ손해보험사는 암 보험 주계약에 일반상해사망·질병사망 등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1만8238건을 운영, 연간 64억4100만원의 보험료를 걷었다. 당시 이 보험사는 3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만약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5.2배인 17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br/><br/>금융위는 반면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올렸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올려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br/><br/>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이 정착되고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1-200.txt

제목: [노명우의 인물조각보]‘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서러움  
날짜: 20170815  
기자: 노명우 | 아주대 교수·사회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5141618001  
ID: 01100101.201708151416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프면 서럽다고 한다. 병원 신세 지고 난 사람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푸념이다. ‘서럽다’는 단어는 신체의 고통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서럽다’에는 병을 앓았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겪은 모든 편치않은 체험이 농축되어 있다. <br/><br/>그 서러움을 아서 프랭크가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에서 털어놓았다. <br/><br/>아서 프랭크는 사회학자다. 그는 병에 걸렸다. 서른아홉에 심장마비를 겪었고 마흔살에는 암환자가 되었다. 암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병원은 그를 ‘환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는 ‘환자’라는 호칭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병치레의 체험을 <아픈 몸을 살다>에 낱낱이 담았다. <br/><br/>이 책을 통해 우리는 암환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니 여전히 사람인 한 인격체가 겪는 서러움에 대해 들을 수 있다.<br/><br/>병원에서 ‘아픈 사람’은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disease)’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자면 ‘514호 암환자’는 흔히 사용되는 환원호칭이다. 의료진이 질환이 인격을 압도하는 환원호칭을 쓴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병원은 인격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질환’을 고치는 기관이며, 의료진은 병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질환’을 관찰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치료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이다. <br/><br/>질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환 덩어리가 아니라 질환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일상의 습관과 강제적으로 이별해야 함을 뜻한다. 직업활동이 정지되고, 사회관계는 축소된다. 자식에게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가 ‘아픈 사람’이 되자마자, 자식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 천성이 새침데기인 사람도 ‘아픈 사람’이 되면 가장 은밀한 행위인 배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아픈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다. 의학적으로 판명되는 혹은 측정되는 고통에 못지않게, 아니 그 고통 이상으로 ‘아픈 사람’은 돌연 변화한 일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른다. <br/><br/>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당혹감을 ‘아픈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질병치료의 전문가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묻지만 ‘아픈 사람’이 겪는 인격의 당혹스러움을 궁금해하지 않다. 심지어 병문안 온 사람조차 질병에 대해 묻지 ‘아픈 사람’의 편치않음에 대해 묻지 않는다. 편치않은 상황은 환자가 당연히 극복해야 하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신체고통에 마음의 불편함이 더해진다. ‘아픈 사람’은 ‘환자’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인간세계로부터 밀려난 듯한 고독감에 힘들어한다.<br/><br/>치료의 전문가는 환자 앞에서 전지전능하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은 무기력하다. 그 치료의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용납하기 힘든 방법으로 환자를 대해도 치료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전방위적 통제기관’인 병원 내에서 환자는 크든 작든 모든 불만을 속으로 삼키는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치료의 전문가인 의료진에게 인간으로서의 당혹감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거나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br/><br/>그래서 더욱 ‘아픈 사람’에겐 계약관계로 고용된 ‘간병인’이 아니라 당혹감 그리고 불편함을 경청해줄 수 있는 사람이 긴요하다. <br/><br/>의료진이 질병 치료를 통해 ‘아픈 사람’을 돕는다면, 돌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절망과 공포와 불평을 원 없이 들어주고 맞장구쳐주는 방식으로 병과 대결한다. 돌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손상된 인격회복을 돕는 조력자이다.<br/><br/>‘아픈 사람’과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질병을 함께 경험한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수술동의서나 연명치료 포기 각서 등을 쓸 때는 ‘보호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서류에 사인이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 쉴 곳도 찾기 힘든 잉여인간이 된다. ‘아픈 사람’의 서러움에 돌보는 사람의 서러움이 더해진다. 자신의 서러움과 그를 돌보는 아내의 서러움을 목격한 아서는 이렇게 말한다. “병원의 공간과 일정은 질환치료를 위해서만 설계되어 있어서 돌보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질병이 삶을 갈가리 찢는 동안 관계들을 지탱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인데도 그렇다.”<br/><br/>2016년 기준 전국 병원 수는 3215개이고 총병상 수는 57만8252개라고 한다. 병원의 수와 총병상 수는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br/><br/>“삼년 간병에 불효”나고, ‘아픈 사람’이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자 그를 돌본 사람이 다시 병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건강정책 논쟁에서 ‘아픈 사람’은 그저 치료의 대상인 ‘환자’일 뿐이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여전히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서러운 사람들이 한가득인데도.<br/><br/><노명우 | 아주대 교수·사회학>